

# 韓國古代史學會

## 제194회 정기발표회

일시 :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13:30 ~ 18:00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2층 강연실

주최 : 한국고대사학회

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 《三國史記》 逸聖尼師今 11년 사치 금령의 성격과 災異論<sup>1)</sup>

서울대학교 강사  
고태진

I. 머리말
II. 「逸聖尼師今 下令」의 災異論의 성격
1) 下令의 실재 여부
2) 下令의 서사 구조와 冬雷
III. 「逸聖尼師今 下令」의 형성과정과 그 함의
IV. 맺음말

### I. 머리말

신라 사치 금령에 대한 자료는 『三國史記』 新羅本紀 逸聖尼師今 11년(144) 봄 2월의 下令(이하 「일성이사금 하령」)과 哀莊王 7년(806) 봄 3월의 下教(이하 「애장왕 교서」), 그리고 雜志에 실려 있는 興德王 9년(834)의 下教(이하 「흥덕왕 교서」)가 전부다. 일단 현전하는 신라 최초의 사치 금령은 「일성이사금 하령」인 것이다.

「일성이사금 하령」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가 農本과 勸農에 대한 강조라면, 후자는 민간의 귀금속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사치와 관련된 부분은 후자로, 여기에는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民間이라는 규제 대상과 金·銀·珠·玉이라는 규제 내역이 명시되어 있어 그 성격을 사치 금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일성이사금 하령」은 上代의 여느 下令과 달리 권농과 사치의 문제를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종래 「일성이사금 하령」에 대한 학계의 접근이 다방면에 걸쳐,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사료적 특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수리시설 보수와 田野 개발은 철제 농기구의 보급과 농경지 확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사례<sup>2)</sup> 또는 재이·재해 대응의 초기적 형태로 풀이되었고,<sup>3)</sup> 사치 금령의 경우는 신라 금속공예의 일면<sup>4)</sup>과 귀금속제 물품에

1) 본 발표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高泰鎮, 2025 「新羅 下代 奢侈 禁令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二장 2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이현혜, 2016 「진한연맹체와 사로국」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2 -신라의 건국과 성장-』,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p.128.  
3) 李基峰, 2016 「統一新羅時代災異와 政治·社會變動」,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04~106; 신지원, 2021 「신라시대 재이(災異) 발생에 대한 국가적 조치와 그 정치적 기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이기봉, 2024 「신라 尼師今 시기 왕권의 추이」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71, 한국세계문화사학회, p.25.

대한 사회 구성원의 선호 양상을 시사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sup>5)</sup> 단 이들 연구에서 「일성이사금 하령」의 자료적 활용은 대개 사료가 전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sup>6)</sup>

한편 오늘날 신라 법제사 연구에서 「일성이사금 하령」의 자료적 활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료에 州郡과 같은 후대의 용례가 확인되어 기년 정보가 의심되는 이상 적극적인 해석을 유보한 것이다.<sup>7)</sup> 흔히 「일성이사금 하령」을 거론할 때 ‘기년상의 논란이 있으나’라는 표현이 상투적으로 따라 붙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sup>8)</sup>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삼국사기』 초기 기사의 신빙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사료 비판 없이 「일성이사금 하령」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후대의 운색이 더해졌는지언정 별다른 고증 없이 「일성이사금 하령」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신라 사회에서 이러한 사치 금령이 어째서 일성이사금대의 상황으로 운위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보급·분식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성이사금 하령」의 역사성을 보다 선명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왕의 연구는 신라 사치 금령의 형성에 있어 신라적 특수성 내지 독자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법령을 통해 사치를 규제하는 행위는 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확인되는 바이며, 동아시아에서 그것을 선도한 존재는 中國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신라의 사치 금령은 중국적 사치 규제라는 ‘보편’에 맞닿아 있었다. 이러한 ‘보편’에 대한 고민은 한국 고대 사치 금령의 전개를 보다 계기적으로 이해하는 데 단초가 될 것이다.

## II. 「逸聖尼師今 下令」의 災異論的 성격

### 1) 下令의 실재 여부

문헌에서 전하는 신라 최초의 사치 금령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1년(144) 봄 2월에 반포된 「일성이사금 하령」이다.

A-1. 11년(144) 봄 2월 下令하기를,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고, 먹는 것은 백성이 하늘로 여기는 것이니, 여러 州郡은 堤坊을 수리·보완하고, 田野를 널리 개간하라”라고 하였다.

4) 李蘭暎, 1992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 일지사, p.31 ; 이송란, 2004 『신라 금속공예 연구』, 일지사, pp.42~43.

5) 김재열, 2024 「4~6세기 신라 귀금속 장신구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91~192.

6) 물론 학계 일각에서는 민간에 대한 귀금속 규제로부터 신라 ‘王室’의 黃金 통제 의지를 읽어내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일성이사금 하령」의 사치 금령은 ‘왕실’의 황금 사용량 증가와 관련되었을 것이라 한다. 다만 고고학적으로 4세기 이전 신라 ‘왕실’ 용품에 황금이 사용된 예는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당시 황금은 주로 원료의 형태로 교역품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한다(이송란, 2004 앞 책, pp.42~43).

7) 高泰鎭, 2019 「新羅 興德王代 金銀器 禁令의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5.

8) 강봉원, 2013 「신라 골품제도와 屋舍에 관한 연구 -‘唐瓦’와 ‘獸頭’를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29, 신라사학회, p.381 ; 이한상, 2021 「가야장신구의 제작기술」 『가야인의 技術』,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pp.316~317.

또 下令하기를, “민간에서 金·銀·珠·玉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라”라고 하였다.<sup>9)</sup>

사료상 「일성이사금 하령」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자가 農本 및 제방 수리, 전야 개발과 같은 勸農에 대한 강조라면, 후자는 민간의 金·銀·珠·玉 사용을 금지한다는 사치 금령의 내용이다.

주지하다시피 「일성이사금 하령」의 사료적 활용 및 의미 부여에는 연구자마다 극단적 차이가 있다. 사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기년상의 논란이 있으나’라는 단서를 달고 극히 제한적으로 인용하거나, 아예 사용 자체를 유보한 것이다. 아마도 「일성이사금 하령」에서 확인되는 용어상의 문제는 후대의 史家들이 앞선 시기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이다.<sup>10)</sup> 다만 州郡과 같은 후대의 용례가 확인될지언정, 별다른 고증 없이 「일성이사금 하령」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왜 이러한 사치 금령이 신라 초기 기사, 그 중에서도 일성이사금 11년 봄 2월 기사에 배치되었는지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우선 「일성이사금 하령」속 사치 금령이 일성이사금 재위 연간에 실재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기원후 2세기 전반 신라 법제의 구체적인 양상은 불분명하지만,<sup>11)</sup> 당시 신라에 사치 금령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한군현을 매개로 중국적 사치 규제의 영향 속에서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漢代는 사회적으로 사치 풍조가 만연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치 규제가 지속적으로 반포된 시기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sup>12)</sup>

이와 관련해 신라(사료국)가 속해 있던 진한 사회는 이른 시기부터 한군현과 교통하고 있었다. 왕망 지황 연간(20~23) 낙랑에 귀부한 辰韓 右渠帥 廉斯鎰 일화는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염사치가 “낙랑의 토지가 아름답고, 인민이 풍요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낙랑에 귀부하였다는 내용이나,<sup>13)</sup> 귀부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親中國의 서사는 中華 이념에 근거한 윤색일 가능성이 크다.<sup>14)</sup> 다만 염사치 이외에 건무 20년(44) 낙랑에 조공 바친 廉斯人 蘇馬謨의 존재나<sup>15)</sup> 3세기 한군현에 朝謁하던 광범한 韓人의 존재를 염두에 둘 때,<sup>16)</sup> 진한 사회와 낙랑군의 교류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경주 조양동 38호묘, 사라리 130호묘, 탑동 1호묘

9)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十一年, 春二月, 下令, 農者政本, 食惟民天, 諸州郡修完堤坊, 廣闢田野. 又下令, 禁民間用金銀珠玉”

10) 전덕재, 2018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pp.46~50.

11) 진한 맹주로 거듭나기 이전 신라(사료국)의 법제를 소국 단위의 자체법이라는 측면에서 ‘소국법’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소국법’의 특징은 처벌 방식의 집단성과 종교적 성격인데, 제정 미분리 시기 신정법의 유혼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들 ‘소국법’은 소국이 관할하는 범위 안에서 통용된다는 점에서 局地性を 띤다. 이후 사료국의 법은 이사금기와 마립간기를 경과하면서 국지성을 해소하고, 신라 국가의 고대법으로 수렴되어나갔다고 한다(김창석, 2020 『왕권과 법』, 지식산업사, pp.54~69).

12) 丁筱媛, 2004 「漢代奢華風氣之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pp.211~217.

13) 『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 “漢時屬樂浪郡, 四時朝謁. 魏略曰, ... 至王莽地皇時, 廉斯鎰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

14) 田鎮國, 2017 「三韓의 실체와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pp.112~115.

15) 『後漢書』 권85, 東夷列傳75 韓, “建武二十年, 韓人廉斯人蘇馬謨等詣樂浪貢獻[廉斯, 邑名也. 謨音是]. 光武封蘇馬謨爲漢廉斯邑君”

16) 『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에서 산견되는 漢鏡과 호형대구는 기원후 1세기 신라(사로국)의 유력자와 한군현 사이의 교류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sup>17)</sup>

한편 前漢 元封 3년(기원전 108) 설치된 낙랑군은 미천왕 14년(313) 고구려에 의해 축출되기 이전까지 漢 제국의 군현으로 한반도 서북부에 위치하였다. 특히 낙랑 지역에서 출토되는 기년명 칠기는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 낙랑군과 중국 내지의 활발한 교류 양상을 입증한다. 이들 칠기에서 확인되는 기년 정보는 始元 2년(기원전 85)으로부터 永元 14年(102)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여기에는 때때로 중국 내지의 행정 개혁 내용이 반영되기도 했다.<sup>18)</sup> 중국 내지의 정치 변동이 낙랑군으로 유통되는 사치품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중국 내지와 한군현, 그리고 신라(사로국) 사이의 연결 고리를 설정할 수 있다면 「일성이사금 하령」의 母法으로 동 시기 중국의 사치 규제를 고려해볼 직하다. 「일성이사금 하령(144)」 이전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반포된 後漢代 사치 규제는 아래와 같다.

B-1. 永初 元年(107) ... 가을 9월 경오에 삼공에게 詔하기를, “옛 법령[舊令]을 밝히고 알려 사치를 금지할 지니 헛되이 꾸민 물건[浮巧之物]을 만들거나, 재물을 소진하여 厚葬하는 것을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sup>19)</sup>

B-2. (元初) 5년(118) ... 가을 7월 ... 병자에, 조서를 내렸으니, “옛 법령[舊令]과 제도에 는 각기 科品이 있어, 백성으로 하여금 힘써 절약을 숭상하기를 바랐다. ... 小人은 염려 하지 않고 장구함을 도모하지 않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과 葬事지내는 일[嫁娶送終]을 번잡하고 화려하게 하니, 심부름꾼[走卒]과 노비들도 비단[綺縠]을 입고 구슬[珠璣]을 착장 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이 오히려 이와 같다면, 무엇으로써 사방의 먼 곳을 가르치겠는가? 法禁을 세워 펼치고 ... 또한 다시 거듭 되풀이하여, 살펴봄으로써 후세가 본받게 하라”고 하였다.<sup>20)</sup>

위의 두 사료는 후한 안제 재위 연간에 반포된 詔書로 만약 「일성이사금 하령」이 실재했다면 신라(사로국)에서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치 규제다. 먼저 永初 元年(107)의 사치 규제는 불필요하게 장식한 물품과 厚葬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내용상 「일성이사금 하령」과의

17) 이한상, 2022 『신라의 성장 과정과 복식사여체계』, 서경문화사, pp.28~49.

18) 낙랑 출토 기년명 칠기의 주요 기년으로는 “始元 2年, 地節 4年, 永光 元年, 河平 3年, 陽朔 2年, 永始 元·3年, 綏和 元年, 建平 4年, 元始 元·2·3·4·5年, 居攝 3年, 初始 元年, 始建國 元·5年, 始建國 天鳳 元年, 建武 5·7·18·21·28·30年, 永平 11·12·14年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기환, 1992 「漆器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pp.252~300이 참고된다. 단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낙랑구역 통일거리 조성 과정에서 15,000여점의 유물이 추가로 수습되었다고 하므로 (윤용구, 2010 「낙랑·대방지역 신발견 문자자료와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7, 한국고대사학회, p.48) 여기서 제시한 기년명 칠기의 상하한에는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최근 평양 정백동·정오동 출토 기년명 칠기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낙랑 칠기 명문에는 지명 변천 뿐 아니라, 시기별 官吏의 명칭 변화도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오택현, 2023 「평양 정백동·정오동 출토 낙랑 문자자료」 『목간과 문자』 29, 한국목간학회, pp.239~241).

19) 『後漢書』 권5, 孝安帝紀5, “永初元年 ... 秋九月庚午, 詔三公明申舊令, 禁奢侈, 無作浮巧之物, 殫財厚葬”

20) 『後漢書』 권5, 孝安帝紀5, “五年 ... 秋七月 ... 丙子, 詔曰, 舊令制度, 各有科品, 欲令百姓務崇節約. ... 而小人無慮, 不圖久長, 嫁娶送終, 紛華靡麗, 至有走卒奴婢被綺縠, 著珠璣. 京師尚若斯, 何以示四遠. 設張法禁 ... 且復重申, 以觀後效”

접점은 적다. 다음으로 元初 5년(118)의 사치 규제에서는 科品으로 대표되는 分限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세간의 번잡한 의례와 비단[綺縠]·구슬[珠璣] 등의 사치스러운 복식에 대한 황제의 경계가 확인된다. 그러나 이 조서에서는 황제의 法禁 제정 취지가 강조될 뿐 有司를 통해 고안되었을 법령의 구체적인 면모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일성이사금 하령」의 주요 내용은 農本과 勸農, 민간에서의 金·銀·珠·玉 사용 금지다. 따라서 언제 연간의 사치 규제를 「일성이사금 하령」의 母法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대신 「일성이사금 하령」과 매우 유사한 사치 규제는 이보다 훨씬 앞서 존재했다. 전한 경제 後 3년(기원전 141) 정월, 황제가 붕어하기 직전에 내린 조서가 바로 그것이다.

B-3. 後 ... 3년(기원전 141) 봄 정월에 詔하여 말하기를,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 黃金·珠·玉은 굶주려도 먹을 수 없고, 추위도 입을 수 없는데, 재물로 여겨진 것의 그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다. 격년으로 혹 곡식이 여물지 않았는데도 상공업[末者]에 뜻있는 무리가 많았고, 농민이 적었다. 그 郡國으로 하여금 농사와 누에치는 것을 힘써 권하고, 나무를 더욱 심는다면, 가히 입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관리들이 백성을 징발하는 것이 마치 庸을 취하듯 하여 黃金·珠·玉을 채굴하려 한다면, 사사로이 강제로 재물을 걷은 죄[坐臧=坐贓]를 도둑질한 죄로 삼아라. 2,000석의 관리로서 허락한 자도 같은 죄를 주어라”고 하였다.<sup>21)</sup>

위의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가 내린 조서에는 農本에 대한 관념과 勸農, 黃金·珠·玉의 채굴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고, 이는 「일성이사금 하령」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양자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일성이사금 하령」은 전한 경제의 사치 규제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경제의 조서는 「일성이사금 하령」보다 약 300여년 가량 앞서 반포되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2세기 전반 신라 사회에 「일성이사금 하령」이 실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후한 안제의 사치 규제보다도 훨씬 앞 시기의 사치 규제가 선택적으로 활용되었다면, 이는 중국 典籍이 수입된 이후의 사료적 보입 내지 粉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성이사금 하령」은 어떠한 맥락에서 일성이사금 11년 봄 2월 항목에 배치되었던 것일까? 필자는 이 문제를 災異論의 측면에서 풀어나가고자 한다.

## 2) 下令의 서사 구조와 冬雷

「일성이사금 하령」의 粉飾 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고대 동아시아 사치 규제의 재이론적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전한 경제 후 3년 정월의 사치 규제는 災異論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동아시아의 사치 규제는 유형적인 면에서 크게 災異論과 分限論으로 구분된다.<sup>22)</sup> 특히 동아시아 사치 규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漢代 사치 규제의 초기 형태는 재이에 대한

21) 『漢書』 권5, 景帝紀5, “後 ... 三年, 春正月, 詔曰, 農, 天下之本也. 黃金珠玉, 飢不可食, 寒不可衣, 以爲幣用, 不識其終始. 間歲或不登, 意爲末者衆, 農民寡也. 其令郡國務勸農桑, 益種樹, 可得衣食物. 吏發民若取庸采黃金珠玉者, 坐臧爲盜. 二千石聽者, 與同罪”

22) 이와 관련해서는 高泰鎮, 2025 앞 논문, 二장 1절에서 상술하였다.

대응이라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상은 기본적으로 董仲舒의 天人感應論에 입각한 것이다. 동중서는 하늘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喜怒哀樂의 심기를 지녔고, 그러한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서로의 행위에 부응한다고 여겼다.<sup>23)</sup> 특히 국가의 존망과 관련하여 하늘은 국가 운영에 잘못이 발생할 경우 災異를 드러내어 미연에 경고한다고 한다. 하늘은 기본적으로 어질고, 인간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sup>24)</sup> 이러한 재이의 발생은 비단 국가 정책뿐 아니라 군주 개인의 성품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는데,<sup>25)</sup> 이른바 군주수신론은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황제들은 때때로 재이에 임해 자책 조서를 반포했다. 前漢 文帝 2년(기원전 179) 11월과 12월에 일식이 연이어 발생하자 황제는 스스로를 책망하는 내용의 조서를 반포했다.

C-1. 2년 ... 11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12월 보름에 또 일식이 있었다. 황제가 말하길, “짐은 아래로는 백성[羣生]을 잘 다스리고 기르지 못하고, 위로는 삼광의 밝음에 누를 끼쳤으니, 그 부덕함이 크다. 솜이 이르기늘, 짐의 과실 및 지혜와 견식, 뜻이 이르지 못한 바를 모두 생각하여 짐에게 고하여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 正月에 황제가 말하길,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니, 그 籍田을 개간하고, 짐이 친히 밭 갈기를 이끌어 종묘에 쓸 곡식[粢盛]을 공급하려한다”고 하였다.<sup>26)</sup>

文帝는 일식이라는 재이 발생의 원인을 자신의 不德에서 구했다. 文帝의 자책 조서는 이후 하나의 전례가 된 것 같은데, 전한 元帝 때에는 16년의 재위 기간 동안 10차례나 자책 조서가 반포되었다.<sup>27)</sup> 물론 전한 말기에 이르면 일·월식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재이의 중요한 표상이었던 일식과 월식이 천체의 규칙적인 운행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연 재이론 자체에 관한 관심도 점차 형해화하여 이후 재이는 政爭의 도구로 전락하다시피 했다.<sup>28)</sup> 다만 황제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었을지라도 재이의 발생에 짝하여 황제의 조서가 반포되는 양상은 그 뒤로도 하나의 정형을 이루었다.

한편 동중서는 “오행의 번고가 이르면 마땅히 덕으로써 구제해야 하니, 천하에 베풀면 재앙이 사라진다”<sup>29)</sup>라고 하여 재이의 해결책으로 德을 제시했다.<sup>30)</sup> 위정자의 德을 강조하는 동중

23) 『漢書』 권56, 董仲舒傳, “仲舒對曰 ... 臣謹案春秋之中, 視前世已行之事, 以觀天人相與之際, 甚可畏也”

24) 『漢書』 권56, 董仲舒傳, “仲舒對曰 ... 國家將有失道之敗, 而天乃先出災害以譴告之, 不知自省, 又出怪異以警懼之, 尚不知變, 而傷敗乃至. 以此見天心之仁愛人君而欲止其亂也”

25) 『漢書』 권56, 董仲舒傳, “臣聞天之所大奉使之王者 ... 及至後世, 淫佚衰微, 不能統理羣生, 諸侯背畔, 殘賊良民以爭壤土, 廢德教而任刑罰. 刑罰不中, 則生邪氣. 邪氣積於下, 怨惡畜於上. 上下不和, 則陰陽繆戾而妖孽生矣. 此災異所緣而起也”

26) 『史記』 권10, 孝文本紀10, “二年 ... 十一月晦, 日有食之. 十二月望, 日又食. 上曰 ... 朕下不能理育羣生, 上以累三光之明, 其不德大矣. 令至, 其悉思朕之過失, 及知見思之所不及, 句以告朕 ... 正月, 上曰, 農, 天下之本, 其開籍田, 朕親率耕, 以給宗廟粢盛”

27) 范麗敏, 2007 「天人感應思想與漢代的社會保障制度」(2016 『漢代文化研究論文集 第二輯』, 大象出版社, pp.210~211에 재수록).

28) 李成珪, 1993 「中國 古代 皇帝權의 性格」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아카데미, pp.63~64.

29) 『春秋繁露』 五行變救, “五行變至, 當救之以德, 施之天下, 則咎除. 不救以德, 不出三年, 天當雨石”; 이와 유사한 내용은 『漢書』 권56, 董仲舒傳, “臣聞天之所大奉使之王者, 必有非人力所能致而自至者, 此受命之符也. 天下之人同心歸之, 若歸父母, 故天瑞應誠而至 ... 孔子曰, 德不孤, 必有鄰, 皆積善業

서의 재이론은 漢代 사치 규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앞서 살펴본 전한 경제 후 3년(기원전 141) 정월의 조서를 사례로 검토해보자.

C-2. 後 3년, 겨울 10월(기원전 142)에 일식과 월식이 있었는데, 붉었던 것이 5일이었다. 12월 그믐날에 천둥이 쳤다. 태양이 紫色과 같았다. 五星이 역행하여 大微를 지켰다. 달은 天廷의 가운데를 관통하였다.<sup>31)</sup>

『한서』 경제기에 의하면 경제는 後 3년 봄 정월(기원전 141) 권농과 사치에 관한 규제를 반포했다(B-3). 그런데 『한서』 경제기와 五行志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사기』 경제본기와 『자치통감』에는 조서 반포 직전인 後 3년 겨울 10월과 12월에 다수의 재이가 발생했다고 전한다.<sup>32)</sup> 경제의 조서는 비록 자책 조서의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재이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조서의 시작이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農天下之本也]”인 것을 통해 유추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文帝의 경우도 재이에 임해 자책 조서와 더불어 봄 정월에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로 시작하는 조서를 반포하였기 때문이다(C-1). 이처럼 漢代에는 재이에 대한 대응 조서에 勸農이 상투적으로 강조되었다. 그런데 경제의 조서에서는 文帝의 그것과 약간 다른 면모가 확인된다. 바로 권농 이외에 黃金·珠·玉으로 대표되는 사치품의 無用을 강조하고, 그것의 채굴을 규제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백성이 농사에 전념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권농의 일환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경제의 조서에 黃金·珠·玉으로 대표되는 사치재가 주요한 화두로 거론되었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전한 경제 후 3년 정월의 사치 규제가 災異論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일성이사금 하령」의 분식 문제에 접근해보자. 「일성이사금 하령」이 전한 경제의 사치 규제를 참고하여 후대에 분식되었을 것이라 추정은 비단 내용상의 유사성뿐 아니라, 서사적 측면에서도 입증된다.

사서에서 확인되는 두 사치 규제(A-1·B-3)의 직전 상황을 살펴보자.

---

德之效也。及至後世，淫佚衰微，不能統理羣生，諸侯背畔，殘賊良民以爭壤土，廢德教而任刑罰。刑罰不中，則生邪氣，邪氣積於下，怨惡畜於上。上下不和，則陰陽繆戾而妖孽生矣。此災異所緣而起也”라든지, “故春秋之所譏，災害之所加也。春秋之所惡，怪異之所施也。書邦家之過，兼災異之變，以此見人之所爲，其美惡之極，乃與天地流通而往來相應，此亦言天之一端也。古者修教訓之官，務以德善化民，民已大化之後，天下常亡一人之獄矣”에서도 확인된다.

30) 정해왕, 2013 「董仲舒의 天人感應說과 그 政治性」 『동양문화연구』 16,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pp.213~214.

31) 『史記』 권11, 孝景本紀11, “後三年十月, 日月皆食, 赤五日. 十二月晦, 雷. 日如紫, 五星逆行守太微. 月貫天廷中”; 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은 『資治通鑑』 권16, 漢紀8 孝景皇帝下, “景帝後三年 ... 冬, 十月, 日月皆食, 赤五日. 十二月晦, 雷. 日如紫, 五星逆行守太微. 月貫天廷中”에서도 확인된다.

32) 연호는 같지만 景帝 시기의 歲首는 10월이기 때문에 後 3년 겨울 10월(기원전 142)의 동되는 조칙이 내려진 後 3년 정월(기원전 141) 보다 이전의 일이다. 이후 漢의 歲首는 武帝 太初 元年 5월에 正月로 바뀐다(『漢書』 권6, 武帝紀6, “太初元年 ... 夏五月, 正曆, 以正月爲歲首”).

[표 1] 사치 규제와 冬雷의 발생

사치 규제	직전 상황
일성이사금 하령(144)	(일성이사금) 10년(143) ... 겨울 11월, 천둥이 쳤다. <sup>33)</sup>
경제 후 3년(기원전 141)의 조서	(경제) 後 3년(기원전 142) ... 12월 그믐날에 천둥이 쳤다. 태양이 紫色과 같았다. 五星이 역행하여 大微를 지켰다. 달은 天廷의 가운데를 관통하였다. <sup>34)</sup>

먼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일성이사금 하령」 반포 직전 기사는 겨울 천둥(이하 冬雷)이었다. 이 冬雷는 『후한서』 본기와 오행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중국 사료의 전제라기보다는 신라 고유 전승에 의거한 서술이라 여겨진다.<sup>35)</sup> 다음으로 전한 경제의 조서가 내려지기 직전 사건은 12월 그믐의 기상이변으로 그 시작을 알린 災異는 雷, 즉 冬雷였다. 그렇다면 「일성이사금 하령」과 경제의 사치 규제 사이에는 冬雷라는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사치 규제는 내용상의 유사성뿐 아니라, 서사적인 측면에서도 재이론의 성격을 공유한 것이다.

종래 학계에서 「일성이사금 하령」과 冬雷의 관계에 천착하지 못했던 이유는 冬雷가 갖는 재이적 성격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찍이 『後漢書』 五行志의 재이 분류체계를 신라사에 대입하는 과정에서 冬雷의 사례를 추출한 연구가 있었지만, 해당 연구는 지마이사금 17년(128) 이래의 몇 가지 冬雷 사례를 소개한 뒤 “... 등 무수한 동뢰 기사를 찾을 수 있다”는 언급을 하는 데 그쳤다.<sup>36)</sup> 이후 冬雷는 일반적인 雷와 구분되지 않은 채 일괄 번개·천둥으로 묶여 이해되는 추세이다.<sup>37)</sup>

그런데 오늘날 학계의 인식과 달리 전근대 사회에서 冬雷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고 중국사에서도 그 연원은 오래되었다.

D-1. 秦始皇帝가 즉위했을 때는 아직 어려서 太后에게 국정을 위임했는데, 태후는 呂不韋 및 嫪毐에게 빠져 노애를 봉해 長信侯로 삼고, 太原郡을 노애의 封國으로 삼으니, 궁실과 동산이 제멋대로 되고, 정사가 농단 됐다. 그러므로 하늘이 겨울에 천둥[冬雷]을 쳤는데 양기가 가두어지지 않아[陽不禁閉] 위해에 이르렀음을 보인 것이니, 태만함으로 따듯함이 닳쳐와 발생한 이변이었다.<sup>38)</sup>

33)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十年 ... 冬十一月, 雷.”

34) 『史記』 권11, 孝景本紀11, “後三年 ... 十二月晦, 雷. 日如紫. 五星逆行守太微. 月貫天廷中”

35) 일성이사금 10년(143)에 해당하는 『후한서』 순제본기 漢安 2년 12월조에는 “是歲, 涼州地百八十震”이라는 내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震의 뜻에는 천둥과 지진이 모두 포함되지만, 바로 이어지는 건강 원년(144) 춘 정월기사의 조서에는 “땅이 180차례 흔들려, 山谷이 터지고 찢어지며, 城寺가 무너졌다 [地百八十震, 山谷坼裂, 壞敗城寺]”는 내용이 있어 당시 발생한 震이 지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후한서』 오행지에는 순제 재위 연간의 동뢰 기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36) 李熙德, 1980 「三國史記에 나타난 天災地變記事의 性格」 『동방학지』 23: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81~83.

37) 기상청, 2011 『한국 기상기록집① -삼국사기·삼국유사로 본 기상·천문·지진 기록-』, 기상청, pp.121~122 ; 단 최근 고려사 연구에서 재이의 정치적 활용과 관련해 ‘겨울 천둥’을 언급한 사례가 있어 추후 冬雷에 대한 의미 부여가 본격화되리라 본다(채웅석, 2022 「고려시대사 연구와 재이(災異) 사료의 활용」 『한국중세사연구』 71, 한국중세사학회, p.27).

D-2. 劉向은 “周歷 3월은 지금의 正月이니, 비가 내리거나 눈과 비와 섞여 내리는 것이 마땅하고, 천둥 번개는 일어날 수 없다. 이미 (천둥 번개가) 일어났다면, 눈이 다시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모두 절기를 잃었으므로 災異라 한다. 『易』에 의하면 천둥은 2월에 출현하고 그 괘는 豫이니, 만물이 천둥소리를 따라 땅 위로 나오는 것을 말하며 모두가 즐긴다는 것이다. 8월에는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괘는 歸妹이다. 천둥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땅 속으로 들어가면 식물의 뿌리를 기르고 동면하는 벌레[蟄蟲]를 保藏케 하여 盛陰의 해를 피하게 한다. 땅 밖으로 나오면 꽃과 열매를 길러 자라게 하고, 잠복한 기운을 일으켜 盛陽의 덕을 베푼다. 속으로 들어가면 해로움을 제거하고, 밖으로 나오면 이로움을 일으키니 人君의 형상이다”라고 여겼다.<sup>39)</sup>

D-3. 安帝 永初 6년(112) 10월 병술, 郡 여섯 곳에 겨울 천둥이 쳤다. 『京房占』에서 말하길, “하늘이 겨울 천둥을 치면, 땅에서는 반드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길, “教令이 어지러워진다”고 하였다. 또 말하길, “천둥은 11월에 黃鍾을 일으키고, 2월에는 크게 소리 내며, 8월에는 숨어든다. 이에 봄과 여름에 무고한 이를 죽이거나, 겨울에 형벌 행하는 것[冬刑]을 기다리지 않으면, 재앙에 이르러 동면하는 벌레[蟄蟲]가 나와 행동하니, 이를 막지 않으면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 이듬해 병질이 생긴다.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어린 고아를 구휼하고, 부족한 이를 구제하며, 獄刑을 심의하고, 처벌[譴罰]을 용서하는 것이니, 재앙이 곧 소멸한다”고 하였다.<sup>40)</sup>

먼저 冬雷는 천인감응론의 입장에서 失政에 대한 天의 경고로 해석되었다. 『한서』 오행지는 동뢰가 陽氣를 가두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위정자의 태만함이 따뜻한 기운을 몰고 와 발생한 이변이라 하였다(D-1).

동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서술은 『한서』 오행지에 인용된 前漢 劉向의 冬雷 인식에서 확인된다(D-2). 유향은 천둥은 2월에 출현하여 8월에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므로 節氣에 어긋난 冬雷는 재이라 하였다. 그에 따르면 절기에 맞는 천둥은 2월에 땅으로부터 나와 잠복한 기운을 일으켜 꽃과 열매를 기르고, 8월에는 땅 속으로 들어가 동면하는 벌레[蟄蟲]를 잘 保藏하여 그들이 찬 기운에 깨어나 위해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한다고 한다.

한편 『후한서』 오행지에 劉昭注의 형태로 인용된 『京房占』에는 冬雷의 원인뿐 아니라 그것

38) 『漢書』 권27, 五行志中之下, “秦始皇帝即位尚幼, 委政太后, 太后淫於呂不韋及嫪毐, 封毐爲長信侯, 以太原郡爲毐國, 宮室苑囿自恣, 政事斷焉. 故天冬雷, 以見陽不禁閉, 以涉危害, 舒輿迫近之變也”; 일부 해석은 權珉均, 2022 「『漢書』 「五行志」 譯註 VII」 『중국사연구』 138, 중국사학회, pp.211~213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9) 『漢書』 권27, 五行志中之上, “劉向以爲周三月, 今正月也, 當雨水, 雪雜雨, 雷電未可以發也. 既已發也, 則雪不當復降. 皆失節, 故謂之異. 於易, 雷以二月出, 其卦曰豫, 言萬物隨雷出地, 皆逸豫也. 以八月入, 其卦曰歸妹. 言雷復歸. 入地則孕毓根核, 保藏蟄蟲, 避盛陰之害. 出地則養長華實, 發揚隱伏, 宣盛陽之德. 入能除害, 出能興利, 人君之象也”; 표점 및 일부 해석은 권민균, 2021 「『漢書』 「五行志」 譯註 IV」 『중국고중세사연구』 61, 중국고중세사학회, pp.317~319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0) 『後漢書』, 志15 五行3, “安帝永初六年十月丙戌, 郡六冬雷. 京房占曰, 天冬雷, 地必震. 又曰, 教令擾. 又曰, 雷以十一月起黃鍾, 二月大聲, 八月闔藏. 此以春夏殺無辜, 不須冬刑致災. 蟄蟲出行, 不救之, 則冬溫風, 以其來年疾病, 其救也, 恤幼孤, 振不足, 議獄刑, 賞譴罰, 災則消矣”; 일부 해석은 洪承賢, 2020a 「『後漢書』 「五行志」 譯註 VI」 『중국사연구』 129, 중국사학회, pp.200~201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으로부터 야기된 재앙을 막는 방책까지 언급되어 주목된다(D-3). 『경방점』은 前漢 京房의 저술이다. 경방의 역서는 『한서』 오행지와 『후한서』 오행지에 광범하게 인용되었다. 비록 양적인 면에서 볼 때 인용 횟수는 『한서』가 많지만, 『한서』 오행지에서 재이 해석의 방법론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경방의 역서는 『후한서』 오행지에 이르러 유일한 방법론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경방의 역학이 재이 해석에 주류가 된 것이다.<sup>41)</sup>

『경방점』에서 말하는 冬雷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後漢書』 五行志 所引 『京房占』의 冬雷 서술

구 분	해 석	비 고
京房占曰	하늘이 冬雷를 치면,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난다.	冬雷의 결과
又曰	冬雷는 敎令을 어지러워지게 한다.	冬雷의 결과
又曰	雷는 11월에 黃鍾을 일으키고, 2월에는 크게 소리 내며, 8월에는 숨는 것이 정상이다.	정상적인 雷
	만약 봄과 여름에 무고한 이를 죽이거나, 겨울을 기다리지 않고 형벌을 행하면 冬雷가 일어나 동면하는 벌레가 행동하고, 이듬해 병질이 생긴다.	冬雷 발생의 원인과 결과
	冬雷로 인한 재앙을 없애려면 고아를 구휼하고, 부족한 이를 구제하고, 옥형을 심의하고, 처벌을 용서해야 한다.	冬雷로 인한 재앙의 해결책

典據 : 『後漢書』, 志15 五行3 所引 『京房占』

위의 표에 의하면 정상적인 雷는 2월에 크게 소리를 내며 출현했다가 8월에 사라지는 것으로 유향의 발언(D-2)과 일치한다. 그리고 雷가 11월에 일으킨다는 黃鍾의 의미는 班固의 『白虎通義』 권3, 五行 항목의 서술로 미루어 볼 때 “陽氣가 黃泉의 아래에서 움직여 만물을 기르는 것”이다. 즉 11월에 황종을 일으키는 雷는 이미 땅 속에 숨어 들어가 이로운 역할을 하는 정상적인 雷인 것이다.<sup>42)</sup>

하지만 만약 봄과 여름에 무고한 이를 죽이거나, 겨울을 기다리지 않고 형벌을 집행하면 그것이 단초가 되어 冬雷가 발생한다. 이는 위정자의 실정이 동뢰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한서』 오행지의 내용과도 통하는 바이다(D-1). 특히 『경방점』은 동뢰의 결과로 지진의 발생, 敎令의 어지러움, 병질의 발생을 이야기했다. 여기서 병질의 발생은 유향의 인식(D-2)과 함께 고려할 때, 정상적인 雷의 작용으로 동면해야 할 벌레[蟄蟲]가 冬雷에 깨어나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방점』은 동뢰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구휼과 구제, 형벌에서의 공정한 심의와 사면을 거론했는데, 이는 동중서가 재이에 대한 대응으로 德을 강조한 것과 일치하여 주목된다. 한편 『경방점』에서 말하는 冬雷 관련 서술은 月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41) 洪承賢, 2020b 「『續漢書』 「五行志」 災異 해석의 특징」 『중국고중세사연구』 57, 중국고중세사학회, p.113 및 pp.122~123.

42) 黃鍾은 12樂律 중 첫 번째 律로 11월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오행과 관련하여 반고의 『백호통의』의 해석을 참고하여 풀이하였다(『白虎通義』 권3, “五行者 ... 月令云, 十一月律謂之黃鍾何, 中和之色, 鍾者動也, 言陽氣動於黃泉之下, 動養萬物也”).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이상의 내용이 漢代의 冬雷 인식이라고 할 때 전한 경제 後 3년(기원전 141) 봄 정월의 사치 규제는 바로 직전 발생한 冬雷에 대한 조정의 대응이라 여겨진다. 전한 조정은 백성의 먹을거리를 고민하여 농사를 권장하는 한편, 관리가 사사로이 백성을 동원하는 것을 막고자 황금·주·옥의 無用을 운운하는 사치 규제를 반포, 德治를 펼친 것이다.

이러한 사치 규제의 재이론적 성격은 「일성이사금 하령」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일성이사금 하령」 역시 직전에 발생한 冬雷에 대한 대응으로 백성의 먹을거리를 고민하고, 권농을 명하며, 사치 금령을 통해 사회 단속을 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일성이사금 하령」은 冬雷에 대한 신라 조정의 대응이라는 서사에서 일성이사금 11년 봄 2월 항목에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일성이사금 하령」의 재이론적 성격은 이 사료의 보입 및 분식 시점, 그리고 사서에의 전재 과정을 유추하는 데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한다.

### Ⅲ. 「逸聖尼師今 下令」의 형성과정과 그 함의

「일성이사금 하령」 기사는 冬雷라는 재이에 대한 대응의 서사에서 후대에 보입·분식되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는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을까? 우선 그 시점과 관련하여 高麗 이후는 일단 차치하여도 좋을 것이다. 새로운 왕조의 개창자인 고려의 지식인들이 하대 말이라면 모를까, 신라 국초의 재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와 관련된 서사로서 사치 금령을 굳이 중국 典籍에 기초해 일성이사금대에 배치하였을 개연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일성이사금 하령」의 보입은 기본적으로 천인감응론과 오행, 특히 재이에 대한 숙지 및 漢代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용한 자료는 역시 中國 正史類였을 것이다. 정사에는 여러 황제의 사치 규제 조서는 물론, 오행지를 통해 재이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필자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사기(C-2)』·『한서(B-3)』·『후한서(D-3)』, 이들 세 종류의 史書는 「일성이사금 하령」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그중에서도 『후한서』 오행지는 동뢰를 표제어로 제시한 최초의 사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sup>43)</sup>

사료상으로 『사기』와 『한서』, 그리고 『후한서』의 신라 전래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元聖王 4년(788)의 일이다. 원성왕은 讀書三品科를 시행하면서 “만약 五經, 三史, 諸子百家書를 널리 통달할 경우 등급을 뛰어넘어 선발하여 쓰도록 하라”<sup>44)</sup> 특례를 규정했는데, 해당 기사

43) 사실 앞서 제시한 『후한서』 내용(D-3)의 상당 부분은 오행지 본문에 대한 劉昭注 所引의 『경방점』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신라에 京房의 저술이 유입된 사례가 전해지지 않는다. 신라 국학의 교수법에서도 단지 『周易』이 확인될 뿐이다(『三國史記』 권38, 雜誌7 職官上, “國學... 教授之法, 以周易·尚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 물론 백제 역박사의 존재 및 백제가 ‘占相之術’을 해석할 줄 알았다는 『주서』 백제전의 내용(『周書』 권49, 異域列傳41 異域上 百濟, “亦解醫藥卜筮占相之術”)으로 방증컨대, 사료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여러 계통의 역학이 백제를 경유하여 신라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신라인들이 역사 서술의 측면에서 上代의 사적을 재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사서로서 『후한서』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이다.

44)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元聖王, “四年, 春, 始定讀書三品以出身. 讀書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

속에서 三史라는 표현이 처음 확인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종래 『周書』 고려전에는 고구려 사회에 “書籍으로는 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가 있다”는 구절을 참고하여,<sup>45)</sup> 주변국인 신라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三史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흐름에서 중고 말 强首의 발언으로부터 『후한서』의 신라 유입을 도출하기도 했다. 강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장장이 집안[治家]의 여성과 혼인 약조를 지키기 위해 옛사람의 표현을 빌려 “조강지처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貧賤할 때의 사귀는 잊어서는 안된다[糟糠之妻不下堂, 貧賤之交不可忘]”라고 주장했다.<sup>46)</sup> 그런데 이 표현은 『후한서』 宋弘傳의 문구와 유사하다고 여겨지므로(貧賤之知不可忘, 糟糠之妻不下堂),<sup>47)</sup> 훗날 文章家 명성을 날린 강수는 중고기에 이미 『후한서』를 학습하였다고 본 것이다.<sup>48)</sup> 그러나 강수의 발언과 유사한 표현은 6세기 전반 남조 梁에서 편찬된 『南齊書』 劉悛列傳에서도 확인된다(貧賤之交不可忘, 糟糠之妻不下堂).<sup>49)</sup> 더구나 강수의 발언에 보다 가까운 형태는 『후한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제서』의 그것이다. 따라서 강수의 발언의 출전이 『후한서』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보다 확실한 자료로서 元聖王의 三史 언급에 천착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에서 三史의 지위는 고정적이지 않았다. 오늘날 三史는 흔히 『사기』·『한서』·『후한서』로 일컬어지지만, 唐代 초기에는 오히려 『후한서』를 대신하여 『東觀漢記』가 삼사의 일원으로 꼽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령 『당육전』 尚書吏部와 尚書禮部 조목에서는 弘文館生과 崇文館生의 교과로 『사기』·『한서』·『동관한기』·『삼국지』를 거론한 것이다.<sup>50)</sup>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당육전』 門下省 조목에서는 이들의 교과로 『동관한기』가 아니라 『후한서』가 꼽히고 있다는 점이다.<sup>51)</sup>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는 『당육전』이 완성된 唐 玄宗 開元 연간에 『동관한기』를 대신하여 범엽의 『후한서』가 점차 중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과 변경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sup>52)</sup>

『동관한기』와 『후한서』의 위상 역전에 대해 清代 지식인들은 『四庫全書總目』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而能通其義，兼明論語·孝經者爲上，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讀曲禮·孝經者爲下。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超擢用之。前祇以弓箭選人，至是改之”

45) 『周書』 권49, 異域列傳41 異域上 高麗, “書籍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

46) 『三國史記』 권46, 列傳6 强首, “强首再拜曰, 貧且賤, 非所羞也。學道而不行之, 誠所羞也。嘗聞古人之言曰, 糟糠之妻不下堂, 貧賤之交不可忘。則賤妾所不忍弃者也”

47) 『後漢書』 권26, 列傳16 宋弘, “弘曰, 臣聞貧賤之知不可忘, 糟糠之妻不下堂。帝顧謂主曰, 事不諧矣”

48) 金瑛河, 2005 「新羅 中代の 儒學受容과 支配倫理」 『韓國古代史研究』 40, 한국고대사학회, p.147.

49) 『南齊書』 권37, 列傳18 劉悛, “後悛從駕登蔣山, 上數歎曰, 貧賤之交不可忘, 糟糠之妻不下堂”

50) 『唐六典』 권2, 尚書禮部, “弘·崇生雖同明經·進士, 以其資蔭全高, 試亦不拘常例。弘·崇生習一大經·一小經者, 兩中經者, 習史記者, 漢書者, 東觀漢記者, 三國志者, 皆須讀文精熟, 言音典正 ...”; 『唐六典』 권4, 尚書禮部, “其弘文·崇文館學生雖同明經·進士, 以其資蔭全高, 試取粗通文義。弘·崇生習一大經·一小經·兩中經者, 習史記者, 漢書者, 東觀漢記者, 三國志者, 皆須讀文精熟, 言音典正 ...”

51) 『唐六典』 권8, 門下省, “弘文館學士掌詳正圖籍, 授教生徒。凡朝廷有制度沿革, 禮儀輕重, 得參議焉。校書郎掌校理典籍, 刊正錯謬。其學生教授考試, 如國子之制。禮部試崇文·弘文生舉例。習經一大經·一小箱。史習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各自爲業, 及試時務策五條。經·史皆讀文精熟, 言音典正 ...”

52) 池田昌広, 2008 「『後漢書』の伝来と『日本書紀』」 『日本漢文学研究』 3, 二松学舎大学21世紀COE 프로그램, p.7 ; 小林岳, 2013 『後漢書劉昭注李賢注の研究』, 汲古書院, pp.324~325.

E-1. 晉時에는 이 책(東觀漢記)이 史記·漢書를 더불어 三史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익혔다. 그러므로 六朝 및 初唐 사람들은 사례를 좇고 서책을 풀이할 때[隸事釋書] 끌어다 인용함이 많았다. 唐 章懷太子가 諸儒를 모아 范書(范曄의 後漢書)에 주석한 것으로부터 대대로 성행하여 이 책이 점점 사라져갔다.<sup>53)</sup>

위의 내용을 참고할 경우 범엽의 『후한서』가 三史로 승격된 계기는 당 고종의 황태자였던 章懷太子 李賢이 『후한서』에 주석을 달았던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이현이 범엽의 『후한서』에 주석을 붙인 『後漢書注』를 고종에게 헌상한 것은 의봉 원년(676)이었다. 이에 대해 고종은 상당히 만족하였는지 이현에게 비단 3만 단을 하사하고, 그것을 궁중 祕閣에 보관케 했다.<sup>54)</sup> 하지만 이후 이현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아서 調露 2년(680) 서인으로 강등되고, 고종 사망 이듬해인 文明 元年(684)에는 모친이었던 則天武后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李賢의 복권이 이루어진 것은 睿宗이 즉위한 唐隆 元年(710)에 이르러서다. 개원 연간(713~741)에 확인되는 『후한서』의 위상 변화는 이현의 복권과 관련하여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sup>55)</sup> 그러한 여파는 주변국에까지 전해졌다.

E-2. 神護景雲 3년(769) ... 大宰府에서 말하길, “이 府는 사람과 물자가 번성하였으니 천하제일의 도회지입니다. 子弟의 무리 중 배우려 하는 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府庫에는 다만 五經이 비축되어있을 뿐이고, 三史의 정본은 없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그 道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列代의 여러 사서를 각각 1부씩 공급하시어 관내에서 傳習케 하여, 학업을 흥성케 하옵소서”라고 하였다. 조를 내려 史記·漢書·後漢書·三國志·晉書를 각각 1부씩 하사하였다.<sup>56)</sup>

『續日本記』 神護景雲 3년(769) 기사에는 大宰府의 사서 요청과 이에 대한 일본 조정의 회답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大宰府는 지역 자체들의 교육 문제와 관련해 三史의 미비를 거론하며, 일본 조정에 중국 역대 정사의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 조정은 史記·漢書·後漢書·三國志·晉書를 각각 1부씩 하사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른바 史記·漢書와 함께 後漢書가 거론되어 주목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결국 원성왕 4년(788), 왕이 독서삼품과의 특례와 관련해 언급한 三史는 곧 『사기』·『한서』·『후한서』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은 신라 『후한서』 유입의 하한이며, 『후한서』의 유입은 이보다 앞서 中代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후한서』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성이사금 하령』의 창출 즉, 재이론의

53) 『欽定四庫全書總目』 권50, 史部6 別史類 東觀漢記, “晉時以此書與史記·漢書爲三史, 人多習之. 故六朝及初唐人隸事釋書, 類多徵引. 自唐章懷太子集諸儒注范書, 盛行於代, 此書遂微”

54) 『舊唐書』 권86, 列傳36 高宗中宗諸子, “章懷太子賢 ... 儀鳳元年 ... 賢又招集當時學者太子左庶子張大安·洗馬劉訥言·洛州司戶格希元·學士許叔牙成玄一史藏諸周寶寧等, 注范曄後漢書, 表上之, 賜物三萬段, 仍以其書付祕閣”

55) 池田昌広, 2008 앞 논문, p.6.

56) 『續日本記』 권30, 高野天皇, “神護景雲三年 ... 十月甲申 ... 大宰府言, 此府人物殷繁, 天下之一都會也, 子弟之徒, 學者稍衆, 而府庫但蓄五經, 未有三史正本, 沙獵之人, 其道不廣. 伏乞, 列代諸史, 各給一本, 傳習管内, 以興學業. 詔賜史記·漢書·後漢書·三國志·晉書各一部”; 일부 해석은 연민수 역주, 2022 『譯註 續日本記 中』, 혜안, p.50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후한서』 본기나 열전이 아니라, 오행지이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후한서』 오행지에 인용된 『경방집』은 당 장희태자 이현의 주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남조 劉昭의 주석이다. 일반적으로 이현은 본기와 열전에만 주석을 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 그가 당 고종에게 바친 『後漢書注』에는 志가 제외되었을 것이다.<sup>57)</sup> 현전하는 『후한서』가 총 120권인 것과 달리 『구당서』 경적지와 『신당서』 예문지가 이현이 주석한 『후한서』를 100권이라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sup>58)</sup> 따라서 志를 포함한 『후한서』가 신라에 언제 유입되었는가는 또 다른 논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후한서의 성립 과정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자.

[표 3] 『後漢書』의 형성 과정

西晉 司馬彪, 『續漢書』			劉宋 范曄, 『後漢書』	
紀	傳	志	紀	傳
蕭梁 劉昭, 『集注後漢』			唐 李賢, 『後漢書注』	
『後漢書』 紀	『後漢書』 傳	『續漢書』 志 ◎	『後漢書』 紀	『後漢書』 傳
唐 民間 유통 『後漢書』 합철본				
『後漢書注』 紀	『後漢書注』 傳	『集注後漢』 志 ◎		
宋 乾興刊本 『後漢書』				
『後漢書注』 紀	『後漢書注』 傳	『集注後漢』 志 ◎		

典據：小林岳, 2013 『後漢書劉昭注李賢注の研究』, 第八章을 참고하여 작성

『후한서』의 형성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현전하는 『후한서』 편찬은 劉宋의 范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그는 본기와 열전만을 남긴 채 역모에 연루되어 처형당해 끝내 志를 완성하지 못했다. 이에 蕭梁의 劉昭는 범엽이 남긴 『후한서』 본기와 열전에 西晉 司馬彪의 『續漢書』 志를 더하고 자신의 주석을 덧붙였으니, 바로 『集注後漢』이 그것이다. 따라서 현행 『후한서』 오행지에 인용된 『경방집』은 바로 『續漢書』 五行志에 유소가 남긴 주석이라 할 수 있다(D-3).<sup>59)</sup> 한편 唐代에 접어들어 장희태자 이현은 다시 범엽의 『후한서』 본기와 열전에 주석을 달아 『後漢書注』를 편찬한다. 황태자 이현의 주석은 『후한서』의 위상을 드높여 이후 『후한서』는 三史로 승격되나, 그가 주석한 『後漢書注』에는 志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통용되는 120권 『후한서』는 北宋 乾興 元年(1022) 『後漢書注』의 紀傳(90권)에 『集注後漢』의 志(30권)를 합각한 것에 기초한다.<sup>60)</sup> 그런데 근래 양자의 합철이 이미 唐代에 존재했

57) 小林岳, 2013 앞 책, pp.288~289.

58) 『舊唐書』 권46, 志26 經籍上, “後漢書 ... 又一百卷皇太子賢注”; 『新唐書』 권58, 志48 藝文二, “章懷太子賢注後漢書一百卷賢命劉訥言·格希玄等注”

59) 洪承賢, 2019 「『後漢書』 『五行志』 譯註 I」 『중국사연구』 122, 중국사학회, p.206 ; 洪承賢, 2020b 앞 논문, pp.132~133.

을 것이라는 견해가 등장하여 주목된다. 즉 『日本國見在書目錄(875~891)』에는 “後漢書百卅卷. 范曄本, 唐臣賢太子. 但志卅卷, 梁剡令劉昭注補”라 하여 『後漢書注』와 『集注後漢』를 합친 『후한서』가 9세기 후반 일본에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만약 이 『후한서』가 遣唐使에 의해 수입된 것이라면 延曆 건당사(804)와 承和 건당사(838)를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sup>61)</sup>

하지만 정작 개원 원년 무렵의 장서 목록인 『구당서』 경적지와 그 이후에 찬술된 『신당서』 예문지에는 합철된 『후한서』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당시 양자의 합철이 국가 공인의 형태가 아니라 민간에서 제작되어 유통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杜佑의 『通典』에 의하면 ‘安史의 亂’ 이후 趙匡이 選舉制度의 개혁을 건의할 때 “後漢書并劉昭所注志爲一史”라고 하여 劉昭注를 강조한 정황이 확인된다.<sup>62)</sup> 조광의 건의가 실제로 받아들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활동한 대종(766~779 재위)·덕종(780~804 재위) 연간에 劉昭注에 대한 재평가 나타난 것만은 분명하다.<sup>63)</sup> 이렇게 볼 경우 양자의 합철 시기를 8세기 후반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성왕 4년(788), 원성왕이 언급한 三史는 장희태자 이현의 『後漢書注』일 가능성이 크다. 국가 공인 三史의 위상도 위상이거니와 앞서 언급했다시피 원성왕 4년은 신라 『후한서』 유입의 하한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이미 신라에 유입되었을 『후한서』를 기반으로 독서삼품과 특례가 마련되었다면, 이 『후한서』는 합철되기 이전의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데 『후한서』 오행지와 같이 동위 자체를 표제어로 제시한 것은 아니더라도 雷를 표제어로 내세운 오행지가 존재하니, 바로 『晉書』 오행지이다. 眞德王 2년(648) 당에 입조한 김춘추에게 당 태종은 그 자신이 편찬에 관여한 『晉書』를 하사한다.<sup>64)</sup> 따라서 적어도 진덕왕 2년 이후 신라에는 『진서』 오행지가 실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진서』 오행지의 서문이다.

F-1. 정리하여 말하면, 무릇 三術이 있다. 그 첫째는 임금이 道로써 다스리고, 신하는 충성을 다해 보필하여, 만물이 모두 그 性을 이루면, 온화한 기운[和氣]이 응하고, 아름다운 징조[休徵]가 나타나, 나라가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임금이 그 道를 어기고, 小人이 지위를 차지하여, 못 백성이 항상성을 잃으면, 어그러진 기운[乖氣]이 응하고, 재앙의 징조[咎徵]가 나타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人君과 大臣이 災異를 보고, 물러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스스로를 꾸짖고 덕을 닦으며[責躬修德], 함께 과오를 막고 고치

60) 윤용구, 2023 「『삼국지』·『후한서』 韓傳의 문헌사적 검토 -텍스트 修訂을 통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연구』 111, 한국고대사학회, pp.128~132.

61) 小林岳, 2013 앞 책, p.289 및 p.292.

62) 『通典』 권17, 選舉5 雜議論中, “洋州刺史趙匡舉選議曰 ... 舉人條例 ... 一, 其有通禮記·尚書·論語·孝經之外, 更通道德諸經·通玄經·孟子·荀卿子·呂氏春秋·管子·墨子·韓子, 謂之茂才舉 ... 一, 其史書, 史記爲一史, 漢書爲一史, 後漢書并劉昭所注志爲一史, 三國志爲一史, 晉書爲一史, 李延壽南史爲一史, 北史爲一史 ...”

63) 小林岳, 2013 앞 책, pp.290~291.

64)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眞德王, “二年 ... 遣伊滄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 太宗遣光祿卿柳亨, 郊勞之. 既至, 見春秋儀表英偉, 厚待之. 春秋請詣國學, 觀釋奠及講論, 太宗許之. 仍賜御製溫湯及晉祠碑并新撰晉書”.

면, 재앙이 사라지고 복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대략이다. ... 司馬彪에 이르러 광무제 이후의 일을 모아 漢事를 헤아렸는데, 재앙[災眚]에 대한 주장이 전대의 규범을 지나치지 않았다. 이제 黃初(220~226) 이후 祥異를 말하는 것을 수집하여, 이 편을 저술한다.<sup>65)</sup>

『진서』 오행지 서문은 재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치·사회적 도덕성의 상실을 거론했고, 재이에 대한 대응으로 임금과 신하의 自省·責躬·修德을 강조했다. 『경방점』의 내용과 비교할 때 구체적인 대안이라 할 순 없지만 적어도 위정자의 道德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중서의 천인감응론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진서』 권29, 五行下에는 별도로 雷震이라는 항목을 두고 曹魏·孫吳·晉代의 雷震 기사를 정리했는데, 대략 36여개의 기사 중 23건 이상이 冬雷(10~12월)의 범주에 포함된다. 적어도 『진서』의 수용 이후에는 신라인들이 冬雷를 재이로 이해할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대 신라에 존재했던 『禮記』 月令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國學의 교수법을 소개하면서, 교과 중 하나로 『禮記』를 거론했다.<sup>66)</sup> 신라에 國學이 설치된 것은 신문왕 2년(682)이므로<sup>67)</sup> 신문왕 재위 연간에는 『禮記』가 신라에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sup>68)</sup> 그런데 『예기』 중 月令에는 절기에 알맞은 자연 현상을 적는 과정에서 冬雷를 언급하였다.

F-2. 仲春의 달(2월). 이 달은 낮과 밤이 나뉘고, 천둥[雷]이 이내 소리를 발하며, 비로소 번개가 치고, 동면하던 벌레[蟄蟲]는 모두 깨어나 움직이며, 구멍이를 열어[啓戶] 나오기 시작한다. ... 仲秋의 달(8월). 이 달은 낮과 밤이 나뉘고, 천둥이 비로소 소리를 거두고, 동면하는 벌레는 문을 무너뜨리니, 殺氣가 점점 왕성해지고, 陽氣는 날로 약해진다 ... 仲冬의 달(11월) ... 仲冬에 여름의 政令을 행하면, 그 나라가 가물고, 질은 안개로 으스스해지며, 천둥이 소리를 발한다. 가을의 政令을 행하면, 하늘이 때때로 진눈깨비를 내리고, 오이나 호박이 여물지 않으며, 나라에 큰 병란이 있게 된다. 봄의 政令을 행하면, 동면하는 벌레로 기근이 생기고, 水泉이 모두 마르며, 백성의 많은 이가 역병[疥癘]을 앓는다.<sup>69)</sup>

65) 『晉書』 권27, 志17 五行上, “綜而爲言, 凡有三術. 其一曰, 君治以道, 臣輔克忠, 萬物咸遂其性, 則和氣應, 休徵效, 國以安. 二曰, 君違其道, 小人在位, 衆庶失常, 則乖氣應, 咎徵效, 國以亡. 三曰, 人君大臣見災異, 退而自省, 責躬修德, 共禦補過, 則消禍而福至. 此其大略也. ... 及司馬彪纂光武之後以究漢事, 災眚之說不越前規. 今採黃初以降言祥異者, 著于此篇”

66) 『三國史記』 권38, 雜志7 職官上, “國學, 屬禮部, 神文王二年置. ... 教授之法, 以周易·尚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

67)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神文王, “二年 ... 六月, 立國學, 置卿一人”

68)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 6년(686)에는 신라가 당에게 사신을 보내어 『禮記』와 문장을 요청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당시 신라가 요청한 것을 唐禮라 적었지만, 훗날 최치원이 저술한 『謝恩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신라가 요구하였던 자료는 『禮記』로 보는 편이 옳을 것 같다(『東文選』 권33, 表箋 謝恩表, “臣伏以當蕃家崇地義, 國仰天慈. 故昔遠祖政明, 仰求禮記, 玄宗聖帝別賜孝經, 灼見化成著於實錄”). 당시 신라가 『예기』를 요청한 함의와 관련해서는 안주홍, 2022 「686년 신라 대당 외교의 내용과 목적」 『대구사학』 146, 대구사학회의 내용이 참고된다.

69) 『禮記』 月令, “仲春之月. 是月也, 日夜分. 雷乃發聲, 始電, 蟄蟲咸動, 啓戶始出 ... 仲秋之月. 是月也, 日夜分. 雷始收聲, 蟄蟲壞戶, 殺氣浸盛, 陽氣日衰, 水始涸 ... 仲冬之月. 仲冬行夏令, 則其國乃旱, 氛霧冥冥, 雷乃發聲. 行秋令, 則天時雨汁, 瓜瓠不成, 國有大兵. 行春令, 則蝗蟲爲敗, 水泉咸竭, 民多疥癘.”

위의 사료는 『예기』 월령에서 冬雷와 관련된 부분을 추출한 것이다.<sup>70)</sup>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월령은 선진시기부터 존재했지만, 漢代 천인감응론의 확산과 함께 그 정치적 의미는 한층 심화되었다. 『예기』 월령은 天時와 人事의 조화를 규정하고, 양자가 어그러졌을 때 발생하는 災異를 서술했다. 곧 인간은 하늘과 때[時]에 순응해야만 재앙을 방지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sup>71)</sup> 흥미롭게도 위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후한서』 오행지 劉昭注 所引의 『경방집』 과 상통하고 있다(D-3). 『경방집』 자체가 월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면, 결국 신라에서는 『예기』 월령을 통해 冬雷의 의미를 천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중대에는 唐으로부터 자연철학 전적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효소왕 원년(692) 高僧 道證이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오면서 天文圖를 바친 것도 그러한 사례다.<sup>72)</sup> 사실이 시기 동아시아 典籍 교류의 상당수는 유학생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가령 『속일본기』 에 의하면 天平 7년(735; 唐 開元 23년) 대당 유학생 吉備眞備는 귀국하면서 『唐禮』 130권을 비롯하여 『太衍易經』 1권, 『太衍曆立成』 12권 등 전적 백 수십여 권을 일본 조정에 바쳤다고 한다.<sup>73)</sup>

물론 신라의 경우는 善德王代부터 당 국학에 유학생의 입학이 허가되었지만,<sup>74)</sup> 나당전쟁으로 그러한 왕래가 소원해졌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聖德王代 양국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당 국학으로의 유학생 입학도 재개되었던 것 같다.<sup>75)</sup> 이들은 당 국학에서 최신 典籍를 학습하는 한편, 귀국과 함께 전적을 비롯한 다양한 문물을 신라로 수입했을 것이다.<sup>76)</sup> 김유신의 현손 김암이 중국에서 숙위하며 陰陽家法을 학습하고, 귀국 후 司天大博士를 역임한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다.<sup>77)</sup>

또한 방증이지만 개원 연간 瞿曇悉達이 편찬한 『開元占經』 에는 『京房占』 을 인용하여 雷와 冬雷에 대한 내용을 장문에 걸쳐 서술되었다. 특히 동뢰에 대한 서술은 『후한서』 오행지에 인용된 『경방집』 과도 대소동이하다.<sup>78)</sup> 비록 이 서적이 신라에 유입되었는지 여부는 단언할 수

70) 당에서는 『大唐開元禮』 의 편찬과 함께 월령의 개정이 있었지만 일단 동뢰와 관련된 내용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金正植, 2005 「唐 玄宗朝 『禮記』 「月令」 의 改定과 그 性格」 『동양사학연구』 93, 동양사학회, p.54 [표 3]).

71) 蔡雄錫, 2009 「고려시대 刑政의 '原情'認識과 「月令」 활용」 『한국중세사연구』 27, 한국중세사학회, pp.297~298.

72)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孝昭王, “元年 ... 高僧道證自唐迴, 上天文圖”

73) 『續日本記』 권12, 天璽國押開豐櫻彦天皇(聖武天皇), “天平七年 ... 夏四月 ... 辛亥, 入唐留學生從八位下道朝臣眞備, 獻唐禮一百卅卷·太衍曆經一卷·太衍曆立成十二卷. ...”

74)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九年, 夏五月, 王遣子弟於唐, 請入國學”

75)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二十七年, 秋七月, 遣王弟金嗣宗入唐, 獻方物. 兼表請子弟入國學, 詔許之. 授嗣宗果毅, 仍留宿衛”

76) 하일식, 2003 「통일신라기의 羅唐 교류와 唐 官制의 수용」 『강좌 한국고대사 4 -고대국가의 대외관계-』,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pp.183~186.

77) 『三國史記』 권43, 列傳3 金庾信 附 巖, “少壯爲伊滄, 入唐宿衛. 間就師, 學陰陽家法, 聞一隅, 則反之以三隅. 自述遁甲立成之法, 呈於其師, 師撫然曰, 不圖吾子之明, 達至於此也. 從是而後, 不敢以弟子待之. 大曆中還國, 爲司天大博士. ...”

78) 『開元占經』 권100, 零2, “京房曰, 雷起乾宮, 人民多疾病, 雷起坎宮, 國邑多雨 ... 冬雷者, 陽氣之盛應之, 各以雷之日, 知何方鳴. 東方各以其辰爲方. 冬三月, 有大雷聞千里者, 人君絕令. 霹靂者, 以兵去. 溫者, 以弱去矣. 天冬雷, 地必震, 教令撓, 則冬雷, 民飢. 冬雷不蟄, 茲謂自藏, 萬物化不成.”

없지만, 훗날 長慶 4년(824) 편찬된 元稹의 「白氏長慶集序」에는 平水 지역(오늘날 절강성 鏡湖 근방)에서 백거이의 시집을 구하려 노력하는 신라 상인[雞林賈人]의 존재가 확인되어 참고된다. 당시 신라 상인은 “본국 재상이 매번 一金으로 (시집) 1편을 교환하는데, 심하게 위조된 것은 재상이 바로 가려냅니다”라고 언급했다.<sup>79)</sup> 이는 신라의 관료가 상인을 매개로 중국의 전적을 수입하려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典籍의 수입과 별개로 성덕왕 및 경덕왕 재위 연間は 唐 太史局의 직장에 상응하는 관부가 신라에 설치되던 시기로 주목된다. 성덕왕 17년(718) 漏刻 및 漏刻典의 설치를 시작으로, 경덕왕 8년(749)에는 천문박사 1인과 누각박사 6인이 설치되었다.<sup>80)</sup> 이 외에도 성덕왕 16년(717)에 설치된 算博士 역시 주목된다.<sup>81)</sup> 국학에서 가르쳤던 산학 교과와 상당 부분은 曆算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sup>82)</sup>

결국 8세기 전반 신라에는 자연철학 지식의 축적과 새로운 전적의 수입, 그리고 재이에 대한 천착을 행할 유관 관부의 설치가 연이어 이루어졌던 것이다. 재이에 대한 신라인의 이해가 충분히 성숙한 것이다. 성덕왕의 즉위 무렵부터 신라본기에 빈출하는 상서·재이, 그리고 애장왕 2년(801) 응당 일어나야 했을 日食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일식 예측 기사는<sup>83)</sup> 이러한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때마침 개원 2년(714) 唐 玄宗은 漢 景帝 後 2년 4월(기원전 142)과 3년 정월(기원전 141)의 조칙을 참고하여 사치 규제를 반포했다.<sup>84)</sup>

G-1. 後 ... 2년(기원전 142) ... 여름 4월, 詔를 내려 말하기를, “문양을 조각하고, 아로 새기는[雕文刻鏤] 것은 農事를 상하게 하는 것이요, 錦繡를 이어 짜는 것은 女紅(여자의

79) 『全唐文』 권653, 白氏長慶集序, “予嗜於平水市中, ... 又雞林賈人求市頗切, 自云本國宰相每以一金換一篇, 其甚僞者, 宰相輒能辨別之”

80)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十七年 ... 始造漏刻”; 『三國史記』 권38, 雜志7 職官上, “漏刻典, 聖德王十七年始置”;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景德王, “八年 ... 三月, 置天文博士一員, 漏刻博士六員”

81) 『三國史記』 직관지에는 신문왕대 국학의 건립과 함께 산학박사가 두어진 것처럼 묘사되지만, 사실 기록상으로 算博士는 성덕왕 16년(717) 의박사와 처음 설치되었다(『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十六年, 春二月, 置醫博士·算博士各一員”).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호섭, 2004 「新羅의 國學과 學生祿邑」 『史叢』 58,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pp.58~59가 참고된다.

82) 算學博士가 국학에서 가르쳤던 교과는 『綴經』, 『三開』, 『九章』, 『六章』 이었다(『三國史記』 권38, 雜志7 職官上, “或差算學博士若助教一人, 以綴經·三開·九章·六章, 教授之”). 그런데 『속일본기』에는 曆算生의 교과과 『九章』 과 『六章』 을 거론하였다(『續日本記』 권20, 孝謙天皇, “天平寶字元年 ... 十一月癸未, 勅曰, ... 天文生者, 天官書, 漢晉天文志·三色薄讚·韓楊要集. 陰陽生者, 周易·新撰陰陽書·黃帝金匱·五行大義. 曆算生者, 漢晉律曆志·大衍曆議·九章·六章·周髀·定天論, 並應任用”). 한편 『철경』 은 『綴經』 과 동일한 서적이란 여겨지는데, 그 저자는 『大明曆』 을 편찬한 천문학자이자, 5세기에 원주율을 계산한 南齊의 수학자 祖冲之이다(周瀚光·戴洪才 主編, 2003 『六朝科技』, 南京出版社). 宋代 沈括(1031~1095)이 『夢溪筆談』 에서 “求星辰之行, 步氣朔消長, 謂之綴術”라고 적시한 것을 통해 볼 때, 『綴術』 은 역법 수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吳富尹, 2002 「教育 典籍을 통해 본 新羅 學校教育의 특징 -經學 및 專業教育 典籍을 중심으로-」 『論文集』 26, 제주한라대학).

83)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哀莊王, “二年 ... 夏五月壬戌朔, 日當食不食”

84) 개원 2년 당 현종의 칙서 자체에는 사치라는 문구가 확인되지 않지만, 동일 사건에 대한 『구당서』 오행지의 서술에서는 해당 칙서가 사치를 제어하려는 목적에서 반포되었음이 확인된다(『舊唐書』 권37, 志17 五行, “開元初, 姚·宋執政, 屢以奢靡爲諫, 玄宗悉命宮中出奇服, 焚之於殿廷, 不許士庶服錦繡珠翠之服. 自是採捕漸息, 風教日淳”).

길쌈)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농사가 상하는 것은 굶주림의 바탕이요, 女紅이 해로운 것은 추위의 근원이다. 대저 굶주리고 추운 것에 아울러 이르면서도, 능히 망하지 아니한 자 적다. ... 천하에 포고하여, 짐의 뜻을 밝혀 알려라.<sup>85)</sup>

G-2. 勅. 짐이 듣건대, 珠玉이라는 것은 굶주려도 먹을 수 없고, 추위도 입을 수 없다. 그러므로 漢文에서 이르기를, 문양을 조각하고, 아로새기는 것은 農事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錦繡를 이어 짜는 것은 女工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농사가 상하는 것은 굶주림의 바탕이고, 여공이 해로운 것은 추위의 근원이다. ... 衣服·車馬에 있는 바 金銀器物은 유사에 맡기어, 녹여 쇠덩이로 만들고, 별도로 저장케 한 뒤, 軍國에 보태어라. 珠玉의 재화는 늘 무익한 것이니, 아울러 즉시 殿前에서 불살라버려라. ... 짐의 뜻을 포고하라. 개원 2년(714) 7월.<sup>86)</sup>

개원 2년(714) 7월 당 현종의 사치 규제 취지(G-2)에는 전한 경제의 두 조서(G-1·B-3)가 인용되었다. 당시 현종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자, 궁궐의 사치품을 정전 앞에서 불태우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감행했다. 이 무렵 당에는 신라 왕자 金守忠이 숙위하고 있었으므로,<sup>87)</sup> 그는 해당 퍼포먼스를 직접 관람했거나, 적어도 사치 규제에 대한 칙서의 정보를 접하였을 것이다.<sup>88)</sup> 개원 2년(714) 7월을 전후로 하여 당에는 최소 세 그룹의 신라 사신이 왕래했다.<sup>89)</sup> 따라서 이 무렵 전한 경제를 운운하는 사치 규제의 정보가 신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한 정보는 「일성이사금 하령」의 등장에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최근 『삼국사기』 신라본기 上代 기록의 改修와 관련해서는 新羅 中代의 시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연구에 의하면 상대 기록에서 확인되는 官名·人名·地名·姓氏 용례의 상당 부분은 중대 이후에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곧 신라에서는 진흥왕 6년(545) 왕명을 받든 거칠부가 前代의 역사를 정리하여 『國史』를 찬술했지만,<sup>90)</sup> 중대 이후 어느 시점엔가 『국사』에 대한 일정 수준의 改修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sup>91)</sup>

85) 『漢書』 권5, 景帝紀5, “後 ... 二年 ... 夏四月, 詔曰, 雕文刻鏤, 傷農事者也, 錦繡纂組, 害女紅者也. 農事傷則飢之本也, 女紅害則寒之原也. 夫飢寒並至, 而能亡爲非者寡矣 ... 布告天下, 使明知朕意”

86) 『唐大詔令集』 권108, 禁約上 焚珠玉錦繡勅, “勅. 朕聞珠玉者, 飢不可食, 寒不可衣. 故漢文云, 雕文刻鏤傷農事, 錦繡纂組害女工. 農事傷則飢之本, 女工害則寒之源. ... 所有服御金銀器物, 令付有司, 令鑄爲鋌, 仍別貯掌, 以供軍國. 珠玉之貨, 無益於時, 並即焚於殿前 ... 布告朕意焉. 開元二年七月”

87)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十三年 ... 二月 ... 遣王子金守忠入唐宿衛. 玄宗賜宅及帛以寵之, 賜宴于朝堂”

88) 『舊唐書』에 의할 때 당 현종은 같은 해(714) 9월에도 厚葬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치 규제를 반포했던 것 같다(『舊唐書』 권8, 本紀8 玄宗 上, “(開元)二年 ... 九月 ... 甲寅, 制曰, 自古帝王皆以厚葬爲誠, 以其無益亡者, 有損生業故也. 近代以來, 共行奢靡, 遞相仿效, 浸成風俗, 既竭家產, 多至凋弊. 然則魂魄歸天, 明精誠之已遠, 卜宅於地, 蓋思慕之所存. 古者不封, 未爲非違. 且墓爲眞宅, 自便有房, 今乃別造田園, 名爲下帳, 又冥器等物, 皆競驕侈. 失禮違令, 殊非所宜, 戮屍暴骸, 實由於此. 承前雖有約束, 所司曾不申明, 喪葬之家, 無所依准. 宜令所司據品令高下, 明爲節制. 冥器等物, 仍定色數及長短大小, 園宅下帳, 並宜禁絕, 墳墓塋域, 務遵簡儉, 凡諸送終之具, 並不得以金銀爲飾. 如有違者, 先決杖一百. 州縣長官不能舉察, 並貶授遠官”).

89)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十三年 ... 閏二月, 遣級食朴裕入唐賀正, 賜朝散大夫·員外奉御, 還之 ... 冬十月, 唐玄宗宴我使者于內殿, 勅宰臣及四品已上清官預焉 ... 十四年, 春三月, 遣金楓厚入唐朝貢”

90)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六年, 秋七月, 伊滄異斯夫奏曰, 國史者, 記君臣之善惡, 示褒貶於萬代. 不有修撰, 後代何觀. 王深然之, 命大阿滄居柒夫等, 廣集文士, 俾之修撰”

한편 해당 연구는 儒禮尼師今 10년(293) 봄 2월 기사에서 확인되는 沙伐州에 대한 지명 고증을 통해 『국사』 개수의 하한을 경덕왕 16년(757)의 地名 雅化 이전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성덕왕 재위 연간(702~737)에 주목했다. 성덕왕대에는 文翰을 담당하였다고 여겨지는 詳文師가 通門博士로 개칭되었거니와,<sup>92)</sup> 그의 치세는 『高僧傳』·『花郎世記』·『樂本』·『漢山記』·『鷄林雜傳』을 찬술한 金大問의 활동 시기와의 맞물리기 때문이다.<sup>93)</sup> 『삼국사기』에서 신라 초기 王號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유리와 탈해의 왕위 계승에 대한 異說은 김대문의 입을 빌려 전해지고 있고,<sup>94)</sup> 『삼국사기』의 찬자 또한 법흥왕 본기에서 이차돈의 순교와 異跡을 기록하는 데 김대문의 『계림잡전』을 인용했다.<sup>95)</sup> 김대문은 上代에 대해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드러낸 것이다.

김대문은 생몰연대 및 주요 저술의 찬술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그가 성덕왕 3년(704) 한산 주도독에 임명되었던 사실은 고려해봄 직하다.<sup>96)</sup> 州의 장관인 도독의 관등 상하한은 급찬에서 이찬으로, 신라 18관등 중에서도 비교적 상위 관등에 속한다. 그렇다면 김대문은 생의 후반부에 해당 관직을 역임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볼 경우 그의 저술 활동은 적어도 효소왕(재위 692~702) 및 성덕왕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신라 상대에 대한 지적 탐구 분위기는 『國史』에 대한 改修가 이루어질 여건을 조성하였을 것이고, 바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성이사금 하령」의 보입 및 분식이 고려되었다고 여겨진다.

물론 『국사』의 개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일성이사금대의 사적 모두가 중대에 창출된 것은 결코 아니며, 적어도 『국사』 편찬 이전에도 그 원전이 되는 자료가 존재했을 것이다. 가령 사서의 편찬 이전 광범하게 확인되는 日官의 존재는 중국 정사류와 교차 검증되지 않는 신라 고유 천문·제이 전승의 ‘기록 생산자’였을 것이다.

중고기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할 당시 존재하던 독자 전승 중 가장 이른 冬雷 기사는 祇摩尼師今代 1건과 逸聖尼師今代 3건이었을 것이다. 종래 일성이사금대의 冬雷는 10년과 16년

91) 전덕재, 2018 앞 책, pp.38~54 ; 한편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국사』 편찬 단계에 이미 중국 상서 기록의 광범한 채록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예컨대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0년(488) 기사에서 확인되는 “夏六月, 東陽獻六眼龜, 腹下有文字”라는 구절은 『宋書』 권28, 志18 符瑞中 靈龜의 “泰始二年八月丙寅, 六眼龜見東陽長山, 文如爻卦, 太守劉勰以獻”이라는 기사를 운문한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는 중대 이후 신라인들이 소지마립간의 치세에 의미 부여할 당위가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채록 시점을 『국사』 편찬 단계로 이해했다(金基興, 2005 「『삼국사기』 신라 소지마립간본기 6眼龜 기사의 검토」 『역사학보』 188, 역사학회, pp.14~24).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국사』 편찬 당시 祥瑞에 대한 신라인의 이해 정도, 그리고 『송서』의 유입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논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서에 기반한 상서 기록의 補入 시점을 신라 當代로 이해한 점은 본 논문의 논지와 일치한다.

92)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十三年 ... 二月, 改詳文司爲通文博士, 以掌書表事”

93) 전덕재, 2018 앞 책, pp.51~52 및 pp.9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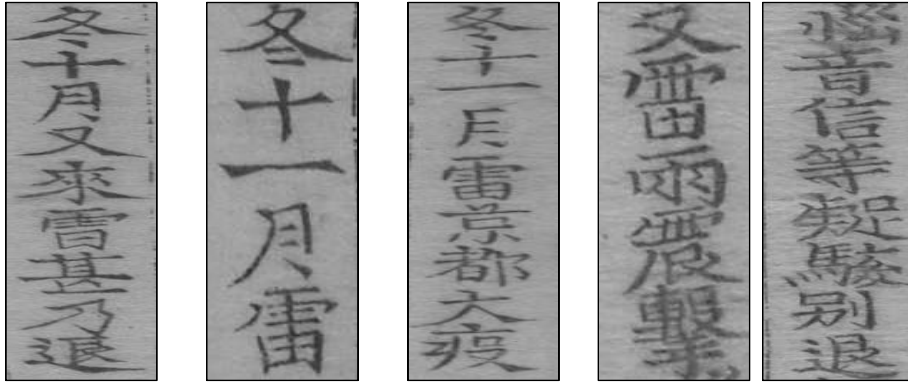
94)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 “南解次次雄立 次次雄或云慈充. 金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 尚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爲慈充” ; 같은 책, 儒理尼師今, “初南解薨, 儒理當立 ... 儒理齒理多, 乃與左右奉立之, 號尼師今. 古傳如此. 金大問則云, 尼師今方言也, 謂齒理. 昔南解將死, 謂男儒理·塔脫解曰, 吾死後, 汝朴·昔二姓, 以年長而嗣位焉. 其後金姓亦興, 三姓以齒長相嗣, 故稱尼師今” ;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訥祗麻立干立 金大問云, 麻立者, 方言謂檝也. 檝謂誠操, 淮位而置. 則王檝爲主, 臣檝列於下, 因以名之”

95)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法興王, “至是, 王亦欲興佛教 ... 及斬之, 血從斷處湧, 色白如乳. 衆恠之, 不復非毀佛事 此據金大問鷄林雜傳所記書之”

96) 『三國史記』 권46, 烈傳6 金大問, “聖德王三年, 爲漢山州都督”

2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성이사금 6년(139) “冬十月, 又來, 雪甚乃退” 기사의 雪도 雷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글자는 誤刻 혹은 획이 탈락했을 가능성이 큰데, 일찍이 학계에서는 『삼국사절요』와의 교차 검증, 겨울 10월이라는 계절적 환경, 그리고 ‘천둥이 심해’ 적이 물러갔다고 보는 것은 문의상 어색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글자를 雪로 교감했다.<sup>97)</sup>

[표 4] 逸聖尼師今代の 冬雷



일성이사금 6년    일성이사금 10년    일성이사금 16년    보장왕 20년

典據 :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보이듯 해당 글자는 雪 보다 雷에 가깝다.<sup>98)</sup> 또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20년(661)에도 신라 북한산성을 공격하던 고구려 장수 惱音信이 뇌우[雷雨震擊]가 심해 군대를 물렸다는 기록이 존재하여, 퇴각의 원인으로 ‘雷’가 거론되었다.<sup>99)</sup> 만약 일성이사금 6년의 기사를 冬雷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성이사금대는 신라본기에서 가장 많은 冬雷가 발생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일성이사금 16년(149)에는 “冬十一月, 雷. 京都大疫”이라 하여 동뢰와 전염병이 연동되어 발생했다. 동뢰가 발생하면 전염병이 돈다는 재이론을 인지했을 중대의 지식인들에게 일성이사금대는 분명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매우 장황했지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성이사금 11년(144)의 「일성이사금 하령」은 실재하였던 법령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일성이사금 하령」은 중대 신라에 보다 정제된 형태의 천인감응론적 재이론과 그에 기반한 사치 규제 인식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음미되어야 한다. 곧 「일성이사금 하령」은 재이론적 사치 규제로서 존재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로 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대를 개창한 선덕왕은 재위 6년(785)의 遺詔에서 “왕위에 있었던 이래로, 오곡의 여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年不順成], 백성의 살림이 곤궁해졌으니, 이는 모두 德이 백성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치가 天心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00)</sup> 재이의

97)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2011 『역주 삼국사기 1 -감교원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p.106~107 ; 국사편찬위원회, 『삼국사기』, [http://db.history.go.kr/id/sg\\_001\\_0080\\_0110](http://db.history.go.kr/id/sg_001_0080_0110).

98) 오히려 초기 연구에서는 해당 글자를 雷로 읽기도 했다(李熙德, 1980 앞 논문, p.83).

99)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二十年 ... 夏五月, 王遣將軍惱音信, 領靺鞨衆, 圍新羅北漢山城, 浹旬不解, 新羅餉道絕, 城中危懼. 忽有大星, 落於我營, 又雷雨震擊, 惱音信等, 疑駭別退”

100)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宣德王, “六年, 春正月 ... 是月, 王寢疾彌留. 乃下詔曰, 寡人本惟菲薄, 無心大寶, 難逃推戴, 作其即位. 居位以來, 年不順成, 民用窮困, 此皆德不符民望, 政未合天心”

원인으로 자신의 부덕을 자책했다. 선덕왕의 발언은 분명 8세기 전반을 거치며 보다 성숙한 천인감응론적 재이론과 맞닿아 있었다고 여겨진다.<sup>101)</sup>

「일성이사금 하령」은 사서의 개수 과정에서 등장한 관념적 소산일지언정, 사치 금령에 대한 인식의 발로 그 자체는 하대 초 「애장왕 교서」와 「흥덕왕 교서」 등장의 전야가 되었다. 「일성이사금 하령」의 형성 과정은 중국적 사치 규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수반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 「일성이사금 하령」이 재이론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띠었다면 하대의 두 금령은 ‘왕실’의 위계, 나아가 分限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한편 8세기 「일성이사금 하령」의 보입과 사치 금령에 대한 인식의 등장은 동아시아의 역사 흐름 속에서 매우 뒤늦은 것이며, 더구나 신라에서 재이론적 사치 금령은 현실 세계에 구현되지 못했다. 사실 천인감응론적 우주론에 대한 의문은 唐代에 이미 등장하고 있었다. ‘安史의 난’과 번진할거의 충격은 천인감응론적 우주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唐代 牛僧孺(779~848)나 柳宗元(773~819)과 같은 지식인들은 하늘과 인간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는 데 회의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sup>102)</sup> 그들은 멀리 있는 천도나 천명에 의지하기보다 당면한 인간사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韓愈(768~824)와 같은 인물은 천인감응론에 기반한 전통적인 우주론을 견지했고, 그것이 唐代 사상계의 주류를 차지했을 테지만,<sup>103)</sup>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등장 자체는 천인감응론적 재이론의 균열을 상징한다. 「애장왕 교서(806)」가 반포되기 이전인 애장왕 2년(801) “日가 응당 食해야 하나, 食하지 않았다”는 기사는 신라 천문관측의 발전을 의미하는 동시에 재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도 읽혀진다. 예측 가능한 재이는 더 이상 온전한 의미에서의 재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IV. 맺음말

본 논문은 「일성이사금 하령」의 성격과 그것의 형성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신라 사치 금령 전개에 계기적 이해를 도모하려 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전하는 신라 최초의 사치 금령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1년(144) 봄 2월에 반포된 「일성이사금 하령」이다. 사료상 「일성이사금 하령」의 내용은 農本 및 勸農에 대한 강조와 민간의 金·銀·珠·玉 사용을 금지한다는 사치 금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일성이사금 하령」이 일성이사금 재위 연간에 실재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일성이사금 하령」은 내용적인 면에서 300여년 가량 앞서 반포된 前漢 景帝의 사치 규제와 유사했다. 그러한 점에서 2세기 전반 신라 사회에 「일성이사금 하령」이 실재했을 가능성

101) 韓政洙, 2004 「高麗前期 重農理念과 農耕儀禮」,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9~20.

102) 金漢信, 2020 「唐代 災異現像에 대한 새로운 인식 - 『舊唐書』 「五行志」 역주 -」, 『중국사연구』 129, 중국사학회, pp.112~113.

103) 김한신, 2021 「唐宋代 災異論의 변화 - 『舊唐書』 五行志 및 『新唐書』 五行志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중국고중세사연구』 60, 중국고중세사학회, pp.89~92.

은 희박하다.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후한의 사치 규제보다도 훨씬 앞 시기의 사치 규제가 선택적으로 활용되었다면, 이는 중국 典籍이 수입된 이후의 사료적 보입 내지 분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성이사금 하령」과 경제의 사치 규제 사이에는 冬雷라는 교집합이 확인된다. 두 사치 규제는 내용상의 유사성뿐 아니라, 서사적 측면에서도 재이론의 성격을 공유한 것이다. 결국 「일성이사금 하령」은 冬雷에 대한 신라 조정의 대응이라는 서사에서 일성이사금 11년 봄 2월 항목에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성이사금 하령」의 재이론적 성격은 사료의 보입 및 분석 시점, 그리고 사서에의 전재 과정을 유추하는 데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한다.

「일성이사금 하령」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천인감응론과 오행, 특히 재이에 대한 숙지 및 漢代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특히 『사기』·『한서』·『후한서』는 「일성이사금 하령」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그중에서도 『후한서』 오행지는 동뢰를 표제어로 제시한 최초의 사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오행지가 합철된 『후한서』의 유행은 중국에서도 8세기 후반 이후이며, 그것이 외부 세계로 유출된 것은 9세기 전반에 이르러서다. 대신 동뢰 자체를 표제어로 제시한 것은 아니더라도 雷를 표제어로 내세운 오행지가 존재하였으니, 바로 진덕왕 2년 신라에 유입된 『뽻書』 오행지이다. 이와 함께 중대에는 唐으로부터 자연철학 전적의 유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典籍의 수입과 별개로 성덕왕 및 경덕왕 재위 연간은 唐 太史局의 직장에 상응하는 관부가 신라에 설치되던 시기로 주목된다. 결국 8세기 전반 신라에는 자연철학 지식의 축적과 새로운 전적의 수입, 그리고 재이에 대한 천착을 행할 유관 관부의 설치가 연이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어느덧 재이에 대한 신라인의 이해가 충분히 성숙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때마침 개원 2년(714) 唐 玄宗은 漢 景帝의 조칙을 참고하여 사치 규제를 반포했다. 개원 2년(714) 7월을 전후로 하여 당에는 최소 세 그룹의 신라 사신이 왕래했으므로, 이 무렵 전한 경제를 운운하는 사치 규제의 정보가 신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한 정보는 「일성이사금 하령」의 등장에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최근 『삼국사기』 신라본기 上代 기록의 改修와 관련해서는 新羅 中代, 특별히 8세기 전반 성덕왕대의 시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시기 신라의 지식인은 上代에 대한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신라 상대에 대한 지적 탐구 분위기는 『國史』에 대한 改修가 이루어질 여건을 조성하였을 것이고, 바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성이사금 하령」의 보입 및 분석이 고려되었다고 여겨진다.

결국 일성이사금 11년(144)의 「일성이사금 하령」은 실재하였던 법령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일성이사금 하령」은 중대 신라에 보다 정제된 형태의 천인감응론적 재이론과 그에 기반한 사치 규제 인식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음미되어야 한다. 다만 「일성이사금 하령」은 사서의 개수 과정에서 등장한 관념의 소산일지언정, 사치 금령에 대한 인식의 발로 그 자체는 하대 초 「애장왕 교서」와 「흥덕왕 교서」 등장의 전야가 되었다. 「일성이사금 하령」의 형성과정은 중국적 사치 규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수반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 「일성이사금 금령」이 재이론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띠었다면 하대의 두 금령은 ‘왕실’의 위계, 나아가 사회적 分限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 참고문헌

『三國史記』 『東文選』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書』 『南齊書』 『周書』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禮記』 『春秋繁露』 『白虎通義』 『開元占經』 『唐六典』 『通典』 『唐大詔令集』 『全唐文』  
『欽定四庫全書總目』  
『續日本記』

김창석, 2020 『왕권과 법』, 지식산업사.

연민수 역주, 2022 『譯註 續日本記 中』, 혜안.

李蘭暎, 1992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 일지사.

이송란, 2004 『신라 금속공예 연구』, 일지사.

이한상, 2022 『신라의 성장 과정과 복식사여체계』, 서경문화사.

전덕재, 2018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2011 『역주 삼국사기 1 -감교원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周瀚光·戴洪才 主編, 2003 『六朝科技』, 南京出版社.

小林岳, 2013 『後漢書劉昭注李賢注の研究』, 汲古書院.

강봉원, 2013 「신라 골품제도와 屋舍에 관한 연구 -‘唐瓦’와 ‘獸頭’를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29, 신라사학회.

高泰鎮, 2019 「新羅 興德王代 金銀器 禁令의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高泰鎮, 2025 「新羅 下代 奢侈 禁令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민균, 2021 「『漢書』 『五行志』 譯註 IV」 『중국고중세사연구』 61, 중국고중세사학회.

權珉均, 2022 「『漢書』 『五行志』 譯註 VII」 『중국사연구』 138, 중국사학회.

기상청, 2011 『한국 기상기록집① -삼국사기·삼국유사로 본 기상·천문·지진 기록-』, 기상청.

金基興, 2005 「『삼국사기』 신라 소지마립간본기 6眼龜 기사의 검토」 『역사학보』 188, 역사학회.

金瑛河, 2005 「新羅 中代の 儒學受容과 支配倫理」 『韓國古代史研究』 40, 한국고대사학회.

김재열, 2024 「4~6세기 신라 귀금속 장신구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金正植, 2005 「唐 玄宗朝 『禮記』 「月令」의 改定과 그 性格」 『동양사학연구』 93, 동양사학회.

- 金漢信, 2020 「唐代 災異現象에 대한 새로운 인식 - 『舊唐書』 「五行志」 역주-」 『중국사연구』 129, 중국사학회.
- 김한신, 2021 「唐 宋代 災異論의 변화 - 『舊唐書』 五行志 및 『新唐書』 五行志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60, 중국고중세사학회.
- 신지원, 2021 「신라시대 재이(災異) 발생에 대한 국가적 조치와 그 정치적 기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주홍, 2022 「686년 신라 대당 외교의 내용과 목적」 『대구사학』 146, 대구사학회.
- 吳富尹, 2002 「教育 典籍을 통해 본 新羅 學校教育의 특징 -經學 및 專業教育 典籍을 중심으로-」 『論文集』 26, 제주한라대학.
- 오택현, 2023 「평양 정백동·정오동 출토 낙랑 문자자료」 『목간과 문자』 29, 한국목간학회.
- 윤용구, 2010 「낙랑·대방지역 신발견 문자자료와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7, 한국고대사학회.
- 윤용구, 2023 「『삼국지』·『후한서』 韓傳의 문헌사적 검토 -텍스트 修訂을 통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연구』 111, 한국고대사학회.
- 李基峰, 2016 「統一新羅時代災異와 政治·社會變動」,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봉, 2024 「신라 尼師今 시기 왕권의 추이」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71, 한국세계문화사학회.
- 李成珪, 1993 「中國 古代 皇帝權의 性格」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아카데미.
- 이한상, 2021 「가야장신구의 제작기술」 『가야인의 技術』,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이현혜, 2016 「진한연맹체와 사로국」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2 -신라의 건국과 성장-』,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李熙德, 1980 「三國史記에 나타난 天災地變記事의 性格」 『동방학지』 23·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임기환, 1992 「漆器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田鎮國, 2017 「三韓의 실체와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정해왕, 2013 「董仲舒의 天人感應說과 그 政治性」 『동양문화연구』 16,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 정호섭, 2004 「新羅의 國學과 學生祿邑」 『史叢』 58,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蔡雄錫, 2009 「고려시대 刑政의 '原情'認識과 「月令」 활용」 『한국중세사연구』 27, 한국중세사학회.
- 채웅석, 2022 「고려시대사 연구와 재이(災異) 사료의 활용」 『한국중세사연구』 71, 한국중세사학회.
- 하일식, 2003 「통일신라기의 羅唐 교류와 唐 官制의 수용」 『강좌 한국고대사 4 -고대국가의 대외관계-』,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韓政洙, 2004 「高麗前期 重農理念과 農耕儀禮」,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洪承賢, 2019 「『後漢書』 「五行志」 譯註 I」 『중국사연구』 122, 중국사학회.

- 洪承賢, 2020a 「『後漢書』 「五行志」 譯註 VI」 『중국사연구』 129, 중국사학회.
- 洪承賢, 2020b 「『續漢書』 「五行志」 災異 해석의 특징」 『중국고중세사연구』 57, 중국고중세사학회.
- 范丽敏, 2007 「天人感应思想与汉代的社会保障制度」 (2016 『汉代文化研究论文集 第二辑』, 大象出版社에 재수록).
- 丁筱媛, 2004 「漢代奢華風氣之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 池田昌広, 2008 「范曄 『後漢書』 の伝来と 『日本書紀』 」 『日本漢文学研究』 3, 二松学舎大学21世紀COEプログラム.
- 국사편찬위원회, 『삼국사기』, [http://db.history.go.kr/id/sg\\_001\\_0080\\_0110](http://db.history.go.kr/id/sg_001_0080_0110)

이기봉(충남대)

이 글은 《三國史記》 일성이사금 11년 하령 기사를 분석하였다. 먼저 발표자는 일성이사금 하령 기사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천인감응론과 오행, 특히 재이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았다. 또한 ‘冬雷’라는 재이가 일성이사금대에 기록된 사실을 중국 사서의 도입 및 차용과정을 검토하여 살펴보았다. 일성이사금대의 하령 기사는 신라 중대의 재이론적 인식에 따른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발표자의 견해는 《三國史記》 재이기사에 수록과정이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당대의 재이론적 인식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발표자의 논지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다.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1. 일성이사금 11년 기사에 대해 발표자는 신라 중대에 천인감응론적 재이론과 이에 기반한 사치 규제 인식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성이사금대에 재이의 발생과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검토가 있어야 이 시기 ‘冬雷’라는 재이 발생이 지닌 의미와 중대에 왜 이런 재이기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분명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성이사금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 시기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검토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본 발표문은 일성이사금 11년의 하령 기사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이사금 시기의 다른 하령 기사 즉 파사와 미추이사금대의 하령 기사와 비교가 필요해 보인다. 하령 기사는 재해발생과도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기에 일성이사금대의 하령 기사를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이때의 재이에 대한 대응과 인식 양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일성이사금대 11년 하령 기사를 발표자는 신라 중대의 재이론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였다. 그렇다면 발표자는 《三國史記》의 재이기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발표자는 중국 사서의 신라로의 유입 그리고 이에 따른 신라 중대의 재이론적 인식으로 일성이사금대의 ‘冬雷’라는 재이 기사를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三國史記》의 재이 기록을 기록 그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신라 이사금기와 마립간기의 재이 기사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이 궁금하다.

4. 중국의 재이 관련 사서의 유입 속에서 나타난 중대의 재이에 대한 재이론적 인식이 그 이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필자는 선덕왕대와 애장왕대의 기사를 통해서 자연 철학의 이해에 기반한 재이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라 하대에도 재이를 자연현상이 아닌 재이론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신라 중대 이후에 재이를 유교적 천인감응설이 아닌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소재의식을 한 사례가 있는데 신라 시대의 재이론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까지 염두에 두어

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이 발표문은 재이론을 다루고 있기에 불교경전에 나타난 재이에 대한 인식은 물론 승려를 통한 재이에 대한 소재의식 등도 같이 검토되어야 신라 중대의 재이론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광명경』의 주석을 한 경흥의 불교적 재이론 등을 말이다.

6. 발표자는 예측 가능한 재이는 더 이상 온전한 의미에서 재이가 될 수 없다라고 결론지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재이 인식의 변화에 따라 재이 대응의 양상 역시 변화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재이에 대한 인식은 재이에 대한 대응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7. 발표문 20쪽에 신라 관등을 17관등이 아닌 18관등으로 오기한 부분이 있다.



## 5세기 백제의 대유송외교와 그 성격

음정현(공주대)

1. 머리말
2. 유송 건국과 백제의 외교 개시
3. 비유왕대 유송 문물 수입과 그 활용
4. 개로왕대 외교전략과 대고구려 노선 전환
5. 맺음말

### 1. 머리말

劉宋은 百濟의 첫 南朝 외교 국가이다.<sup>1)</sup> 양국이 교류하던 5세기는 중원대륙의 동향이 한반도 정세에 밀접한 영향을 주었던 시기로 동아시아 각국은 어느 하나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쟁과 외교를 반복하며 주변 세력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이처럼 복잡다단해진 국제정세 속에서 자국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한 외교전략은 더욱 중요해졌다. 백제는 4세기 후반 고구려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며, 국력이 손실되었고, 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5세기는 백제가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전략을 전개한 시기였다. 따라서 유송과의 교섭 양상을 검토하는 것은 당대 백제의 외교전략을 검토하는 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5세기를 포함한 한국 고대사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1980년대에 제기된 역학관계론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sup>2)</sup> 역학관계론은 국제관계가 힘의 우열에 따른 세력균형과 실리추구에 따라 전개된다는 점을 강조한 이론이다. 각국의 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을 지키기 위해 실리를 추구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백제와 유송의 외교관계 연구 역시 이러한 연구 경향에 따라 국제관계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sup>3)</sup> 나아가 유송과의 외교관계가 주로 확인되는 비유왕·개로왕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해당 연구들은 선진문물 입수<sup>4)</sup>, 책봉<sup>5)</sup> 등 중국 관작의 획득과 그 국내 정치에서의 활용

1) 백제와 유송은 『三國史記』, 『宋書』, 『冊府元龜』 등에서 총 12건의 사행이 확인된다(본고 2장의 <표 1> 참조). 사료상의 誤記나 사행에 실패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역대 남조 왕조들과의 관계(南齊 3회, 梁 7회, 陳 5회) 가운데 가장 많은 교류 횟수를 차지하고 있다.

2)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왕조와 맺는 외교관계에서 확인되는 외교형식으로 일찍이 일본학계에 서 중원왕조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질서를 강조한 ‘冊封體制論’이 제기되었다(西嶋定生, 1962, 「6~8世紀の東アジア」, 『岩波講座日本歴史』 古代 2). 그러나 주변 국가의 주체적 역할이 간과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1980년대부터 한국학계에서는 각 국가의 주체성을 강조한 ‘朝貢關係論’이 등장하였으며(全海宗, 1977,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徐榮洙, 1981, 「三國과 南北朝 交渉의 性格」, 『東洋學』 11), 국제관계가 힘의 우열에 따른 세력균형과 실리 추구로 전개된다는 점에 방점을 둔 ‘力學關係論’이 제시되었다(盧重國, 1981,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3) 江畑武, 1968, 「四~六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中國との冊封をめぐ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 盧重國, 1981, 앞의 논문; 徐榮洙, 1981, 앞의 논문.

4) 임기환, 2003, 「한성기 백제의 대외교섭」, 『한성기 백제의 물류시스템과 대외교섭』, 학연문화사; 문동석, 2008, 「5세기 한성백제의 정치동향과 대외관계」, 『서울과 역사』 72, 서울역사편찬원; 박윤선, 2008, 「백제와 송·제·양 교섭기사에 대한 고찰」, 『역사문화연구』 31.

5) 金鍾完, 1989, 「南北朝時代の冊封에 대한 檢討-賜與된 官爵을 中心으로-」, 『東亞研究』 19; 김기섭, 2000,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노중국, 2012,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박

에 주목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견제책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에 백제의 유송 외교 목적을 고구려 견제<sup>6)</sup> 혹은 왜에 대한 견제<sup>7)</sup>에 주목하였다.

해당 연구들은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중심으로 각국의 역학관계를 통해 백제의 유송 교섭 배경과 목적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백제의 입장에서 유송 외교의 목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외교상대국인 유송의 입장을 간과하였다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이상의 연구들은 백제와 유송의 관계를 백제와 고구려의 대립, 또는 이로 말미암은 청병교섭 논의의 일부로 다루고 있어 백제와 유송 관계에 한정한 종합적인 논의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백제의 유송외교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교섭 초반인 구이신왕대(420~427) 백제와 유송의 교섭 양상을 백제의 정국동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비유왕대(427~455) 백제와 유송의 교섭 양상을 고구려의 남하와 더불어 유송-북위의 갈등으로 촉발되는 국제정세의 동요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개로왕대(455~475) 백제와 유송의 교섭 양상을 정국변화와 국제정세의 변화 측면에서 검토하고, 외교 전환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기사가 소략하여 무리한 추정으로 논의를 전개한 부분이 적지 않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많은 질정 바란다.

## 2. 유송 건국과 백제의 외교 개시

5세기 초, 당시 중원대륙의 화북 일대에는 匈奴·鮮卑·氐·羌·羯 등의 북방 유목 세력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반면, 장강 이남에는 南來한 漢族들이 세운 왕조인 東晉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410년대에 접어들며 북부군단의 무관인 劉裕가 군사력을 결집하여 동진의 실권을 장악해 반란을 진압하는 한편, 南燕과 後秦을 차례로 정복하여 장안과 낙양을 점령했다. 결국 420년 동진의 恭帝로부터 禪讓을 받아 유송을 건국하였다.

유송은 동진이 행한 책봉의 연장선 위에서 백제왕의 책봉호를 進號하였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416년 동진의 安帝는 사신을 보내 腆支王을 ‘使持節 都督百濟諸軍事 鎮東將軍 百濟王’으로 진호하였다.<sup>8)</sup> 백제가 책봉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유유가 동진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므로, 해당 책봉 역시 유유가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9)</sup> 따라서 416

찬우, 2015, 「漢城期 백제의 將軍號 활용 배경과 정치적 의미」, 『百濟文化』 52 ; 정동준, 2017, 「5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책봉호의 정치적 의미-백제 및 남조 주변제국에 수여된 장군호를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52 ; 井上直樹 저·임동민 역, 2018, 「백제의 王號·侯號·太守號와 將軍號-5세기 후반 백제의 지배질서와 동아시아-」, 『百濟學報』 25.

6) 徐榮洙, 1981, 앞의 논문 ; 梁起錫, 1990,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윤, 2009, 「5~6세기 백제의 南朝 중심 외교정책과 그 의미」, 『百濟文化』 41 ; 김철민, 2016, 「高句麗 長壽王代의 對宋外交와 그 배경」, 『韓國史學報』 63 ; 박현숙, 2017, 「한성시기 백제의 宋·北魏와의 외교 배경과 그 양상」, 『先史와 古代』 51 ; 임동민, 2020, 「백제와 송의 교섭 배경과 항로」, 『역사와 현실』 117 ; 이용호, 2023, 「백제 비유왕의 對고구려 정책과 개로왕의 즉위 과정」, 『北岳史論』 18 ; 장미애, 2023, 「毗有王~蓋鹵王代 백제의 對中交涉 전개와 고구려」, 『高句麗渤海研究』 76.

7) 김수태, 2011,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왜 관계와 남조」, 『百濟學報』 6 ; 박민경, 2017,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왜관계-蓋鹵王·東城王代를 중심으로-」, 『사탐』 60 ; 井上直樹 저·임동민 역, 2018, 위의 논문.

8)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腆支王 12年 “十二年, 東晉 安帝遣使, 冊命王爲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

9) 이후 남조의 초대 황제들 역시 이전 왕조의 권력자로 군림하다가 이후 선양의 형식을 빌려 왕조를 개창하였다는 점에서도 참고된다(남조 왕조 간 칭호의 계승 관계는 河上麻由子, 2021, 「5~6世紀東アジ

년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송과 백제의 외교관계 형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백제는 유송이 건국된 420년부터 479년 유송이 멸망할 때까지 12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냈다. 백제의 대유송외교를 살펴보기 위해 양국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는 조공·책봉관계 기사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아울러 대유송외교의 전개가 양국 간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위·고구려·왜 등과의 관계 기사도 함께 제시해 보았다. 아래에서는 이 표를 참고하여 백제의 대유송외교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표 1> 5세기 남북조 및 주변 국가의 외교관계<sup>10)</sup>

劉宋			年度	北魏	
倭	高句麗	百濟		劉宋	高句麗
	冊	冊	420		
冊			421	↑	
	冊		422		
	↑		423	▲▼	
	↑↓	↑	424	↑	
↑		↓冊	425	↓	↑
			426	↑▲▼	
			427	↓	
			428	▲	
		↑	429	↑	
↑		↑↓冊	430	↑▲▼	
			431	▲▼↓	
			432	↑,↓	
			433	↑↓2	
			434		
			435		2↑↓冊
	↑		436	↑↓	↑↓2
			437	↑	↑
↑冊	↑		438	↓	
	↑		439	↑	2↑
		↑	440	↓	
	↑		441	2↑↓	
			442		

『ア仏教と大通寺』,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성과』, “갯위강국” 1,500주년 국제학술회의,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40~152쪽 참조). 역대 남조 왕조들은 신왕조 수립 시 이전 왕조의 칭호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목적은 왕조 교체에 대한 정당성을 연출하고, 中華 질서를 계승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변국에 선전하는데 유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李磊, 2014, 「百济의天下意识与东晋南朝的天下秩序」,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4-2, 66쪽).

10) <표 1>은 金鍾完, 1995, 앞의 책, 81쪽 「표 5」 및 『三國史記』, 『宋書』, 『魏書』, 『南齊書』, 『冊府元龜』 등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劉宋/北魏의 견사, ↑: 상대국의 견사, ▼: 劉宋/北魏의 공격, ▲: 상대국의 공격, 숫자: 遣使 횟수, 冊: 冊封, \*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견사 등으로 표시하였다.

↑冊	↑	↑	443	▲▼	
			444	↑↓	
			445	↓	
			446	▼	
			447		
			448	↑	
			449		
		↑	450	↑▲▼↓	
冊	↑		451	↑,↓	
			452	▲▼	
	↑		453		
			454		
	↑		455		
			456		
		↑冊	457	▼	
	↑	↑	458	▼	
	↑		459		
↑			460	↑,↓2▼	
	↑		461	↑,↓	
↑冊			462	↑,↓	↑
	↑冊		463	↓	
			464		
			465		↑
			466	▲	↑
	↑	↑	467	↑▲▼	2↑
			468	↑▲▼	↑
			469	↑,↓▼	↑
	↑		470	↑	↑
		↑	471	▲↑,↓	
	↑		472	↑,↓▼	2↑
			473	▲↑,↓▼	2↑
	↑		474	↑,↓	2↑
	↑		475	↑,↓	2↑
		*↑	476		3↑

유송 武帝(유유)는 즉위한 지 한 달만인 420년 7월 조서를 내려 扶餘映을 416년의 鎮東將軍에서 진급하여 鎮東大將軍으로 進號하였다. 유송의 건국이 6월임을 고려하면, 당시 책봉은 유송이 새로운 왕조의 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백제 사절이 파견된 것은 아니었다.<sup>11)</sup> 이외에도 유송은 高句麗 高璉(長壽王)<sup>12)</sup>, 西涼의 李歆<sup>13)</sup>, 西秦의 乞伏熾盤<sup>14)</sup>에게 將軍號를 進號하였다. 이에 앞선 戊戌일에도 책봉이 이루어졌는데, 북벌의 거점이 되는 雍州·徐州

의 지방관이자 개국공신인 趙倫之·劉懷慎과 군사적 거점으로 중요한 武都國의 仇池王 楊盛을 진호하였다.<sup>15)</sup> 이듬해 421년에는 林邑의 范陽邁와 倭의 讚<sup>16)</sup>, 같은 해 10월에는 北涼의 沮渠蒙遜<sup>17)</sup> 등을 책봉하였다. 이처럼 책봉된 이들은 대체로 유송 건국에 공을 세운 이들이거나,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변국의 왕들이다.

다만 여기서 백제왕 부여영을 진동대장군에 진호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는데, 부여영은 전지왕을 가리킨다. 그러나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따르면 전지왕은 같은 해 3월에 이미 사망하였으며,<sup>18)</sup> 책봉이 이루어진 7월은 구이신왕(재위:420~427)이 즉위한 이후이다.<sup>19)</sup> 당시 재위 중인 왕을 오인하여 책봉한 것으로 이는 한 달 남짓한 짧은 준비 기간을 갖고 이루어진 탓에 왕위교체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20)</sup> 이에 해당 책봉은 주변 제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책봉이 아니라 유송 왕조의 수립을 자축하고 주변국에 선포하는 의미에서 행한 일방적인 책봉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1)</sup>

유송이 주도한 책봉에 주변국들도 화답하는 모습을 보인다. 고구려는 유송이 420년에 장수왕을 책봉하고, 422년에 책봉호를 더해주자,<sup>22)</sup> 423년 3월과 42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유송에 사신을 파견하였다.<sup>23)</sup> 이에 유송도 424년 알자 朱邵伯을 고구려에 파견하였다. 이외에도 423년에 북량과 토욕혼 등이 사신을 파견하였으며,<sup>24)</sup> 425년에는 421년에 이어 왜왕 讚이 사

11)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343쪽.

12) 해당 사실은 『三國史記』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宋書』 97 夷蠻列傳, 高句麗國傳에는 장수왕이 晉 安帝 義熙 9년(413)에 長史 高翼을 보내 표문을 올리고 赭白馬를 바쳤다고 전해진다. 이에 안제가 使持節 都督營州諸軍事 征東將軍 高句驪王 樂浪公 관작을 수여한 내용이 확인된다. 같은 내용의 기사가 『三國史記』 장수왕 원년에도 확인된다. 양국의 사신이 왕래한 413년은 유유가 동진의 실권자로 군림하던 시기이다.

13) 李歆은 417년에 즉위한 서량의 2대 군주로 초기 북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나, 영조 원년 장군호를 받은 7월에 북량의 저거몽손에 패하며 죽임을 당한다. 이후 서량은 3대 군주인 李恂이 다시 저거몽손에 패하면서 421년 멸망하였다(『宋書』 98, 氐胡列傳, 胡傳).

14) 乞伏熾盤은 서진의 3대 군주로 『宋書』에 따르면 412년 즉위 이후 4년 뒤인 416년 12월에 당시 동진의 실권을 잡고 있던 유유에게 사신을 보내 稱臣하였다. 이후 420년 유송 건국 후 그의 장군호를 승진시켜 책봉하였으나(『宋書』 96 鮮卑·土谷渾列傳, 鮮卑傳) 乞伏熾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晉書』 載記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김택민, 2012, 「중국 고대 정권찬탈자들의 重譯來庭論」, 『歷史學報』 213, 288~289쪽).

15) 『宋書』 3, 武帝紀 下 永初元年 7月條. “戊戌, 後將軍 雍州刺史趙倫之進號安北將軍, 征虜將軍 北徐州刺史劉懷慎進號北平將軍, 征西大將軍 開府儀同三司楊盛進號車騎大將軍.” 구지(武都國)는 漢代 이래 서역과 통교할 수 있는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한 국가로 남·북조가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었다. 이에 따라 남북조는 구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책봉하는 모습을 보인다(金鍾完, 1995, 앞의 책, 142~150쪽).

16) 『宋書』 97, 夷蠻列傳 林邑國傳·倭國傳. 다만 왜의 경우, 420년에 작호가 제수되지 않았는데 이는 신왕조 유송이 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421년 왜는 백제로부터 신왕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직접 사신을 보내 사행이 이루어졌다고 본다(양기석, 2005, 「5세기 百濟와 倭의 關係」,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94~95쪽).

17) 『宋書』 3, 武帝紀 下, 永初 2年 10月條. “己亥, 以涼州胡帥大沮渠蒙遜爲鎮軍大將軍 開府儀同三司涼州刺史.”

18)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腆支王 16年條. “十六年, 春三月, 王薨.”

19)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久爾辛王 元年條 “久尔辛王, 腆支王長子. 腆支王薨, 即位.”

20) 이와 비슷하게 양 건국 직후(502)에도 이미 사망한 餘大(동성왕)를 征東大將軍으로 進號한 사실이 확인된다(『梁書』 2, 武帝紀 中, 天監元年 4月條 “戊辰 … 鎮東大將軍百濟王餘大進號征東大將軍”).

21) 坂元義種, 1970, 「倭の五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7; 박윤신, 2008, 앞의 논문, 5쪽.

22) 이때 유송이 더해준 책봉호는 『宋書』 97, 夷蠻列傳, 高句麗國傳에 따르면, “三年, 加璉散騎常侍, 增督平州諸軍事”이다.

23) 『宋書』 4 少帝 景平 元年 3月條 “三月…高麗國遣使朝貢.”

24) 『宋書』 4 少帝紀, 景平元年 “二月…沮渠蒙遜, 吐穀渾阿豺並遣使朝貢.”

신을 파견하였다.

백제는 유송의 책봉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였다. 『日本書紀』에 따르면 당시 백제왕인 구이신왕은 나이가 어려서 권신 木滿致가 집정했다는 기록이 있다.<sup>25)</sup> 물론 역면 그대로 해당 기사를 신뢰하기보다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당시 백제 왕실 내부가 불안정하였다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백제가 유송의 책봉에 대해 답방이 늦어진 것도 구이신왕 국정운영 초기에 어려움이 많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백제는 424년 유송에 사신으로 장사 장위를 파견하여 420년 책봉에 대한 예의를 표하였다.<sup>26)</sup> 화답에 늦은 만큼 중국 사정에 밝은 중국계 사신을 파견하여 유송과의 관계 진척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화답한 유송은 425년 백제왕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신단을 파견하여 백제왕을 ‘鎮東大將軍 百濟王’에 봉하였다.<sup>27)</sup>

한편 『宋書』 「百濟傳」에는 “그 후, 매해 사신을 보내 奉表하고 方物을 바쳤다”라고 기술되어 있다.<sup>28)</sup> 이를 근거로 백제의 대유송 遣使가 매해 이루어졌다고 이해하기도 한다.<sup>29)</sup> 그러나 다른 중국계 사서를 검토해 보더라도, 백제가 ‘매해’ 유송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심지어 백제는 429<sup>30)</sup>·430년<sup>31)</sup>에 사신을 파견하고, 이후 10년간 대유송관계에 공백이 생기는 모습까지 확인된다. 기사 누락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외교 관례에 따른 형식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sup>32)</sup>

이처럼 백제, 유송 양국은 건국 기념 책봉을 제외하고도 한 차례씩 사신을 교환하였다. 이를 두고, 해당 시기 백제의 사행에 목적에 대해 유송에 우대받는 고구려를 대외적으로 견제하기 위함이었다고 보거나,<sup>33)</sup> 나아가 425년 고구려가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것 역시 백제에 대한 견제책이었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sup>34)</sup> 물론 상대국을 견제하여 얻는 외교적 ‘抑止力’<sup>35)</sup>이 국제관계 상에서 일정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424년을 제외하고는 백제가 유송으로 사신을 보내거나 책봉을 수수하는 해와 고구려가 유송으로 사신을 보낸 해의 상호관련성은 보이지 않는다. 4세기 후반 이래 지속된 고구려와의 전쟁이 끝난 직후, 양국관

25) 『日本書紀』 10 雄略紀 25年 “百濟直支王薨. 卽...子久爾辛立爲王. 王年幼, 木滿致執國政. 與王母相婬, 多行無禮”.

26) 『宋書』 97 列傳57 夷蠻東夷百濟國 “少帝景平二年映遣長史張威詣闕貢獻”. 장위는 대방계 유력 세력인 張氏로, 백제로 귀화한 중국계 인물로 추정된다. 장위가 사신으로 파견된 사실은 그가 중국계 사신으로서 중국정세와 문화에 해박한 장점을 십분 활용해 모종의 외교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중국계 백제관료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재운, 2012a, 「중국계 백제관료에 대한 고찰」, 『史叢』 77, 3~12쪽 참조.).

27) 『宋書』 97 列傳57 夷蠻東夷百濟國 “太祖詔之曰皇帝問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累葉忠順越海効誠遠王纂戎聿修先業慕義既彰厥懷赤款浮桴驪水獻琛執贄故嗣位方任以藩東服勉勗所莅無墜前蹤今遣兼謁者閻丘恩子兼副謁者丁敬子等宣旨慰勞稱朕意其後每歲遣使奉表獻方物”.

28) 『宋書』 夷蠻列傳 百濟國條. “其後每歲遣使奉表, 獻方物.”

29) 徐榮洙, 1981, 앞의 논문, 16쪽.

30)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毗有王 3年條 “三年, 秋, 遣使入宋朝貢”.

31)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毗有王 4年條 “四年, 夏四月, 宋 文皇帝以王復修職貢, 降使冊授先王映爵號”.

32) 이에 대해 ‘매해’의 표현이 백제의 과장된 표현이지만, 425년 이후 백제가 유송에 견사할 때마다 사신이 표문을 지참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도 있다(박찬우, 2023a, 「삼국의 대중관계와 表文」, 『한국고대사연구』 111, 231~232쪽).

33) 김철민, 2016, 앞의 논문, 174~175쪽; 임동민, 2020, 앞의 논문, 192쪽. 백제가 유송 초기에 적극적으로 교섭한 것은 고구려와 유송이 국제관계 속에서 상호 긴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백제 중심의 대외정책을 펴고자 한 노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정재운, 2009, 앞의 논문, 179~180쪽).

34) 박진숙, 2004, 「장수왕대 고구려의 대북위외교와 백제」, 『한국고대사연구』 36, 201~203쪽.

35) 江畑武, 1968, 앞의 논문, 32쪽.

계는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백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보인다.

그간 백제는 313·314년 각각 樂浪과 帶方이 한반도에서 축출된 이래로 2군 故地를 두고 고구려와 일진일퇴를 반복하다 아신왕의 굴욕적인 항복과 함께 패배한 상황이었다.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405년 아신왕이 사망함에 따라 백제 내부에서는 왕위계승을 둘러싼 분쟁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대고구려전에서의 계속된 패배를 겪으면서 백제 내부의 전쟁 책임론이 제기되었다고 이해된다.<sup>36)</sup>

당시 왕위계승 분쟁의 주체는 태자 전지를 위시한 解氏 세력과 磔禮를 지지한 眞氏 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sup>37)</sup> 전지왕 즉위 이전에 대고구려전을 주도하던 세력은 진씨 세력이었다. 이들의 재지 기반으로 비정되는 현재의 경기 북부 임진강~황해도 일대는 4세기 대고구려전의 주요 무대가 되는 지역이었다.<sup>38)</sup> 진씨 세력은 자신들의 재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패배와 아신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백제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를 받았고, 그 책임은 진씨 세력에게도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sup>39)</sup> 이에 따라 왕위계승 분쟁에서도 불리한 입지에 놓이지 않았을까 추정되며,<sup>40)</sup> 결과적으로 해씨 세력이 승리하면서 전지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41)</sup>

거듭되는 백제 내부의 왕위계승 분쟁으로 인해 왕권은 상당히 불안정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백제는 유송과의 교섭을 통해 발달한 선진문물과 제도를 받아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다.<sup>42)</sup> 요컨대 백제와 유송의 관계는 유유가 실권을 잡은 41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즉위 초반 백제의 유송 외교 목적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드러내고, 책봉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 3. 비유왕대 유송 문물 수입 배경과 활용

毗有王은 유송의 전성기인 이른바 ‘元嘉之治’ 동안 유송과 활발한 교류를 펼치며 다양한 내용의 기사를 남겼다. 백제와 유송의 교류 목적에 대해 선진문물 수입이나 고구려와 관련성이

36) 李道學, 1990, 「漢城後期の百濟王權과 支配體制의 整備」, 『百濟論叢』 2, 293~294쪽.  
37) 盧重國, 1978,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 4, 61~62쪽; 梁起錫, 1982, 「百濟 腆支王代의 政治的 變革」, 『湖西史學』 10, 18쪽. 진씨세력이 전지왕 즉위 이후 중앙정계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진씨가 전지왕 즉위 반대세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고, 진씨를 反전지왕 세력으로 상징하여 왕위계승을 둘러싼 진씨의 실각과 해씨의 부상을 제시하였다.  
38) 진씨 세력의 재지기반에 대해 한강 이북의 경기도~황해도 일대에 거주한 한복예계를 그 출자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노중국, 2007, 「百濟의 姓氏와 貴族家門의 出自」, 『大丘史學』 89, 89쪽), 나아가 현재의 파주 적성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가 참고된다(鄭載潤, 2007, 「初期 百濟의 成長과 眞氏 勢力의 動向」, 『歷史學研究』 29, 17~18쪽).  
39) 李龍虎, 2009, 「百濟 腆支王代 解氏勢力의 擡頭와 對高句麗 政策」, 『韓國史研究』 147, 55~56쪽.  
40) 아신왕의 즉위 역시 정변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梁起錫, 1982, 앞의 논문, 14~15쪽). 진사왕의 죽음은 아신왕을 위시한 세력에 의한 것으로 그 원인에는 고구려와의 전쟁 패배가 정국 운영의 실정으로 이어진 것이 중요한 빌미로 작용하였다고 보고 있다(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134쪽).  
41) 전지왕 즉위 이듬해인 406년 解忠을 達率로 삼고, 다시 이듬해인 407년에 解須를 內法佐平에 解丘를 兵官佐平에 임명하는 등 진씨 세력은 실각하고, 해씨 세력이 부상하는 모습이 확인된다(『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腆支王 2~3年條).  
42) 梁起錫, 1982, 앞의 논문, 27쪽.

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부터이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해서 한반도 남부에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중원대륙에서는 북연이 멸망하고, 북위가 화북지역을 통일하면서 동아시아의 세력 재편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각국은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물리력과 외교력을 동원하였다. 백제와 유송의 관계도 이러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비유왕대 유송과의 교섭 내용을 전하는 구체적인 기사는 아래와 같다.

A-1. 3년(429) 가을,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sup>43)</sup>

A-2. 4년(430) 백제가 다시 사신을 보내 조공하므로 映의 작호를 잇도록 하였다.<sup>44)</sup>

A-3. 14년(440) 겨울 10월에 송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sup>45)</sup>

A-4. 元嘉 20년(443) 이 해, 河西國 高麗國 百濟國 倭國이 함께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sup>46)</sup>

비유왕은 즉위 3년 만인 429년(A-1) 조공하고, 이듬해 430년(A-2) 책봉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427년 비유왕의 즉위에 따른 교섭으로 이해하고 있다.<sup>47)</sup> 다음으로 백제는 10년 뒤인 440년(A-3)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있다. 이는 430년대 국제정세의 변동과 관련되어 이해할 수 있다. 사행이 중단되었던 10년간은 유송의 1차 북벌(430), 북연의 멸망(436), 그리고 북위의 화북지역 통일(439) 등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긴장을 야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시기였다.

유송의 3대 황제였던 文帝 劉義隆은 북위와의 전쟁에 관심이 지대하여 元嘉 연간(424~453)에 총 3차례의 대규모 북벌을 단행하였다. 1차 북벌은 원가 7년(430)에 이루어졌는데, 유송은 420년대 후반부터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주변국과 연계하였다. 427년 7월 북위가 大夏를 정벌하는 틈을 타 柔然이 북위를 공격하였으며, 428년에는 유연이 유송에 사신을 보내 연계를 도모하였다. 이듬해 429년 북위가 유연을 공격하자 유송은 이 틈에 대하의 赫連定과 연계하여 북위를 공격하였지만 패하였다.<sup>48)</sup> 이에 到彦之를 중심으로 한 북벌군을 파견하여 북위군을 상대로 총력전을 벌였으나<sup>49)</sup> 심각한 군비 손실과 인적 피해를 초래한 채 1차 북벌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 435년 북위가 제4차 북연 정벌에 나서면서 유송과 북위는 다시 한번 충돌했다. 당시 북연은 북위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송에 稱臣하여 구원을 청하고, 고구려에도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다. 436년 3월 북위가 재차 북연 정벌에 나서자, 북연의 멸망으

43)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毗有王 3年條 “三年, 秋, 遣使入宋朝貢”

44) 『宋書』 夷蠻列傳 百濟國條. “百濟王餘毗復修貢職以映爵號授”

45)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毗有王 14年條 “遣使入宋朝貢”

46) 『宋書』 5, 文帝紀 元嘉 20年條 “河西國高麗國百濟國倭國並遣使獻方物”

47) 비유왕이 전지왕의 작호를 계승한 점에서, 비유왕의 출자와 관련하여 『三國史記』 기록을 취신하여 구이신왕의 長子라는 설과 구이신왕의 즉위 연령이 어리다는 점과 즉위 8년 만에 사망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전지왕의 庶子라는 설(李道學, 1984,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の 檢討』, 『韓國史研究』 45; 盧重國, 1988, 앞의 책)로 대별되나, 대체로 후자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즉위 초반 부왕인 전지왕의 정통성을 계승해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도 한다(박찬우, 2022, 앞의 논문, 66쪽).

48) 『宋書』 98 氐胡傳. “元嘉七年…其年夏四月, 西虜 赫連定爲索虜 拓跋燾所破, 奔上邽.”

49) 『資治通鑑』에 따르면, 도연지가 430년 북위와의 전쟁에 패배하였을 때 “도연지가 북벌을 할 때 송에서는 甲兵과 군수물품이 매우 풍성하였으나 북벌에 실패하고 돌아오니 완전히 탕진하여 府庫·武庫가 텅 비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로 북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될 상황을 우려한 고구려는 망명 의사를 밝힌 북연왕 馮弘과 협력하여 북위의 東進을 저지하였다. 이때 고구려는 2만의 군사를 보내 풍홍을 비롯한 북연의 지배 세력과 백성을 이끌고 귀환하였다.<sup>50)</sup>

북위 태무제는 고구려에 풍홍을 압송하라고 위협하였지만, 고구려가 이를 거부하자 436년 9월 고구려 정벌을 시도하기도 하였다.<sup>51)</sup> 북위의 고구려 정벌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고구려는 북위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이를 위해 438년 3월에 유송과의 연계를 이유로 풍홍을 살해하여 북위 위협의 차단했다. 또한, 풍홍의 요청을 받은 유송이 사신 王白駒와 군사 7천을 요동으로 보내자, 도리어 왕백구를 붙잡아 유송에 압송하며 단죄를 요청하였다.<sup>52)</sup> 풍홍의 망명 및 살해 사건으로 촉발된 동북아 지역의 긴장 관계 속에서 고구려는 북위와 외교를 단절하고(<표 1>), 유송에 戰馬 800필을 보냄으로써 사태를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인다.<sup>53)</sup>

이 시기 백제는 440년(A-3)·443년(A-4)에 유송과 교섭하였다. 해당 기록은 入朝와 遣使獻方物이라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남아있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시기 백제는 조공과 그로 인한 회사품을 획득한 것 이외에도 긴박하게 전개된 국제정세를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4를 보면, 백제는 고구려와 왜의 사신과 함께 유송에 조공을 하였다. 이전에 왜는 438년 유송에 ‘使持節都督 倭 百濟 新羅 任那 秦韓 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호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sup>54)</sup> 유송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백제의 교섭 목적에는 왜를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430~440년대에 백제의 유송 사행에 공백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427년 단행된 고구려의 평양 천도와 관련이 있다. 평양 천도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sup>55)</sup> 고구려의 도성이 남하한다는 사실 자체로 백제와 신라의 대외적 위기의식은 고조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백제는 종전의 적대관계였던 신라와 우호 관계를 구축하였다. 백제는 433년에 화친을 청하고,<sup>56)</sup> 이듬해 봄 2월에 좋은 말 두 필을,<sup>57)</sup> 같은 해 9월에는 흰 매를 보내고 있다.<sup>58)</sup> 그간 신라와는 373년 독산성주가 신라로 망명한 이후<sup>59)</sup> 대립 관계가 지속되었으나 백제는 고구

50)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299~304쪽.

51) 『魏書』 100, 列傳 88, 高句麗傳 “時馮文通率衆奔之, 世祖遣散騎常侍封撥詔璉令送文通, 璉上書稱當與文通俱奉王化, 竟不送. 世祖怒, 欲往討之, 樂平王 丕等議待後舉, 世祖乃止, 而文通亦尋爲璉所殺”.

52) 『三國史記』 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26年條 “宋 太祖遣使者王白駒等迎之, 并令我資送. 王不欲使弘南來, 遣將孫漱·高仇等, 殺弘于北豐, 并其子孫十餘人. 白駒等帥所領七千餘人, 掩討漱·仇, 殺仇生擒漱. 王以白駒等專殺, 遣使執送之. 太祖以遠國不欲違其意, 下白駒等獄, 已而原之”.

53) 『宋書』 97 夷蠻傳 高句麗國 “璉每歲遣使. 十六年, 太祖欲北討, 詔璉送馬, 璉獻馬八百匹”.

54) 『宋書』 97 列傳57 夷蠻東夷倭國 “4月...己巳、倭國王 珍을 安東將軍으로 하였다.”

55) 평양 천도의 목적에 대해선 대체로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로 이해되어 왔다(津田左右吉, 1913, 「長壽王征服地域考」, 『朝鮮歷史地理』 1; 朴性鳳, 1979, 「廣開土好太王期 高句麗南進의 性格」, 『韓國史研究』 27; 노태돈, 1999, 위의 책; 田中俊明, 2004, 「高句麗の平壤遷都」, 『朝鮮學報』 190). 이와 함께 舊귀족세력의 견제와 왕권강화 측면에서 보는 견해(徐永大, 1981,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 『한국문화』 2; 김병남, 1997, 「高句麗 平壤 遷都의 原因에 대하여」, 『全北史學』 19-20), 한반도 서북부의 경제적 기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徐永大, 1981, 앞의 논문). 북위의 침공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해한 견해(末松保和, 1931, 「高句麗攻守の形勢」, 『靑丘學叢』 6; 장종진, 2011, 「5세기 전후 국제정세와 고구려 평양천도의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61), 최근에는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는데, 평양의 지리적 특성, 국가체제의 개편, 고구려 중심 천하관의 형성 등으로 고찰한 견해(文銀順, 2007, 『高句麗의 平壤遷都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등이 제시되었으며, 언급한 연구 이외에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56)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毗有王 7年條 “秋七月, 遣使入新羅, 請和”.

57)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毗有王 8年條 “八年, 春二月,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58)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毗有王 8年條 “秋九月, 又送白鷹”.

59) 『三國史記』 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18年條; 『三國史記』 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8年條.

려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sup>60)</sup> 이에 호응하여 신라도 그해 10월에 금과 명주로 화답하였다.<sup>61)</sup> 두 나라는 화친 관계로 전환하여, 고구려에 대비한 실질적 군사 지원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평양 천도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국제사회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이 확대된 상황에서 백제는 대내외적으로 고구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이에 450년 백제가 유송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이 주목된다. 그런데 종전의 교섭과는 다르게 전하는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다.

A-5. 元嘉 27년(450) 비유왕이 국서를 올리고 방물을 바쳤다. 私假한 臺使 馮野夫를 西河太守로 임명해 주고 表文으로 易林 式占 腰弩를 요구하니, 太祖가 모두 들어 주었다.<sup>62)</sup>

기사 A-5에 따르면, 450년 비유왕은 유송에 국서를 올리고, 방물을 바치고 있다. 그리고 사가한 대사 풍야부를 서하태수로 추임하여 주고, 표문으로 역림·식점·요노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태조(유송 문제)가 모두 들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물품을 언급하며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 기사는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아왔다.<sup>63)</sup> 그러나 역림·식점·요노가 함께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간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에 우선 사행을 나선 풍야부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본 후, 수입품들의 정체를 밝혀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풍야부는 북연계 인물로 추정된다.<sup>64)</sup> 풍홍을 비롯한 일부 북연 왕족이 고구려에 의해 살해당했을 때 살아남은 북연계 인물들이 북위·유송·백제 등으로 망명하였는데, 풍야부 역시 이러한 과정으로 백제에 들어온 북연 출신 인물로 보인다. 백제는 종래로 장위 등 중국정세에 밝은 중국계 망명인 혹은 출신인들을 중용하여 대종교류에서 외교 사신으로 활용하였다.<sup>65)</sup> 백제는 그들의 출신과 경험,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역림과 식점은 術數類의 경서로서 그 성격이 비슷하다. 역림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백제가 요청한 것은 주역을 응용한 漢代 焦延壽가 편찬한 역법서인 『焦氏易林』으로 보

60) 해당 기사를 두고 백제-신라 간 '동맹'으로 상정하여 434~554년 사이에 수행하였다고 보는 견해(金秉柱, 1984, 『羅濟同盟에 관한 研究』, 『韓國史研究』 46)와 실제 군사적인 협력을 수행한 455~554년으로 보는 견해(鄭雲龍, 1996, 『5~6世紀 新羅 對外關係史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국이 '군사협력체제'를 취하고 있었다는 견해(魏加耶, 2018, 『5~6世紀 百濟와 新羅의 '軍事協力體制'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가 있다. 반면 동맹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며 양국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인 군사적 협력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여 동맹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鄭載潤, 2001,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의 關係에 대한 考察-羅濟同盟에 대한 비관적 검토-』, 『湖西考古學』 4:5; 공석구, 2019, 『羅濟同盟』을 다시 검토한다』, 『百濟學報』 30)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견해를 취하든 이 시기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 협력이 있었다는 점에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61)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毗有王 8年條 “冬十月, 新羅報聘, 以良金·明珠.”

62) 『宋書』 夷蠻列傳 百濟國條.

63) 이에 대해 박윤선이 처음으로 해당 물품들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박윤선, 2008, 앞의 논문, 11~16쪽).

64) 노중국, 2007, 『百濟의 姓氏와 貴族家門의 出自』, 『大丘史學』 89, 74, 96쪽; 윤용구, 2007, 『중국계 관료와 그 활동』, 『백제의 대외교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73~274쪽; 이용호, 2023, 앞의 논문, 9~15쪽.

65) 정재윤, 2012a, 앞의 논문.

여진다.<sup>66)</sup> 역립을 통해 당시 길흉화복을 점치고, 기상변화를 징후로 삼아 災變, 災異와 같은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였다.<sup>67)</sup> 식점은 式盤을 이용해 점을 치는 것으로 평양 석암리 2호묘에서 출토된 천지반 칠기가 출토된 사례<sup>68)</sup>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일찍이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역대 설화를 모은 『太平廣記』 所引 『洽聞記』에 따르면, 450년 당시 유송에서도 식점이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송 문제의 아들 효무제가 식점의 예견에 따라 무릉 왕에 봉해진 일화를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유송 정권 차원에서도 식점을 중요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69)</sup>

역립과 식점은 전쟁 개시의 날짜를 정하는 일이나 전쟁의 승패를 점치는 일에도 활용되었다.<sup>70)</sup> 중국에서는 漢代부터 점성술을 도입하여 전쟁의 승패나 길흉을 예측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계화된 법칙을 도입하여 천상의 변화와 지상의 재난, 즉 전쟁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兵陰陽家’가 등장하기도 했다.<sup>71)</sup> 한편 일본에서도 전쟁과 관련하여 식점을 활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日本書紀』 天武條에 따르면 “황하에 도착하자 검은 구름이 끼었다. 넓이는 10여 장으로 하늘을 뒤덮었다. 이때 천황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촛불을 밝히고 친히 ‘武’을 잡고서 ‘占’을 치고는 ‘천하가 양분될 징조다. 그러니 짐이 결국 천하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라는 구절이 등장한다.<sup>72)</sup> 당시 천무천황은 반란을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키려 하였는데, 이때 하늘의 징조를 해석하기 위해 식점을 활용하고 있다. 식점을 전쟁의 명분과 당위, 그리고 전쟁의 결과를 점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백제 역시 역립·식점을 도입하여 책봉, 혼례 뿐만 아니라 전쟁의 개시와 승패를 점치는 등 간지의 명확한 해석이 요구되는 곳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요노는 쇠뇌의 한 종류로 弩(쇠뇌)는 사정거리를 높여 화살을 멀리 쏘는 활의 일종이다. 전통적인 활에 비해 정확성이 높고, 무거운 화살을 더 멀리 발사할 수 있는 무기로, 기병을 저지하는 守城 무기로 활용된다. 쇠뇌는 줄을 당기는 방식에 따라 臂張弩, 腰張弩, 蹶張弩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요노는 요장노의 일종으로 보인다.<sup>73)</sup> 이는 앉은 자세에서 팔·발·허리의 힘을 동시에 사용하는 살상 무기로 이해된다.<sup>74)</sup>

66) 장인성, 2001, 『백제의 종교와 사회』, 서경, 93쪽.

67) 정해왕, 2006, 「焦延壽의 易學思想과 易林」, 『대동철학』 35.

68) 전상운, 1988, 『한국과학기술사』, 정음사, 160쪽; 김일권, 1999, 『고대 중국과 한국의 천문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9쪽.

69) 이현숙, 2007, 「백제시대 점복과 정치」, 『역사민속학』 25, 29쪽; 『太平廣記』 135, 徵應1, “宋孝武帝宋元嘉七年五月武陵洪水善德山崩兩石高丈餘如人雕刻精奇形備古制式占者云武陵出天子其時八月孝武始誕後宮十五年封武陵王三十年即帝位出洽聞記”

70) 장인성, 2015, 「한국 고대 도교의 특징」, 『百濟文化』 52, 86쪽.

71) 병음양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안상경, 2005, 「무경의 사상적 원류」, 『한국무속학』 10, 200~207쪽.

72) 『日本書紀』 28 天武紀 元年 6月條 “將及橫河. 有黑雲廣十餘丈經天. 時天皇異之. 則舉燭親秉式占曰. 天下兩分之祥也. 然朕遂得天下歟”

73) 王志高·沈宏敏, 2019, 「漢城時代百濟與中國東晉 南朝交流的三個問題」, 『南京曉莊學院學報』 2019-2, 15쪽.

74) 요노에 대해서는 선진문물의 수용 차원에서 이해하거나(임기환, 2003, 앞의 논문, 111쪽),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신무기로 이해해 왔다(박윤선, 2008, 앞의 논문, 12~15쪽; 노중국, 2012, 앞의 책, 179쪽; 王志高·沈宏敏, 2019, 앞의 논문, 15쪽. 임동민, 2020, 앞의 논문, 194쪽; 이용호, 2023, 앞의 논문, 15~18쪽). 최근에는 하남 감일동 2-㉔지점 1호 석실에서 弩器가 출토되면서 이에 대한 상장 의례 활용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견해가 제기되었고(조윤재, 2019, 「中國 六朝 塋室墓를 통해 본 감일동 횡혈식 석실분의 屬性 初考」, 『고고학』 18-3, 138~141쪽), 나아가 백제가 수입한 요노 역시 제의적 의미의 특수기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이장웅, 2020, 「백제 한성기 중국과의 문화 교류」, 『白山學報』 116, 28~31쪽). 대체로 무기를 부장하는 행위는 의례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측

그렇다면 백제가 유송에 전쟁 관련 물품들을 요청한 배경은 무엇일까? 450년 당시, 백제는 평양 천도로 인해 고구려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군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유송에 요노를 요청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50년대에 접어들며 고구려는 신라(454)와 백제(455)를 차례로 공격하였다. 백제는 고구려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방어력을 강화시켜야 했다.

특히 백제가 요청한 요노는 기병에 대응하는 수성 무기이다. 『魏書』에 따르면, 450년 유송의 2차 북벌 당시 북위군이 수성술에 능한 유송군에 의해 고전한 사례가 확인된다.<sup>75)</sup> 또한 『宋書』 索虜傳에서는 북위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유송이 弩兵을 모집하고, 이들이 과에 응시하면 후한 상을 내리겠다는 기록이 확인된다.<sup>76)</sup> 이를 통해 쇠뇌가 당시에도 전장에서 활발히 사용된 주요 수성 무기였음을 알 수 있으며, 유송은 이를 방어 전술에 활용해 북위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송이 흔쾌히 백제의 요구에 응했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종래의 이해에 따르면 유송은 북위와의 대결에서 고구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무기는 그 나라의 핵심 군사기밀로 다른 나라에 유출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삼·식점 역시 점술류로써 외부 유출이 어려운 비서였으며 요노 역시 비교적 선진적인 軍器에 속하였다.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南齊書』에 따르면, 남제는 주변 제국이 청구한 것들이 기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의 국외 유출을 막음으로써 주변국의 요구에 선별적으로 응한 사실이 있었다.<sup>77)</sup> 이에 당시 정황을 살펴봄으로써 유송이 백제의 요구를 수락한 이유를 추측해 보도록 하겠다.

유송은 산둥반도를 둘러싸고 북위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표 1>). 북위는 445~446년에 산둥반도 서부를 공격하고, 이어서 450년 2월 1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淮水 일대까지 진격하였다. 이에 유송은 같은 해 7월 북위에 반격하기 전에 柔然과 군사동맹을 맺은 후 대규모 북벌군을 편성하여 반격하였다.<sup>78)</sup> 이 당시 북위 태무제는 유송이 주변국과 연계하여 북위를 공격하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태무제가 450년 유송에 보낸 국서가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쪽(유송)이 지난날 북쪽으로 芮芮(유연)와 교통하고, 서쪽으로 赫連(대하)·蒙遜(북량)·吐谷渾과 결탁하고, 동쪽으로 馮弘(북연)·高麗(고구려)와 연결하였다”<sup>79)</sup>라고 전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유송 중심의 ‘대북위 포위망’이 작동하여 주변국과 연계해 북위를 견제하고 있었다고 보는 중요한 근거로 이해되었다.<sup>80)</sup> 하지만 이를 역면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실제 국서에 언급된 국가들이 유송의 주도에 호응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대북위 포위망이 실질적으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sup>81)</sup>

이 시기 유송은 자국 위주로 주변국을 포섭하여 북위를 견제하려 하였지만, 실제 기대하는

---

면에서 감일동에서 출토된 노기가 상장 의례에 활용되었을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지만, 이를 요노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백제가 부장을 위해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쇠뇌인 요노를 특정하여 도입하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75) 『魏書』 35 崔浩傳 “南人長于守城”.

76) 『宋書』 95 索虜傳 “又以兵力不足…又募天下弩手, 不問所從, 若有馬步衆藝武力之士應科者, 皆加厚賞”; 王永平, 2014, 「論劉宋文帝元嘉時期北伐失敗之影響與原因」, 『學習與探索』 2014-3, 151쪽.

77) 金鍾完, 1995, 앞의 책, 55~56쪽.

78) 『宋書』 95 索虜傳.

79) 『宋書』 95 索虜傳. “彼往日北通芮芮, 西結赫連 蒙遜 吐穀渾, 東連馮弘 高麗”.

80) 노태돈, 1999, 앞의 책, 304~306쪽; 金鍾完, 1995, 앞의 책, 80쪽

81) 김진한, 2018, 「5世紀 高句麗의 對宋外交 再檢討」, 『歷史學報』 237, 38~40쪽; 여호규, 2022, 「5세기 초·중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구려의 외교정책」, 『역사와 현실』 124, 144~146쪽.

바와는 다르게, 주변국들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송의 포위망 구축은 실패하였지만, 개별적으로 해당 국가들과 접촉하며 북위의 세력 확장에 견제하려 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가령, 유송은 북위 정벌을 앞두고 유연으로부터 군사 협력을 약속받은 점은 유송의 개별적 접촉이 있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sup>82)</sup> 이에 북위와 대립하는 다른 주변국들에게도 협력을 유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이상과 같은 가정이 허락된다면, 유송은 고구려를 포섭하기 위해 역으로 백제를 지원함으로써 고구려에게 자국과 협력할 것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풍홍 살해사건에서 살펴보았듯, 이 시기 고구려는 남북조의 대결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며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이듬해 451년부터 유송과의 교섭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인다(<표 1>). 이는 북위 견제, 유송과의 교섭을 통한 선진문물 획득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4장에서 후술할 한반도 내 백제와 신라의 반고구려 움직임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는 유송의 고구려 압박 전략이 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4. 개로왕대 외교전략과 대고구려 노선 전환

455년 백제에서는 비유왕이 사망하고, 개로왕이 즉위하는 왕위교체가 이루어졌다. 개로왕대 이루어진 유송과의 교섭에 대해 <표 1>을 보면, 457년과 458년에 연이어 사신을 파견한 이후 한동안 뜸해졌다가, 467년과 471년에 다시 사신을 보낸 후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아래의 유송 교섭 기사를 바탕으로 개로왕대 유송과의 교섭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B-1. 世祖 大明 원년(457)에 사신을 보내 除授를 요구하자 詔勅으로 허락하였다. 冬十月 甲辰일에 百濟王 餘慶을 鎮東大將軍에 삼았다.<sup>83)</sup>

B-2. 大明 2년(458)에 慶이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신의 나라는 대대로 특별한 은혜를 입고 문무의 훌륭한 신하들이 대대로 조정의 관작을 받았습시다. 行冠軍將軍 右賢王 餘紀 등 11명은 충성스럽고 부지런하여 높은 지위에 나아감이 마땅하오니, 앞드려 바라옵건대 가엾게 여기시어 모두 제수해주기를 청하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行冠軍將軍 右賢王 餘紀를 冠軍將軍으로, 行征虜將軍 左賢王 餘昆, 行征虜將軍 餘暈를 모두 征虜將軍으로, 行輔國將軍 餘都和 餘父를 모두 輔國將軍으로, 行龍驤將軍 沐衿과 餘爵을 모두 龍驤將軍으로, 行寧朔將軍 餘流와 麋貴를 모두 寧朔將軍으로, 行建武將軍 于西와 餘婁를 모두 建武將軍으로 삼았다. 太宗 泰始 7년 또 사신을 보내 공물을 헌상하였다.<sup>84)</sup>

82) 450년 7월 유송 문제의 북벌 조서에 따르면 유연은 유송에 비밀리에 사신을 보내 항복하고 ‘掎角之勢’로 협력하여 북위를 공격할 것을 맹세하였다(芮芮亦遣間使遠輸誠款誓爲掎角, 『資治通鑑』 125 元嘉 27年 7月條)고 한다. 이에 여호규는 실제로 유연이 유송에 사신을 파견하고 북벌에 참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보았다(여호규, 2022, 앞의 논문, 145~45쪽, 각주 125).

83) 『宋書』 97, 夷蠻列傳, 百濟 ; 『宋書』 6, 孝武帝.

84) 『宋書』 97 夷蠻列傳, 百濟條.

B-3. (467년) 고구려와 백제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sup>85)</sup>

B-4. (471년) 겨울 11월 戊午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sup>86)</sup>

기사 B는 개로왕대 백제와 유송의 교섭 기사이다.<sup>87)</sup> 그중 B-1, B-2는 개로왕 본인 및 즉위를 도운 친위세력에 대한 관작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우선 B-1을 보면, 457년(개로왕 3) 10월에 유송으로부터 ‘鎮東大將軍’의 작호를 받았다. 해당 책봉은 孝武帝(재위:453~454) 大明 元年에 행해진 것으로, 개로왕이 除授를 요구하니, 효무제가 이를 허락한 것이다.<sup>88)</sup> 그리고 B-2에선 이듬해 458년에 다시 사신을 보내 백제 군신 11인에 대한 관작을 청구하였다.

이는 새로 즉위한 개로왕이 유송으로부터의 책봉을 통해 왕위교체 정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하여 권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sup>89)</sup> 3장에서 살펴본 비유왕대 초기 교섭의 성격과 유사한 성격으로 이해된다. 한편, B-2에서 보이는 11인의 군신들에 대한 이름이 눈에 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로왕의 즉위를 도와 개로왕 집권 초기 정국 운영을 주도하는 인물들로 이해되고 있다.<sup>90)</sup> 책봉을 받은 11인 가운데 8인이 왕족인 餘氏로 확인되며, 그 외에 木氏나 麩氏, 于氏 등의 귀족들도 일부이지만 확인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전지왕 이후 한성기 정국을 주도한 세력이었던 유력한 귀족 가문인 解氏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지왕 이전 정국 주도 핵심 세력인 진씨가 밀려난 데에는 고구려 정책의 실패가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해씨 세력은 고구려 정책의 성패 여부가 자신들의 권력 존속을 좌우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 생각된다.<sup>91)</sup> 그리고 이러한 대고구려 온건 태도는 고구려와의 정면 대결보다는 소강 국면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로왕 초기 정국에서 해씨 세력의 부재는 왕위교체 과정에서 일종의 마찰이 벌어진 것을 암시하며, 그 결과 정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비유왕 말기인 450년 이후 역림·식점·요노를 수입하는 등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비하는 태세로 전환된 것이 명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sup>92)</sup> 비유왕의 대고구려 정책 변화는 고구려 정책에 소극적이었던 해씨 세력을 비롯한 온건 세력의 반발을 가져왔다고 추정된다.<sup>93)</sup> 만약 비유왕 말기 대고구려정책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당시 집권하고 있던 해씨 세력과 강경파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결국 개로왕이 즉위하면서 해씨 세력을 비

85) 『宋書』 8, 明帝 3年條 “乙卯, … 高麗國百濟國遣使獻方物”.

86) 『宋書』 8, 明帝 7年條 “冬十一月戊午, 百濟國遣使獻方物”.

87) 『冊府元龜』에 따르면 백제가 463년에도 유송에 사신을 파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책부원귀』의 찬자가 고구려의 사행과 혼동하여 463년에 고려국 대신 백제국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坂元義種, 1978, 앞의 책, 43~44쪽).

88) 해당 책봉은 당시 효무제가 새로운 연호를 선포하기 위해 주변 제국에 대해 시행한 책봉으로 보는 견해(박현숙, 2017, 앞의 논문, 42쪽)가 있으나, 『宋書』 夷蠻列傳에 따르면, 백제왕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89) 盧重國, 1988, 앞의 책, 142~146쪽; 梁起錫, 1990, 앞의 논문, 123~126쪽; 鄭載潤, 1999, 『熊津時代 百濟 政治史의 展開와 그 特性』,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21쪽; 문안식, 2005, 「개로왕의 왕권강화와 국정운영의 변화에 대하여」, 『史學研究』 78, 42~53쪽; 박현숙, 2017, 앞의 논문, 42쪽.

90) 정재윤, 2012b, 「4~5세기 백제와 고구려와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44, 79쪽.

91) 李龍虎, 2009, 앞의 논문, 76~77쪽.

92) 다만 비유왕대 고구려를 공세적으로 압박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4세기 후반 대고구려전 이후 백제의 직접적인 선제공격은 개로왕 재위 15년인 469년에서야 확인된다.

93) 이용호, 2023, 앞의 논문, 24쪽.

못한 온건 세력은 실각하였고, 반대 세력에 있던 대고구려 강경파가 개로왕을 위시하며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457·458년의 유송 사행의 성격은 개로왕 정권의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로왕대 백제의 대내외 관심사가 대고구려전의 수행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연구 중에는 고구려와 유송의 밀접한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유송 교섭을 전개하였다는 견해가 있다.<sup>94)</sup> 그러나 백제가 유송을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려는 전략이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반론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sup>95)</sup>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송은 고구려 및 백제와 국경을 접하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는 것, 기사상에서 백제의 ‘고구려 견제’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표 1>을 참고하면, 고구려는 451년 이후 꾸준히 유송과 교섭하고 있으며, 462년에는 북위 교섭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북조를 오가며 국제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고구려를 상대로 백제의 외교적 견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우선 이 시기 백제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였던 ‘고구려 견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개로왕은 즉위하자마자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이를 신라가 구원해주는 상황이 나타난다.<sup>96)</sup> 직전 해인 454년에는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기도 하였다.<sup>97)</sup> 고구려는 450년대 들어 백제와 신라를 번갈아 가면서 공격하고 있다. 신라에 대한 공격은 450년 신라가 고구려 변장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평양천도 이후 화해를 모색하였다. 종래로 신라는 광개토왕의 남정 이후 왕위계승에 간섭을 받을 정도로 고구려에 예측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433년 백제와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자립을 모색하였다. 450년 고구려 변장 살해사건은 신라가 고구려의 세력권에서 이탈하여 양국이 대립관계로 전환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sup>98)</sup>

그렇다면, 개로왕 즉위 직후 고구려가 백제를 침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反고구려 공동 전선을 구축한 백제에 경고로 보거나<sup>99)</sup> 개로왕 정권의 對고구려 입장을 시험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는 견해<sup>100)</sup> 등이 제시되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시 백제와 신라의 반고구려 움직임의 의식한 고구려의 조치로 이해된다.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교전 기사는 보이지 않다가, 469년에 다시 확인된다.<sup>101)</sup> 해당 내용은 백제가 고구려를 선제공격한 내용으로, 백제가 고구려에 공세로 전환한 모습은 아신왕 8년(399)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人馬를 동원한 사실 이후 약 70년 만에 확인된다. 같은 해 10월에는 파주 일대로 추정되는 쌍현성<sup>102)</sup>과 개성 부근으로 추정되는 청목령에 목책을 세우는 등 관방 시설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인다.<sup>103)</sup> 이와같이 백제는

94) 김철민, 2016, 앞의 논문 ; 임동민, 2020, 앞의 논문, 201쪽 ; 장미애, 2023, 앞의 논문.

95) 임기환, 2003, 앞의 논문 ; 박윤선, 2008, 앞의 논문 ; 박찬우, 2022, 『백제의 외교문서와 남북조 외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6) 『三國史記』 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9年條. “三十九年, 冬十月, 高句麗侵百濟, 王遣兵救之”

97) 『三國史記』 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8年條. “八月, 高句麗侵北邊”

98) 『三國史記』 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4年條. “秋七月, 高句麗邊將獵於悉直之原, 何瑟羅城主三直出兵, 掩殺之. 麗王聞之怒, 使來告曰, “孤與大王修好至歡也, 今出兵殺我邊將, 是何義耶.” 乃興師侵我西邊. 王卑辭謝之, 乃歸”

99) 433·434년에 체결된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 협력관계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보는 견해도 있다(金壽泰, 2000, 「百濟 蓋鹵王代の 對高句麗戰」, 『百濟史上的 戰爭』, 서경문화사, 224쪽).

100) 정재윤, 2012b, 앞의 논문, 79~80쪽

101)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蓋鹵王 15年條 “十五年, 秋八月, 遣將侵高句麗南鄙”

102) 파주 장단의 북쪽에 위치한 망해산(望海山)의 쌍령(雙嶺)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다(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194쪽).

103)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蓋鹵王 15年條 “冬十月, 葺雙峴城, 設大柵於青木嶺, 分北漢山城士卒戍

469년 직후 본격적으로 고구려와의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04)</sup>

백제는 고구려에 선제공격하기 이전에 왜와의 관계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개로왕은 461년 王弟인 昆支를 왜에 파견하여<sup>105)</sup>, 428년 이후 소원했던 왜와의 관계를 재개한다. 이처럼 백제는 고구려와의 갈등 속에서 유송과의 교섭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실질적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라와 왜의 우호 관계에서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로왕 정권은 고구려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군사 체계 방면의 재편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사 B-2에 보이는 左賢王 餘昆과 右賢王 餘紀의 구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여기는 어떠한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여곤은 개로왕의 동생인 昆支로 확인된다.<sup>106)</sup> 좌·우현왕은 匈奴의 位號로 흉노 최고 통치자인 單于의 뒤를 잇는 왕위계승자에게 붙는 작호로 左·右屠耆王이라고도 한다. 이는 각각의 영지(軍)를 갖춰 지휘하였으며, 중앙을 관할하는 선우를 정치·군사 방면에서 보좌하는 유목민족 특유의 통치체제이다.<sup>107)</sup> 줄곧 동진·유송 등 한족 왕조와 교류하였던 백제가 갑자기 흉노의 위호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sup>108)</sup>

흉노에서 좌·우현왕제는 각각의 영지를 지휘하다가 하나의 영지가 공격받았을 경우 다른 영지에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전술 체제이다.<sup>109)</sup> 백제의 좌·우현왕 역시 지방으로 파견되어 지방군을 조직화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견해<sup>110)</sup>를 참조한다면, 백제는 고구려의 남침에 대비하여 중앙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왕의 근친이 군사권을 행사하여 중앙을 구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는 기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450년부터 유송으로부터 역립·식염·요노와 같은 문물을 받아들여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백제가 좌·우현왕을 도입한 이유도 고구려의 남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전술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sup>111)</sup>

之”

104) 정재윤, 2012b, 앞의 논문, 80쪽.

105) 『日本書紀』 14 雄略紀 5年條.

106) 李基東, 1974, 「中國史書에 보이는 百濟王 牟都에 대하여」, 『歷史學報』 62, 30~33쪽.

107) 山田信夫, 1989, 「テュルク モンゴル系古代遊牧民の國家形成」, 『北アジア遊牧民族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21~22쪽.

108) 좌·우현왕제 도입 경로에 대해서 북방계 유목민족이 백제로 남하하면서 남긴 체제로 이해하거나(朴淳發, 1999, 「漢城百濟의 對外關係 - 國家 成立期 對外交渉의 實狀과 意義 -」, 『百濟研究』 30, 33~35쪽), 남조를 통해 전해졌다고 보거나(정동준, 2013, 『동아시아 속의 백제 정치체제』, 일지사, 143쪽), 북연 출신의 풍야부 같은 중국계 이주민의 수용을 통해 위호를 접했을 것(노중국, 2012, 앞의 책, 183~186쪽; 남소연, 2023, 「5세기 백제의 좌·우현왕(左·右賢王)수용 배경과 기능」, 『百濟學報』 45, 70쪽)의 견해들이 제출되었다. 노중국은 북조와의 교류 가능성을 상정하여 그 과정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109) 흉노에서 좌·우현왕은 정치적 위상과 더불어 군사권을 장악한 선우 다음의 지위로 이해된다(坂元義種, 1978, 앞의 책, 68~71쪽). 나아가 좌·우현왕이 국왕과 함께 권력을 분점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주보돈, 2007, 「개로왕의 체제개혁과 한성함락」, 『웅진도읍기의 백제』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42~343쪽). 흉노는 선우 아래 左·右屠耆王, 左·右谷蠡王, 左·右大將, 左·右大都尉, 左·右大當戶, 左·右骨都侯 등 2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작위는 기병을 보유하였다. 이들은 크게 3개 방면으로 軍을 편제하였다. 左翼은 동쪽에 영지를 둔 군으로 좌현왕이 지휘하였으며, 右翼은 서쪽에 영지를 둔 군으로 우현왕이 지휘하였다. 중앙은 선우의 직할령으로 左·右骨都侯가 보좌하였다(山田信夫, 1989, 앞의 논문, 31~46쪽; 金浩東, 1989,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講座 中國史II』, 지식산업사, 272~275쪽).

110) 金英心, 1990, 「5~6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史論』 22, 78~79쪽; 李道學, 1990, 앞의 논문, 298~299쪽; 鄭載潤, 1999, 앞의 논문, 21~24쪽; 정동준, 2013, 앞의 책, 143쪽.

111) 鄭載潤, 1999, 앞의 논문, 24쪽, 註)37에 따르면, 백제는 성왕 22년(544) 고구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를 조직화하는 모습에 착목하여 개로왕의 체제개혁도 고구려의 남침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력의

다음과 같이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 위협에 대해 정치·군사 방면에서 정국을 재편하는 한편, 신라와 왜의 관계를 결속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송 교섭을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에서 보듯이 450년대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유송 교섭 횟수 역시 고구려 12회, 백제 4회로 확인한 차이를 보인다. 그중 백제의 교섭은 개로왕이 본인과 신하들의 관작을 청구한 457·458년을 제외하면, 460~470년대에는 두 차례 확인된다. 467년(B-3)과 471년(B-4) 사행 내용은 ‘遣使獻方物’로 단편적인 내용만 전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류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당시 산둥반도의 정세변화에 주목하는 견해가 참고된다.<sup>112)</sup>

유송은 明帝 泰始(465~472) 연간은 명제 즉위에 반발하는 세력의 반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방호족들이 대거 가담하고 종실의 왕들과 명족의 자제들이 살해되고, 일부 황족들은 북위로 망명을 가는 등 혼란의 연속이었다.<sup>113)</sup> 유송 말 종실에서는 황권을 두고 혈육상잔이 벌어졌고, 2명의 폐제가 발생하는 등 황제들의 자질도 의심스러워 황실 내정에도 위기가 초래되었다.<sup>114)</sup> 더욱이 대외적으로는 북위에 산둥반도 일부를 내어준 상황이었다.

유송은 457년 이후 산둥반도 서부를 두고 북위와 대립하고 있었다. 457~458년 북위가 산둥반도 서부를 공격하였으나 유송의 저항에 막혔고, 다시 466년 10월부터 467년 1월까지 4개월에 걸친 공방에서 북위가 산둥반도 서부를 차지하였다. 유송은 곧바로 반격하여 2월에 산둥반도 동부에 군사를 보내 진압하였지만, 결국 469년(명제 태시 6년) 1월 산둥반도 일대를 내주었다. 그 결과 유송은 최북단 거점을 鬱洲(현재의 江苏省 连云港市)로 이동하면서 회하 이북 전역의 땅을 상실하였다.

산둥반도는 중국과 교통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다. <표 1>에서 보듯이, 450년대 들어서 고구려는 유송에 451·453·455·458·459년에 걸쳐 꾸준히 사신을 파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462년부터 종래 중단했던 대북위외교를 재개하면서 남북조 왕조들과 더욱 빈번히 왕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구려가 460년대 들어서 남북조로 사행 횟수를 늘린 것 역시 이러한 정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백제의 입장에서도 산둥반도의 정세는 중요했을 것이다. 이에 유송이 대내외적으로 쇠락한 상황에서도 467년(B-3)과 471년(B-4)에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선진문물을 수용하는 동시에 산둥반도의 정세에 주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와 유송의 관계 기사는 476년 고구려의 방해로 인한 사행 실패<sup>115)</sup>를 제외하면,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 위기 속에서 개로왕 18년인 472년 北魏에 조서를 보내 講兵하면서 북위로 외교 노선을 전환하였다. 이 시기 백제가 대북위 외교로 전환한 이유는 유송이 대내외적으로 혼란하였던 상황과 더불어 469년 이후 고구려와 전쟁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던 북위와 접촉하여 고구려 공격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

극대화를 위해 국가를 조직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해당 의견에 동의하는 일환에서 좌·우현왕의 전술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효율적인 군대 운영을 위해 좌·우현왕을 도입하였을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112) 백다해, 2016, 앞의 논문, 243~244쪽 ; 임동민, 2020, 201~202쪽.

113) 박윤선, 2008, 앞의 논문, 9쪽.

114) 유송 말기에 정권이 내부적으로 붕괴된 이유에 대해 황실 내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효무제의 강력한 전제정치가 사후에 중앙의 권력 공백을 야기하면서 분열과 투쟁이 격화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赫兆丰, 2023, 「孝武帝出镇皇子府佐安排对刘宋后期政治的影响」, 『中南大學學報』 29-3, 222~223쪽).

115) 『三國史記』 26 百濟本紀4 文周王 2年條.“三月, 遣使朝宋, 高句麗塞路, 不達而還”

## 5. 맺음말

본고는 5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인 역학관계론을 바탕으로 백제와 유송 양국의 대내외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백제의 대유송외교의 전개 양상과 그 성격을 검토하였다.

유송은 동진 말기에 권력을 잡은 무관 출신의 유유가 420년에 세운 나라로, 백제와 유송의 외교 관계는 유유가 실권을 잡은 동진 말부터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유송 건국 초 유송의 일방적인 책봉을 제외하면, 양국은 424·425년에 사신을 교환하였는데, 이는 백제의 조공에 유송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백제는 對고구려전 이후 혼란스러웠던 국내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리하여 유송과의 교섭을 통해 책봉호와 선진문물을 받아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비유왕대 들어서 백제와 유송의 외교관계는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 시기 백제와 유송의 교섭은 총 5차례 확인되는데, 백제는 이 과정에서 고구려와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易林·武占·腰弩 등을 수입할 수 있었다. 해당 물품들은 국외 유출이 금지된 秘書 및 신무기로 보이며, 이를 수입했다는 점은 이 시기 양국 외교관계의 긴밀함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 백제와 유송의 관계가 강화된 이유를 양국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유송은 430년대 이래 3차례의 대규모 북벌을 단행하면서, 주변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특히 북위와 동북 방면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고구려의 협조가 필요하였는데, 438년 고구려에 은신 하던 馮弘이 유송과 내통하자 장수왕이 풍홍을 살해하고, 유송의 사신 王白駒를 압송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자칫 고구려와 유송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고구려가 대북위전에 필요한 말 800필을 보내면서 양국 간 갈등이 무마되었다. 유송의 입장에선 고구려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백제와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백제는 450년대 들어 고구려와의 충돌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했다. 이에 당시 기마전술이 뛰어난 북위를 상대로 공성전을 벌인 유송의 守城術이 필요하였다. 북연 출신 풍야부를 파견해 고구려의 기병에 대응할 수 있는 요노를 비롯해 전쟁의 길일과 결과를 점치는 역림과 식점을 수입해 대고구려전을 준비한 것이다. 이처럼 양국의 외교가 강화된 요인은 유송과 백제 양국이 북방 세력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가 합치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개로왕대 전개된 백제와 유송의 교섭은 사행 빈도와 교섭의 내용 측면에서 비유왕대의 교섭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반면, 개로왕 재위 기간 동안 신라·왜와 우호를 다지고, 북위에 청병하는 등 비유왕대 유송을 중심으로 외교를 전개했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

개로왕 즉위 초, 백제는 457년과 458년에 연이어 사신을 파견하여 친왕 중심의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 내정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했다. 또한 좌·우현왕을 통해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는 등 대고구려 강경책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461년 왕제 곤지를 왜에 파견하고, 469년에는 70년 만에 고구려를 선제공격하는 한편, 국경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진행했다. 그러나 471년의 사행을 끝으로 유송과의 외교 관계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469년을 기점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가 전면전으로 돌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유송 내부의 혼란 역시 백제의 외교 기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460년대 말, 유송은 북위에 산둥반도의 소유권을 넘겨주었으며, 내부적으로는 황족이 살해되는 등 황제의 통치력이 약화되어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는 실질적인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

기 어려운 유송 대신, 오히려 북위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고구려 공격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백제의 대유송 외교는 주로 백제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측면이 강했다. 또한, 대내외 정세에 따라 양국의 관계가 강화되거나 다른 국가로 외교를 전환하는 모습은 백제의 외교가 이익과 실리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전략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金壽泰, 2000, 『百濟史上的 戰爭』, 서경문화사.
-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 노중국, 2012,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 정동준, 2013, 『동아시아 속의 백제 정치제도』, 일지사.
- 
- 김수태, 2011,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외 관계와 남조」, 『百濟學報』 6.
- 金英心, 1990, 「5~6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史論』 22.
- 金鍾完, 1989, 「南北朝時代의 冊封에 대한 檢討-賜與된 官爵을 中心으로-」, 『東亞研究』 19.
- 김진한, 2018, 「5世紀 高句麗의 對宋外交 再檢討」, 『歷史學報』 237.
- 김택민, 2012, 「중국 고대 정권찬탈자들의 重譯來庭論」, 『歷史學報』 213.
- 김철민, 2016, 「高句麗 長壽王代의 對宋外交와 그 背景」, 『韓國史學報』 63.
- 金浩東, 1989,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講座 中國史Ⅱ』, 지식산업사.
- 남소연, 2023, 「5세기 백제의 좌·우현왕(左·右賢王)수용 배경과 기능」, 『百濟學報』 45.
- 盧重國, 1978,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 4.
- 盧重國, 1981,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 노중국, 2007, 「百濟의 姓氏와 貴族家門의 出自」, 『大丘史學』 89.
- 문동석, 2008, 「5세기 한성백제의 정치동향과 대외관계」, 『서울과 역사』 72, 서울역사편찬원.
- 문안식, 2005, 「개로왕의 왕권강화와 국정운영의 변화에 대하여」, 『史學研究』 78.
- 朴淳發, 1999, 「漢城百濟의 對外關係 -國家 成立期 對外交涉의 實狀과 意義-」, 『百濟研究』 30.
- 박윤신, 2008, 「백제와 송·제·양 교섭기사에 대한 고찰」, 『역사문화연구』 31.
- 박찬우, 2022, 『백제의 외교문서와 남북조 외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찬우, 2023a, 「삼국의 대중관계와 表文」, 『한국고대사연구』 111.
- 박현숙, 2017, 「한성시기 백제의 宋·北魏와의 외교 배경과 그 양상」, 『先史와 古代』 51.
- 徐榮洙, 1981, 「三國과 南北朝 交涉의 性格」, 『東洋學』 11.
- 안상경, 2005, 「무경의 사상적 원류」, 『한국무속학』 10.
- 梁起錫, 1982, 「百濟 腆支王代의 政治的 變革」, 『湖西史學』 10.
- 梁起錫, 1990,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호규, 2022, 「5세기 초·중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구려의 외교정책」, 『역사와 현실』 124.
- 윤용구, 2007, 「중국계 관료와 그 활동」, 『백제의 대외교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李基東, 1974, 「中國史書에 보이는 百濟王 牟都에 대하여」, 『歷史學報』 62.

- 李道學, 1990, 「漢城後期の百濟王權과 支配體制의 整備」, 『百濟論叢』 2.
- 李龍虎, 2009, 「百濟 腆支王代 解氏勢力의 擡頭와 對高句麗 政策」, 『韓國史研究』 147.
- 이용호, 2023, 「백제 비유왕의 對高句麗 정책과 개로왕의 즉위 과정」, 『北岳史論』 18.
- 이장웅, 2020, 「백제 한성기 중국과의 문화 교류」, 『白山學報』 116.
- 이현숙, 2007, 「백제시대 접복과 정치」, 『역사민속학』 25.
- 임기환, 2003, 「한성기 백제의 대외교섭」, 『한성기 백제의 물류시스템과 대외교섭』, 학연문화사.
- 임동민, 2020, 「백제와 송의 교섭 배경과 항로」, 『역사와 현실』 117.
- 장미애, 2023, 「毗有王~蓋鹵王代 백제의 對中交涉 전개와 고구려」, 『高句麗渤海研究』 76.
- 장인성, 2015, 「한국 고대 도교의 특징」, 『百濟文化』 52.
- 정동준, 2017, 「5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책봉호의 정치적 의미-백제 및 남조 주변제국에 수여된 장군호를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52.
- 井上直樹 저·임동민 역, 2018, 「백제의 王號·侯號·太守號와 將軍號-5세기 후반 백제의 지배 질서와 동아시아-」, 『百濟學報』 25.
- 鄭載潤, 1999, 『熊津時代 百濟 政治史의 展開와 그 特性』,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윤, 2009, 「5~6세기 백제의 南朝 중심 외교정책과 그 의미」, 『百濟文化』 41.
- 정재윤, 2012a, 「중국계 백제관료에 대한 고찰」, 『史叢』 77.
- 정재윤, 2012b, 「4~5세기 백제와 고구려와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44.
- 조운재, 2019, 「中國 六朝 塹室墓를 통해 본 감일동 황혈식 석실분의 屬性 初考」, 『고고학』 18-3.
- 주보돈, 2007, 「개로왕의 체제개혁과 한성함락」, 『웅진도읍기의 백제』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江畑武, 1968, 「四~六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中國との冊封をめぐ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
- 山田信夫, 1989, 「テュルク モンゴル系古代遊牧民の國家形成」, 『北アジア遊牧民族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 王永平, 2014, 「論劉宋文帝元嘉時期北伐失敗之影響與原因」, 『學習與探索』 2014-3.
- 王業·王永平, 2020, 「元嘉十七年至元嘉末南北軍事關係演進研究」, 『山西大同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0-4
- 王志高·沈宏敏, 2019, 「漢城時代百濟與中國東晉 南朝交流的三個問題」, 『南京曉莊學院學報』 2019-2.
- 李磊, 2014, 「百濟의 天下意識與東晉南朝의 天下秩序」,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4-2.

## 음정현 선생님, 「5세기 백제의 대유송외교와 그 성격」에 대한 토론문

박찬우(국사편찬위원회)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百濟의 劉宋外交展開와 意味」(2024, 공주대 석사학위논문)을 축약하고 일부 수정·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료가 많지 않고 선행 연구도 이미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목록지 않은 연구 여건 속에서 필자는 5세기 국제정세와 백제 국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시기별 관계의 변화상과 그 배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유송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변동을 적극 살펴봄으로써 백제의 대중관계를 다각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점이 인상적이다.

다만 필자도 지적하였듯이, 관련 사료가 제한적인 만큼 무리한 추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현실적인 한계로 남는다.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기도 쉽지 않다. 이하 토론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견해에 대하여 큰 틀에서 이견은 없지만, 이는 달리 말하면 선행연구와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토론 내용의 대부분은 질문보다는 제언에 가깝다. 향후 이 글이 수정·보완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1. 문제의식과 결론

- 머리말에서 이 글의 문제의식을 찾아보면 백제 대유송 외교의 종합적 검토(전론) 및 유송의 입장을 좀 더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백제-유송 관계를 검토했을 때 필자가 얻은 새로운 결론은 무엇인가? 이것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 맺음말에서 필자는 “백제의 대유송 외교는 주로 백제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측면이 강했”고, “백제의 외교가 이익과 실리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전략에 기반”하였다고 정리했다. 맺음말 서두에서 이 글은 역학관계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천명한 만큼, 결국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며, 이익과 실리를 추구하지 않는 외교도 있던가?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다면 백제의 대유송 외교가 갖는 역사성이나 독자적 의의는 드러나지 않으며, 선행연구와의 차별점도 모호해진다. 필자가 생각하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및 이에 입각한 창의적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2. 역학관계론에 대하여

- 필자는 이 글이 역학관계론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국제관계가 힘의 우열에 따른 세력균형과 각 국의 실리추구에 따라 전개된다는 것이다. 그

런데 국제관계가 국가 상호 간 역관계에 따라 전개된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역학관계론에 입각하여 선행연구와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 일찍이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는 자신의 ‘책봉체제’론이 국가 간 실제 역관계를 간과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니시지마는 자신 역시 국제관계가 국가 간 상호 역관계에 의해 전개된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으며, 책봉관계가 제도적 형식임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주안점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항상 책봉관계라는 형식을 매개로 표현되는 현상(일종의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sup> 여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역학관계론은 국제관계를 통시·공시적으로 일반화할 위험성이 있다.
- 최근 국내학계에서도 역학관계론이 조공·책봉관계를 단순히 명목적 외교형식으로 치부하여 근현대와 구별되는 전근대 외교관계의 특성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했으며, 또한 역학관계론이 국제질서의 구조라는 객관적(물질적) 조건 및 외교관계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지만, 각 국의 국가정체성이나 국제정세 인식과 같은 주관적 요소 및 이에 따른 외교정책의 차이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sup>2)</sup> 근현대와 구분되는 전근대 국제관계의 특성을 탐구하거나 새로운 이론적 기반에 바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3. 424~425년 백제왕의 실체와 책봉

- 『송서』 백제전에 따르면 424년 백제왕 映이 長史 張威를 사신으로 보냈고, 이듬해 유송의 文帝(太祖)가 이에 화답했다. 여기서 映은 전지왕을 가리키지만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420년 3월에 죽었으며, 424년은 구이신왕 5년이다. 필자는 424년의 견사 주체를 구이신왕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송서』를 고려할 때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다. - 『일본서기』 응신 25년(294→수정기년 414)조에는 이때 전지왕이 죽고 구이신왕이 즉위했다고 나온다. - 이에 구이신왕의 재위기간을 424~427년으로 조정해 보기도 했다.<sup>3)</sup>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 한편 필자는 425년 文帝가 백제왕(필자에 따르면 구이신왕)을 책봉했다고 보면서 그 근거로서 『송서』 백제전에 실린 詔書를 각주에 인용했다. 그러나 이 詔書는 책봉조서는 아니다. ‘皇帝問’ 운운으로 시작되는 조서는 隋唐代에는 ‘慰勞詔(制)書’로 불리게 되는데, 그 목적은 ‘褒贊賢能, 勸勉勤勞’이다. 책봉은 ‘門下 ... 可 ... 主者速施行’으로 구성되는 조서를 통해 이루어진다.<sup>4)</sup> 백제왕을 구이신왕으로 보려 한다면, 『송서』에 수록된 詔書 자체보다는 그 내용 중의 “故嗣位方任, 以藩東服, 勉勗所蒞, 無墜前蹤”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단, 이 경우에도 『송서』 백제전에 424년 견사 주체가 ‘映(전지왕)’으로 기록된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1) 西嶋定生, 1985, 『日本歴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238쪽.

2) 여호규, 2023, 「한국 고대 외교와 전쟁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제언」, 『한국고대사연구』 112.

3)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4) 박찬우, 2022, 「백제 외교문서의 종류와 형식」, 『한국사학보』 89.

#### 4. 440년, 443년 교섭과 왜 견제

- 『송서』 본기 元嘉 20년(443)조(A-4) “是歲, 河西國, 高麗國, 百濟國, 倭國竝遣使獻方物.”에 대하여 백제가 ‘고구려와 왜의 사신과 함께’ 유송에 조공했다고 보았다. 물론 ‘同時遣使’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是歲조는 그 해 사신을 보내온 나라들(시기는 제각기 다를 수 있음)을 일괄하여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 또한 필자는 438년 왜왕 珍이 백제가 포함된 ‘都督諸軍事’號 除正을 유송에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440~443년 백제의 유송 교섭 목적에 ‘왜 견제’의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서 백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를 견제하려 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선행연구에서 백제의 대송견사 목적으로 고구려 견제, 왜 견제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송과의 교섭을 통한 견제’의 실태에 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보지 못했다. 필자가 생각하는 ‘왜 견제’의 실상이란 무엇인지 보충 설명 부탁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연구자들(熊谷公男, 井上直樹)을 중심으로 비유왕대 백제와 왜의 관계가 소원했다는 견해도 제출되고 있으므로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sup>5)</sup>

#### 5. 백제를 이용한 유송의 고구려 압박?

- 필자는 3장 말미에서 유송이 백제의 易林, 式占, 腰弩(필자에 따르면 秘書, 軍器)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배경에 의문을 표하면서, 유송이 북위 견제를 위해 고구려를 포섭하려 했고, 이에 역으로 백제를 지원함으로써 고구려를 자기 편으로 유도하려 했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내 反고구려 움직임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효과(451년부터 고구려의 대유송 외교 본격화)를 보았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럴듯한 추정이기기는 하지만, 고구려의 유송 견사 계기를 다소 타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유송이 백제의 秘書, 軍器(필자에 따르면 외부반출이 어려운 물품-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요청에 응했다면 그것은 ‘고구려 포섭’보다는 백제와 우호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고찰해야 하지 않을까? 중화의 정통을 놓고 경쟁하던 남조와 북조는 주변국 어느 하나라도 자기 편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 6. 기타 사항

- 2장 두 번째 문단: 416년 동진 安帝가 전지왕을 ‘進號’하였다고 서술했는데, 이때의 책봉은 동진이 그간 백제왕에게 주었던 鎮東將軍을 준 것이지 ‘進號’는 아니다.
- 腆支王을 『송서』에 따라 夫餘映(부여영)이라 칭하는 대목이 2장에 보인다. 여기서

5) 熊谷公男, 2006, 「5世紀倭·百濟關係와 羅濟同盟」, 『百濟研究』 44 : 2007, 「五世紀の倭·百濟關係と 羅濟同盟」, 『アジア文化史研究』 7, 東北學院大學大學院文學研究 : 2015, 「倭王武の上表文と五世紀の東アジア情勢」, 『東北學院大學論集』 53, 東北學院大學學術研究會 ; 井上直樹, 2018, 「百濟の王號·侯號·太守號と將軍號」,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211, 國立歷史民俗博物館.

映은 「양직공도」나 『통전』 등에 ‘餘臚’으로 나오듯이 ‘臚’의 誤寫(혹은 誤刻)임이 분명해 보인다. ‘부여전’으로 칭하거나 단지 ‘전지왕’이라 해도 될 것이다.

- 3장 내용과 관련하여 참고문헌에 쉬리(Xu Li), 2024, 「百濟의 數術과 方技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3장은 ‘비유왕대 易林·式占 도입의 의미’)가 빠져 있다. 필자의 석사논문에는 인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3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연구인 만큼, 연구사 검토 및 차이점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 支藥兒食米記를 통해 본 百濟의 道使

송기섭(공주대)

1. 머리말
2. 支藥兒食米記의 道使 분석
3. 『括地志』와 銘文瓦에 보이는 百濟의 道使
4. 고구려·신라의 사례를 통해 본 道使의 성격
5. 맺음말

## 1. 머리말

道使는 ‘교통로[道]를 통해 파견된 使者’라는 의미로,<sup>1)</sup>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에도 두어진 관직이다. 백제에서는 『翰苑』 所引 『括地志』(이하 『括地志』)에 도사가 方領·郡將과 함께 기록되어 5方制의 운영과 관련된 관직으로 추정된다.<sup>2)</sup> 5方制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擔魯制를 보완하며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사비기 5方制의 운영과 그 지방관인 方領·郡將 등이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관련 사료가 영성하고 파편적인 탓에 도사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sup>3)</sup> 대체로 백제의 지방통치체제를 다룬 연구,<sup>4)</sup> 고구려와 신라의 도사를 다룬 연구<sup>5)</sup> 등에서 도사의 존재가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송기섭, 2025, 「支藥兒食米記를 통해 본 百濟의 道使」,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1) 武田幸男, 1980a, 「牟婁婁一族と高句麗王權」, 『高句麗史と東アジア』, 329~330쪽; 金在弘, 1991,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지방사회 구조」, 『韓國史研究』 72, 31~32쪽; 李鉄勳, 1995, 『新羅 中古期 村落支配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8~60쪽; 朱甫暉, 1995, 『新羅 中古期の 地方統治와 村落』,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2쪽.
- 2) “括地志曰 ... 又有五方, 若中夏之都督. 方皆建[達]率領之. 每方管郡多者至十, 小者六七. 郡將皆恩率爲之. 郡縣置道使, 亦城名[名城]主.”(『翰苑』 蕃夷部 百濟).
- 3) 백제의 도사를 가장 먼저 살펴본 연구는 李鍾旭의 논고이다(1974,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組織」, 『歷史學報』 64). 다만 신라의 도사와 관련해 부분적으로 다룬 것이다. 백제의 도사를 단일 주제로 다룬 연구는 金壽泰의 논고가 유일하다(1997, 「百濟의 地方統治와 道使」, 『百濟의 中央과 地方』).
- 4)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2015, 「신라와 백제의 교섭과 교류」, 『신라사학보』 33; 2018, 『백제 정치사』, 일조각; 2022, 『백제의 정치제도와 운영』, 일조각; 金英心, 1990, 「5~6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史論』 22; 1997a, 「6~7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古代史研究』 1; 1997b,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백제의 지방통치에 관한 몇 가지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48; 金周成, 1992, 「백제 지방통치조직의 변화와 지방사회의 체편」, 『國史館論叢』 35; 박현숙, 1996, 「백제 泗泚時代의 지방통치체제 연구」, 『한국사학보』 창간호; 金壽泰, 1997, 위의 논문; 2002, 「백제 성왕대의 군령과 성주」, 『백제문화』 31; 李根雨, 1997, 「百濟의 方郡城制 관련사료에 대한 재검토」, 『韓國古代的 考古와 歷史』; 정동준, 2011, 「백제 5方制의 지방관 구성에 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63; 백미선, 2018, 「웅진시대 백제의 城主」, 『大丘史學』 131; 2021, 『熊津時代 百濟의 地方官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덕재, 2018, 「7세기 백제·신라 지배체제와 수취제도의 변동」, 『신라사학보』 42; 김근영, 2024, 『백제의 5方制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언급됨에 그치고 있다. 종래에는 『括地志』의 기사를 통해 도사를 城主로 파악하여 5方制 제3 단계 행정구역인 城 단위의 지방관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였다.<sup>6)</sup> 더불어 신라의 도사와 비교하기도 하였는데, 신라의 도사는 후대 縣丞의 전신으로서 城·村 단위의 지방관이었음을 고려하면 백제의 도사 역시 城 단위 지방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신라의 도사가 최소 6세기 초반에는 지방에 파견되고 있었으므로, 백제의 도사 역시 6세기 이전의 지방통치체제인 擔魯制의 지방관이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었다.<sup>7)</sup> 이러한 연구들은 도사에 대한 이해를 성립시켰고, 사비기 지방통치체제 전반의 이해로까지 연구를 확대했다는 점 등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는 대체로 『括地志』에 한정하여 도사를 살펴보고 있다. 『括地志』는 7세기 전반경 唐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으로 당대 백제에서 작성된 사료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목되는 사료가 扶餘 陵山里寺址 출토 「支藥兒食米記」 목간(이하 支藥兒食米記)이다. 支藥兒食米記는 4면의 다면목간으로, 食米 지급량을 일별로 기록한 일종의 帳簿木簡이다. 목간의 제3면에 ‘道使’라는 목서가 포함된 문장이 기록되어 도사의 실제 활동상이 담긴 현존 유일한 사료로 평가된다. 그러나 종래 支藥兒食米記의 정치한 판독과 분석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통해 도사를 고찰하기보다는 도사가 城 단위 지방관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sup>8)</sup>

이상과 같이 백제의 도사는 『括地志』의 기사를 중심으로 城 단위 지방관이었을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일면 타당하나 그 官名이 城 단위와 연결되지 않는 점, 파견 지역이 특정 단위가 아닌 ‘郡縣’으로 기록된 점 등은 동시기 지방관인 方領·郡將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도사라는 관직의 역할과 성격 등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括地志』만을 통해 도사를 바라봤을 때 해소하기 어려운 의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고, 당대 작성 사료인 支藥兒食米記를 중심에 두고 도사를 바라봄으로써 그 실체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에 2장에서는 支藥兒食米記에 도사가 기록된 경위를 이해하고, 기록에 담긴 도사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括地志』와 익산 왕궁리유적 출토 「風道使前...」 銘文瓦 등에 보이는 도사 관련 자료를 종합해 백제의 도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고구려와 신라 도사의 사례를 백제의 도사와 비교함으로써 백제의 도사가 갖는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 그간 도사의 성격을 5方制 제3단계 행정구역인 城 단위의 지방관으로 파악해 온 이해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도사의 파견을 통한 지방통치조직의 하부 통치에 대한 이해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 
- 5) 池内宏, 1926, 「高句麗の五族及び五部」, 『東洋學報』 16-1; 末松保和, 1962, 「朝鮮古代國家の軍事組織」, 『古代史講座』 5; 武田幸男, 1980b,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朱甫噉, 1995, 앞의 논문.
  - 6) 연구자에 따라 ‘郡縣’의 해석(‘郡의 縣’, ‘郡과 縣’, ‘직접지배지역의 대명사’ 등)에 따라 도사의 파견 지역과 성격 이해에 다소 차이가 있다. 자세한 고찰은 후술하겠다.
  - 7) 金壽泰, 1997, 앞의 논문, 212~221쪽; 노중국, 2015, 앞의 논문, 319~320쪽; 2022, 앞의 책, 113~115쪽; 백미선, 2018, 앞의 논문, 32~37쪽.
  - 8) 近藤浩一, 2004,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의 研究」, 『백제연구』 39; 2005, 「扶餘陵山里出土木簡と泗泚都城関連施設」, 『東アジアの古代文化-特集:新発見資料からみた「古代東アジア」』 25; 2008,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 再論」, 『한국고대사연구』 49; 尹善泰, 2006, 「百濟 泗泚都城과 ‘靺夷」, 『東亞考古論壇』 2;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2013, 「新出資料로 본 百濟의 方과 郡」, 『韓國史研究』 163; 李炳鎬, 2007, 「扶餘 陵山里 出土 木簡의 性格」,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이용현, 2007, 「목간」, 『百濟文化史大系 研究叢書』 12; 홍승우, 2013, 「扶餘 지역 출토 백제 목간의 연구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 2. 支藥兒食米記의 道使 분석

支藥兒食米記는 제3면에 ‘道使’라는 목서가 2회 기록된 목간으로, 백제의 도사와 관련된 유일한 목간 자료이다. 단편적이지만 도사의 실제 활동상이 담겼고, 현재까지 백제의 도사와 관련하여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따라서 백제의 도사를 고찰할 때 支藥兒食米記를 중심으로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支藥兒食米記에 보이는 도사를 분석함으로써 백제 당대 사료에 도사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支藥兒食米記와 적외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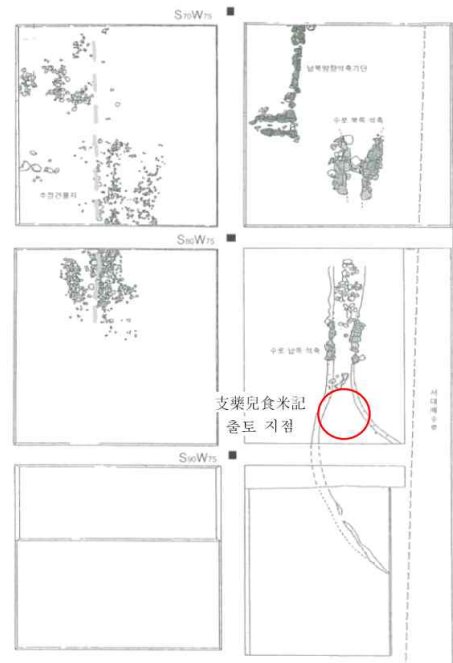


그림 2. 목간 출토 지점 도면

支藥兒食米記는 길이 44cm, 너비 2cm, 두께 2cm의 4면 목간이다. 상부는 완형에 하부는 파손되었다.<sup>9)</sup> 목간은 2002년 부여 능산리사지 8차 발굴조사 당시 능산리사지 중문지 남서쪽 S90 W60~75지점 트렌치 북쪽의 흑색점토와 유기물층에 박힌 채로 출토되었다. 출토지점은 자연배수로로 확인되었다. 支藥兒食米記가 출토된 퇴적층 아래에 능산리사지 가람 중심부 금당지의 기와들이 쌓여 있었기에, 서쪽 수로 퇴적층은 서쪽의 수로를 메우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 점에서 支藥兒食米記 등 능산리사지 출토 목간의 제작 및 작성 연대는 「昌王銘石造舍利龕」의 연대인 567년을 중심으로 금당지의 완공 또는 보수 시점과 관련되고, 6세기 후반 이후에 폐기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0)</sup> 또한, 일부 목간들에 보이는 불교 관련 내용도 그 근거

9) 이하 支藥兒食米記 발굴 성과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國立扶餘博物館, 2002, 『제8차 부여 능산리사지 현장설명회자료』.

國立扶餘博物館, 2007, 『부여 능산리사지 6~8차 발굴조사보고서』.

10) 李炳鎬, 2007, 앞의 논문, 128~140쪽. 목간의 제작·사용 연대는 목간들이 발견된 중문지 동남쪽과 남서쪽 자연배수로 흑색유기물층 아래의 沼澤地에서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중국제 청자편이 출토된 점 등을 통해 554년 이후인 것으로 보았다. 목간의 폐기 연대는 목간이 출토된 수로 내부에 인위적으로 폐기하였다고 보이는 층의 출토 와당 형식과 금당지에 집중 분포된 와당 형식의 비교를

로 볼 수 있다.<sup>11)</sup> 다만 출토 목간의 연대 파악에 이견이 있어 연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sup>12)</sup>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능산리사지 출토 목간의 연대는 6세기 중반경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支藥兒食米記 역시 6세기 중반경의 목간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支藥兒食米記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支藥兒食米記는 표제 ‘支藥兒食米記’와 일별 食米 지급량(初日~三日)이 기록된 제1면, 그 연속(五日~八日)인 제2면, 도사 등이 기록된 제3면, 다른 면과 서사 방향이 뒤집힌 채 ‘又十二石’이 반복되는 제4면으로 구성되었다. 支藥兒食米記는 전형적인 다면목간[觚]으로,<sup>13)</sup> 다면목간의 유형은 용도에 따라 文書木簡, 習書木簡, 帳簿木簡, 呪術木簡 등으로 분류된다.<sup>14)</sup> 支藥兒食米記의 경우 표제를 기재하고 일별 食米 지급량을 기록한 帳簿木簡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대형 帳簿木簡은 일정 기간 보관할 목적에서 작성한 것으로,<sup>15)</sup> 목간이 일회성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支藥兒食米記에 기록된 제3면은 도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면 목서를 살펴보자.<sup>16)</sup>

제3면. 𠄎道使□□次如逢使豬耳其身者如黑也 道使後後彈耶方[牟氏·牟祿]殺耶 ×

제3면 목서는 처음의 ‘𠄎’을 제1자, 끝의 ‘耶’를 제30자로 설정할 수 있다. 총 30자로 이뤄진 목서는 내용상 두 단락으로 구분된다. 즉 ①‘𠄎道使□□次如逢使豬耳其身者如黑也’, ②‘道使後後彈耶方[牟氏·牟祿]殺耶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①단락에서 종결 어미인 ‘也’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단락 사이에 의도적인 띄어쓰기가 있다는 점 등에서 확인된다.<sup>17)</sup> 아울

통해 목탑의 심초석이 놓인 567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570~580년대 무렵으로 보았다.

- 11) 初八日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寶惠寺’銘 목간(東野治之, 2001, 『木簡으로 본 韓日 古代文化』, 충남대학교 백제학교육연구단 제5회 해외전문가 초청강좌 발표요지문, 2쪽), ‘子基寺’銘 목간 등이 해당한다.
- 12) 수로의 운영 시기 파악에 의문을 품기도 하며 능산리사지 일대가 사원 조성 이전까지 沼澤地 상태로 방치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近藤浩一, 2008, 앞의 논문, 334~336쪽), 건물지별 와당의 빈출 경향은 참고자료가 될 뿐 축조 연대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金吉植, 2008, 『百濟 始祖 仇台廟와 陵山里寺址』, 『韓國考古學報』 69, 49~50쪽). 이외에도 목간들을 나성 축조와 관련지어 530년대 초반으로 보는 견해(近藤浩一, 2004, 앞의 논문, 123~125쪽), 능산리사지 출토 와당의 편년과 서체를 통해 554~580년 무렵으로 본 견해(朴仲煥, 2002, 『扶餘 陵山里發掘 木簡 豫報』, 『한국고대사연구』 28, 228~229쪽), 목간들이 천도 직후의 道饗祭나 나성 대문의 禁衛 등과 관련된다고 보아 538년 무렵으로 보는 견해(尹善泰, 2004, 앞의 논문, 73쪽), 6세기 후반이라는 폐기 연대를 수용하되 목간의 출토지점마다 내용상의 차이가 있고, 내용을 보더라도 제작 연대를 일률적으로 陵寺 창건에 맞출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윤선태, 2007, 앞의 책, 122쪽) 등이 있다.
- 13) 목간의 형태 분류 용어는 현재 학계에서 통일되지 않았다. 支藥兒食米記와 같은 형태의 목간은 ‘막대형 목간’(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8쪽), ‘다면목간’(윤선태, 2007, 앞의 책, 74~77쪽), ‘다면형 목간’(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21~27쪽) 등 의미상 큰 차이는 없으나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특정 용어를 지지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支藥兒食米記가 다면으로 이뤄진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면목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 14) 尹善泰, 2019, 『한국 多面木簡의 발굴 현황과 용도』, 『목간과 문자』 23, 69~73쪽. 한편 중국에서는 漢代의 용어를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각형의 나무토막 형태로 만들어 3면 이상의 면에 서사할 수 있게 한 목간을 ‘觚’라고 한다. 중국에서 觚는 檄書, 아동용 습자 교본의 기록, 기록물의 초안 작성, 글씨쓰기 연습 등 비교적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韓國의 古代木簡』, 예맥, 13쪽).
- 15) 近藤浩一, 2008, 앞의 논문, 339쪽.
- 16) 𠄎은 추독, □는 판독 불가, [ ]는 割註 표기, ×는 결실을 의미한다. 이하 판독은 필자가 설정한 판독안으로 자세한 판독에 관해서는 후고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17) 종지부 성격을 지닌 띄어쓰기는 신라 『壬申誓記石』의 분석을 통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犬飼隆, 2006, 『日本語を文字で書く』, 『列島の古代史(ひとものこと)-言語と文字-』, 40쪽). 이를 참고해 한

러 두 단락에 공통되게 기록된 ‘道使’의 서체가 다르다는 점도 주목된다[표 1]. 특히 ‘使’字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①단락의 제3자는 이체자(‘使’)로 기록되었다.<sup>18)</sup> 이러한 점들을 통해 같은 면의 목서이지만 두 단락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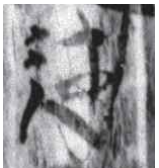



2~3 · 18~19					
	제2자 ‘道’	제3자 ‘使’	元倪墓誌 ‘使’	제18자 ‘道’	제19자 ‘使’

표 1. 제2~3자(‘道使’), 제18~19자(‘道使’)와 비교 자료

먼저 ①단락(食道使□□次如逢使豬耳其身者如黑也)을 살펴보자. 제1자 食은 ‘食’字의 상부만 남은 형태로 보인다. 자형이 불완전하여 해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형이 불완전하므로 이를 목간의 재사용 흔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19)</sup> 이러한 목서가 남게 된 배경으로 支藥兒食米記가 다면목간이라는 점, 서사 방향이 뒤집혔음에도 곡식 단위인 ‘점[石]’이 반복 기록되어 제1·2면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제4면의 존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곧 제1자 食은 食米·食 등이 기록된 제1·2면과 같은 맥락에서 목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목간 사용 과정에서의 수정 흔적일 수 있고, 재사용 흔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면들과 큰 틀에서 같은 목적으로 작성된 면임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3자 ‘道使’는 官名임이 분명하다. ‘道使’의 후속 부분은 판독 불가인 제4·5자가 있어 해석이 어렵다. 이를 해석하지 않기도 하지만, 고대 문자자료에서 관직명 뒤에 人名이 오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제4~11자 ‘□□次如逢使豬耳’를 인명의 나열로 볼 수도 있다.<sup>20)</sup> 제4·5자(‘□□’)가 판독 불가인 만큼 유의미한 문장 해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로는 도사(제2·3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포함된 인명 나열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제2·3자 ‘道使’의 뒤에는 인명이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제9자 ‘使’이다[표 2]. 제9자는 종래 ‘吏’·‘小吏’·‘火+吏’·‘小+吏’·‘使’ 등 다양하게 판독되었다. 이 중 제9자의 좌측을 좌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견해(‘吏’)<sup>21)</sup>는 따르기 어렵다. 이 견해는 제1면의 ‘小升’과 같은 글자가 본래 제3면에도 기록되어 있었으나, 목간 재사용 과정에서 지워지지 않고 ‘小’ 부분이 남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제1면 18자 ‘小’는 목서면 중앙에 기록된 반면 이는 좌측에 치우쳐 있어 특정 글자의 좌변으로 판단

자를 빌어 백제 어순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도 한다(윤선태, 2007, 앞의 책, 246쪽).

18) 같은 면에서 단락 구분이 이뤄짐과 동시에 서체가 달라짐을 고려하면, 두 단락의 기록자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支藥兒食米記가 일정 기간 보관을 목적으로 작성된 대형 帳簿木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한 목적하에 기관·시설 등에서 작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배경에서 복수의 기록자에 의해 제3면이 서사 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19) 李炳鎬, 2007, 앞의 논문, 142~143쪽; 尹善泰, 2007, 앞의 논문, 311~312쪽; 2013, 앞의 논문, 48쪽.

20) 近藤浩一, 2004, 앞의 논문, 98~102쪽; 尹善泰, 2006, 앞의 논문, 246~247쪽; 李炳鎬, 2007, 위의 논문, 142~143쪽; 이용현 2007, 앞의 글, 282~283쪽. 보통 官職名 뒤에 인명이 오는 서식이 많다는 점, ‘次’가 백제 인명 어미로 흔히 쓰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제9자(‘使’)를 ‘小吏’ 또는 관리 계열로 파악하는 경우 ‘道使인 ~ (인명)과 ~ (인명), 小吏(관리)인 ~ (인명)’의 서식으로 파악하였다.

21) 李炳鎬, 2007, 위의 논문, 143쪽.

된다. ‘小吏’의 우행가로기록으로 보는 견해<sup>22)</sup>도 당시 좌행가로기록의 일반적인 필법과 배치되므로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다.

9					
	3면 제9자	元刊 玉篇 ‘使’	1면 제18자 ‘小’	十七帖 ‘火’	3면 제19자 ‘使’

표 2. 제9자(‘使’)와 비교 자료

‘火+吏’<sup>23)</sup>의 경우 ‘火’의 4획(㇇)이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小+吏’<sup>24)</sup>의 경우 좌변의 관독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두 견해 모두 습자 형태의 고유 造字로 판단하였는데 단정하기 어렵다. 습자는 連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上下로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sup>25)</sup> 일례로 ‘畚’(水田)·‘畝’(白田) 등이 대표적이다.<sup>26)</sup> 신라의 경우 관등인 ‘一伐’·‘一尺’·‘大舍’·‘小舍’·‘乃末’ 등을 상하로 합해 쓰는 용례가 확인되고,<sup>27)</sup> 고구려의 경우 官名인 ‘使者’의 上下 連書에서 기인한 ‘𠄎’라는 고유한자를 사용한 용례가 확인된다.<sup>28)</sup> 그러나 제9자의 경우 좌우로 배치되어 일반적인 사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좌우 습자가 되려면 당시 일반적인 좌행의 서순 상 ‘吏+小’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sup>29)</sup> 또한, 공간이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표현할 때 습자를 쓰기도 하지만 서사 구조와 전후 연결 상 부자연스럽다는 견해도 참고된다.<sup>30)</sup> 제9자가 습자라면 독특한 백제식 습자의 새로운 예가 될 것이지만,<sup>31)</sup> 현재로는 습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使’로 관독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제3면의 인물들이 도사 등 官吏의 범주라는 점에서 ‘使’의 이체자 또는 ‘관리’를 의미하는 字로 본 견해도 있으나,<sup>32)</sup> 그러한 용례를 찾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使’字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sup>33)</sup> ‘使’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使’는 ‘憂’와 통하는 字로,<sup>34)</sup> ‘憂’에는 ‘근심’·‘걱정’, ‘疾病’·

22) 孫煥一, 2009, 앞의 논문, 257쪽.

23) 近藤浩一, 2004, 앞의 논문, 92쪽. 2005년의 논고에서는 이를 ‘炊’에 가까운 의미로 파악하였다(近藤浩一, 2005, 앞의 논문, 21쪽).

24) 尹善泰, 2006, 앞의 논문, 243쪽.

25) 이용현, 2007, 앞의 글, 282쪽.

26) ‘水田’을 ‘畚’으로 표기한 고대의 사례는 「昌寧 新羅 眞興王 拓境碑」(561) 6행의 “海州白田畚□□...” 등이 있다. ‘白田’을 ‘畝’으로 표기한 고대의 사례는 나주 북암리 5호 목간(610) 後面 2행의 “畝一形得六十二石” 등이 있다.

27) 권인한, 2019, 「합자와 국자」, 『문자와 한국고대 1-기록과 지배』, 223~225쪽.

28) 윤선태, 2020, 「한국 고대 木簡 및 金石文에 보이는 固有漢字의 양상과 구성 원리」, 『東洋學』 80, 60쪽.

29) 近藤浩一, 2008, 앞의 논문, 338쪽 각주 27).

30) 이성배, 2011, 「百濟木簡의 書體에 대한 一考」, 『목간과 문자』 7, 59쪽.

31) 이용현, 2007, 앞의 글, 282쪽.

32) 이용현, 2007, 위의 글, 282쪽; 2022, 앞의 글, 510~511쪽.

33) 고평의는 ‘支藥兒’를 ‘약을 지급한(처방한) 아이(들)’로 보고 “약을 지급한 아이들[支藥兒]의 몸이 검게 보일[其身者如黑也] 정도로 근심스러운[使] 상황”이라는 의미로 풀이하였다(2023, 앞의 논문, 134쪽). 그러나 이는 ‘使’ 전후의 ‘道使’, ‘次如逢’, ‘豬耳’, ‘彈耶方’ 등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어 따르기 어렵다.

‘病을 앓다.’ 등의 의미가 있다.<sup>35)</sup> ‘使’와 통하는 字로는 ‘罹’도 있는데, 역시 ‘病을 앓다.’ ‘病에 걸리다.’ 등의 의미가 있다.<sup>36)</sup> 해석과 관련하여 후속되는 제12~17자 ‘其身者如黑也’라는 문장을 일종의 병증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sup>37)</sup>이 주목된다.

더불어 목간의 표제 ‘支藥兒食米記’에 확인되어 食米 지급 대상으로 생각되는 ‘藥兒’의 존재도 고려할 수 있다. ‘食米記’는 ‘먹는 쌀’로 풀이되어 대체로 식료 지급과 관련되는 ‘食米’<sup>38)</sup>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 글을 의미하는 ‘記’<sup>39)</sup>의 결합이다. ‘支’는 ‘支給’·‘支出’·‘支撐’ 등을 의미하는 동사로 생각된다. 백제 목간에서 표제가 있는 사례로 ‘佐官貸食記’ 목간과 부여 동남리 49-2번지 출토 2호 목간 등이 참고된다. 이 경우 표제가 본문과 함께 주어-동사-목적어(SVO) 구조로 구성되었는데, ‘佐官貸食記’ 목간은 “누구에게 食 얼마를 貸與하였다”라는 것이고,<sup>40)</sup> 부여 동남리 49-2번지 출토 2호 목간은 “누구에게 稗 얼마를 逆(수령) 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다.<sup>41)</sup> 즉 支藥兒食米記 역시 “藥兒에게 食米 얼마를 支(지급) 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42)</sup> 따라서 표제 ‘支藥兒食米記’는 ‘藥兒에게 지급한 食米의 기록’으로 해석할 수 있고, ‘藥兒’라는 대상이 食米를 받은 것이 된다.

藥兒에 대하여는 다양한 주장이 제시되었는데, 대체로 藥과 관련된 실무자로 파악하고 있다. 藥兒에 대하여 종래에 일본 『延喜式』의 ‘嘗藥小兒’·‘客作兒’·‘造酒兒’ 등 접미어 ‘兒’가 붙는 최말단 使役人과 유사한 國役者로 보는 견해,<sup>43)</sup> 唐 尙藥局의 의약 조제와 처방, 약재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 ‘藥童’과 유사한 존재로 보는 견해,<sup>44)</sup> 고대 일본 內藥司의 ‘藥生’과 유사

34) “使力志切忧也.”(『玉篇』 卷7); “使忧也.”(『集韻』 卷7); “使说文忧也.”(『五音集韻』 卷10); “使【集韻】力志切, 音史. 憂也.”(『康熙字典』 心部6).

35) “而得文王不加疾焉. 文王在母不憂.”(『國語』 晉語4); “有采薪之憂, 不能造朝. 今病小愈, 趨造於朝.”(『孟子』 公孫丑下); “君使士射, 不能, 則辭以疾, 言曰, 某有負薪之憂.”(『禮記』 曲禮下); “憂 ... 又疾也. 【禮·曲禮】 某有負薪之憂. 【註】 憂或爲疾.”(『康熙字典』 心部11); “憂病也.”(『經籍纂詁』 下平聲 11尤).

36) “爾萬方百姓, 罹其凶害, 弗忍荼毒, 並告無辜于上下神祇.”(『尚書』 湯誥); “君不幸罹霜露之疾.”(『漢書』 卷58 列傳28 公孫弘); “罹 ... 【說文·新附字】 心憂也. 古多通用離. 【爾雅·釋詁】 罹, 憂也.”(『康熙字典』 网部11); “鉏商所獲為謫麟, 慎旃莫往罹采薪.”(『辨仙行』).

37) 종래 尹善泰는 ‘其身者如黑也’에 주목해 도사 등의 병증을 기록한 것으로 보았다(尹善泰, 2006, 앞의 논문, 247~248쪽). 이와 달리 도사 등을 食米 지급 대상자로 보고 목간 기록자가 그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신체적 특징을 자기 전달성 메모로 기록했다고 본 견해(李炳鎬, 2007, 앞의 논문, 145쪽)도 있다. 그러나 이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체적 특징을 기록자가 기억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며, ‘支藥兒’를 도사 등에게 食米를 지급한 건물·부서의 이름으로 보는 전제를 따르기 어렵다.

38) 近藤浩一, 2004, 앞의 논문, 98쪽. ‘食米’를 기재한 목간에 대하여 勝浦令子, 1990, 「長屋王家の米支給關係木簡」, 『木簡研究』 21, 263~266쪽; 山口英男, 2000, 「帳簿と木簡—正倉院文書の帳簿·繼文と木簡—」, 『木簡研究』 22, 307~316쪽이 참고된다. 일본에서 ‘口米’와 같이 쌀의 용도가 표시된 단어가 적힌 목간은 平城京 내 유적뿐만 아니라 지방 유적에서도 다수 출토된 바 있다(鈴木靖民, 2000, 「千代木簡と古代地域史—千代南原遺跡と出土木簡の意義—」, 『神奈川地域史研究』 18, 12쪽).

39) ‘記’라는 명칭은 『禮記』의 戴記, 學記 등의 편명에 처음 보이며, 문체로서의 記는 『書經』 禹貢篇, 顧命篇으로 올라간다. 『說文解字』에서 ‘記’는 ‘疎’라고 하며 하나하나 분별하여 기술하는 것이라 하였고, 『體明辨序設·文章辨體序說』 金石例에 “記者, 紀事之文也.”라고 하였다(孫煥一, 2009, 앞의 논문, 130쪽). 백제에서도 곡식을 대여해주고 상환받은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적은 부여 쌍북리 출토 ‘佐官貸食記’ 목간, 근초고왕대의 『書記』, 『日本書紀』에 인용된 백제계 사서 『百濟記』와 『百濟本記』 등이 확인된다.

40) · 「戊寅年六月中 佐官貸食記 固淳多三石 ... (부여 쌍북리 280-5번지 출토 ‘佐官貸食記’ 목간).

41) · 「稗逆 瓦進 散得 丁 五斗 ... (동남리 49-2번지 출토 2호 목간).

42) 이용현, 2023, 「百濟 王都 出納 文書의 一例」, 『木簡에 반영된 古代 동아시아의 法制와 行政制度』, 43~45쪽.

43) 尹善泰, 2006, 앞의 논문, 244~248쪽.

44) 이용현, 2007, 앞의 글, 276~277쪽; 노중국, 2010, 앞의 책, 343~344쪽.

한 존재로 보는 견해,<sup>45)</sup> 고대 일본 典藥寮 예하의 ‘藥戶’와 유사한 존재로 보는 견해<sup>46)</sup>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sup>47)</sup> 藥兒와 관련된 사료가 없는 만큼 그 실체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명칭이 藥과 관련되고 이들이 그와 관련된 업무를 통해 食米를 받았다는 점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藥兒의 존재와 제3면 제12~17자 ‘其身者如黑也’라는 문장을 고려했을 때, 제9자 ‘使’는 맥락상 질병과 관련된 의미에 주목할 수 있을 듯하다. 곧 제2~9자(‘道使□□次如逢使’)는 “道使인 □□次如逢은 병을 앓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후속되는 제10~17자(‘豬耳其身者如黑也’)는 다소 난해한 문장이다. ‘豬耳’를 인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sup>48)</sup> 그렇게 보면 ①단락 내에서 도사 등의 인물과 ‘豬耳’라는 인물이 분리되어 설명되는 것이라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2~9자(‘道使□□次如逢使’)에서 병을 앓았다고 기록된 인물들의 병증이 ‘돼지 귀[豬耳]’와 같이 붓고, 몸이 검게 되는 것이었음을 설명한 기록일 개연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①단락은 도사 등의 병증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25 ~ 28					
	[牟氏·牟殺]	‘寶惠寺’銘 목간	가야5589	가야5592	가야5593

표 3. 제25~28자(‘[牟氏·牟殺]’)와 割註 용법 비교 자료

다음으로 ②단락(‘道使後後彈耶方[牟氏·牟殺]殺耶’)을 살펴보자. 제18·19자 ‘道使’는 마찬가지로 官名이다. 이 역시 뒤에 인명이 올 가능성이 큰데, 인명은 후속되는 제20~30자 ‘後後彈耶方[牟氏·牟殺]殺耶’의 끊어 읽기에 따라 구분될 것이다. 우선 割註 용법으로 기록된 제

45) 장인성, 2010, 「百濟의 醫藥과 道敎文化」, 『百濟研究』 52, 114쪽.

46) 윤선태, 2016, 「百濟의 ‘九九段’木簡과 術數學」, 『목간과 문자』 17, 28쪽.

47) 이와 달리 ‘支藥兒’를 藥의 취급과 관련된 건물·부서의 이름으로 보는 견해(李炳鎬, 2007, 앞의 논문, 144~145쪽)도 있다. 건물·부서의 이름으로 본다면 ‘支藥兒(에서)의 食米 기록’이 되어 지금 대상이 빠진 특이한 형식의 표제가 된다. 그런 만큼 제3면의 도사 등을 食米 지급 대상으로 보고, 이들이 특정 力役に 동원되었기 때문에 食米를 받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支藥兒’ 또는 ‘藥兒’를 건물·부서로 볼 근거가 없고, 藥의 취급과 관련된 곳으로 보았음에도 그러한 곳에서 도사 등에게 力役의 대가로 食米를 지급했다고 보는 부자연스럽다.

48) 尹善泰, 2006, 앞의 논문, 246~247쪽; 李炳鎬, 2007, 위의 논문, 142~143쪽. ‘豬耳’를 ‘둘시(도치:돼지)’의 향찰 표기로 보고 인명일 것으로 보는 견해(金永旭, 2007, 「古代 韓國木簡에 보이는 釋讀表記에 대하여」,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164~165쪽)도 있다.

25~28자 ‘[牟氏·牟殺]’에 주목할 수 있다[표 3]. 목간에서의 割註 용법은 해당 단어가 선행 단어에 부속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sup>49)</sup> 백제 목간에서는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寶憲寺銘’ 목간에 寶憲寺 소속 승려로 생각되는 인명이 割註 용법으로 기록되었고,<sup>50)</sup> 신라 목간에서도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등에 ‘지명+割註 인명’의 용법이 다수 확인된다.<sup>51)</sup> 이를 통해 割註 용법으로 기록된 ‘[牟氏·牟殺]’는 인명으로 파악되고,<sup>52)</sup> 선행되는 단어는 牟氏와 牟殺가 속한 기관 또는 지명으로 이해된다.

‘道使’와 ‘[牟氏·牟殺]’ 사이의 ‘後後彈耶方’을 ‘인명+기관·지명’으로 볼 수 있다면, ‘方’이라는 글자가 주목된다. ‘方’에는 ‘지방’<sup>53)</sup>·‘州’<sup>54)</sup> 등의 의미가 있고, 백제와 관련해서는 ‘5方’과 ‘牛頭方’·‘尼彌方’ 등이 확인된다.<sup>55)</sup> 도사라는 官名 뒤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도 ‘方’이 지방 행정단위일 가능성이 있다. 이 중 支藥兒食米記와 관련하여서는 牛頭方과 尼彌方이 주목된다. 牛頭方과 尼彌方은 552년 『日本書紀』 기사에 확인되는 지명으로 사료는 다음과 같다.

A. 이 해(552)에 백제가 漢城과 平壤을 버렸다. 이로 인하여 신라가 漢城에 들어가 살았으니, 지금 신라의 牛頭方과 尼彌方이다 【地名은 未詳이다.】<sup>56)</sup>

사료 A는 552년에 백제가 漢城과 平壤(南平壤)을 포기하자 신라가 漢城에 入居한 사실을 전하면서, 入居한 땅이 지금 신라의 牛頭方과 尼彌方이라고 한다. 牛頭方·尼彌方은 신라의 지명으로 기록되었으나, 신라에는 ‘方’과 같은 지방 행정단위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 이에 백제에는 5方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백제가 漢城 지역을 점령하여 牛頭方·尼彌方을 두었고, 이곳을 차지한 신라가 그 명칭을 답습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某某方’의 성격과 관련하여 牛頭方·尼彌方이 등장한 552년 전후의 역사적 상황에 주목할 수 있다.

먼저 551년에 백제는 신라·가야와 함께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공격하여 漢城·平壤의 땅을 수복하였다.<sup>57)</sup> 같은 해에 신라 역시 居柒夫 등을 주축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여 10郡을 차지하

49) 尹善泰, 2006, 앞의 논문, 248쪽.

50) (前面) 四月七日寶憲寺[智眞·慧口] × (後面) × 又送塩二(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寶憲寺銘’ 목간).

51) 대표적으로 함안 성산산성 출토 가야5589 목간(仇利伐[田畝]畝[田]口口[奴]口口), 가야5592 목간(丘利伐[ト今智上干支奴[徐利]已支負]), 가야 5593 목간(仇利伐[夫及知一伐奴人·突已札負]) 등이다. ‘仇利伐’은 지명으로 충북 옥천군 또는 경북 안동시 임하면 지역 등으로 비정된다(이정섭, 2011,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荷札] 목간의 地名 문제와 제작 단위」, 『신라사학보』 23, 539~544쪽).

52) 尹善泰(2006)가 牟氏, 牟(殺) 등을 판독하고 인명으로 본 이래 이견이 없다. 한편 ‘牟氏’의 경우 부여 쌍북리 192-5번지 출토 85-5호 목간의 ‘奈率(관등) 牟氏(인명) 丁(연령)’이라는 인명, 세종시 전의면 비암사 「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의 ‘牟氏’라는 인명 등이 참고된다.

53)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論語』 學而篇); “慊慊思歸戀故鄉, 君何淹留寄他方.”(『燕歌行』); “朝廷大體, 以恤人為本. 一方不稔, 即宜賑救.”(『舊唐書』 卷15 本紀15 憲宗紀下); “遣弟遙迎汝, 魂兮附櫬來... 故隴荒無恙, 殊方孤可哀.”(『哭舍弟子厚』 詩2).

54) “如雷如霆, 徐方震驚. 【高亨注】徐方, 徐邦.”(『詩』 大雅 常武); “[謙]爲徐州牧... 是時徐方百姓殷盛, 穀實甚豐, 流民多歸之.”(『後漢書』 卷73 列傳63 陶謙傳); “古語多謂州爲方, 故八州八伯謂之方伯. 書曰, 惟彼陶唐, 有此冀方. 詩曰, 徐方不庭, 是也.”(『資治通鑑』 漢獻帝 初平 4年 胡三省注).

55) 이외에도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六方五方銘’ 목간(× 書亦從此法爲之凡六方五方 ×)에서도 ‘方’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백제의 통치체제인 5部-5方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견해(尹善泰, 2006, 앞의 논문, 251~252쪽), 의례적 상징 표현으로 보는 견해(김영심, 2009, 「扶餘 陵山里 출토 ‘六方五方’ 목간과 백제의 術數學」, 『木簡과 文字』 3, 131쪽) 등이 있다. 현재로는 이를 통치체제와 관련지을만한 단서는 없다고 판단된다.

56) “是歲,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尼彌方也 【地名, 未詳.】.”(『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3年條).

57) “是歲, 百濟聖明王, 親率衆及二國兵 【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

였다.<sup>58)</sup> 이후 552년에 백제가 漢城·平壤을 포기하고 신라가 漢城에 入居하였고, 553년에는 신라가 백제의 동북 변경을 빼앗아 한강 유역에 新州를 설치하기에 이른다.<sup>59)</sup> 이렇듯 552년 전후에 한강 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군사적 상황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백제가 일시적으로 漢城 지역을 점거하고 설치한 것으로 생각되는 牛頭方·尼彌方은 군사 경계 지역이나 요지·거점에 설치한 특수 단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60)</sup>

사료의 한계로 더 이상의 추론은 어렵지만 牛頭方·尼彌方 등은 6세기 중반경이라는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확인된다는 점, 5方制 등 사비기 백제의 지방통치체제를 전하는 문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한 단위로 이해함이 합당할 듯하다.<sup>61)</sup>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6세기 중반경의 支藥兒食米記 ㉠단락에 보이는 제 22~24자 ‘彈耶方’이 ‘某某方’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62)</sup> 그렇다면 제20·21자 ‘後後’는 도사의 인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63)</sup> 마지막의 ‘設耶’는 목서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牟設’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sup>64)</sup> ‘[牟氏·牟設]’와의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65)</sup> 즉 ㉠단락은 “道使인 後後, 彈耶方の 牟氏와 牟設, 設耶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3면의 내용 중 도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단락에 도사와 지방민이 함께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함께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도사인 後後와 彈耶方の 牟氏·牟設 등은 ㉠단락과 유사한 맥락에서 기록되었을 것이지만, 현존 목서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方’이라는 행정구역명이 확인되고, 지방과 관련된 관직인 도사가 제3면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는 점에서 支藥兒食米記 제3면이 지방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임에 주목할 수 있다. 또한, 도사와 彈耶方 등지의 지방민이 능산리사지 일대에 동시 존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 양자가 상호 연관됨을 짐작할 수 있다.<sup>66)</sup> 이 경우 도사가 지방민들을 인

六郡之地, 遂復故地.”(『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2年條).

- 58) “王命居柒夫等侵高句麗, 乘勝取十郡.”(『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2年條); “新羅來攻取十城.”(『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陽原王 7年條); “十二年辛未, 王命居柒夫及仇珍大角滄·比台角滄·耽知迺滄·非西迺滄·奴夫波珍滄·西力夫波珍滄·比次夫大阿滄·未珍夫阿滄等八將軍, 與百濟侵高句麗. 百濟人先攻破平壤. 居柒夫等乘勝, 取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柒夫).
- 59)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滄武力爲軍主.”(『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4年條).
- 60) 윤선태, 2007, 앞의 책, 140~141쪽; 김영심, 2007, 앞의 논문, 258쪽.
- 61) 한편 ‘某某方’의 규모에 대하여 擔魯나 郡, 또는 5方과 유사한 광역 행정단위로 이해하는 견해(金英心, 1997b, 앞의 논문, 87~88쪽; 2007, 위의 논문, 259쪽; 윤선태, 2007, 위의 책, 141쪽; 2013, 앞의 논문, 51~52쪽; 백미선, 2021, 앞의 논문, 102~103쪽), 城 또는 그 하부 단위로 이해하는 견해(이용현, 2007, 앞의 글, 283~284쪽; 홍승우, 2013, 앞의 논문, 40쪽)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존 사료로는 ‘某某方’의 규모나 위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62) 의료와 관련된 ‘藥兒’와 관련지어 ‘彈耶方’을 지명보다는 藥方文이나 方術·術法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김근영, 2024, 앞의 논문, 42쪽)도 있다.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바라봐야 하는 목간의 특성상 ‘彈耶方’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彈耶方’을 藥方文·方術·術法으로 보면 그 이름인 ‘彈耶’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割註 용법으로 기록된 인물들에게만 해당 처방을 준 것인지, 그렇다면 그들에게만 처방을 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소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63) 이와 관련된 諸 견해 중 ‘後後彈耶方’을 지명으로 본 孫煥一(2009, 앞의 논문, 142쪽)을 제외하면 모두 ‘道使 後後’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해석문을 제시한 경우 ‘道使’와 ‘彈耶方’ 사이의 글자(‘後後’)를 도사의 인명으로 보았다.
- 64) 孫煥一, 2009, 위의 논문, 142쪽; 이재환, 2014, 앞의 논문, 159쪽. 孫煥一은 “道使는 後後彈耶方 사람으로 성은 牟氏며 이름은 設로 牟設이다.”라고 이어서 해석하였다.
- 65) 한편 ‘彈耶方’에서 유추하여 ‘設耶方’일 것으로 보고 그 아래 파손 부분에 마찬가지로 割註 용법의 인명 나열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尹善泰, 2006, 앞의 논문, 247쪽; 李炳鎬, 2007, 앞의 논문, 146~147쪽). 그러나 미지의 영역이므로 단정할 수 없다.
- 66) 李炳鎬, 2007, 앞의 논문, 146쪽; 이용현, 2007, 앞의 글, 283~284쪽; 김영심, 2007, 앞의 논문,

술하여 능산리사지 일대에 당도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고, 力役 동원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彈耶方[牟氏·牟設]’이라는 목서도 주목된다. 割註 용법이 사용된 것은 割註로 기록된 개인보다 행정단위를 중시한 표기법이다.<sup>67)</sup> 즉 ‘牟氏’·‘牟設’ 등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 단위별로 특정한 행동에 임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백제에서 力役이 발생하였을 때 지역 단위별로 지방민을 동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sup>68)</sup> 더불어 신라의 경우 도사 등의 관직이 지방민과 함께 기록된 경우 力役 동원에 해당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참고된다. 대표적으로 「慶州 南山新城碑」·「慶州 月池 出土 明活城碑」 등에 王京 출신인 ‘道使’·‘邏頭’ 등의 관직이 지역 단위별로 지방민을 築城에 동원하고 감독한 사례가 확인된다.<sup>69)</sup>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支藥兒食米記의 도사와 지방민을 羅城 축조,<sup>70)</sup> 능산리사지 조성<sup>71)</sup> 등의 力役 동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도사와 지방민 등이 능산리사지 일대의 役事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목간에 기록된 ‘藥兒’의 존재와 제3면 ①단락 병증 관련 기록의 공존이 흥미롭다. ①단락에는 최소한 도사 1명 이상의 병증이 기록되었고, 이는 자연히 藥兒와의 관련성이 상정된다. 더욱이 같은 목간에 기록되었음을 고려하면 도사와 지방민, 藥兒 등이 능산리사지 일대에 함께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능산리사지 일대는 사비도성의 관문인 동나성과 인접한 곳이므로, 藥兒들이 나성 대문에서 上京하는 지방관과 지방민을 검역한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sup>72)</sup> 나아가 施惠 차원에서의 의료 복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sup>73)</sup> 이와 달리 力役 동원을 위해 징집된 지방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의료의 직무를 담당하였다고 보는 견해,<sup>74)</sup> 行軍하거나 作役이 이뤄지는 곳에 醫師를 공급하던 唐 醫疾令 규정을 참고해 능산리사지 일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藥兒가 치료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sup>75)</sup> 등도 있다. 이때 藥兒 등에 의한 의료 행위가 도사와 지방민 등을 위하여 이뤄졌다고 봄

264~265쪽; 홍승우, 2013, 앞의 논문, 40쪽. 이와 달리 尹善泰는 도사가 지명을 冠稱하지 않은 것은 도사보다 상위 단위나 지방관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고, 목간의 서식이 ‘道使’, ‘小吏’, ‘道使’, ‘(彈耶方의) 민간인’과 같이 직급별 순서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彈耶方 소속 인물들이 관리들 뒤에 기록된 것일 뿐, 이를 도사가 주재한 城이나 행정단위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2013, 앞의 논문, 48~50쪽). 그러나 도사 앞에 상위 단위나 지방관이 기록되어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은 추측의 영역이며, 小吏가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러한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67) 이용현, 2007, 앞의 글, 284쪽.

68) “二十九年，春二月，王命東部，築牛谷城，以備靺鞨。”(『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多婁王 29年條); “秋七月，徵東·北二部人年十五已上，築沙口城，使兵官佐平解丘監役。”(『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腆支王 13年條); “十二年，秋七月，徵北部人年十五歲已上，築沙峴·耳山二城。”(『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12年條); “二十三年，春二月，王幸漢城，命佐平因友·達率沙烏等，徵漢北州郡民年十五歲已上，築雙峴城。”(『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23年條).

69) 秦弘燮, 1965, 「南山新城碑의 綜合的考察」, 『歷史學報』 26, 39~40쪽; 李鍾旭, 1974, 앞의 논문, 16~26쪽; 朱甫墩, 1985, 「雁鴨池出土 碑片에 대한 一考察」, 『大丘史學』 27, 9쪽~10쪽; 朴方龍, 1988, 「明活山城作成碑의 檢討」, 『美術資料』 41, 68~72쪽.

70) 近藤浩一, 2004, 앞의 논문, 120~125쪽.

71) 李炳鎬, 2007, 앞의 논문, 145~146쪽; 김영심, 2007, 앞의 논문, 264~265쪽.

72) 尹善泰, 2006, 앞의 논문, 244~248쪽.

73) 윤선태, 2016, 앞의 논문, 29쪽.

74) 近藤浩一, 2008, 앞의 논문, 348쪽.

75) 장인성, 2010, 앞의 논문, 114~115쪽. 唐 醫疾令에는 병이 있는 곳에 의사를 파견하게 하였고, 5백 명 이상이 行軍하거나 作役하는 곳에는 太常이 醫師 1명을 공급하고, 5천 명 이상에는 2명을 공급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程錦, 2006, 「唐醫疾令復原研究」,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交證附唐令復原研究』, 578~579쪽).

은 공통된다. 제3면 ㉔단락의 내용과 맥락을 고려했을 때, 능산리사지 일대에서 도사와 지방민이 특정 作役에 투입되었고, 이들에 대한 의료적 관리 목적에서 藥兒 등이 투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3면의 병증 관련 기록과 제1·2면의 食米 지급 기록의 관계가 주목된다. 食米는 ‘먹는 쌀’로서 初日·六日·七日의 경우 ‘밥’·‘식사’로 풀이되는 ‘食’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支藥兒食米記’라는 표제와 다른 일자의 기록을 고려하면 ‘食’은 食米의 略字로, 식료로서 食米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시켜준다. 食米의 지급량은 하단부 결실로 분명하지 않은 三日(四斗)·八日(四斗大)을 제외하면, 四斗(初日), 四斗小升一(二日), 三斗大升一(五日), 三斗大二(六日), 三斗大升二(七日) 등이 확인된다.<sup>76)</sup> 기록상 약 四斗 전후의 食米가 매일 지급되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대 일본 목간 등의 사례를 통해 계산하면 약 20인에서 최대 약 40인의 식료에 해당한다.<sup>77)</sup>

이러한 食米가 藥兒에게 지급된 것은 분명하지만, 藥兒의 식료로 제공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藥兒와 유사한 실체로 지적된 唐 尙藥局의 藥童은 30인이고, 고대 일본 內藥司의 藥生은 10인이었다. 이들과 유사하다고 보면 능산리사지에 약 20인 이상의 藥兒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인원의 규모가 과도하기 때문이다.<sup>78)</sup> 支藥兒食米記는 의료와 관련된 藥兒에게 지급한 食米 帳簿가 기록된 제1·2면, 도사와 지방민 등의 존재와 병증 기록이 담긴 제3면, 서사 방향이 뒤집혔음에도 곡식 단위의 반복<sup>79)</sup>이 기록된 제4면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목서면 전체를 상호 유기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藥兒가 속하였을 기관·시설에서 藥兒에게 食米를 지급하여 병을 앓는 인원을 부양하도록 한 맥락에서 목간이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정리하면 支藥兒食米記는 6세기 중반경 능산리사지 일대에서 발생한 役事에 도사와 지방민 등이 동원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적 관리 목적으로 藥兒 등이 투입되었고, 병을 앓는 인원을 부양하기 위한 食米를 藥兒에게 지급한 배경에서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支藥兒食米記에서 확인되는 도사의 역할은 지역 단위별로 지방민을 力役 동원하여 사비도성의 능산리사지 일대에서 발생한 役事에 투입하는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이는 도사라는 관직이 담당하였을 역할 중의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支藥兒食米記만을 통해 도사의 역할이나 성격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 도사와 관련된 사료와 문자자료 등을 분석함으로써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76) ‘小升’과 ‘大升’은 漢代 量制와 같은 것으로서 1/3斗(小升), 2/3斗(大升)로 보는 견해(近藤浩一, 2004, 앞의 논문, 99쪽), 小升=2升器(1인분), 大升=4升器(2인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윤선태, 2007, 앞의 책, 137~139쪽), 10升=1斗, 1小升=1升, 1大升≤1/3斗-3.33升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이용현, 2007, 앞의 글, 280~281쪽) 등이 있다. 六日의 ‘三斗大二’는 大升2의 略記로 보아 문제가 없다(윤선태, 2007, 앞의 책, 137쪽).

77) 고대 일본 平城宮左京二坊坊間大路西側溝 출토 목간에 3월 1일에 368인에게 食米 7石 3斗 6升, 즉 736升到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1인 1일 2升이 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계산하면 支藥兒食米記의 食米 지급 대상은 20인 전후로 볼 수 있다. 또는 平城京左京三條二坊八坪二條大路濠狀遺構(南) 출토 목간과 같이 1인 1일 1升의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40인 전후가 된다(이용현, 2007, 위의 글, 288~299쪽). 이와 달리 1인 1일 2升을 상정하고 22~17人 사이의 增減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견해(윤선태, 2007, 앞의 책, 138쪽)도 있다.

78) 윤선태, 2016, 앞의 논문, 28쪽.

79) 이를 폐기 단계의 ‘習書’(尹善泰, 2006, 앞의 논문, 245쪽)로 볼 수도 있으나, 곡식 지출량의 집계 기록으로 볼 수도 있다(이용현, 2007, 앞의 글, 285~287쪽). 제4면에 반복 기록된 12石은 대략 제 1·2면 하루 지출량의 평균인 4斗의 약 한 달 분량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3. 『括地志』와 銘文瓦에 보이는 百濟의 道使

支藥兒食米記에 보이는 백제의 도사는 지방민을 지역 단위별로 동원하여 특정 役事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백제의 도사가 6세기 중반경의 당대 자료에서 그와 같이 기록되었다면, 여타 문헌과 문자자료 등에 기록된 도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括地志』와 銘文瓦 등에 보이는 도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백제의 도사를 전하는 유일한 문헌인 『括地志』의 기록이 주목된다. 현재 『括地志』는 원본이 전해지지 않으나 『翰苑』에 인용된 기사가 남아있다. 『翰苑』은 660년에 張楚金이 편찬하고 雍公觀가 注를 붙인 類書의 抄寫本이다. 총 30권 분량이지만 현재는 일본 福岡縣 太宰府天滿宮에 9세기 초의 抄本인 ‘蕃夷部’ 1권만이 유일본으로 전해온다.<sup>80)</sup> 『括地志』는 唐의 李泰 등이 638년~642년에 걸쳐 편찬한 역사 지리서로, 편찬 연대를 고려했을 때 대체로 7세기 전반경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이해된다.<sup>81)</sup> 사료는 다음과 같다.

B. 括地志曰 ... 又有五方, 若中夏之都督. 方皆建[達]率領之. 每方管郡多者至十, 小者六七. 郡將皆恩率爲之. 郡縣置道使, 亦城名[名城]主.<sup>82)</sup>

사료 B는 『括地志』를 인용하여 백제의 지방통치체제를 서술하고 있다. 중국[中夏]의 都督에 비견되는 5方이 있는데 方은 達率(2品:方領)이 통솔하고,<sup>83)</sup> 각 方은 6·7에서 10개 郡을 관찰하며, 郡將은 모두 恩率(3品)로 삼았다고 한다. 또한, ‘郡縣’에 도사를 두었는데 城主라고도 이름하였다고 한다.<sup>84)</sup> 이때 도사의 파견 지역인 ‘郡縣’의 의미는 무엇일까? 도사의 異名이 城主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도사의 파견 지역은 城 단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사료 B에 도사의 파견 지역이 ‘郡縣’으로 기록된 점은 의문이다.

중래 사료 B의 ‘郡縣’은 백제에 縣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어조상에서 유래한 것일 뿐 ‘郡’

80) 內藤虎次郎, 1922, 「舊鈔本翰苑に就いて」, 『支那學』 2-8; 竹內理三, 1977, 「解説」, 『翰苑』, 福岡太宰府天滿宮研究所, 141~154쪽(윤용구, 2021, 「『翰苑』의 편찬과 蕃夷部」, 『白山學報』 120, 92쪽 및 94쪽 각주 7) 재인용).

81) 구체적으로 백제와 관련해서는 624~630년대 초반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鄭東俊, 2010, 「『翰苑』百濟傳所引の『括地志』の史料性格について」, 『東洋學報』 92, 24~25쪽)도 있다.

82) 『翰苑』 蕃夷部 百濟.

83) 원문에는 ‘建率’이라 하였다. 그러나 백제에는 ‘建率’이라는 관등이 없고, 『周書』 百濟傳을 비롯한 사서에 方領을 達率로 삼는다고 하였으므로(“五方各有方領一人, 以達率爲之.”), ‘達率’로 교감할 수 있다.

84) “亦城名主”라는 구절은 해석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을 이유로 “亦名城主”라 교감하여 이해함이 일반적이다(湯淺幸孫, 1983, 『翰苑校釋』, 國書刊行會, 102쪽.). “亦名城主”라고 인용한 모든 논저를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논저에서 “亦名城主”라고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구절은 원문을 교감할 비교 자료가 없어 자칫 사료의 왜곡이 될 수 있다. 이에 원문대로 읽어 “郡縣에는 道使뿐 아니라 城의 名을 冠한 主도 두었다.”라고 해석한 견해(李成珪, 1996, 「中國의 分裂體制模式과 東아시아 諸國」, 『韓國古代史論叢』, 284쪽.)가 있다. 이때 ‘城의 名을 冠한 主’는 ‘地名+城主’와 같이 城名을 冠稱한 城主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사와 城主를 분리하여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亦城名主”라고 읽을 때 ‘城名主’라는 표현이 생소하고, 어떠한 동사를 통해 ‘郡縣’과 연결되는지 모호한 면이 있다. 오히려 “亦名城主”라고 읽을 때 사료 B의 서술 구조가 백제 5方制의 方-郡-城 편제를 연상시키고, 앞서 方의 方領과 郡의 郡將이 언급되었으므로 순서상 城이 서술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또한, 신라의 도사가 城·村 단위에 파견된 지방관이었던 점에서도 백제의 도사 역시 城主라는 異名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이해하기도 한다(李鍾旭, 1974, 앞의 논문, 37~39쪽). 본고에서는 사료 B의 교감 근거가 마땅치 않은 점은 사실이므로 “亦城名主”라고 읽어야 할 가능성은 열어두되, 문의상 “亦名城主”라고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거나,<sup>85)</sup> 縣은 곧 백제 사비기 지방 편제 제3단계 행정구역인 城 단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郡과 縣’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sup>86)</sup> 이는 “亦名城主”보다는 ‘郡縣’에 초점을 둔 해석이다. ‘郡’으로 해석하는 경우 도사를 郡 단위 지방관으로 파악하여 郡將은 軍政, 도사는 民政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郡과 縣’으로 해석하는 것도 도사가 郡 단위의 民政을 담당하고, 城 단위에도 도사가 파견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郡將은 郡 단위를 총괄하는 지방관으로 생각되므로, 郡의 民政을 다른 지방관이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sup>87)</sup> ‘郡縣’의 해석과 별개로 그에 따른 도사의 성격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城主라는 異名에 초점을 두어 ‘郡縣’은 城 단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郡縣’은 ‘郡의 縣’, 곧 ‘郡의 예속 단위인 縣級의 城’을 의미한다고 이해한 것이다.<sup>88)</sup> 이러한 해석은 ‘郡縣’을 ‘郡의 縣’으로 사용하는 용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sup>89)</sup> 方領과 郡將의 존재를 고려할 때 도사를 城 단위 지방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여 역사적 정황에 비추어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郡의 縣’이라는 해석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郡縣’을 ‘郡의 縣’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郡縣’을 ‘직접지배지역의 대명사’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sup>90)</sup> 백제에서 縣의 존재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縣級에 해당하는 단위인 城이 있고, 郡은 앞 구절에 언급되었으므로 ‘郡縣’은 중국에서의 郡縣과 같은 직접지배지역으로서의 城 단위를 표현한 대명사로 본 것이다. 그러나 ‘郡縣’을 직접지배지역의 대명사로 보았음에도, 도사가 城 단위 지방관일 것이라는 정황에 비추어 바라봄으로써 城 단위에 한정하여 이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郡縣’이라는 표현의 용례를 고려하면 사료 B의 ‘郡縣’을 반드시 城 단위에 한정하여 이해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郡縣’은 郡縣制 시행 이래 일반적으로 郡과 縣을 병칭하거나,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통치조직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백제와 관련하여서도 擔魯가 중국의 ‘郡縣’과 같다고 표현된 것이 참고된다.<sup>91)</sup> 이는 擔魯가 중앙인 ‘固麻(熊津)’에 대응되는 지방으로서 중국에서의 郡縣과 같은 지방통치조직임을 표현한 것으로, 擔魯가 郡 단위와

85) 池內宏, 1926, 앞의 논문, 22쪽; 末松保和, 1962, 앞의 논문, 295쪽.

86) 武田幸南, 1980a, 앞의 논문, 48쪽; 金周成, 1992, 앞의 논문, 44쪽. 이와 달리 ‘郡과 縣’을 郡과 그 예하 諸城으로 이해하고, 郡과 縣의 구분이 없던 단계에 郡將이 파견되지 못한 諸城에 도사가 파견된 것으로 본 견해(李根雨, 1997, 앞의 논문, 350~353쪽)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고구려의 도사가 諸城에 두어졌다는 점에서 유추한 것으로, 고구려의 도사는 唐의 刺史에 비견되는 郡級 단위 지방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

87) 金英心, 1997a, 앞의 논문, 86~87쪽. 더불어 도사가 郡과 城 단위 공통의 지방관이라면 급이 다른 단위에 같은 지방관이 파견된다는 문제가 있다.

88) 李鍾旭, 1974, 앞의 논문, 37~38쪽; 盧重國, 1988, 앞의 책, 249쪽; 朱甫噉, 1995, 앞의 논문; 박현숙, 1996, 앞의 논문, 293~294쪽; 백미선, 2018, 앞의 논문, 8쪽. 金英心은 ‘郡縣’의 해석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縣(城) 단위에 도사라는 지방관이 있었음은 틀림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郡과 縣 단위 모두에 파견된 지방관일 가능성을 열어두었다(1990, 앞의 논문, 109쪽). 이후 縣(城) 단위에 파견된 지방관인 것으로 견해를 정리하였다(金英心, 1997a, 앞의 논문, 87쪽). 전덕제도 ‘郡縣’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각 성에는 道使 또는 城主를 파견하였다.”라고 하여 郡 예하의 小城, 方 직할의 小城에 도사 또는 城主가 파견되었을 것으로 보았다(2018, 앞의 논문, 76~78쪽). 한편 金壽泰는 ‘郡縣’을 ‘郡과 縣’으로 보면서도 사비기 도사의 성격은 城主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997, 앞의 논문, 215~217쪽).

89) 그러한 인식 속에서, 도사를 城 단위 지방관으로 보면서도 郡 하위의 縣을 ‘郡縣’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한 견해도 있다(金英心, 1997a, 위의 논문, 87쪽).

90) 정동준, 2011, 앞의 논문, 289~291쪽.

91) “號所治城曰固麻, 謂邑曰擔魯, 如中國之言郡縣也.”(『梁書』 卷54 列傳48 諸夷 東夷 百濟); “所治城曰固麻, 謂邑曰擔魯, 如中國郡縣.”(『梁職貢圖』 百濟國使).

縣 단위로 구분됨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郡縣’은 특정 단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방의 郡과 縣으로 대표되는 지방통치조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郡縣’이라는 용어는 城 단위보다 폭넓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도사가 ‘郡縣’에 파견되었음에 주목해 도사의 성격을 달리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도사의 파견 지역이 ‘郡縣’으로 기록된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먼저 ‘道使’라는 官名이 주목된다. ‘道使’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통로[道]를 통해 파견된 使者’라고 해석된다. 고구려의 도사는 ‘幹道가 통하는 요충에 파견된 使者’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sup>92)</sup> 신라의 도사는 이러한 관점을 심화하여 ‘官道가 통하는 요충에 파견된 使者’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sup>93)</sup> 나아가 고구려의 ‘使者’와 유사한 관직이 유래가 되어 道를 통하여 활동하면서 도사가 등장한 것으로 보는 견해,<sup>94)</sup> ‘發使十道’·‘發使三道’ 등의 기록을 통해 ‘길 따라 사신 간다’라는 의미에서 도사가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sup>95)</sup> 등이 제기되었다. 이렇듯 도사라는 官名은 대체로 교통로[道]를 통해 파견된 使者와 관련된 의미로 이해된다.

주목되는 점은 고대의 ‘道’에는 단순히 교통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을 연결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부여에는 중앙을 중심으로 사방을 연결하고 통제하는 ‘四出道’가 있었다.<sup>96)</sup> 고구려에서는 ‘北道’·‘南道’ 등의 교통로가 확인되고,<sup>97)</sup> 이러한 교통로는 주변의 城民과 谷民을 다스리기 위한 지방통치의 매개체였다.<sup>98)</sup> 신라의 ‘官道’ 역시 사방에 郵驛을 설치하며 수리되었다는 점<sup>99)</sup>에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공식적인 도로로 이해되며, 이를 매개로 지방통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해된다.<sup>100)</sup> 비록 백제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道’의 존재나 그것을 통한 지방통치의 모습이 사료상에 드러나지 않지만, ‘道’의 의미와 ‘道使’의 존재 등을 통하여 백제에서 역시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使’의 경우에도 지방통치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백제에서는 비류왕 9년(312) 2월에 ‘使’를 보내어 백성들의 疾苦를 위문하고 鰥寡孤獨을 돌본 사례가 확인된다.<sup>101)</sup> 이때의 ‘使’는 특정 지역에 파견되어 왕명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된다.<sup>102)</sup> 신라에서도 ‘使’<sup>103)</sup>·‘使人’<sup>104)</sup> 등이

92) 武田幸男, 1980a, 앞의 논문, 329~330쪽. 나아가 『漢書』 梅福傳의 ‘縣道之使’와 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아 도사가 漢制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93) 金在弘, 1991, 앞의 논문, 31~32쪽; 朱甫喲, 1995, 앞의 논문, 42쪽.

94) 金在弘, 1991, 위의 논문, 29~30쪽.

95) 李銖勳, 1995, 앞의 논문, 58~60쪽.

96) “諸加別主四出道, 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三國志』 卷30 魏書30 夫餘).

97) 고구려의 ‘北道’·‘南道’는 342년 고구려와 前燕 사이의 전투를 전하는 기록에 보인다(『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12年 10月條;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 『資治通鑑』 卷97 晉紀19 成帝 咸康 8年條). 특히 南道상에 南陔, 木底 등의 지명이 확인된다. 5세기경의 『牟頭婁墓誌』에도 牟頭婁의 祖父들이 ‘口道城民谷民’, 즉 ‘口道’라는 교통로 주변의 城民과 谷民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러한 ‘道’는 교통로 또는 그 교통로상에 위치하는 지역을 뜻한다고 생각된다(武田幸男, 1981,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朝鮮學報』 99·100, 160쪽).

98) 余昊奎,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南道와 北道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91, 21~22쪽.

99) 三月,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9年條).

100) 더불어 「蔚珍 鳳坪里 新羅碑」의 “길이 좁고 막혀서 尙耶恩城이 失火로 성을 태워 우리 大軍을 일으키게 되었다(道狹阡隘, 尙耶恩城失火, 遶城我大軍起).”라는 내용이나, 장수 침령산성 출토 목간의 “別[列]道中在道使村...” 목서 등이 ‘道’와 지방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참고된다.

101) “九年, 春二月, 發使巡問百姓疾苦, 其鰥寡孤獨不能自存者, 賜穀人三石.”(『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比流王 9年條).

102) 백미선, 2021, 앞의 논문, 29~30쪽.

103) “十一年, 秋七月, 分遣使十人, 廉察州·郡主. 不勤公事, 致田野多荒者, 貶黜之.”(『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婆娑尼師今 11年條); “二十九年, 夏五月, 大水, 民飢. 發使十道, 開倉賑給.”(『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婆娑尼師今 29年條); “七年, 春夏不雨, 倉羣臣於南堂, 親問政刑得失. 又遣使五人,

왕명 수행과 지방통치에 관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고구려에서는 3세기경 지방의 조세·공납의 수취나 운송 등을 담당한 ‘使者’가 확인된다.<sup>105)</sup> 중국에서도 南北朝時代를 비롯해 隋代에 이르기까지 각종 使職을 파견하여 지방통치에 관여하기도 하였다.<sup>106)</sup> 이러한 양상을 볼 때 백제를 비롯한 고대 동아시아에서 ‘使’의 파견을 통한 지방통치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다고 할 수 있고, ‘道使’의 ‘使’ 역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도사는 그 官名상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道]를 통해 파견되어 왕명을 수행하고, 지방통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使者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사라는 官名의 의미와 관직의 역할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이는 동시기 백제의 관직인 方領·郡將의 사례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方領의 경우 사료 B가 참고된다. 이에 따르면 方은 唐의 都督과 같고,<sup>107)</sup> 方은 모두 達率(2品)이 통솔하였으며(方領), 方마다 10에서 6~7개의 郡을 관할하였다. 唐代의 都督은 都督府의 軍事를 관할하는 장관이었고, 都督府의 屬州 중 한 곳을 治所州로 삼아 州의 장관인 刺史를 겸하였다.<sup>108)</sup> 이러한 양상은 方領이 하나의 城을 方城으로 삼아 주재하고,<sup>109)</sup> 여러 郡을 관할한 것과 동일하다. 더불어 “方皆達率領之”라고 하여 ‘方을 통솔하다[領]’라는 方領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方領은 官名과 그 역할이 부합한다. 郡將의 경우 唐의 刺史와 같았다는 기록이 확인된다.<sup>110)</sup> 唐의 刺史는 唐 高祖 武德 연간(618~626) 초에 郡을 州로 개칭하고, 郡의 장관인 太守를 刺史로 개칭하면서 성립하였다.<sup>111)</sup> 따라서 백제의 郡將은 郡의 장관에 해당한다. 郡將이라는 官名 역시 後漢 말에 郡의 民政을 담당하는 太守가 그 하위에서 軍政을

巡問百姓苦患.”(『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 7年條); “二年, 春, 發使撫問鰥寡孤獨, 各賜穀三斛, 孝悌有異行者, 賜職一級.”(『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2年條); “王陰長一尺五寸難於嘉耦發使三道求之. 使至牟梁部, 冬老樹下見二狗啣一屎塊如鼓大爭啣其兩端.”(『三國遺事』 卷1 紀異1 智哲老王).

- 104) “使人奈蘇毒只道使喙念牟智, 沙喙鄒須智. ... 沙干支使人卑西牟利白口.”(「浦項 中城里 新羅碑」); “阿大兮村使人奈尔利, 杖六十, 葛尸條村使人奈尔利居口尺, 男弥只村使人翼口, 杖百.”(「蔚珍 鳳坪里 新羅碑」); “使人喙灾尺斯知大舍第, 口口次小舍第, 述利大烏第, 尸支小烏, 末次兮小烏一支.”(「永川 菁堤碑 丙辰銘」); “勿思伐城幢主使人那利村口口口口口口口口人.”(「丹陽 新羅 赤城碑」).
- 105)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稅, 貂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以爲婢妾, 遇之如奴僕.”(『三國志』 卷30 魏書30 東沃沮);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以相監領, 責其租稅, 貂布魚鹽, 海中食物, 發美女爲婢妾焉.”(『後漢書』 卷85 列傳75 東夷列傳 東沃沮).
- 106) 崔珍烈, 2005, 「北魏의 地域支配方式과 그 性格 -華北지역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92, 133~134쪽; 홍승현, 2008, 「송무제와 양무제의 개혁과 그 의의」, 『사대부와 중국 고대 사회』, 315~322쪽.
- 107) 종래 唐代 都督制의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아 『括地志』에서 서술하는 ‘若中夏之都督’을 唐代 이전의 都督으로 이해하는 견해(金英心, 1997b, 앞의 논문, 139~140쪽)가 있었다. 이는 州를 통해 郡·縣 모두를 지배하면서도 민정 분야까지는 통제할 수 없었던 위진남북조시대 都督을 주요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또는 漢代 刺史와 魏·晉代의 都督이 결합된 형태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견해(정동준, 2011, 앞의 논문, 301쪽)도 있다. 그러나 사료 자체가 唐代의 것이며 唐에서 都督制가 시행된 624년 이후의 사료이므로 唐代의 都督으로 보아야 한다(김근영, 2024, 앞의 논문, 61~63쪽).
- 108) 夏炎 저·이규호 역, 2014, 「唐代 都督府와 州의 關係에 대한 試論」, 『동국사학』 57, 686~687쪽.
- 109) “其外更有五方, 中方曰古沙城, 東方曰得安城, 南方曰久知下城, 西方曰刀先城, 北方曰熊津城.”(『周書』 卷49 列傳41 異域 上 百濟); “括地志曰 ... 又國南二百六十里, 有古沙城 ... 此其中方也. ... 國東南百里, 有得安城 ... 此其東方也. 國南三百六十里, 有下城 ... 此其南方也. 國西三百五十里, 有力光城 ... 此其西方也. 國東北六十里, 有熊津城 ... 此其北方也.”(『翰苑』 蕃夷部 百濟).
- 110) “黑齒常之, 百濟西部人. ... 仕爲達率兼郡將, 猶中國之刺史也.”(『舊唐書』 卷109 列傳59 黑齒常之); “黑齒常之, 百濟西部人. ... 爲百濟達率兼風達郡將, 猶唐刺史云.”(『新唐書』 卷110 列傳35 諸夷蕃將 黑齒常之); “黑齒常之, 百濟西部人. ... 爲百濟達率, 兼風達郡將, 猶唐刺史云.”(『三國史記』 卷44 列傳4 黑齒常之).
- 111) “大唐武德初, 改郡爲州, 太守爲刺史, 其邊鎮及襟帶之地, 置總管府以領軍戎. 至七年, 改總管府爲都督府.”(『通典』 卷172 州郡2 序目 下 大唐).

담당하는 都尉의 역할을 겸하면서 만들어진 별칭이라는 점<sup>112)</sup>에서도 郡將은 郡의 장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113)</sup> 郡將 역시 官名과 그 역할이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듯 백제 사비기 관직의 官名과 역할이 잘 부합한다는 점은 도사의 역할 파악에도 시사점을 준다. 종래에는 도사를 城 단위 지방관으로 파악하였으나, 도사라는 官名은 城 단위와 연결되지 않는다. 이는 관할하는 단위명이 官名과 연결되는 方領·郡將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官名에 주목하여 ‘교통로[道]를 통해 파견된 使者’에 해당하는 성격의 관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支藥兒食米記에서도 도사가 특정 城 단위가 아닌 요지·거점 등에 설치한 특수 단위인 ‘彈耶方’과 관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특정 使命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官名과 그 역할이 부합한다. 이러한 모습은 도사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道]를 통해 지방의 ‘郡縣’에 파견되는 성격의 관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도사라는 관직의 성격과 관련하여 도사의 지명 冠稱 문제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支藥兒食米記와 익산 왕궁리유적 출토 「風道使前...」 銘文瓦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支藥兒食米記에 보이는 도사는 官名 앞에 지명을 冠稱하지 않고, ‘道使□□次如逢...’, ‘道使後後’와 같이 단지 ‘道使’라고 지칭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달리 「風道使前...」 銘文瓦에서는 백제의 도사가 지명을 冠稱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림 3. 「風道使前...」 銘文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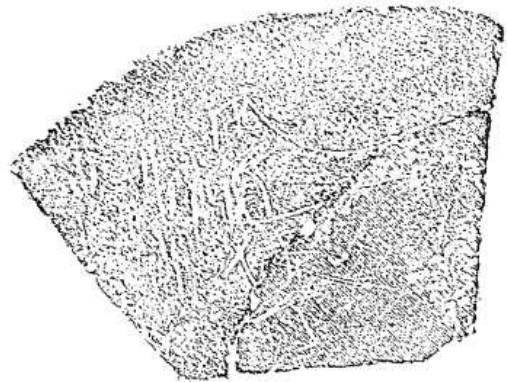


그림 4. 「風道使前...」 銘文瓦 탁본

「風道使前...」 銘文瓦는 1995년 익산 왕궁리유적 탑 동편의 4번 건물지 조사 중 백제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백제 암키와 파편이다. 無文의 외면에 「風道使前...」이라는 陰刻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銘文瓦는 왕궁리유적 조성 단계의 것으로 판단되며, 왕궁리유적 출토 기와 중에서도 이른 단계에 속한다.<sup>114)</sup> 파편인 만큼 銘文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종래에는 ‘□□(지명) 城主’와 같이 ‘□風(지명) 道使’가 기록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115)</sup> 나아가 ‘風道使’라는 銘文은 익산 왕궁리유적의 기와를 ‘□風’ 지역에서 도사의 관할 아래 제작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파악한 견해도 있다.<sup>116)</sup> 이는 고대 사료에서 城主나 도사가 지명을 冠

112) 日中民族科學研究所, 1986, 『中國歷代職官辭典』, 國書刊行會, 71쪽.

113) 金英心, 1997a, 앞의 논문, 86~87쪽.

114)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7, 『王宮里 發掘中間報告Ⅱ』, 158쪽 및 익산 왕궁리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한 전용호 학예연구관(국가유산청) 교시에 의함.

115) 김영심, 2007, 앞의 논문, 252쪽.

稱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도사가 지명을 冠稱하지 않은 支藥兒食米記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銘文은 「風道使前...」으로 보고되었고,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된 탁본 상에서도 ‘風’字 상단에 銘文이 확인되지 않아 ‘口風’이라는 지명을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風’이라는 지명으로 본다면 한 글자의 지명은 다소 부자연스러우며, 익산 왕궁리유적과 그 인근의 어떠한 지명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風’은 지명보다는 모종의 의미, 혹은 인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sup>116)</sup> 「風道使前...」 銘文瓦를 통해 백제의 도사가 지명을 冠稱하였다고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방 출토 유물에서 ‘道使’라는 銘文이 확인된 사례로서, 도사가 익산 왕궁리유적의 조성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파견되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현존하는 사료에 의하면 백제의 도사가 지명을 冠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주재하는 지역의 지명을 冠稱하는 方領·郡將의 사례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sup>118)</sup> 종래의 이해와 같이 도사의 성격이 縣級의 城 단위를 주재하는 지방관에 해당한다면, 方·郡·城의 지방관 중 오직 도사만 그 官名이 城 단위로 직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사만이 지명을 冠稱하지 않은 점도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도사의 파견 지역이 ‘郡縣’으로 기록된 점, 도사라는 官名의 의미에 부합하게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활동한 점, 지명을 冠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백제의 도사를 縣級의 城 단위에 상주하며 주재하는 지방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도사의 異名이 城主로 기록된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도사와 城主의 異名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도사는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으로, 城主는 토착세력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sup>119)</sup> 그러나 사료상에 異名 관계임이 명시되어 성립하지 않는다.<sup>120)</sup> 異名이 城主라는 점에서 도사가 縣級의 城 단위를 포함해 ‘郡縣’의 여러 城과 관련된 관직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城主는 특정 시기나 국가에 따라 지방관의 명칭이기도 하였지만,<sup>121)</sup> 통시대적 명칭이기도 하다.<sup>122)</sup> 또한, 백제의 지방통치체제는 ‘方城’·‘諸城’·‘小城’·‘城邑’ 등 기본적으로 大小의 城을 편제함에 있었고,<sup>123)</sup>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등장하는 모든 통치단위가 ‘城’으로 표기되어 있

116) 백미선, 2021, 앞의 논문, 24~25쪽.

117) 문자자료의 ‘인명+前’과 같은 서식은 주로 書信類의 文書木簡에서 확인된다. 신라 목간의 경우 신출토 월성해자 3호 목간의 ‘口小舍前敬呼白遣...’, 신출토 월성해자 삼면목간의 ‘口部弗德[知/智]小舍前...’ 등이 주목된다. 3호 목간에서 小舍 앞의 ‘口’는 小舍 관등을 소유한 인물의 인명일 가능성이 있고, 삼면목간에서 小舍 앞의 ‘口部弗德[知/智]’ 역시 인명일 가능성이 있다(하시모토 시게루, 2021, 「新羅 文書木簡의 기초적 검토-신 출토 월성해자 목간을 중심으로」, 『嶺南學』 77, 191~196쪽). 일본 고대 목간에서도 누구의 앞에서 아된다는 형식의 ‘前白(某前白)’ 목간이 다수 확인된다(市大樹, 2010, 「慶州月城垓字出土の四面墨書木簡」, 『飛鳥藤原木簡の研究』). 다만 ‘前’ 이하가 파손되어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는 지명이 아닐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18) 方領은 ‘東方領’(『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2年 12月條)·‘熊津方領’(『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年 7月 18日條) 등이 확인되고, 郡將은 ‘風達郡將’(『三國史記』 卷44 列傳4 黑齒常之)·‘麻連大郡將’(『陳法子墓誌銘』)·‘稟達郡將’(『陳法子墓誌銘』) 등이 확인된다.

119) 박현숙, 1996, 앞의 논문, 313쪽; 정동준, 2011, 앞의 논문, 290쪽.

120) 백미선, 2018, 앞의 논문, 38쪽 각주 102). 한편 『三國史記』·『日本書紀』에 확인되는 ‘城主’라는 명칭이 공식 명칭이었을 것이고, 신라의 사례처럼 실제 파견 시에는 도사라고 호칭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金英心, 1997a, 앞의 논문, 96쪽)도 있다.

121) 城의 책임자를 城主라고 부른 것은 중국 南北朝에서 유래하였다. 城主는 본래 武官名으로 北周에서 1城의 防守官이 되었던 데서 명칭이 비롯되었다(金英心, 1997a, 위의 논문, 95쪽).

122) 盧重國, 1988, 앞의 책, 245쪽.

123) “其諸方之城, 皆憑山險爲之, 亦有累石者. 其兵多者千人, 少者七八百人. 城中戶多者千人, 少者七八

어 지명을 冠稱한 城主를 모두 縣級의 城 단위 지방관으로 보기 어렵다.<sup>124)</sup> 백제 멸망 당시의 기록에도 唐에 압송된 ‘諸城主’가 보이는데,<sup>125)</sup> 이는 백제의 여러 지방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城主라는 용어의 범용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모든 城主가 도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異名이 城主임에 주목하여 도사를 城 단위 지방관으로 단순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城主라는 異名은 도사가 交通로[道]를 통해 파견되는 使者임과 동시에 지방 ‘郡縣’의 城들에 파견되어 지방통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관적 성격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이렇듯 백제의 도사는 交通로[道]를 통해 지방의 ‘郡縣’에 파견되는 使者로서, 특정 使命을 수행하고 지방에 발생한 문제를 통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된다. 도사의 파견은 5方制의 편제나 구조를 고려하면 지방관인 方領과 郡將 등을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사는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에도 존재한 관직인 만큼, 삼국의 도사를 비교해 봄으로써 백제의 도사가 갖는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4. 고구려·신라의 사례를 통해 본 道使의 성격

백제의 도사가 交通로[道]를 통해 지방(‘郡縣’)에 파견되는 使者와 같은 성격의 관직이라면, 마찬가지로 도사라는 관직이 존재하였던 고구려·신라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사는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관직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전파되어 각국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도사 관직 설치의 전파는 일반적으로 삼국의 발전 과정을 고려해 고구려-백제-신라 순으로 상정하는데,<sup>126)</sup> 그 전과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삼국 모두 도사가 존재했음이 분명하고, 고구려의 제도에서 유래된 신라의 幢主<sup>127)</sup> 등 삼국 간에 상호 영향을 받아 설치된 관직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도사의 경우 역시 그러한 전파를 상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도사라는 관직이 어떻게 운용되었고, 백제의 도사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백제의 도사가 갖는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고구려의 도사와 관련된 사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C-1. 『高麗記』에 이르기를 ... 또 그 나라의 諸大城에는 僣薩을 두었는데 都督에 비

百人。城中戶多者至五百家。諸城左右亦各小城，皆統諸方。又國南海中，有大島十五所，皆置城邑，有人居之。”(『翰苑』 蕃夷部 百濟); “國西南，人島居者十五所，皆有城邑。”(『北史』 卷94 列傳82 百濟)。

124) 金英心, 1997a, 앞의 논문, 94~95쪽. 더불어 백제와 교전한 신라의 椴峇城 縣令 讚德(『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33年條; 『三國史記』 卷47 列傳7 奚論), 大耶城 都督 또는 大梁州 軍主로 기록된 金品釋(『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1年條; 『三國史記』 卷41 列傳1 金庾信 上; 『三國史記』 卷47 列傳7 竹竹) 등은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모두 ‘城主’로 기록되었다(『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12年條;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年條). 이는 당해 인물들이 모두 특정 城에 파견된 것이 중시된 기록으로 관직명과 관계없이 城主라고 지칭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5) “其大將禰植又將義慈來降，太子隆并餘諸城主皆同送款.”(『舊唐書』 卷83 列傳33 蘇定方傳)。

126) 李鍾旭, 1974, 앞의 논문, 38~39쪽; 朱甫敦, 1995, 앞의 논문, 67쪽; 金壽泰, 1997, 앞의 논문, 212~213쪽.

127)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316~317쪽. 「廣開土王陵碑」에 “王幢要截盪刺，倭寇潰敗，斬殺無數.”라는 문장이 확인되어 고구려에서 왕의 군대를 ‘王幢’이라고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忠州高句麗碑」에 ‘新羅土內幢主’라는 관직이 확인되는데, 신라 영토에 고구려의 幢主가 주둔하였던 배경에서 幢 또는 幢主와 같은 편제가 신라로 유입될 수 있었다고 이해된다.

건된다. 諸城에는 處閭를 두었는데 刺史에 비견되고 또한 道使라고도 한다. 道使의 治所는 備라고 이름한다. 諸小城에는 可邏達을 두었는데 長史에 비견된다. 또 城에는 婁肖를 두었는데 縣令에 비견된다.<sup>128)</sup>

C-2. 大唐 右驍尉 永寧府 果毅都尉 泉府君 故 夫人 高氏 墓誌. 부인의 諱는 提昔으로 본래 國內城 사람이다. ... 曾祖 伏仁은 大相으로 水境城 道使와 遼東城 大首領이었다.<sup>129)</sup>

C-3. 周 冠軍大將軍 行左清道率府 頻陽折衝都尉 高乙德 墓誌并序. 諱는 德으로 卞國 東部 사람이다. ... 父 孚는 寶藏王으로부터 中裏小兄에 배수되었고, 南蘇道史에 임명되었으며, 大兄으로 승진하여 海谷府 都督에 임명되었다. ... 公의 나이 겨우 立志의 때에 그 나라의 관직에 나아가 中裏小兄에 배수되었고, 貴端道史에 임명되었다.<sup>130)</sup>

사료 C는 고구려의 도사와 관련된 대표적 사료이다. C-1은 『翰苑』 所引 『高麗記』의 기사로 7세기 중반경의 상황을 전한다.<sup>131)</sup> C-1에 의하면 고구려는 ‘諸大城’에는 都督에 비견되는 僂薩(褥薩)을 두었고, ‘諸城’에는 刺史에 비견되는 處閭(處閭近支)를 두었는데 도사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또한, ‘諸小城’에는 長史에 비견되는 可邏達을 두었고, ‘城’에는 縣令에 비견되는 婁肖를 두었다고 한다.<sup>132)</sup> 곧 7세기 중반경 고구려의 도사는 唐의 刺史에 비견되는 지방관으로, ‘諸城’으로 표현된 郡級 단위에 파견된 지방관임을 알 수 있다.

사료 C-2·3은 在唐 고구려 유민 묘지명으로 도사에 임명되었던 인물들이 확인된다. C-2는 674년에 사망한 高提昔(649~674)의 묘지명으로, 그 일족은 묘주의 祖父 高支가 645년경 唐에 투항하며 이주하였다.<sup>133)</sup> 묘지명에 의하면 묘주의 曾祖 高伏仁이 ‘水境城 道使’에 임명되었다. 한 세대를 약 20년으로 계산하면 高伏仁은 580~590년대생으로 그가 활동하였을 시기는 7세기 초반 이후이다. C-3은 699년에 사망한 高乙德(618~699)의 묘지명으로, 그 일족은 661년에 唐에 투항하며 이주하였다. 묘지명에 의하면 묘주 高乙德은 ‘貴端 道史’, 묘주의 父

128) “高麗記曰, ... 又其諸大城置僂薩, 比都督. 諸城置處閭, 匹刺史, 亦謂之道使. 道使治所名之曰備. 諸小城置可邏達, 比長史. 又城置婁肖, 比縣令.”(『翰苑』 蕃夷部 高麗).

129) “大唐右驍衛永寧府果毅都尉泉府君故夫人高氏墓誌. 夫人諱提昔, 本國內城人也. 曾祖伏仁, 大相·水境城道使·遼東城大首領.”(「高提昔墓誌銘」).

130) “周冠軍大將軍行左清道率府頻陽折衝都尉高乙德墓誌并序. 諱德, 卞國東部人也. ... 父孚, 受寶藏王中裏小兄, 任南蘇道史, 遷陟大兄, 任海谷府都督. ... 公年纔立志, 仕彼邦官, 受中裏小兄, 任貴端道史.”(「高乙德墓誌銘」).

131) 池内宏, 1951, 『滿鮮史研究 上世編』, まさき会祖國社, 334쪽. 『高麗記』를 641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奉使高麗記』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吉田光男, 1977,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 『朝鮮學報』 85)도 있다.

132) 『翰苑』 이후에 편찬된 사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한다. “又其諸大城置僂薩, 比都督. 諸城置處閭近支, 比刺史, 亦謂之道使.”(『通典』 卷186 邊防2 東夷 下 高句麗); “外置州縣六十餘城. 大城置僂薩一, 比都督. 諸城置道使, 比刺史. 其下各有僚佐, 分掌曹事.”(『舊唐書』 卷199 上 列傳149 上 東夷 高麗); “外置州縣六十餘. 大城置僂薩一人, 比都督. 小城置道使一人, 比刺史. 其下各有僚佐, 分曹掌事.”(『舊五代史』 卷138 列傳7 外國2 高麗); “其州縣六十. 大城置僂薩一, 比都督. 餘城置處閭近支, 亦號道使, 比刺史. 有參佐.”(『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133) 王其禕·周曉薇, 2013, 「國內城高氏:最早入唐的高句麗移民—新發現唐上元元年“泉府君夫人高提昔墓誌”釋讀」, 『陝西師範大學學報』 2013-5, 55~56쪽.

高孚는 ‘南蘇 道史’에 임명되었다. ‘貴端’·‘南蘇’는 ‘貴端城’·‘南蘇城’임이 분명하고, ‘道史’는 도사의 다른 표기로 이해된다.<sup>134)</sup> C-2·3에 확인되는 도사는 水境城·貴端城·南蘇城 등 郡級 단위 위에 파견된 지방관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최소한 7세기 중반경 고구려의 도사는 郡級 단위 지방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도사는 7세기 이전의 이른 시기부터 등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C-1에 보이는 고구려의 지방 구조는 대체로 6세기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135)</sup> 또한, 도사라는 官名에 보이듯이 ‘교통로[道]를 통해 파견된 使者’의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교통로[道]의 조성이나 활용 양상과 관련지어 도사를 이해하는 것이다.<sup>136)</sup> 고구려에서는 4세기 중반경부터 교통로[道]를 매개로 한 지방통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도사와 관련하여 使者라는 관직이 주목된다.

고구려의 使者는 國王이나 大加의 관할 영역 내 실무 담당자로서 租稅의 수취와 세력 내 소속 집단들의 통제 등을 담당한 관직이었다.<sup>137)</sup> 『三國志』 東沃沮傳에 의하면 고구려는 동옥저를 臣屬시킨 뒤 동옥저의 大人을 ‘使者’로 삼았다.<sup>138)</sup> 이후 3세기 후반경에 이르면 왕권이 강화되면서 ‘使者’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리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보인다.<sup>139)</sup> 고구려의 도사는 이러한 ‘使者’가 파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로[道]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이해된다.<sup>140)</sup> 즉 초기에는 ‘교통로[道]에 파견된 使者’의 성격을 가졌던 고구려의 도사는 여러 변화를 거쳐 6세기경에 이르러서는 郡級 단위 지방관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렇듯 교통로를 따라 郡級의 주요 城에 도사를 파견하여 중앙과의 유기적 연결을 추구한 것은 諸大城·諸城·諸小城·城 등 城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지방통치체제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신라의 도사는 어땠을까? 신라의 경우 주로 6세기 이후의 금석문에서 도사가 확인되는데, 그 官名으로 보아 교통로를 따라 설정된 비교적 넓은 지역에 파견된 것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다.<sup>141)</sup> 역시 ‘使者’와 관련된 관직에서 유래하였다고 이해되고, 특히 487년(소지마립간 9) 무렵 四方 郵驛의 설치 및 官道の 정비<sup>142)</sup>와 함께 도사가 파견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sup>143)</sup> 신라의 도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료는 다음과 같다.

D-1. 辛巳 ... 使人奈蘇毒只道使喙念牟智沙喙鄒須智.<sup>144)</sup>

134) 王連龍, 2015, 「唐代高麗移民高乙德墓志及相關問題研究」, 『吉林師範大學學報』 2015-4, 33~34쪽.

135) 余昊奎, 1995, 앞의 논문, 38쪽; 金賢淑, 1997, 「高句麗 中·後期 中央集權의 地方統治體制의 發展過程」, 『韓國古代史研究』 11, 41쪽;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286쪽; 朱甫噉, 2003, 「三國時代 地方統治體制의 定着 과정」, 『강좌 한국고대사』 2, 267쪽; 임기환, 2004, 「고구려의 副都 漢城과 지방통치」, 『한국 고대중세 지방제도의 제문제』, 29쪽.

136) 武田幸男, 1980a, 앞의 논문, 329~330쪽; 장국중, 1985, 「고구려에서의 도로발전」, 『역사과학』 1985-4, 13~15쪽; 余昊奎, 1995, 위의 논문, 21~22쪽; 金賢淑, 1997, 위의 논문, 21쪽.

137) 김철준,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132~135쪽; 李鍾旭, 1982,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制度」, 『歷史學報』 94-95, 125쪽;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16~217쪽.

138) “國小, 迫于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139) 여호규, 2014, 앞의 책, 399쪽.

140) 도사라는 官名이나 교통로[道]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4세기경 교통로의 요충에 파견되었던 太守의 異稱이 도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余昊奎, 1995, 앞의 논문, 38쪽)도 있다.

141) 李銖勳, 1995, 앞의 논문, 51~63쪽; 金在弘, 2001, 「新羅 中古期 村制의 成立과 地方社會構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5~114쪽.

142) “三月,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昭知麻立干 9年 3月條).

143) 金在弘, 1991, 앞의 논문, 31~32쪽; 朱甫噉, 1995, 앞의 논문, 42쪽.

D-2. 癸未年九月廿五日, 沙喙至都盧葛文王 ... 此七王等, 共論教用. 典事人, 沙喙壹夫智奈麻, 到盧弗須仇休, 喙眈須道使心訾公, 喙沙夫那斯利, 沙喙蘇那支, 此七人, 張踪所白了事, 煞牛拔誥故記.<sup>145)</sup>

D-3. 甲辰年正月十五日, 喙部牟即智寐錦王 ... 等所教事 ... 新羅六部, 煞斑牛謂沐處事大人 ... 喙部比須婁邪足智, 居伐牟羅道使本洗小舍帝智, 悉支道使烏婁次小舍帝智, 居伐牟羅尼牟利一伐, 尙宜智波旦, 組只斯利一金智, 阿大兮村使人奈尔利, 杖六十, 葛尸條村使人奈尔利居口尺, 男弥只村使人翼口, 杖百, 於即斤利, 杖百, 悉支軍主喙部尔夫智奈麻 ... 居伐牟羅異知巴下干支, 辛日智一尺, 世中了, 三百九十八.<sup>146)</sup>

사료 D-1은 「浦項 中城里 新羅碑」(이하 중성리비) 비문의 일부이다. 중성리비의 연대는 501년(지증왕 2)으로<sup>147)</sup> 현존 最古의 新羅碑이자 신라사에 최초로 도사가 확인되는 사료이다. 중성리비는 건립 지역(홍해)에서 발생한 모종의 분쟁에서 왕을 포함한 신라 6부의 지배층들이 함께 의논하여 처리를 결정하고, 판결을 내려 그것을 이 지역에 ‘敎’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때 敎를 지방 유력자들에게 전달하고 집행하는 담당자로 ‘使人’과 ‘道使’가 확인된다.

도사의 이해와 관련하여 D-1의 “使人奈蘇毒只道使喙念牟智沙喙鄒須智”라는 구절의 끊어 읽기가 핵심이 된다. 두 가지 경우가 상정되는데, ‘使人’ 이하를 구분하지 않고 해석하거나, ‘使人’ 이하와 ‘道使’ 이하로 구분하는 해석이 가능하다.<sup>148)</sup> 전자는 “使人은 奈蘇毒只道使인 喙의 念牟智와 沙喙의 鄒須智”라고 읽는다. 이 경우 도사는 ‘奈蘇毒只’라는 지명을 冠稱한 것이 되고,<sup>149)</sup> 喙의 念牟智와 沙喙의 鄒須智 2인이 ‘奈蘇毒只道使’이다. 후자는 “使人인 奈蘇毒只(혹은 奈蘇와 毒只), 道使인 喙의 念牟智와 沙喙의 鄒須智”라고 읽는다. 이 경우 도사는 지명을 冠稱하지 않은 것이 되고, 喙의 念牟智와 沙喙의 鄒須智 2인이 도사이다.

이 중 후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使人’과 같은 役名 뒤에 인명이 오는 경향은 고대 문자자료에서 빈번하고, 중성리비 비문 X행의 ‘使人 果西牟利’라는 사례에서도 확

144) 「浦項 中城里 新羅碑」.

145) 「浦項 冷水里 新羅碑」.

146) 「蔚珍 鳳坪里 新羅碑」.

147) 중성리비의 辛巳年은 441년(눌지마립간 25) 또는 501년(지증왕 2)으로 추정된다. 현재 유력한 견해는 501년설이다. 본 고에서도 501년설을 따르나,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도사가 확인되는 最古의 금석문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 중성리비에 관한 諸 견해는 이현섭·전덕재, 2021, 「〈浦項 中城里 新羅碑〉 연구의 쟁점과 논의」, 『사학지』 61 참조.

148) 2009년 중성리비 발견 직후에는 ‘使人’과 ‘道使’를 구분하여 봄이 일반적이었으나,李文基가 ‘奈蘇毒只’를 도사가 관칭한 지명으로 보면서부터 이견이 생겼다(2009, 「포항 中城里 新羅碑의 발견과 그 의의」, 『한국고대사연구』 56, 20~21쪽). 이후 논의가 진행되면서 ‘使人’과 ‘道使’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연구자가 증가하였다.

149) 奈蘇의 뜻은 알 수 없으나, 중성리비가 발견된 홍해읍을 흐르는 曲江川이 ‘吐只河’에 비정되고, ‘吐只’와 ‘毒只’의 발음이 비슷한 점에 주목한 견해(金昌錫, 2009, 「포항 中城里 新羅碑에 관한 몇 가지 고찰」, 『韓國史研究』 147, 385쪽)가 있다. 이와 달리 포항시 장기면에 비정되는 ‘只沓縣’이 ‘毒只’의 逆名과 음운이 유사함에 주목한 견해(노중국, 2010, 「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麻立干시기 신라의 분쟁처리 절차와 六部체제의 운영」, 『한국고대사연구』 59, 85쪽)도 있다. 또한, ‘毒只’를 포항 지역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되 ‘奈蘇’를 ‘奈城’ 또는 ‘奈生’이라는 지명이 있는 영월 지역으로 보고, ‘奈蘇毒只’는 ‘奈蘇’와 ‘毒只’의 두 지역을 연결한 구간을 나타낸다고 추정한 견해(이미란, 2012, 「6세기 전후 신라 道使의 파견과 지방의 출현 과정」, 『역사와 경계』 85, 138~139쪽)도 있다.

인된다. 따라서 ‘使人’ 뒤에 인명 ‘奈菴毒只(혹은 奈菴·毒只)’가 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奈菴毒只道使’로 보면 한 지역에 2인의 도사가 파견된 셈인데, 그러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더욱이 6세기 초에 한 지역에 2인의 도사가 파견되었다면, 한 지역에 1인이 파견된 中古期의 도사보다 많은 수의 인원이 지방통치를 담당할 것이 되어 납득하기 어렵다.<sup>150)</sup> 따라서 중성리비에는 ‘喙의 念牟智’, ‘沙喙의 鄒須智’의 도사 2인이 기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목되는 점은 신라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으로 생각되는 중성리비 단계의 도사는 지명을 冠稱하지 않았고, 喙部와 沙喙部 등 王京人이 도사에 임명되어 흥해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敎’를 세간에 ‘令’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특정 지역에 상주하는 지방관으로서의 성격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도사의 이러한 면모는 중성리비 단계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浦項 冷水里 新羅碑」(이하 냉수리비)에서도 확인된다. 사료 D-2는 냉수리비 비문의 일부로 503년(지증왕 4)에 해당한다. 냉수리비는 至都盧 葛文王(지증왕) 등의 ‘七王’이 전대 ‘二王’의 敎를 이어받아 ‘珍而麻村’에 사는 ‘節居利’의 재물과 관련된 분쟁 및 상속의 판결을 담고 있다. 도사는 D-2의 “典事人沙喙壹夫智奈麻到盧弗須仇休喙眈須道使心訾公喙沙夫那斯利沙喙蘇那支此七人...”이라는 구절에서 확인된다. 즉 ‘敎’의 전달과 집행 등의 일을 맡아 처리한 ‘典事人’ 7인 중에 도사가 확인되는데, 해당 구절 역시 끊어 읽기에 이론이 있다. 곧 “喙眈須道使心訾公”의 ‘眈須’를 지명으로 보는 견해<sup>151)</sup>와 인명으로 보는 견해<sup>152)</sup>로 이견이 있는 것이다.

전자는 ‘喙의 眈須道使 心訾公’으로 읽는다. 이 경우 도사는 ‘眈須’라는 지명을 冠稱한 것이 된다. 이때 典事人 7인은 ‘沙喙의 壹夫智 奈麻(1)·(沙喙의) 到盧弗(2)·(沙喙의) 須仇休(3)·喙의 眈須道使 心訾公(4)·喙의 沙夫(혹은 沙夫那)(5)·(喙의) 那斯利(혹은 斯利)(6)·沙喙의 蘇那支(7)’이다. 후자는 “喙의 眈須, (喙의) 道使 心訾公”으로 읽는다. 이 경우 도사는 지명을 冠稱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때 典事人 7인은 ‘沙喙의 壹夫智 奈麻(1)·(沙喙의) 到盧弗(2)·(沙喙의) 須仇休(혹은 到盧弗須仇休)(3)·喙의 眈須(4)·(喙의) 道使 心訾公(5)·喙의 沙夫那斯利(혹은 沙夫那와 斯利)(6)·沙喙의 蘇那支(7)’이다.

전자의 경우 냉수리비 이후의 금석문에서 일반적으로 도사가 지명을 冠稱한다는 점에서 ‘喙(출신)+眈須(파견지명)+道使(관직명)+心訾公(인명)’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도사의 지명 冠稱을 제외하면, 신라 中古期 금석문의 서식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신라 中古期 금석문의 인명 표기 서식은 ‘파견지명+관직명+출신+인명+관등’으로 생략되는 것은 있어도 순서는 일정하다. 냉수리비 후면 비문 II~III행의 ‘典事人(역명:관직명)+沙喙(출신)+壹夫智(인명)+奈麻(관등)’라는 인명 표기를 보더라도 이러한 서식이 지켜지고 있으며, 다른 인명 표기도 모두 같은 서식이다. 따라서 해당 구절 역시 인명 표기 서식에 맞추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라 中古期 금석문의 인명 표기 서식에 따르면 ‘喙(출신)+眈須(인명)’·‘道使(관직명)+心訾公(인명)’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sup>153)</sup> 그런 점에서 냉수리비의 도사 역시 ‘道使 心訾公’으로서 지명을 冠稱하지

150) 선석열, 2009, 「인명표기방식을 통해본 포항 중성리신라비」, 『인문학논총』 14-3, 131쪽; 이수훈, 2015, 「6세기 신라 촌락지배의 변화 -금석문의 使人과 道使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7, 14~15쪽.

151) 냉수리비 발견 직후부터 ‘眈須’를 城 또는 村의 이름으로 보아 도사의 파견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1989년 7월 6~7일에 진행된 韓國古代史學會 주관 ‘迎日冷水里新羅碑(가칭)의 綜合的 檢討’ 심포지움을 정리해 1990년 발간한 『韓國古代史研究』 3 참조.

152) 金昌鎬, 1990, 「迎日冷水里新羅碑의 建立 年代」, 『韓國古代史研究』 3, 92쪽; 李銖勳, 1993, 「新羅村落의 성격 -6세기 금석문을 통한 행정촌·자연촌 문제의 검토-」, 『韓國文化研究』 6, 8~11쪽.

153) 이때 ‘道使 心訾公’은 ‘喙 眈須’의 뒤에 기록되어 출신이 생략되었는데, ‘道使 心訾公’의 뒤에 다시 ‘喙 沙夫那斯利’가 기록되어 部名이 중복된다. 일반적으로 같은 部(喙) 출신의 인물을 복수 기재할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6세기 초반 중성리비와 냉수리비 단계 신라의 도사는 후대의 ‘縣令’과 유사한 성격이라기보다는, 官道를 통해 지방에 파견되어 王命을 대행하고, 지방민에게 政令을 전달하며, 租稅를 수취하는 등의 역할<sup>154)</sup>이 주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524년(법흥왕 11) 「蔚珍 鳳坪里 新羅碑」(이하 봉평리비) 단계에 이르면 도사의 성격에 변화가 확인된다. 시기적으로도 중성리비와 냉수리비 단계는 지증왕 6년(505)의 지방통치체제 정비<sup>155)</sup> 이전에 해당하는데, 그 이후에 해당하는 봉평리비 단계에서는 변화가 확인될 수 있다.

사료 D-3은 봉평리비 비문의 일부로 ‘居伐牟羅 道使’·‘悉支 道使’와 같이 지명을 冠稱한 도사 2인이 ‘處事大人’의 하나로 확인된다. 또한, 이전까지 도사라는 관직과 인명을 제외하면 출신만 기록되던 것과 달리, 2인 모두 ‘小舍帝智’(京位 13等:小舍) 관등을 보유하고 있음이 기록되었다. 더불어 ‘處事大人’ 중에는 ‘居伐牟羅 道使’가 冠稱한 지명에 해당하는 居伐牟羅의 ‘尼牟利一伐’(外位 8等)가 확인되고, ‘세상에 일을 마쳐[世中了]’ 비문을 기록한다고 한 부분에서는 居伐牟羅의 ‘異知巴 下干支’(外位 7等)·‘辛日智 一尺’(外位 9等)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外位를 보유한 居伐牟羅의 재지세력으로 京位를 보유한 ‘居伐牟羅 道使’와 함께 居伐牟羅의 일을 처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봉평리비 이후의 사료에 확인되는 신라의 도사는 모두 지명을 冠稱하였고, 관등이 기록된 경우 ‘大舍’(京位 12等) 또는 ‘小舍’(京位 13等)에 해당하는 경향이 확인된다.<sup>156)</sup> 이와 같은 모습은 봉평리비 단계를 전후하여 도사의 성격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비되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늦어도 봉평리비 단계에는 신라의 도사가 村 등에 파견된 지방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up>157)</sup> 다만 봉평리비 단계에서도 京位를 보유한 도사를 파견한 居伐牟羅·悉支 등의 중심 村(행정촌=지역촌), 外位를 보유한 使人을 임명한 阿大兮村·葛尸條村·男弥只村 등의 村(자연촌)이 구분된다. 즉 봉평리비 단계에서는 중심 村에 도사를 파견하고, 그 주변 村의 유력자를 使人으로 임명해 도사가 지휘하는 방식의 지방통치가 이루어진 것이다.<sup>158)</sup> 이렇듯 ‘官道를 통해 파견된 使者’의 성격으로 지방에 파견되었던 도사가 지증왕~법흥왕대를 거치며 발생한 신라 사회의 중앙집권화 흐름에 따라 점차 지방관으로 변화해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고구려와 신라의 도사는 ‘교통로[道]를 통해 파견된 使者’에서 출발하여 점차 특정 지방 단위를 주재하는 지방관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국에서 모두 도사의 초기 모습에 ‘교통로[道]를 통해 파견된 使者’라는 성격이 공통되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도사의 기원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사라는 관직의 기원은 같았을 것이지만, 이후 고구려에

때 최초에만 部名을 기재하고 생략한다. 이 경우 도사를 ‘心訢公’ 한 명으로 한정하여 기록하기 위해 ‘心訢公’과 ‘沙夫那斯利’ 사이에 다시 ‘喙’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李銖勳, 1995, 앞의 논문, 54~58쪽).

154) 金在弘, 1991, 앞의 논문, 31~32쪽; 朱甫噉, 1995, 앞의 논문, 42쪽.

155) “六年, 春二月, 王親定國內州郡縣.”(『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6年 2月條). 사료상에 국내의 ‘州·郡·縣’을 정하였다고 기록되었으나, 실제 州·郡·縣制가 시행되었다기보다는, 전국적인 村의 설치 확대와 관련된다고 이해된다(金在弘, 1991, 위의 논문, 24~25쪽; 朱甫噉, 1995, 앞의 논문, 57~58쪽).

156) “...村道使 喙部 ...”(「慶州 月池 出土 明活城碑」); “奴舍道使沙喙合親大舍, 營沽道使沙喙□□□知大舍.”(「慶州 南山新城碑 第1碑」); “阿且兮村道使沙喙勿生次小舍, 仇利城道使沙喙級知小舍, 答大支村道使牟喙所叱孔知□□.”(「慶州 南山新城碑 第2碑」); “南漢城道使, 須城道使, 村主前.”(「하남 이성산성 1호 목간」).

157) 박성현, 2013, 「신라 郡-城·村制의 특징과 郡縣制로의 전환」, 『韓國史研究』 163, 79쪽.

158) 金在弘, 1991, 앞의 논문, 25~26쪽; 李銖勳, 1995, 앞의 논문, 127쪽; 朱甫噉, 1995, 앞의 논문, 134~136쪽. 봉평리비(524) 단계 무렵 신라의 지방조직으로 기록된 『梁書』 新羅傳(521)의 ‘52邑勒’이 도사가 파견된 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朱甫噉, 1995, 앞의 논문, 60~61쪽).

서는 제2단계 행정구역인 郡級 단위 지방관으로 변화하였고, 신라에서는 제3단계 행정구역인 城·村 단위 지방관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각국의 실정에 맞게 변화해 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신라의 사례를 통해 백제의 도사를 城 단위 지방관으로 보았던 견해<sup>159)</sup>가 신라에서 확인되는 도사의 성격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입하였다는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백제의 도사는 6세기 중반경의 支藥兒食米記에서 7세기 전반경의 『括地志』와 「風道使前...」 銘文瓦 단계에 이르기까지 특정 단위를 주재하는 지방관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백제에서 도사의 성격이 유지된 것은 고구려·신라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백제 지방통치체제의 실정이나 특징과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백제는 熊津期 이후 郡縣制에 의한 일원적 통치체제를 구현하는 것을 지방 지배 방식의 지향점으로 두었다.<sup>160)</sup> 그 결과 동성왕대에는 熊津 부근의 주요 城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체제를 구축하였고,<sup>161)</sup> 최소한 6세기 전반경에 중요 城·읍을 중심으로 주변의 城·村을 관할하게 하는 擔魯制를 시행하였다.<sup>162)</sup> 이후 사비기에 이르면 전국을 方-郡-城의 위계적인 통치체제로 편제하는 5方制가 시행된다. 이러한 백제 지방통치체제의 발전 과정은 백제 국가가 郡縣制에 의한 지방통치를 지향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백제 지방통치체제 발전의 최종 단계인 사비기 5方制에서 그러한 지향이 완전히 실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사비기 중앙과 재지세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비기에는 墳墓·帶鉤·冠飾 등 백제 전역의 물질문화가 규격화되는 모습이 확인된다.<sup>163)</sup> 더불어 백제의 지방 지배와 관련하여 중앙의 횡혈식 석실묘가 지방으로 파급되는 사실에 주목해 왔다.<sup>164)</sup> 이러한 양상은 백제 지방통치체제 발전 과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지방 출토의 銀花冠飾이다. 銀花冠飾은 백제 衣冠制에서 奈率(6品) 이상의 官人이 착용하는 것이다.<sup>165)</sup> 이에 따라 銀花冠飾이 출토된 지역은 백제의 중앙집권적 통치질서에 편입되었으며, 이를 착용한 사람들은 지방관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66)</sup> 그런데 銀花冠飾이 출토된 일부 사비기 고분은 재지세력의 고분으로 판단되어 논란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주 북암리 3호분이다. 나주 북암리 3호분에서는 5호·16호 석실묘에서 銀花冠飾이 출토되었다. 출토 銀花冠飾의 연대는 6세기 중후반~7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sup>167)</sup> 그런데 나주 북암리 3호분은 한 분구에서 옹관 고분 축조집단인 재지세력이 계속 묻히며 석실묘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銀花冠飾 소유자를 중앙의 지방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sup>168)</sup> 이러한 점들로 보아 銀花冠飾의 사여를 반드시 지방관의 파견으로 보기보다는, 재지세력을 포용하고 편제해 가는 방식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69)</sup>

159) 李鍾旭, 1974, 앞의 논문; 朱甫暉, 1995, 앞의 논문; 金壽泰, 1997, 앞의 논문.

160) 김영삼, 2018, 「백제 웅진시기 지방통치의 구상과 운영의 실제」,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103쪽.

161) 鄭載潤, 1992, 「熊津·泗泚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上古史學報』 10, 506~513쪽. 이를 보여주는 사료로는 『三國史記』 百濟本紀 東城王 20年 7月條의 “秋七月, 築沙井城, 以扞率毗陁鎮之.”, 同王 23年 8月條의 “八月, 築加林城, 以衛士佐平苗加鎮之.” 등이 있다.

162) 鄭載潤, 1992, 위의 논문, 516~525쪽.

163) 山本孝文, 2006,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研究』, 서경문화사.

164) 李南奭, 1990, 「百濟 冠制와 冠飾」, 『百濟文化』 20, 14쪽.

165) “六品以上冠飾銀花.”(『周書』 卷49 列傳41 異域上 百濟); “二月, 下令六品已上服紫, 以銀花飾冠, 十一品已上服緋, 十六品已上服青.”(『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古爾王 27年 2月條).

166) 李南奭, 1990, 앞의 논문, 17쪽.

16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羅州 伏岩里 3號墳』, 437쪽.

16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위의 보고서, 437쪽.

나주 북암리 고분군이 위치한 나주 다시면 일대는 최소 7세기 초반부터 豆勝郡의 治所가 있었다고 파악된다.<sup>170)</sup> 이는 다시 말해 7세기 초반에 이르면 郡將 등의 지방관을 비롯해 중앙의 官人들이 이 지역에 파견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주 북암리 3호분 출토 銀花冠飾의 연대인 6세기 중후반~7세기 초반은 이미 5方制 시행 시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백제는 사비 천도 이후 전국에 方-郡-城을 편제하는 과정에서도 재지세력들을 지속적으로 포용·편제하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는 없을까? 이는 재지세력의 고분인 남원 척문리 고분에서 출토된 銀花冠飾의 연대가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도 맥락을 같이 한다.<sup>171)</sup> 즉 백제는 郡縣制에 의한 지방통치라는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을 5方制의 시행 과정에서도 지속한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도사가 이미 파견되고 있었던 6세기 중반경 이러한 지방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城 단위 지방관으로 전국에 파견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5方制 시행 이전 擔魯의 治所가 있었던 중요 城·邑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들을 중앙과 연결하고 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사를 파견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러 도사의 파견은 5方制의 시행을 통해 백제가 추구한 지방 지배 방식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멸망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郡 예하의 城 단위까지 모두 지방관을 파견하는 방식의 통치를 시행했는지 의문이 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백제 멸망 당시 지방은 5方-37郡-200城으로 편제되어 있었다.<sup>172)</sup> 그런데 백제 故地가 통일신라에 흡수된 이후 『三國史記』 地理志 단계에 이르면 백제의 200城 지역은 103縣으로 편제된다.<sup>173)</sup> 단순 수치상 약 2城이 1縣이 된 것이다. 수치상 백제의 城 단위와 통일신라의 縣 단위가 동일한 규모였다고 볼 수 없는데, 이는 통일신라 측에서 縣을 설치하며 백제 당시의 행정단위를 통폐합하며 빚어진 현상으로 생각된다.<sup>174)</sup> 아울러 토지 면적이나 戶口가 郡·縣을 설치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鄉·部曲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sup>175)</sup>

이러한 사례를 통해 유추해보면, 통일신라의 縣 단위는 대략 백제의 城 단위 2개 정도를 포괄하는 규모로 볼 수 있다. 이러한 縣 편제를 縣令·少守 등 지방관의 파견과 연결 짓는다면, 지방관을 파견할만한 의미가 없거나 파견하기 어려운 지역들을 통폐합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백제가 모든 城 단위에 지방관을 파견할 여력은 없었을 것으로 보는 기존의 이해를 통

169) 이병호, 1999, 「사비시대의 지방통치」, 『백제』 특별전도록, 165쪽; 朴普鉉, 1999, 「銀製冠飾으로 본 百濟의 地方支配에 대한 몇 가지 문제」, 『科技考古研究』 5.

170) 윤선태, 2012, 「나주 북암리 출토 백제 목간의 판독과 용도 분석」, 『百濟研究』 56, 66~67쪽; 김영심, 2015, 「백제의 지방 통치기구와 지배의 양상」, 『한국고대사탐구』 19, 100쪽; 金勤英, 2016, 「羅州 伏岩里 출토 목간으로 본 사비시대 豆勝」, 『百濟學報』 18, 77쪽.

171) 남원 척문리 고분은 완전히 파괴되어 유물만 긴급수습되었으나, 보고에 의하면 석실 벽면을 자연 할석으로 축조한 것으로 능산리형 석실과는 차이가 있어 재지세력의 고분으로 추정된다고 한다(洪思俊, 1968, 「南原出土 百濟飾冠具」, 『미술사학연구』 9; 서정석, 2009, 「銀花冠飾으로 본 백제의 지방통치」, 『東國史學』 47, 184~185쪽).

172) “其國舊分爲五部, 統郡三十七, 城二百, 戶七十六萬.”(『舊唐書』 卷199 上 列傳149 上 東夷 百濟); “平其國五部, 三十七郡, 二百城, 戶七十六萬.”(『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百濟); “國本有五部, 三十七郡, 二百城, 七十六萬戶.”(『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0年條); “舊有五部, 分統三十七郡, 二百城, 七十六萬戶.”(『三國史記』 卷37 雜志6 地理4 百濟).

173) 『三國史記』 卷36 雜志5 地理3 熊州·全州·武州.

174) 盧重國, 1988, 「統一期 新羅의 百濟故地支配」, 『韓國古代史研究』 1, 142~145쪽; 李文基, 1990, 「統一新羅의 地方官制 研究」, 『國史館論叢』 20, 17~18쪽; 金英心, 1998, 「百濟의 城, 村과 地方統治」, 『百濟研究』 28, 202쪽.

175) 盧重國, 1988, 위의 논문, 142~145쪽.

해 보더라도,<sup>176)</sup> 통일신라가 폐합한 지역들에 백제가 과연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남는다. 통치제도의 발전상에 비추어 볼 때 백제가 통일신라보다 많은 수의 지방관을 파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백제는 이러한 지역들에 도사를 파견함으로써 郡將이 실질적으로 관할하지 못하는 지역들을 연결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방통치조직의 하부를 통치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백제의 도사는 ‘교통로[道]를 통해 파견된 使者’로서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어 使命을 수행하고, 지방에 발생한 문제를 통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격의 관직이었다고 생각된다. 도사는 중앙과 지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였으며, 지방통치조직의 하부를 통치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했을 것으로 보인다.

## 5. 맺음말

본고는 支藥兒食米記 목간을 중심으로 백제의 도사를 살펴보고, 고구려·신라 도사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백제 도사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백제의 도사는 ‘교통로[道]를 통해 파견된 使者’로서 지방의 郡縣에 파견되어 使命을 수행하고, 지방에 발생한 문제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격의 관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부족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백제의 도사와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인 支藥兒食米記를 살펴보았다. 支藥兒食米記는 4면으로 구성된 다면목간으로 ‘藥兒에게 지급한 食米의 기록’이라는 표제가 있는 일종의 帳簿木簡이다. 목간의 제3면에 도사와 관련된 목서가 기록되었는데, 도사 등의 병증을 설명한 기록(㉠단락)과 도사와 지방민이 함께 나열된 기록(㉡단락)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기록이 남게 된 배경으로는 6세기 중반경 능산리사지 일대에서 발생한 役事에 도사와 지방민 등이 동원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적 관리 목적으로 藥兒 등이 투입된 정황에 주목할 수 있었다. 곧 支藥兒食米記는 藥兒가 속하였을 기관·시설에서 藥兒에게 食米를 지급하여, 力役에 동원된 인원 중 병을 앓는 인원을 부양하도록 한 맥락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支藥兒食米記를 통해 도사가 지방에 파견되어 지역 단위별로 지방민을 力役 동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支藥兒食米記 이외의 자료에 백제의 도사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백제의 도사를 전하는 유일한 문헌인 『括地志』를 살펴보았다. 『括地志』에는 “郡縣置道使, 亦名城主.”라고 기록되어 도사가 ‘郡縣’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래에는 城主라는 異名에 주목하여 도사를 사비기 지방 편제 제3단계 행정구역인 城 단위 지방관으로 파악하고, 도사가 파견된 ‘郡縣’ 역시 ‘郡의 縣’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부자연스러운 해석으로, ‘郡縣’은 지방의 郡과 縣으로 대표되는 지방통치조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듯 도사의 파견 지역이 다소 광범한 ‘郡縣’으로 표현된 점과 함께 官名의 의미가 ‘교통로[道]를 통해 파견된 使者’라는 점, 동시기 여타 지방관과 달리 支藥兒食米記와 「風道使前...」 銘文瓦 등의 사례에 도사가 지명을 冠稱하지 않은 점, 支藥兒食米記의 사례에 보듯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활동한 점 등이 백제의 도사가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백제의 도사는 교통로[道]를 통해 지방의 ‘郡縣’에 파견되는 使者로서, 특정 使命을 수행하고 지방에 발생한 문제를 통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으리라고 추정되었다.

176) 金英心, 1997a, 앞의 논문, 97쪽.

4장에서는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고구려와 신라 도사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백제의 도사가 갖는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와 신라의 도사 모두 초기에 '교통로[道]를 통해 파견된 使者'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백제의 도사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도사의 기원은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사는 이후 각국의 실정에 맞게 변화하였는데, 고구려에서는 제2단계 행정구역인 郡級 단위 지방관으로 변화하였고, 신라에서는 제3단계 행정구역인 城·村 단위 지방관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달리 백제의 도사는 현존하는 사료상 지방관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제3단계 행정구역인 城 단위에 모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였던 당시 백제 지방통치체제의 실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사 파견의 의미는 郡將 등이 실질적으로 관할하지 못하는 지역들을 연결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방통치조직의 하부를 통치하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백제의 도사는 '교통로[道]를 통해 파견된 使者'의 성격을 가진 관직으로 중앙과 지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백제 국가는 도사의 파견을 통해 지방의 '郡縣'에 통치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완결되지는 못하였으나, 도사의 파견을 통해 郡縣制에 의한 일원적 통치체제 구축이라는 지향점에 다가가고자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사료

『康熙字典』  
『經籍纂詁』  
『哭舍弟子厚』  
『舊唐書』  
『舊五代史』  
『國語』  
『論語』  
『孟子』  
『辨仙行』  
『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尚書』  
『隋書』  
『新唐書』  
『梁書』  
『燕歌行』  
『令義解』  
『禮記』  
『五音集韻』  
『玉篇』  
『魏書』  
『律令』  
『日本書紀』  
『資治通鑑』  
『周書』  
『集韻』  
『通典』  
『漢書』  
『翰苑』  
『後漢書』  
「慶州 月池 出土 明活城碑」  
「慶州南山新城碑」  
「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  
「高乙德墓誌銘」  
「高提昔墓誌銘」

「丹陽 新羅 赤城碑」  
 「明活山城作城碑」  
 「牟頭婁墓誌」  
 「梁職貢圖」  
 「永川 菁堤碑 丙辰銘」  
 「蔚珍鳳坪里新羅碑」  
 「陳法子墓誌銘」  
 「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  
 「忠州高句麗碑」  
 「浦項冷水里新羅碑」  
 「浦項中城里新羅碑」

## 2. 단행본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韓國의 古代木簡』, 예맥  
 김철준,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_\_\_\_\_, 2018, 『백제 정치사』, 일조각  
 \_\_\_\_\_, 2022, 『백제의 정치제도와 운영』, 일조각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山本孝文, 2006,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研究』, 서경문화사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윤선대,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日中民族科學研究所, 1986, 『中國歷代職官辭典』, 國書刊行會  
 池内宏, 1951, 『滿鮮史研究 上世編』, まさき会祖國社  
 湯淺幸孫, 1983, 『翰苑校釋』, 國書刊行會

## 3. 연구논문

犬飼隆, 2006, 「日本語を文字で書く」, 『列島の古代史(ひと・もの・こと)-言語と文字-』  
 고광의, 2023, 「부여 출토 백제 목간의 서체」, 『목간과 문자』 30  
 권인한, 2019, 「합자와 국자」, 『문자와 한국고대 1-기록과 지배』  
 近藤浩一, 2004,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의 研究」, 『백제연구』 39  
 \_\_\_\_\_, 2005, 「扶餘陵山里出土木簡と泗沘都城關連施設」, 『東アジアの古代文化-特集:新發見資料からみた「古代東アジア」』 25  
 \_\_\_\_\_, 2008,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 再論」, 『한국고대사연구』 49  
 吉田光男, 1977,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 『朝鮮學報』 85  
 金勤英, 2016, 「羅州 伏岩里 출토 목간으로 본 사비시대 豆盼」, 『百濟學報』 18

- \_\_\_\_\_, 2024, 『백제의 5方制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吉植, 2008, 「百濟 始祖 仇台廟와 陵山里寺址」, 『韓國考古學報』 69
- 金壽泰, 1997, 「百濟의 地方統治와 道使」, 『百濟의 中央과 地方』
- \_\_\_\_\_, 2002, 「백제 성왕대의 군령과 성주」, 『백제문화』 31
- 金英心, 1990, 「5~6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史論』 22
- \_\_\_\_\_, 1997a, 「6~7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古代史研究』 1
- \_\_\_\_\_, 1997b,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8, 「百濟의 城, 村과 地方統治」, 『百濟研究』 28
- \_\_\_\_\_, 2007, 「백제의 지방통치에 관한 몇 가지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48
- \_\_\_\_\_, 2009, 「扶餘 陵山里 출토 ‘六卍五方’ 목간과 백제의 術數學」, 『木簡과 文字』 3
- \_\_\_\_\_, 2015, 「백제의 지방 통치기구와 지배의 양상」, 『한국고대사탐구』 19
- \_\_\_\_\_, 2018, 「백제 웅진시기 지방통치의 구상과 운영의 실제」,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 金永旭, 2007, 「古代 韓國木簡에 보이는 釋讀表記에 대하여」,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 金在弘, 1991,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지방사회 구조」, 『韓國史研究』 72
- \_\_\_\_\_, 2001, 「新羅 中古期 村制의 成立과 地方社會構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周成, 1992, 「백제 지방통치조직의 변화와 지방사회의 재편」, 『國史館論叢』 35
- 金昌錫, 2009, 「포항 中城里新羅碑에 관한 몇 가지 고찰」, 『韓國史研究』 147
- 金賢淑, 1997, 「高句麗 中·後期 中央集權的 地方統治體制的 發展過程」, 『韓國古代史研究』 11
- 盧重國, 1988, 「統一期 新羅의 百濟故地支配」, 『韓國古代史研究』 1
- \_\_\_\_\_, 2010, 「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麻立干시기 신라의 분쟁처리 절차와 六部체제의 운영」, 『한국고대사연구』 59
- \_\_\_\_\_, 2015, 「신라와 백제의 교섭과 교류」, 『신라사학보』 33
- 東野治之, 2001, 「木簡으로 본 韓日 古代文化」, 충남대학교 백제학교육연구단 제5회 해외전 문가 초청강좌 발표요지문
- 鈴木靖民, 2000, 「千代木簡と古代地域史-千代南原遺跡と出土木簡の意義-」, 『神奈川地域史研究』 18
- 末松保和, 1962, 「朝鮮古代國家の軍事組織」, 『古代史講座』 5
- 武田幸男, 1980a,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高句麗史と東アジア』
- \_\_\_\_\_, 1980b,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 \_\_\_\_\_, 1981,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朝鮮學報』 99·100
- 朴普鉉, 1999, 「銀製冠飾으로 본 百濟의 地方支配에 대한 몇 가지 문제」, 『科技考古研究』 5
- 박성현, 2013, 「신라 郡-城·村制의 특징과 郡縣制로의 전환」, 『韓國史研究』 163
- 朴仲煥, 2002, 「扶餘 陵山里發掘 木簡 豫報」, 『한국고대사연구』 28
- 박현숙, 1996, 「백제 泗泚時代의 지방통치체제 연구」, 『한국사학보』 창간호
- 백미선, 2018, 「웅진시대 백제의 城主」, 『大丘史學』 131
- \_\_\_\_\_, 2021, 『熊津時代 百濟의 地方官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山口英男, 2000, 「帳簿と木簡-正倉院文書の帳簿·繼文と木簡-」, 『木簡研究』 22

- 서정석, 2009, 「銀花冠飾으로 본 백제의 지방통치」, 『東國史學』 47
- 선석열, 2009, 「인명표기방식을 통해본 포항 중성리신라비」, 『인문학논총』 14-3
- 勝浦令子, 1990, 「長屋王家の米支給關係木簡」, 『木簡研究』 21
- 市大樹, 2010, 「慶州月城垓字出土の四面墨書木簡」, 『飛鳥藤原木簡の研究』
- 余昊奎,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南道와 北道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91
- 王其禕·周曉薇, 2013, 「國內城高氏:最早入唐的高句麗移民-新發現唐上元元年“泉府君夫人高提昔墓誌”釋讀」, 『陝西師範大學學報』 2013-5
- 王連龍, 2015, 「唐代高麗移民高乙德墓志及相關問題研究」, 『吉林師範大學學報』 2015-4
- 尹善泰, 2006, 「百濟 泗泚都城과 ‘嵎夷」, 『東亞考古論壇』 2
- \_\_\_\_\_, 2007, 「百濟의 文書行政과 木簡」, 『한국고대사연구』 48
- \_\_\_\_\_, 2012, 「나주 복암리 출토 백제 목간의 판독과 용도 분석」, 『百濟研究』 56
- \_\_\_\_\_, 2013, 「新出資料로 본 百濟의 方과 郡」, 『韓國史研究』 163
- \_\_\_\_\_, 2016, 「百濟의 ‘九九段’ 木簡과 術數學」, 『목간과 문자』 17
- \_\_\_\_\_, 2019, 「한국 多面木簡의 발굴 현황과 용도」, 『목간과 문자』 23
- \_\_\_\_\_, 2020, 「한국 고대 木簡 및 金石文에 보이는 固有漢字의 양상과 구성 원리」, 『東洋學』 80
- 윤용구, 2021, 「『翰苑』의 편찬과 蕃夷部」, 『白山學報』 120
- 이경섭, 2011,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荷札] 목간의 地名 문제와 제작 단위」, 『신라사학보』 23
- 李根雨, 1997, 「百濟의 方郡城制 관련사료에 대한 재검토」, 『韓國古代의 考古와 歷史』
- 李南夷, 1990, 「百濟 冠制와 冠飾」, 『百濟文化』 20
- 李文基, 1990, 「統一新羅의 地方官制 研究」, 『國史館論叢』 20
- \_\_\_\_\_, 2009, 「포항中城里新羅碑의 발견과 그 의의」, 『한국고대사연구』 56
- 이미란, 2012, 「6세기 전후 신라 道使의 파견과 지방의 출현 과정」, 『역사와 경계』 85
- 이병호, 1999, 「사비시대의 지방통치」, 『백제』 특별전도록
- \_\_\_\_\_, 2007, 「扶餘 陵山里 出土 木簡의 性格」,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 李成珪, 1996, 「中國의 分裂體制模式과 東아시아 諸國」, 『韓國古代史論叢』
- 이성배, 2011, 「百濟木簡의 書體에 대한 一考」, 『목간과 문자』 7
- 李銖勳, 1993, 「新羅 村落의 성격 -6세기 금석문을 통한 행정촌·자연촌 문제의 검토-」, 『韓國文化研究』 6
- \_\_\_\_\_, 1995, 『新羅 中古期 村落支配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5, 「6세기 신라 촌락지배의 변화 -금석문의 使人과 道使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7
- 이용현, 2007, 「목간」, 『百濟文化史大系 研究叢書』 12
- \_\_\_\_\_, 2022, 「목간, 당대인이 전한 상세한 사비백제의 기록」, 『新編 사비백제사』 1
- \_\_\_\_\_, 2023, 「百濟 王都 出納 文書의 一例」, 『木簡에 반영된 古代 동아시아의 法制와 行政制度』
- 이장웅, 2020, 「扶餘 陵山里寺址 木簡을 통해 본 백제의 불교 의례」, 『목간과 문자』 24
- 이재환, 2014, 「扶餘 陵山里寺址 유적 출토 목간 및 삭설」, 『목간과 문자』 12

- 李鍾旭, 1974,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組織」, 『歷史學報』 64
- \_\_\_\_\_, 1982,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制度」, 『歷史學報』 94·95
- 이현섭·전덕재, 2021, 「〈浦項 中城里 新羅碑〉 연구의 쟁점과 논의」, 『사학지』 61
- 임기환, 2004, 「고구려의 副都 漢城과 지방통치」, 『한국 고대중세 지방제도의 제문제』
- 장국중, 1985, 「고구려에서의 도로발전」, 『역사과학』 1985-4
- 장인성, 2010, 「百濟의 醫藥과 道教文化」, 『百濟研究』 52
- 전덕재, 2018, 「7세기 백제·신라 지배체제와 수취제도의 변동」, 『신라사학보』 42
- 程錦, 2006, 「唐醫疾令復原研究」,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交證附唐令復原研究』
- 鄭東俊, 2010, 「『翰苑』 百濟傳所引의 『括地志』의 史料的性格について」, 『東洋學報』 92
- \_\_\_\_\_, 2011, 「백제 5方制의 지방관 구성에 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63
- 鄭載潤, 1992, 「熊津·泗泚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上古史學報』 10
- 朱甫噉, 1985, 「雁鴨池出土 碑片에 대한 一考察」, 『大丘史學』 27
- \_\_\_\_\_, 1995, 『新羅 中古期의 地方統治와 村落』,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6, 「麻立干時代 新羅의 地方統治」, 『嶺南考古學』 19
- \_\_\_\_\_, 2003, 「三國時代 地方統治體制的 定着 과정」, 『강좌 한국고대사』 2
- 池內宏, 1926, 「高句麗의 五族及 五部」, 『東洋學報』 16-1
- 秦弘燮, 1965, 「南山新城碑의 綜合的考察」, 『歷史學報』 26
- 崔珍烈, 2005, 「北魏의 地域支配方式과 그 性格 -華北지역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92
- 하시모토 시게루, 2021, 「新羅 文書木簡의 기초적 검토-신 출토 월성해자 목간을 중심으로」, 『嶺南學』 77
- 夏炎 저·이규호 역, 2014, 「唐代 都督府와 州의 關係에 대한 試論」, 『동국사학』 57
- 洪思俊, 1968, 「南原出土 百濟飾冠具」, 『미술사학연구』 9
- 홍승우, 2013, 「扶餘 지역 출토 백제 목간의 연구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 홍승현, 2008, 「송무제와 양무제의 개혁과 그 의의」, 『사대부와 중국 고대 사회』

#### 4.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羅州 伏岩里 3號墳』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7, 『王宮里 發掘中間報告Ⅱ』
- 國立扶餘博物館, 2002, 『제8차 부여 능산리사지 현장설명회자료』
- \_\_\_\_\_, 2007, 『부여 능산리사지 6~8차 발굴조사보고서』

## 송기섭 발표에 대한 토론

정동준(국민대)

송기섭 선생님은 백제 지방제도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신진연구자입니다. 최근 갈수록 연구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제도사 분야에서 신진연구자로서 앞으로 기대되는 학문 후속세대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백제 지방제도사의 쟁점 중 하나인 도사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잡한 연구사를 잘 파악하면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였던 부분을 찾아내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연구사의 파악이 잘 되어 기초가 탄탄하고, 선행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보완하여 창의성도 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전체 사료의 종합적 비교·분석에 근거하여 입론하기보다는 특정 문헌사료에 기초한 역사상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는 지적은 매우 날카롭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도 첫번째 단행본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논문을 작성하여 이 주제를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논쟁이 많았던 『괄지지』의 ‘郡縣’에 대해서 직접지배지역의 대명사라고 파악한 점에서 발표자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으로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몇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수정·보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그대로 가져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개별 논문으로서 분량이 지나치게 깁니다. 원고지로 300매가 넘는 분량이어서 발표는 가능해도 어느 학술지도 투고하기 어려운 분량입니다. 따라서 학술지 투고를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2장의 경우 지약아식미기 목간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는 의도는 존중하지만, 3장·4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자로서도 2장에서 발표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약아식미기 목간의 상세한 분석 중 도사 관련 내용 이외에는 요지만 남겨서(필요에 따라서는 석사학위논문을 전거로 인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장·4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약아식미기 목간 3면 ‘愷’자의 판독에 기초하여 이를 질병(병증)과 연결시키고, 약아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일견 가능한 해석이지만, ‘걱정’이라는 의미만으로 질병과 연결시키는 것은 근거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더욱이 ‘其身者如黑也’ 또한 질병과 곧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병과 관련 없는 단순한 피부색의 표현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의미와 ‘其身者如黑也’ 이외에 질병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현재로서는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내용이니, 삭제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전부 삭제하더라도 도사의 역할이 지역 단위별로 지방민을 역역 동원하여 역사에 투입하는 것이라는 2장의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데에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3. 13쪽에서 “현재 『括地志』는 원본이 전해지지 않으나 『翰苑』에 인용된 기사가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장의 내용에는 틀린 것이 없지만, 이렇게만 서술하면 『괄지지』가 『한원』에만 인용되어 남아 있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괄지지』는 『한원』 이외에 다른 책에 더 많은 내용이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括地志』는 원본이 전해지지 않으나, 『한원』에 백제의 각종 제도와 관련된 기사가 남아 있다”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한원』은 ~ 유서의 초사본이다. 총 30권 분량이지만 ~ 9세기 초의 초본인 ~ 전해온다.”라는 내용도 “『한원』은 ~ 유서이고, 총 30권 분량이지만 ~ 9세기 초의 초사본인 ~ 전해온다.”라고 수정해야 합니다. 초사본은 현존본이고 원본 『한원』 자체가 초사본으로 작성되었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4. 18쪽에서 도사의 이명이 성주로 기록된 것에 대해서 사료상 이명 관계임이 명시되어 도사와 성주를 성격이 다른 성의 지방관으로 본 견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괄지지』는 백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한 당의 지리서입니다. 따라서 도사와 성주를 이명 관계라고 기록한 것은 편찬 당시 당 조정 또는 당 관인의 인식이지, 기록 자체가 양자가 이명 관계임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한 사료적 신빙성의 검토부터 먼저 한 후에 발표자의 논리를 제시하여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에서 성주와 도사가 이명 관계라고 인식된 배경에는 양자의 유사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유사성을 보다 상세히 논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 4장에서 고구려와 신라의 도사를 3장까지 검토한 백제의 도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이 고구려와 신라의 도사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연구가 충분히 있기에 굳이 일일이 사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더욱이 발표자가 새로운 결론을 제시하거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선행연구 중심으로 정리하여 요약된 내용만 제시하여 분량을 줄이고, 백제 도사와의 비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정의한 도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도사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성주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어서 양자의 관계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5번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고구려와 신라의 도사를 일일이 분석하는 내용을 줄이는 대신, 성주에 대한 서술을 4장 후반부에 배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소 모호해 보이는 도사의 성격에 대한 결론이 독자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소소한 것 한가지지만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주131에 『고려기』와 『봉사고려기』에 대한 武田幸男의 다른 견해(1994년 논문)도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자의 판단으로는 吉田光男보다는 武田幸男의 견해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논지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세세한 입증과정에 일부 무리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치면 연구사적으로 의미 있는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 토론이 수정·보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고구려 장수왕 시기 지두우 분할 배경 -지두우의 위치와 세력 범위를 중심으로-1)

장수인(한국의국어대학교)

I. 머리말
II. 지두우의 공간 범위와 중심지의 위치
1. 주변 족속의 위치와 지두우의 공간 범위
2. 지두우 중심지의 위치 비정
III.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배경과 그 결과
1. 물길의 성장과 지두우 분할 배경
2.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결과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구려는 광개토왕 때 후연(後燕)과 상쟁하여 요동을 확보했으며 만주 지역에서 독자 세력권을 형성했다. 뒤를 이은 장수왕은 평양 천도(427)로 내정을 안정시켰을 뿐 아니라 북위(北魏)와 남조의 세력균형을 이용하는 외교정책을 구사하면서 남진정책에 주력했다. 당시 고구려와 북위 관계는 풍홍(馮弘) 망명(438), 풍태후(馮太后)의 육궁 요구(466), 고구려와 유연(柔然)의 지두우(地豆于) 분할 계획(479) 같은 사건으로 긴장하는 한편 친선 관계를 회복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두우 분할 계획은 고구려가 서북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선행연구에서 만주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두우 위치를 검증했지만<sup>2)</sup> 지두우 분할 계획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sup>3)</sup> 이러한 단순 부정에서 벗어나 목적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 고구려의 서진(西進) 도모 일환으로 보는 관점<sup>4)</sup>과 북위의 영향력과 위신을 실추시키고<sup>5)</sup> 양국이 세력권을 설정했다는 관점<sup>6)</sup>, 시도는 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는 관점<sup>7)</sup>, 물길(勿吉)과 북위의 연결로를 차단했다는 관점<sup>8)</sup>, 거란·고막해(庫莫奚)

1) 본고는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장수인, 2024 「지두우의 위치를 통해 본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배경」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글이다.

2) 白鳥庫吉, 1912, 「東胡民族考」, 『史學雜誌』, 24-7; 1970, 「東胡民族考」, 『塞外民族史研究(下)』, 岩波書店.

3) 津田左右吉, 1916, 「勿吉考」, 『滿洲歷史地理研究2』; 1964, 「勿吉考」, 『津田左右吉全集』 12, 岩波書店.

4) 李龍範, 1959, 「高句麗의 遼西進出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4, 韓國史學會.

5) 盧泰敦, 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東方學會; 1999,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6) 노태돈, 2015, 「고구려의 대외관계와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 『東洋學』 58,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院.

7) 朴元吉, 2002, 「高句麗와 柔然·突厥의 關係」, 『高句麗研究』 14, 高句麗研究會; 2019, 「돌궐비문에 등장하는 타타브(Tatabi)의 실체(實體)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 지두우(地豆于)·습(霽)·백습(白霽)과의

등 북방 제족을 분열시켜서 북위에 경고하는 무력 시위라는 관점<sup>9)</sup>, 유목문화권과 통하는 길을 확보하여 교류하고 군마를 확보했다는 관점<sup>10)</sup>이 있다.

연구자마다 각자의 논지로 지두우 분할 목적을 어느 정도 밝히고 있어서 주목할만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소략하고 막연한 기록으로 인해 실제로 고구려와 유연의 실행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고구려의 공간 범위와 관련하여 논쟁 대상이다. 또한 어떻게 실행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별도로 해당 사건의 명칭도 다양하여 통일되지 않은 점도 있다.<sup>11)</sup> 무엇보다 분할 대상인 지두우의 정확한 위치도 비정하지 않고 연구한 경우도 있었다. 즉, 지두우의 위치를 제대로 검증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지두우의 위치를 검증한다면 실행 여부도 밝힐 수 있을 뿐 아니라 목적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헌자료와 선행연구, 당시 지리환경과 교통로 등을 살펴보면서 지두우 주변 즉속의 위치를 비정하고, 지두우의 상대 위치와 공간 범위를 먼저 확인한 후 중심지가 어디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두우 분할 계획이 있었던 479년을 전후한 시기에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살펴보면서 양국이 지두우를 분할 계획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다. 또한, 양국이 지두우를 분할하려던 목적이 무엇인지 보고 479년 어느 시기에 실행했는지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두우 분할 여부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관성을 중심으로 -, 『몽골학』 59, 한국몽골학회.

- 8) 李在成, 1993, 「契丹『古八部』聯盟의 形成과 解體」, 『東國史學』 27, 東國歷史文化研究所; 1996, 「庫莫奚部·契丹部の 교역과 契丹『八部聯盟』」,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손영중, 1997, 『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孔錫龜, 1998, 「其他 地域에 대한 領域擴張」,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徐吉洙, 1999, 「내몽골 大興安嶺 주변 歷史遺蹟 踏查記 - 1997년 8월 16일~8월 24일 -」, 『高句麗研究』 7, 高句麗研究會; 손영중,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출판사; 李在成, 2002, 「4~5世紀 高句麗와 契丹」, 『高句麗研究』 14, 高句麗研究會; 姜仙, 2003, 「高句麗와 北方民族의 관계 연구: 鮮卑·契丹·柔然·突厥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손영중, 2006, 『조선단대사(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8, 『조선단대사(고구려사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尹秉模, 2009, 「長壽王代 高句麗의 西方進出과 그 境界」, 『東方學志』 147,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박세이, 2010, 「長壽王代 北燕民 刷還에 대한 一檢討」, 『白山學報』 86, 白山學會; 尹秉模, 2011, 「長壽王代 前後 高句麗의 遼西進出과 西方境界」, 『高句麗의 遼西進出 研究』, 景仁文化社; 이재성, 2011, 「高句麗·契丹 關係史 - 4세기 말기에서 6세기 후기까지 -」, 『한국전통문화연구』 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김락기, 2013, 「5세기 중반~6세기 중반 물길의 흥망과 고구려 강역의 변화」, 『고구려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靺鞨』, 景仁文化社; 余昊奎, 2018, 「5세기 후반 高句麗·勿吉의 충돌과 북방 接境空間의 변화」, 『中央史論』 47, 中央大學校 中央史學研究所; 김진한, 2020,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백다해, 2024, 「5세기 高句麗와 柔然의 교섭과 『蒙古草原路』」, 『역사문화연구』 91,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9) 이성계,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과 對北魏關係의 定立」, 『고구려의 西方政策研究』, 국학자료원.
- 10) 朴京哲, 1989, 「高句麗 軍事戰略考察을 위한 一試論 - 平壤遷都 以後 高句麗 軍事戰略의 志向點을 中心으로 -」, 『史學研究』 40, 韓國史學會; 2003, 「高句麗『民族』問題 認識의 現況과 課題」, 『韓國古代史研究』 31, 韓國古代史學會; 2003, 「高句麗 異種族支配의 實相」, 『韓國史學報』 15, 高麗史學會; 2005, 「高句麗의 東蒙古經略」, 『白山學報』 71, 白山學會.
- 11) 지두우 분할 모의, 지두우 분할 도모, 지두우 분할 기도(또는 시도), 지두우 분할 점령, 지두우 분할 공모, 지두우 조분(모의), 지두우 과분(모의), 지두우 과분 도모, 지두우 침략 계획, 지두우 공격 점령 계획 등 다양하다.

## II. 지두우의 공간 범위와 중심지의 위치

### 1. 주변 족속의 위치와 지두우의 공간 범위

그 당시 주변 국가나 족속의 위치를 검토하여 지두우의 상대 위치를 파악하면 위치 비정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㉔-1. 물길국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으니, 옛 숙신국이다. (중략) 낙양(洛陽)에서 5천 리 떨어져 있다.<sup>12)</sup>
- ㉔-2. 실위국은 물길 북쪽으로 천 리에 있고, 낙양에서 6천 리 떨어져 있다. 화룡(和龍)을 나와 북쪽으로 천여 리를 가면, 거란국에 이른다.<sup>13)</sup>
- ㉔-3. 두막루국은 물길국 북쪽 천 리에 있고, 낙양에서 6천 리 떨어져 있으며, 옛 북부여이다. 실위의 동쪽에 있으며,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고, 사방 2천 리이다.<sup>14)</sup>
- ㉔-4. 지두우국은 실위 서쪽의 천여 리에 있다.<sup>15)</sup>
- ㉔-5. 오락후국은 지두우의 북쪽에 있고, 대도에서 4,500여 리 떨어져 있다.<sup>16)</sup>
- ㉔-6. 태화 4년(480)에 (고막해가) 문득 새내로 들어와, 지두우가 (고막해를) 약탈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소연하니, 조서로 그들[지두우]을 엄히 책망하였다.<sup>17)</sup>
- ㉔-7. 거란국은 고막해의 동쪽에 있고, (고막해와) 다른 갈래이나 같은 종족이며, 송막 사이로 함께 달아났다. (중략) 태화 3년(479)에 고구려가 몰래 연연[유연]과 모의하여 지두우를 취해서 나누고자 하였다.<sup>18)</sup>
- ㉔-8. [연연(蠕蠕)=유연]은 그 서쪽은 곧 언기의 땅이고, 동쪽은 조선의 땅이며, 북쪽은 사막을 건너 한해에 이르고, 남쪽은 대적(大碛)에 다다랐다.<sup>19)</sup>

상기 사료를 통해서 먼저 지두우의 상대 위치를 파악해보겠다. 사료 ㉔-1을 통해 고구려를 기준으로 물길은 북쪽에 있으며 사료 ㉔-2과 ㉔-3을 통해 실위(失韋), 두막루(豆莫婁)는 물길 북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막루가 실위 동쪽에 있다고 하니 실위는 두막루 서쪽에 있는 것이다.

오락후(烏洛侯)는 지두우 북쪽에 있으며 고막해는 사료 ㉔-6을 통해 지두우와 맞닿았다는 걸

12) 『위서』 권100 열전 제88 물길국 “勿吉國，在高句麗北，舊肅慎國也。(중략) 去洛五千里。”

13) 『위서』 권100 열전 제88 실위국 “失韋國，在勿吉北千里，去洛六千里。路出和龍北千餘里，入契丹國。”

14) 『위서』 권100 열전 제88 두막루국 “豆莫婁國，在勿吉國北千里，去洛六千里，舊北扶餘也。在失韋之東，東至於海，方二千里。”

15) 『위서』 권100 열전 제88 지두우국 “地豆于國，在失韋西千餘里。”

16) 『위서』 권100 열전 제88 오락후국 “烏洛侯國，在地豆于之北，去代都四千五百餘里。”

17) 『위서』 권100 열전 제88 고막해국 “太和四年，輒入塞內，辭以畏地豆于鈔掠，詔書切責之。”

18) 『위서』 권100 열전 제88 거란국 “契丹國，在庫莫奚東，異種同類，俱窺於松漠之間。

(중략) 太和三年，高句麗竊與蠕蠕謀，欲取地豆于以分之。”

19) 『위서』 권103 열전 제91 연연 “其西則焉耆之地，東則朝鮮之地，北則渡沙漠，窮瀚海，南則臨大碛。”

알 수 있다. 거란은 사료 ㉔-2를 통해 북위~실위 두 나라의 경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막해 동쪽에 거란이 있으니 거란 서쪽에 고막해가 있으며, 두 나라는 동쪽과 서쪽으로 접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㉔-8에서 유연은 남쪽으로 대적(大碛)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바로 고비(戈壁) 사막을 일컫는다. 동쪽으로 조선(朝鮮)<sup>20)</sup>, 즉, 고구려와 접했다고 하니 이것만 보면 유연과 고구려가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료 ㉔-7을 통해 양국 사이에 지두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연과 고구려가 접한 것처럼 서술된 것은 만주 지역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이 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합당하다.

이러한 주변국 위치를 통해서 지두우는 동쪽으로 실위·물길·고구려, 북쪽으로 오락후, 남쪽으로 고막해·거란, 서쪽으로 유연과 접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변에 있던 물길, 실위, 오락후, 고막해, 거란의 위치를 비정한 다음 지두우 위치를 비정해보겠다.

물길의 위치는 을력지(乙力支)의 북위 사행로<sup>21)</sup>로 알 수 있다. 우선 오늘날 조양(朝陽)인 화룡에서 물길로 통하는 길을 보면 선옥산(善玉山) → 기려산(祁黎山) → 여락괴수(如洛瓌水) → 태로수(太魯水) → 그 나라 즉, 물길이다. 그리고 연흥 5년(475)<sup>22)</sup>, 태화 2년(478)<sup>23)</sup>에 을력지가 북위에 사신으로 가는 경로를 보면 난하(難河) → 태이하(太瀾河) → 육로 → 낙고수(洛孤水) → 거란 → 화룡이다.

양자 경로가 대체로 비슷하고 출발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즉, 여락괴수와 낙고수, 태로수와 태이하는 발음상 비슷하여 같은 하천으로 볼 수 있으니 여락괴수=낙고수는 오늘날 서요하 상류 지점인 시라무렌하(西拉木倫河), 태로수=태이하는 눈강(嫩江) 남서쪽 지류인 도아하(洮兒河)로 비정할 수 있다. 난하는 눈강을 중심으로 동류 송화강과 흑룡강 하류를 지칭한다.<sup>24)</sup> 즉, 을력지가 북위에 사신으로 가는 과정은 배를 타고 동류 송화강[난하] → 눈강[난하] → 도아하[태이하]까지 가서 이 강 근처인 도남(逃南)<sup>25)</sup>에 배를 물속에 감추고 남쪽으로

20) 『구당서』 권53 열전 이밀(李密), 『신당서』 권31 천문지(天文志), 『전당문(全唐文)』 권196, 『당대조령집(唐代詔令集)』 권130, 『조삼량묘지명(曹三良墓誌銘)』, 『신당서』 권220 열전 고려 등에 고구려 또는 요동 지역을 지칭하는 경우로 쓰였다(尹秉模, 2011, 『高句麗의 遼西進出 研究』, 景仁文化社 115쪽.). 그 외에도 『삼국지(三國志)』 권30 동이 고구려, 『천남산묘지명(泉男産墓誌銘)』 등에 기록돼 있다.

21) 『위서』 권100 열전 제88 물길국 “自和龍北二百餘里有善玉山, 山北行十三日至祁黎山. 又北行七日至如洛瓌水, 水廣里餘. 又北行十五日至太魯水, 又東北行十八日到其國. 國有大水, 闊三里餘, 名速末水. (중략) 去延興中, 遣使乙力支朝獻. 太和初, 又貢馬五百匹. 乙力支稱, 初發其國, 乘船沂難河西上, 至太瀾河, 沉船於水, 南出陸行, 渡洛孤水, 從契丹西界達和龍.” (중략) 乙力支乃還, 從其來道, 取得本船, 汎達其國.”

22) 『책부원구(冊府元龜)』 권969 외신부 조공2 “延興五年八月, 高麗·吐谷渾·地豆于諸國, 十月蠕蠕國并遣使朝獻, 勿吉國遣使朝獻.”

23) 『위서』 권7 계기7상 고조 태화 2년(478) “八月丁亥, 勿吉國遣使朝獻.”

24) 余昊奎, 2018, 「5세기 후반 高句麗·勿吉의 충돌과 북방 接境空間의 변화」, 『中央史論』 47, 中央大學校 中央史學研究所 159쪽.

25) 태이하 즉, 도아하에서 배를 내려 육로로 이동했으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도아하와 교류하(蛟流河)가 만나는 지점으로 백성(白城) 남쪽에 있다(津田左右吉, 1964, 「勿吉考」, 『津田左右吉全集』 12, 岩波書店 27~28쪽 및 池內宏, 1937, 「勿吉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5, 東京帝國大學文學部 14쪽, 日野開三郎, 1946, 「勿吉考」, 『史淵』 35, 九州帝國大學法文學部 24쪽.).

로 도보하여 시라무렌하[낙고수]를 건너 거란을 지나서 조양[화룡]에 도착한 것이다. 물길의 위치는 속말수와 관련있는데 그 강은 눈강·동류 송화강이 만나는 북류 송화강<sup>26)</sup>을 말하며, 장광재령(張廣才嶺) 동북쪽 동류 송화강·목단강(牡丹江) 중하류·왜궁하(倭肯河)가 만나는 의란(依蘭) 일대에 있었다.

오락후는 지두우의 북쪽에 있는데 위치를 알려줄 중요한 단서가 하나 발견됐다.<sup>27)</sup> 바로 감하 상류에 있는 악륄춘자치기(鄂倫春自治旗) 일대에서 탁발부(拓跋部)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던 알선동(嘎仙洞) 유적이다.<sup>28)</sup> 즉, 이곳에서 동남쪽이 오락후의 위치가 되는 셈이다.

오락후의 위치와 관련 있는 완수(完水)와 난수(難水)는 각각 흑룡강[아무르강], 눈강·동류 송화강이며, 우사니대수(于巳尼大水)는 액이고납하(額爾古納河)와 연결된 호룬호(呼倫湖)<sup>29)</sup>이다. 대흥안령 산맥 동쪽에 있는 많은 하천이 난수[눈강]로 합류하고 알선동 유적을 기준으로 동남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눈강 중상류 서쪽 지역<sup>30)</sup>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위는 물길의 북쪽에 있으며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내수(捺水)’와 여러 하천 및 산이다.<sup>31)</sup> 내수는 앞서 본 난하, 난수와 같은 강으로 눈강, 동류 송화강, 흑룡강 하류인데 물길에서 북쪽으로 천 리 떨어져 있으므로 눈강을 지칭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 외에 철수(啜水)=곽림하(霍林河)<sup>32)</sup>, 개수(蓋水)=귀류하(歸流河), 독료산(犢了山)=태평령(太平嶺), 굴리(屈利)=작이하(綽爾河), 인수(刃水)=아로하(雅魯河)로 비정한다. 실위의 위치는 인수[아로하]에서 북쪽으로 5일 거리에 있는데 감하와 눈강 중상류 지역은 오락후가 있으므로 오유이하(烏裕爾河)·눌모이하(訥謨爾河) 일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막해<sup>33)</sup>와 거란<sup>34)</sup>은 약락수(弱洛水)[시라무렌하] 남쪽에 거주했으며 양국은 개로(開魯)·조양

26) 孫進己·王綿厚, 1989, 『東北歷史地理』 2, 黑龍江人民出版社 162쪽.

27) 『위서』 권100 열전 제88 오락후국 “其國西北有完水, 東北流合于難水, 其地小水皆注於難, 東入于海. 又西北二十日行有于巳尼大水, 所謂北海也. 世祖眞君四年來朝, 稱其國西北有國家先帝舊墟, 石室南北九十步, 東西四十步, 高七十尺, 室有神靈, 民多祈請. 世祖遣中書侍郎李敞告祭焉, 刊祝文於室之壁而還.”

28) 米文平, 1981, 「鮮卑石室的发现兴初步研究」, 『文物』, 1981-2.

29) 바이칼호(Baikal)는 북해라고 표기할 정도로 크기는 맞지만, 너무 멀어서 20일보다 더 가야하는 거리다. 바이칼호는 『위서』 권103 열전 제91 연연에 나오는 한해(瀚海)가 더 유력해보인다.

30)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대양촌(大陽村)이 주목된다.

31) 『위서』 권100 열전 제88 실위국 “失韋國, 在勿吉北千里, 去洛六千里. 路出和龍北千餘里, 入契丹國, 又北行十日至啜水, 又北行三日有蓋水, 又北行三日有犢了山, 其山高大, 周回三百餘里. 又北行三日有大水名屈利, 又北行三日至刃水, 又北行五日到其國. 有大水從北而來, 廣四里餘, 名捺水.”

32) 거란에서 북쪽인 것으로 감안하여 귀류하 혹은 교류하로 비정한 바 있다(孫進己·王綿厚, 1989, 『東北歷史地理』 2, 黑龍江人民出版社 159~160쪽.). 하지만 북위 사신이 물길을 갈 때 여락괴수[시라무렌하]에서 태로수[도야하]를 가는데 15일 거리인 것에 비해 거란에서 북쪽으로 10일 가면 철수에 도착한다고 하니 철수는 그곳보다 더 남쪽에서 찾아야 맞다. 그에 알맞은 강으로 오이길목륄하(烏爾吉木倫河)와 곽림하가 있다. 오이길목륄하는 시라무렌하와 너무 가까워서 적합하지 않고 곽림하는 도야하에서 상당히 남쪽으로 떨어져 있으니, 철수는 곽림하가 합당하다.

33) 『위서』 권100 열전 제88 고막해국 “登國三年, 太祖親自出討, 至弱洛水南, 大破之, 獲其四部落, 馬牛羊豕十餘萬. (중략) 世宗詔曰, ‘庫莫奚去太和二十一年以前, 與安營二州邊民參居, 交易往來, 並無疑貳.’”

34) 『위서』 권100 열전 제88 거란국 “登國中, 國軍大破之, 遂逃迸, 與庫莫奚分背. 經數十年,

을 잇는 선으로 서로 동서로 공존했다.<sup>35)</sup>

지두우는 실위 서쪽, 오락후 남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앞서 비정한 실위와 오락후 위치를 보면 오락후 남쪽은 실위로 막혀서 지두우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서』의 오류인지 아니면 방위를 잘못 표기 또는 막연하게 표기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위서』에서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있다.

우선 호류호·액이고납하로 비정한 ‘우사니대수’ 등 대흥안령 산맥 서쪽에 있는 지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락후가 북위와 교섭할 때 대흥안령 산맥 서쪽을 경유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36)</sup> 그래서 그 지역을 기준으로 오락후를 지두우 북쪽으로 표기했을 것이다. 즉, 대흥안령 산맥 서쪽 지역을 기준으로 남쪽에 지두우가 있는 것이 맞다.

지두우는 동쪽으로 북류 송화강·이통하(伊通河)·요하, 서쪽으로 고비 사막, 남쪽으로 시라무렌하, 북쪽으로 작이하 또는 도아하가 흐르는 대흥안령 산맥 사이에 있으며, 공간 범위는 동쪽으로 실위·물길 및 고구려와 직접 맞닿을 것으로 보이진 않고 송요대평원(松遼大平原)<sup>37)</sup>을 공백 지역으로 뒀을 것 같으며, 물길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작이하·눈강·도아하·교류하를 연하는 도남 일대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서쪽으로 석림곽특맹(錫林郭勒盟) 지역과 석림곽특하(錫林郭勒盟河)가 있는데 이 강을 기준으로 유연이 지두우와 맞닿았거나 혹은 그곳에서 동오 주목심기(東烏珠穆沁旗)~서오 주목심기(西烏珠穆沁旗) 사이에 있는 오랍근곽특하(烏拉根郭勒河) 지류 사이를 공백 지역으로 하여 그 지류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남쪽으로 시라무렌하를 경계로 고막해·거란과 맞닿았으며 북쪽으로 정확하게 비정하긴 어렵지만 오락후와 조금 떨어진 흥안령평강(興安嶺平崗)과 흥안맹(興安盟)으로 흐르는 도아하 지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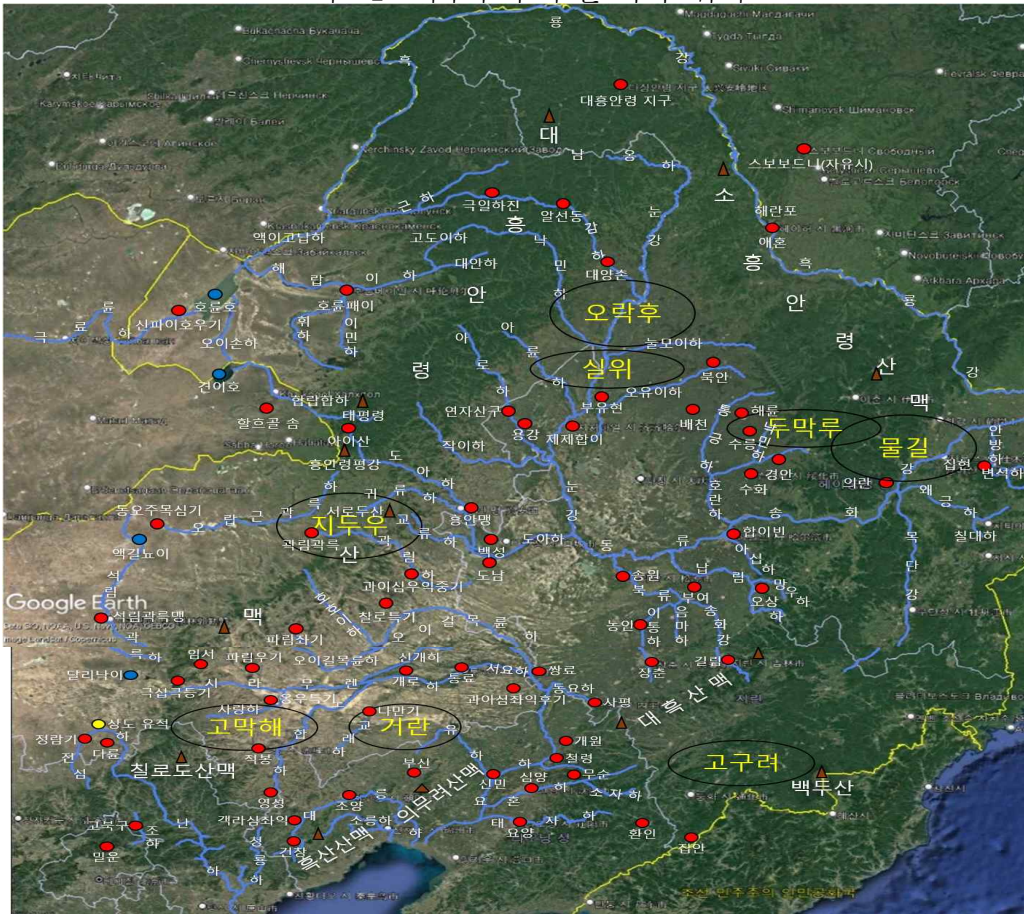
稍滋蔓，有部落，於和龍之北數百里，多爲寇盜。”

35) 다무라 지쓰조(田村實造)는 을력지가 낙고수[시라무렌하]를 건너 거란의 서쪽 국경을 따라 화룡[조양]에 이르렀다는 기사에 주목하여 고막해와 맞닿은 부분을 송형령(松陁嶺)으로 보았으며 이재성은 이에 개로~조양 일대로 보았다(李在成, 1988, 「初期 庫莫奚의 成長과 周邊諸族 - 특히 北魏와의 交易을 중심으로 -」, 『東洋史學研究』 28, 東洋史學會 27쪽 및 각주 127.).

36) 북위 수도 대도(代都)에서 오락후까지 거리가 4,500리이고 『위서』 권108 예지(禮志)에 나온 대도~북위 선대 황제 무덤[알선동 유적] 거리가 4,000리로 대도에서 오락후로 가는 것보다 선대 황제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더 가깝다는 것에 주목하여 북위-오락후가 대흥안령 산맥 서쪽으로 교섭했을 것으로 본다(余昊奎, 2018, 「5세기 후반 高句麗·勿吉의 충돌과 북방 接境空間의 변화」, 『中央史論』 47, 中央大學校 中央史學研究所 188~189쪽.). 이때 오락후가 북위에 사신을 보낼 때 교통로는 감하-극일하진(克一河鎮)-근하(根河)를 통해 대흥안령 산맥 서쪽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37) 요하와 송화강 유역에 있는 대평원으로 동북평원(東北平原)을 가리키는데 이는 중국을 기준으로 보는 지형이므로 요하와 송화강 사이에 있는 것을 강조하여 지칭하기도 한다(여호규, 2022, 「만주 지역의 자연환경과 교통로」, 『中央史論』 55, 中央大學校 中央史學研究所 174쪽.).

<지도1> 지두우와 주변 족속 위치



## 2. 지두우 중심지의 위치 비정

선행연구에서 지두우 중심지를 파림부(巴林部) 즉, 파림좌기(巴林左旗)·파림우기(巴林右旗)<sup>38)</sup>, 동오주목심기<sup>39)</sup>, 오라급곽특하<sup>40)</sup>, 대흥안령 산맥 중단<sup>41)</sup>, 동오주목심기·서오주목심기<sup>42)</sup>, 해랍

38) 白鳥庫吉, 1970, 「東胡民族考」, 『塞外民族史研究(下)』, 岩波書店 184~185, 197쪽; 津田左右吉, 1964, 「勿吉考」, 『津田左右吉全集』 12, 岩波書店 24쪽; 1964, 「室韋考」, 『津田左右吉全集』 12, 岩波書店 45쪽; 箭內互·稻葉岩吉·松井等, 1913, 「南北朝時代の滿洲」, 『滿洲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325쪽; 李龍範, 1959, 「高句麗의 遼西進出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4, 韓國史學會 55쪽; 盧泰敦, 1976,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3, 韓國史學會 40쪽; 朴京哲, 1989, 「高句麗 軍事戰略考察을 위한 一試論 - 平壤遷都 以後 高句麗 軍事戰略의 志向點을 中心으로 -」, 『史學研究』 40, 韓國史學會 48쪽; 李在成, 1996, 「庫莫奚部·契丹部の 교역과 契丹 『八部聯盟』」,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172쪽; 孔錫龜, 1998, 「其他 地域에 대한 領域擴張」,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276쪽; 노태돈, 1999, 「6세기 중반의 政세변동」,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409~410쪽; 1999,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309쪽; 朴元吉, 2002, 「高句麗와 柔然·突厥의 關係」, 『高句麗研究』 14, 高句麗研究會 17쪽; 李在成, 2002, 「4~5世紀 高句麗와 契丹」, 『高句麗研究』 14, 高句麗研究會 38쪽; 2011, 「高句麗·契丹 關係史 - 4세기 말기에서 6세기 후기까지 -」, 『한국전통문화연구』 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47쪽 각주 52.

39) 丁謙, 1915, 『魏書各外國傳地理考證』, 浙江圖書館 6쪽; 孫進己·王綿厚, 1989, 『東北歷史地理』 2, 黑龍江人民出版社 154쪽; 徐吉洙, 1999, 「내몽골 大興安嶺 주변 歷史遺蹟 踏查記 - 1997년 8월 16일~8월 24일 -」, 『高句麗研究』 7, 高句麗研究會 388~391쪽; 정수일, 2013, 『실크로드 사진』, 창

이(海拉爾)=호룬패이(呼倫貝爾)<sup>43)</sup>, 석림곽특맹<sup>44)</sup>, 호룬호<sup>45)</sup> 등으로 비정했다. 이 가운데 해랍이와 호룬호는 지나치게 북쪽에 있으며 오라후 서쪽 지역에 해당하고 지두우 공간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중심지로 보기는 힘들다. 이에 두 곳을 제외한 대흥안령 산맥 서쪽에 있는 석림곽특맹과 동오주목심기·오랍근곽특하, 동·서오주목심기, 대흥안령 산맥 중단, 대흥안령 산맥 동쪽에 있는 과림좌·우기 이렇게 여섯 지역이 남는다. 각 지역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석림곽특맹은 주위에 석림곽특하가 존재하며, 남쪽으로 약 10km 거리에 달리낙이(達里諾爾) 호수가 형성돼서 유목하기 적합한 곳이다.<sup>46)</sup> 그리고 동남쪽으로 석림곽특하를 따라 대흥안령 산맥과 시라무렌하 사이에 있는 극십극등기(克什克騰旗)를 관통하여 과림좌·우기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로가 있다.

동오주목심기와 서오주목심기, 오랍근곽특하 일대는 산으로 둘러싸인 대분지, 파상평원(波狀平原)으로 오랍근곽특하가 흐르며 현재도 목축업을 주로 하는 곳이다.<sup>47)</sup> 또한 이곳은 동몽골 지역에서 목초지가 풍요로운 지역으로 유목민의 쟁탈 지역 가운데 하나로, 13세기 몽골제국 및 원나라 시기에 홍길랄(弘吉剌=Onggirad) 씨족의 유목지로 지정된 곳이다. 『원사(元史)』 특설선전(特薛禪傳)에 나오는 세 지역으로 가목아온도아(可木兒溫都兒=Khamur Ündür), 답아너아(答兒腦兒=Dali Nagur), 질멸가아(迭蔑可兒=Teme'en-Ke'er)가 있다. 가목아온도아를 몽골 더르너드 아이막(Дорнод аймаг) 할흐골 сум(Халхгол сум)에 있는 하마르 다와아(Хама р даваа)로, 답아너아를 극십극등기에 있는 달리낙이라는 호수로, 질멸가아는 동오주목심기 살맥소목(薩麥蘇木=Самай сум)에 있는 아일본고일반당합달(阿日本古日班唐哈達=Арван гу рван ган хад) 일대로 비정한 몽골학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이러한 지역을 동·서오주목심기 지역으로 비정하여 지두우 중심지라는 논거를 보완한 바 있다.<sup>48)</sup>

비 150쪽.

40) 余昊奎, 2018, 「5세기 후반 高句麗·勿吉의 충돌과 북방 接境空間의 변화」, 『中央史論』 47, 中央大學校 中央史學研究所 192~193쪽; 2022, 「만주 지역의 자연환경과 교통로」, 『中央史論』 55, 中央大學校 中央史學研究所 189쪽; 백다해, 2024, 「5세기 高句麗와 柔然的 교섭과 ‘蒙古草原路」, 『역사문화연구』 9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5~16쪽.

41) 郑英德, 1983, 「乌落侯地理位置再探」, 『黑龙江文物丛刊』 1983-1 72쪽; 张博泉·苏金源·董玉瑛, 1983, 「魏, 晋, 南北朝时期的东北疆域」, 『东北历代疆域史』, 长春: 吉林人民出版社 71쪽; 宋基豪, 2008, 「5세기 후반 高句麗의 북방 경계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23쪽.

42) 朴京哲, 2005, 「高句麗의 東蒙古經略」, 『白山學報』 71, 白山學會 137, 142쪽; 이재성, 2018, 「아프라시압 공전지 벽화의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로 간 노선」, 『고구려와 유목민족의 관계사 연구』, 소나무 29쪽 각주 32; 박원길, 2019, 「돌궐비문에 등장하는 타타브(Tatabi)의 실체(實體)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 지두우(地豆于)·습(靄)·백습(白靄)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몽골학』 59, 한국몽골학회 29쪽.

43) 손영중, 1990, 『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349쪽.

44) 손영중, 1997, 『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10, 120쪽 지도.

45) 장지우허, 북방사 연구팀 역, 2009, 『몽골인 그들은 어디서 왔나?』, 소나무 71, 72, 123쪽.

46) 무엇보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175km 거리에 원나라가 대도(大都)로 수도를 정하기 전 수도였던 상도(上都) 유적지가 발굴되기도 했다.

47) 徐吉洙, 1999, 「내몽골 大興安嶺 주변 歷史遺蹟 踏查記 - 1997년 8월 16일~8월 24일 -」, 『高句麗研究』 7, 高句麗研究會 390~391쪽.

48) 박원길, 2019, 「돌궐비문에 등장하는 타타브(Tatabi)의 실체(實體)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 지두우

파립좌·우기 일대는 과거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으로 요나라, 원나라 때 평지송림(平地松林)이라 불렀고 오주목심기의 동쪽, 찰로특기(札魯特旗)의 서쪽, 서남쪽으로 다륜(多倫)까지 포함한 거대한 소나무 숲으로<sup>49)</sup> 유목민이 정주(停住) 또는 정주(定住)하기 적합한 곳이다.

지금까지 본 여러 지역은 모두 문헌 사료에 나오는 내용, 교통로, 정주하기 알맞은 환경을 갖추어서 중심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다음 사료는 지두우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참고할 만하다.

㉔-1. 습은 흉노의 별종으로 황수 북쪽에 거주하는데 또한 선비의 옛 땅이며, 그 나라는 경사에서 동북쪽으로 5천 리에 있다. 동쪽으로 말갈에 접하고, 서쪽으로 돌궐에 이르며, 남쪽으로 거란에 이르고 북쪽으로 오라혼과 접한다. 땅 둘레는 2천 리이고, 사면으로 산이 있어 그 경계를 둘러서 에워싼다.<sup>50)</sup>

㉔-2. 백습은 선비의 옛 땅에 거주하는데, 경사에서 동북쪽으로 5천 리 떨어져 동라, 북골과 접했다. 설연타를 피해 오지수, 냉형산에 사는데, 남쪽으로 거란, 북쪽으로 오라혼, 동쪽으로 말갈, 서쪽으로 발야고(와 접했고), 땅 둘레는 2천 리다. 산이 그 밖을 두르며, 정예병사는 (규모가) 1만 명이다.<sup>51)</sup>

㉔-3. 인수 원년(601) (중략) 보가가 얼마 있지 않아 또 크게 어지러워지자, 해와 습 5부가 (장성) 안으로 옮겨왔고, 보가(가한)가 토욕혼으로 도망갔다.<sup>52)</sup>

㉔-4. (태화) 14년(490), (지두우가) 빈번히 와서 새내를 침범하니 고조가 정서대장군 양평왕 이에게 조를 내려 그들을 공격하도록 했다.<sup>53)</sup>

습(靺)과 백습(白靺)<sup>54)</sup>은 지두우 중심지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족이다. 앞서 지두우의 위치를 동쪽으로 실위·물길, 서쪽으로 유연, 남쪽으로 거란, 북쪽으로 오라후와 접했다고 논증했다. 후술하겠지만 지두우는 550년까지 사료에 등장했다. 사료 ㉔-1과 ㉔-2로 보아 습과 백습은 대체로 동쪽으로 말갈, 서쪽으로 돌궐 또는 발야고(拔野古), 남쪽으로 거란, 북쪽으

(地豆于)·습(靺)·백습(白靺)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몽골학』 59, 한국몽골학회 29~30쪽 및 각주 43 참고.

49) 白鳥庫吉, 1970, 「東胡民族考」, 『塞外民族史研究(下)』, 岩波書店 197~199쪽.

50) 『신당서』 권199 열전 제149 습 “靺, 匈奴之別種也, 居于潢水北, 亦鮮卑之故地, 其國在京師東北五千里. 東接靺鞨, 西至突厥, 南至契丹, 北與烏羅渾接. 地周二千里, 四面有山, 環繞其境.”

51) 『신당서』 권217 열전 제142 백습 “白靺居鮮卑故地, 直京師東北五千里, 與同羅·僕骨接. 避薛延陀, 保奧支水·冷陁山, 南契丹, 北烏羅渾, 東靺鞨, 西拔野古, 地圓袤二千里. 山遼其外, 勝兵萬人.”

52) 『수서』 권84 열전 제49 돌궐 “仁壽元年, (중략) 步迦尋亦大亂, 奚·靺五部內徙, 步迦奔吐谷渾.”

53) 『위서』 권100 열전 제88 지두우국 “延興二年八月, 遣使朝貢, 至于太和六年, 貢使不絕. 十四年, 頻來犯塞, 高祖詔征西大將軍·陽平王頔擊走之.”

54) 습은 동호 후예이고 백습은 튀르크 종으로 서로 다른데 『신당서』 편찬자가 양자를 구분하지 못하여 섞어서 쓴 것으로 보기도 한다(白鳥庫吉, 1970, 「東胡民族考」, 『塞外民族史研究(下)』, 岩波書店 193~194쪽.). 한편 돌궐 킬 테긴(Kül-Tegin) 비문, 빌게 칸(Bilgä Qayan) 비문, 킬리 초르(Küli-čor) 비문에 나온 타타브(Tatabi)를 지두우로 보는데 이후 습-백습뿐 아니라 고막해의 후신인 해(奚)도 포괄한 것으로 본다. 관련 연구사 및 자세한 내용은 박원길, 2019, 「돌궐비문에 등장하는 타타브(Tatabi)의 실체(實體)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 지두우(地豆于)·습(靺)·백습(白靺)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몽골학』 59, 한국몽골학회 17~25쪽 참고.

로 오락후인 오락혼(烏羅渾)과 접했다고 기록해서 상대 위치 역시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지두우의 상대 위치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비슷한 곳이다. 또한 사료 ㉔-3에서 보는 것처럼 601년 처음 등장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위치가 비슷한 점, 550년~601년 사이에 비슷한 곳에서 주체가 바뀐 것으로 보아 습과 백습은 지두우가 후에 바뀐 족속으로 볼 수 있다.<sup>55)</sup>

습과 백습의 위치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형과 적합한 지역은 파림좌·우기 또는 동오주목심기가 유력해 보인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기록과 가장 부합한 곳은 동오주목심기와 오랍근곽륙하 일대가 가장 맞다. 그리고 습의 뒤를 이은 백습이 호륜호 일대에서 시라무렌하 북쪽까지 활동했다.<sup>56)</sup>

그렇다면 지두우의 중심지도 동일하게 동오주목심기와 오랍근곽륙하 일대일 것으로 보인다. 지두우는 습 및 백습 전단계이므로 선행 연구에서 파림부나 동오주목심기 중 한 곳을 지두우의 중심지로 비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은 지두우가 습 및 백습으로 바뀌고 나서 중심지도 똑같은 거라는 전제하에 비정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두우의 위치를 비정한 선행 연구에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첫 번째, 지두우와 습·백습의 중심지가 같은 곳인지 의문이다. 사료 ㉔-2는 습 또는 백습으로 바뀌었을 시기에 외압으로 중심지가 바뀌었음을 암시해준다. 사료 ㉔-7은 479년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계획을 암시하는 기사로, Ⅲ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이를 시도하여 군사 작전을 실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거란 일부 부족이 북위로 피란을 떠났다. 주변 족속이 이렇게 피란한 것으로 보아 공격당한 주체인 지두우도 기존 중심지에서 동오주목심기로 이동했고 습→백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㉔-4는 실위의 서쪽에 지두우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앞서 지두우의 상대 위치를 비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리를 측정한 것이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양자는 '1천 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고대 중국에서 단위 '리(里)'는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지만 약 400~450m 정도였다.<sup>57)</sup> 이를 실위가 있던 부유현(富裕縣)에서 직선거리 또는 주요 교통로를 따라 거리를 재면 대흥안령 산맥 중단이 나온다. 즉, 동오주목심기는 서쪽으로 거리가 더 떨어져 있다. 그리고 전술한 것처럼 오락후가 대흥안령 산맥 서쪽을 따라 북위와 교섭했기에 『위서』에서 오락

55) 白鳥庫吉, 1970, 「東胡民族考」, 『塞外民族史研究(下)』, 岩波書店 196쪽.

56) 백습의 위치는 호륜호 근처인 크로륜하(克魯倫河) 일대로 보거나(周伟洲, 2004, 「靄与白靄考辨」, 『社会科学战线』 1, 陝西师范大学 142쪽.), 오논(Onon)강~귀류하 및 동·서오주목심기와 파림좌·우기로, 대체로 넓은 지역에 분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명칭은 묘지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원길, 2018, 「Sine-usu碑文과 P.1283文書에서 본 바이칼 주변 및 동몽골의 민족분포 - Čik과 鞞部, Mug-lig(貊族)와 白靄를 중심으로-」, 『몽골학』 54, 한국몽골학회 59~62쪽.).

57) 1리는 300보(步)이고, 1보는 5척(당나라~청나라) 또는 6척(당나라 이전)이다. 당척(唐尺)은 약 29.7cm로 추정하며, 그 이전에 사용한 전한척(前漢尺)과 후한척(後漢尺)은 각각 23.04cm, 23.75cm로 추정한다(李宇泰, 1984, 「韓國古代의 尺度」, 『泰東古典研究』 1, 翰林大學校 泰東古典研究所 20~21쪽 및 27~28쪽.). 『위서』에 쓰여진 리를 전한척 또는 후한척으로 적용하면 23.04X6X300=414.72m 또는 23.75X6X300=427.5m가 나온다. 각각 천 리를 대입하면 414.72km 또는 427.5km가 나온다.

후 위치를 지두우 북쪽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동오주목심기를 기준으로 하면 동북쪽이 맞으며 대흥안령 산맥 중단에 지두우 중심지가 있어야 그곳 북쪽에 오락후가 있다는 기록이 자연스럽다.

㉔-6과 ㉔-4는 고구려와 유연의 분할 계획 이후, 지두우의 행보를 보여주는 기사로 지두우가 고막해와 북위를 노략질했다는 기사이다. 위치를 보면 지두우가 고막해·북위와 가까웠고 교통하기에 적합했음을 보여준다. 지두우가 대흥안령 산맥 중단에서 교통하기에 거리가 꽤 멀어서 부적합한 것에 비해 동오주목심기에서 남쪽으로 고막해와 북위로 통하기 수월한 거리이다. 즉, 지두우가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계획으로 인해 원거주지에서 동오주목심기로 이동하게 됐고 그곳에서 고막해와 북위를 노략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중심지, 동오주목심기 일대는 어딘가에 있다가 이동해 온 지두우와 그 후신인 습의 중심지로 보아야 옳다.

두 번째, 지두우의 중심지는 한 곳인가 하는 점이다. 이 당시 북방 족속은 통일된 부족 체제가 아니었다.<sup>58)</sup> 무엇보다 고구려와 유연이 분할 점령하려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양국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국익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나누고자 분명 합의를 봤을 것이다.

우선 지두우 중심지를 선행 연구대로 파림좌·우기로 또는 동오주목심기 가정해보겠다. 양자는 고구려와 유연이 통하는 교통로라는 점에서 양국에 득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파림좌·우기를 중심으로 가정했을 경우 그곳을 분할 점령하면 고구려 입장에서 관할하기 쉽겠지만 유연 입장에선 그러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동오주목심기를 중심으로 가정했을 경우 그곳을 분할 점령하면 고구려 입장에서 관할하기 어렵고 유연 입장에서 수월했을 것이다. 즉, 대흥안령 산맥이라는 자연 장애물이 양국이 공평하게 분할 점령하기 어려운 요소로 존재하는 것이다.<sup>59)</sup> 무엇보다 사료 ㉔-4와 비교했을 때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습·백습 단계 이전, 정확히는 동오주목심기로 이동하기 이전 지두우의 중심지는 어디였을지 살펴보겠다.

대흥안령 산맥 중단에서 유목민이 거주하기 적합한 지역으로 광림곽륙(霍林郭勒)이 있다. 이 지역은 넓이가 약 585km<sup>2</sup>로, 해발고도가 평균 800~900m 정도다. 동쪽과 서쪽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분지처럼 보이지만, 동남쪽으로 찰로특기를 관통할 수 있는 곳으로 교통 요지이다.

더불어서 찰로특기와 과이심우익중기(科爾沁右翼中旗)도 주목할 만하다. 찰로특기는 넓이가 약 17,193km<sup>2</sup>, 해발고도가 평균 200~300m 정도로 낮은 편이다. 대흥안령 산맥을 관통하여 광

58) 당장 주변에 있던 물길의 경우, “읍락마다 각기 수장이 있으며,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다(邑落各自有長, 不相總一).”고 기록했고 거란은 실만단부(悉萬丹部), 하대하부(何大何部), 북불옥부(伏弗郁部), 우릉부(羽陵部), 일련부(日連部), 필혈부(匹黎部), 여부(黎部), 토육우부(吐六于部) 등 8부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지두우도 하나로 된 거대한 부족체보단 물길처럼 통합되지 않은 부족으로 보인다.

59) 물론 이것은 지배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실제로 대흥안령 산맥을 답사하여 그곳이 산봉우리가 많고 험한 태백 산맥, 알프스 산맥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산맥 자체가 넓은 길로 펼쳐져 있어서 대규모 군대가 신속하게 이동하기 수월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徐吉洙, 1999, 「내몽골 大興安嶺 주변 歷史遺蹟 踏查記 - 1997년 8월 16일~8월 24일 -」, 『高句麗研究』 7, 高句麗研究會 389~390쪽.).

림곽특으로 통하는 교통로가 잘 발달했으며,<sup>60)</sup> 사면이 어느 정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과이심우익중기 역시 대흥안령 산맥 동쪽에 있으며 넓이는 약 15,613km<sup>2</sup>, 해발고도가 200~300m로 산이 적은 평야지대다. 광림하를 따라 광림곽특까지 대흥안령 산맥을 관통하며, 찰로특기까지 교통로가 잘 발달한 지역이다. 무엇보다 이곳은 여러 호수가 존재하며 유목민이 오랫동안 머물기 적합한 지역이다.

『위서』에 나온 지두우 외에 북위와 가까이 있던 거란, 고막해를 제외한 물길, 두막루, 실위, 오락후는 낙양(洛陽) 또는 대도에서 그 위치를 거리로 계산한 것에 비해 지두우는 막연하게 실위의 서쪽 천 리에 있다고 기록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북위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지두우는 중심지가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서 거리를 계산하지 않은 것 같다.

초기 지두우는 대흥안령 산맥 서쪽에 광림곽특 그리고 동쪽에 과이심우익중기 일대를 중심으로 대흥안령 산맥 중단에 산맥이 끊긴 광림하를 통해 연결된 곳에 유목하던 족속이었다. 그리고 이 족속은 찰로특기까지 교통로로 활용하여 그곳까지 일부 분포했을 것으로 보인다.

### Ⅲ.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배경과 그 결과

#### 1. 물길의 성장과 지두우 분할 배경

물길은 단기간에 성장하여 고구려를 위협했고 고구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관련 사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㉔. (을력지가 또) 스스로 말하길, “그 나라[물길]에서 먼저 고구려 10낙을 함락했고, 은밀히 백제와 함께 뱃길을 따라 힘을 합쳐 고구려를 취할 것을 꾀하고, 을력지를 대국[북위]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그 가부를 청합니다.”하였다. 이에 조칙으로, “세 나라를 똑같은 번신으로 마땅히 서로 화순해야 할 것이니, 서로 침입하여 소란 피우지 마라.”하였다.<sup>61)</sup>

60) 호룬호와 건이호(見爾湖)에서 대흥안령 산맥을 통하는 교통로로 눈강 통로, 할힌골(Халхын) 통로가 있다. 눈강 통로는 대흥안령 산맥 북단을 넘어 눈강을 통해 송눈 평원으로 남하하는 길이고, 할힌골 통로는 아이산(阿爾山)을 거쳐 백성과 길림 또는 통료(通遼)와 심양(瀋陽)으로 남하하는 길이다. 할힌골 통로를 3가지로 나눠서 보면, 액길노이(額吉淖爾) 호수에서 출발하여 아이산→홍안맹=오란호특(烏蘭浩特), 여기에서 ①백성→송원(松原)→장춘→심양 혹은 ②과이심우익중기→통료→과이심좌익후기(科爾沁左翼後旗)→심양이 있으며, ③액길노이→광림곽특→백성·과이심우익중기로 바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과이심우익중기와 광림곽특 일대가 대흥안령 산맥을 교통로로 관통했음은 III-2절에서 교통로를 언급하면서 보도록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박원길, 2019, 「돌궐비문에 등장하는 타타브(Tatabi)의 실체(實體)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 지두우(地豆于)·습(靺)·백습(白靺)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몽골학』 59, 한국몽골학회 35~43쪽 참고.

61) 『위서』 권100 열전 제88 물길국 “白云, ‘其國先破高句麗十落, 密共百濟謀從水道并力取高句麗, 遣乙力支奉使大國, 請其可否.’ 詔敕‘三國同是藩附, 宜共和順, 勿相侵擾.’”

사료 ㉔는 475년과 478년 물길의 북위에 을력지를 파견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여 10낙(落)을 차지한 사실<sup>62)</sup>을 고하고, 백제와 모의<sup>63)</sup>하여 고구려를 쳐도 되는지 허락을 받는 기사이다.

물길이 함락한 고구려 10낙의 위치는 물길 중심지에서 부여로 나아가는 동류 송화강 상류 일대<sup>64)</sup>에 있었을 것이다. 물길의 고구려 10낙 함락은 장수왕이 남진정책에 주력하려는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장수왕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물길 자체를 공격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물길과 북위가 연결하여 보복할 경우 등을 의식해야만 했다. 북위는 고구려를 버리고 있음은 분명했다.<sup>65)</sup> 이에 장수왕은 북위가 언젠가 공격해 올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sup>66)</sup> 그뿐 아니라 남방 진영은 당시 백제와 신라가 이미 433년 나제동맹<sup>67)</sup>을 시작으로 455년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상황에

62) 물길이 정확히 언제 고구려 10락을 함락했는지 알 수 없지만 고구려가 남진정책에 주력하던 470년대 중반일 것으로 추정한다(김락기, 2013, 「5세기 중반~6세기 중반 물길의 흥망과 고구려 경역의 변화」, 『고구려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靺鞨』, 景仁文化社 81쪽.).

63) 쓰다 소키치와 이케우치 히로시는 대체로 부정하는 편(津田左右吉, 1964, 「勿吉考」, 『津田左右吉全集(滿洲歷史地理研究2)』 12, 岩波書店 20쪽 및 池內宏, 1937, 「勿吉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5, 東京帝國大學文學部 5쪽.)이며, 히노 카이자부로는 양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어느 정도 부정하면서 약간은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日野開三郎, 1946, 「勿吉考」, 『史淵』 35, 九州帝國大學法文學部 6~7쪽.). 한편, 물길의 역량으로 백제와 연계했다는 사실은 부정해도 물길과 백제가 고구려 견제라는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북위를 후원세력으로 끌어들이고, 고구려에 대항하려고 했다고 보기도 한다(이성재,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과 對北魏關係의 定立」, 『고구려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124~125쪽.). 또한, 양국의 공모 사실 여부를 떠나 물길이 북위에 자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끌어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김락기, 2013, 「고구려의 동북 경역과 숙신·물길」, 『고구려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靺鞨』, 景仁文化社 40쪽 각주 61). 그러나 물길과 백제가 직접 교류는 아니었어도 북위를 중개로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다. 고구려 견제라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실행은 못 했더라도 모의했을 가능성은 있기에 마냥 부정하긴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실제로 백제는 개로왕이 472년에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가 물길보다 훨씬 서북쪽에 있는 유연과 관계를 맺은 상태를 알리며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백제는 최소한 물길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시대는 뒤떨어지지만,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1231)을 받기 전부터 금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몽골의 존재를 인식한 바 있으며, 조선시대 때 청나라에 보낸 연행사(燕行使)를 통해 서양 선교사를 접한 사례 등이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64) 휘발하(輝發河)까지 진출했다고 가정한다면 물길이 길림까지 장악한 것이 된다. 그렇게 보기에겐 전기 부여 중심지로 비정하는 길림 용담산성(龍潭山城)은 고구려가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에 나오는 북부여수사(北扶餘守事)를 이곳에 파견하여 다스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구려가 북쪽으로 옛 부여[구부여]에 이르렀다고 한 점, 물길이 점령한 지역이 ‘성(城)’이 아닌 ‘낙’으로 표기했다는 점과 용담산성에서 물길 관련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점에서 그곳을 점령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물길이 휘발하까지 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余昊奎, 2018, 「5세기 후반 高句麗·勿吉의 충돌과 북방 接境空間의 변화」, 『中央史論』 47, 中央大學校 中央史學研究所 176~178쪽.).

65) 북위는 이미 436년 북연을 둘러싸고 화룡[조양]에서 대치한 적이 있었고, 세조가 고구려를 공격하려 했으나 여러 신하의 만류로 실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466년 풍태후(馮太后)가 현조의 육궁(六宮)을 채우기 위해 장수왕에게 이를 요구하지만 거절당하자, 다시 긴장 상태가 됐다. 472년 개로왕이 북위에 청병을 요청한 지 얼마 안 돼서 북위 조정에서 장수왕에게 안(安) 일행을 백제로 호송하도록 하지만 거절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후술하겠지만 480년 고구려에서 파견한 사신 여노(餘奴)를 나포하여 장수왕에게 월경외교를 비판하며 경고했다.

66) 노태돈, 1999,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312~313쪽.

67) 나제동맹을 ‘군사협력체제’로 보기도 한다.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할 때 왜만 끌어들이어서 막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여 신라를 끌어들이었을 것이고, 양국이 상호불가침을 약속했을 것으로 본다(魏加耶, 2018, 「5~6世紀 百濟와 新羅의 ‘軍事協力體制’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25쪽.).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길을 직접 치는 건 자칫 남방 전선에서 역시 허점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왕은 물길을 직접 치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구사했을 것이다. 당시 물길과 북위의 교섭 사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㉞. 태화(477~499) 초에 또한 말 500필을 바쳤다. 을력지는 “처음 그 나라[물길]에서 출발하여 배를 타고 난하를 거슬러 서쪽으로 오르다가 태이하에 이르러 배를 물속에 감추고, 남으로 걸어서 낙고수를 건너 거란 서쪽 국경을 따라 화룡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sup>68)</sup>

고구려는 장수왕이 직접 친정하여<sup>69)</sup> 475년 9월에 한성을 함락한 후 포로 8천 명을 데리고 돌아갔는데<sup>70)</sup> 이는 북위를 어느 정도 의식했기 때문<sup>71)</sup>일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475년 10월, 물길은 을력지를 북위에 파견하면서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3년 뒤 사료 ㉞에서 보는 바처럼 478년 8월<sup>72)</sup>, 물길은 북위와 군사 동맹을 강화하여 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거란 서쪽 국경이면서 고막해 동쪽 국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물길이 거란과 고막해를 피해 험난한 노로아호(老盧兒虎)산맥을 이용하여 화룡에 도달했음을 알려준다. 이는 물길이 북위에 사신 보내는 것을 고구려에 들키지 않으려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sup>73)</sup>

장수왕은 남진정책을 잠시 미루고 물길과 북위의 군사 동맹을 막고 그들의 교통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북위를 견제할 세력으로 유연이 필요했다.

㉞-1. 연흥 5년(475)에 여성은 혼인 맺기를 요청하였다. 관리들은 여성이 자주 변경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 사자를 끊고 군대를 내어 그들을 토벌하기를 청하였다. (중략) 여성은 항상 간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결국 현조의 재위 중에는 재차 통혼을 요구하지 않았다.<sup>74)</sup>

㉞-2. 태화 원년(477) 4월에 (여성) 막하거분 비발 등을 보내어 좋은 말과 담비갓옷을

68) 『위서』 권100 열전 제88 물길국 太和初, 又貢馬五百匹. 乙力支稱, ‘初發其國, 乘船泝難河西上, 至太瀾河, 沉船於水, 南出陸行, 渡洛孤水, 從契丹西界達和龍.’

69)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7년 “秋七月, 高句麗王巨連, 親率兵, 攻百濟.”

70)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63년 “九月, 王帥兵三萬, 侵百濟, 陷王所都漢城, 殺其王扶餘慶, 虜男女八千而歸.” 및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문주왕 1년 “蓋鹵在位二十一年, 高句麗來侵, 圍漢城, 蓋鹵嬰城自固, 使文周求救於新羅. 得兵一萬迴. 麗兵雖退, 城破王死, 遂即位.”

71) 노태돈, 1999,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312~313쪽.

72) 『위서』 권7 제기7상 고조 태화 2년(478) “八月丁亥, 勿吉國遣使朝獻.”

73) 책부원구를 보면 467~470년 및 476~479년 고구려가 고막해, 거란과 함께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기록이 여럿 보이는데 이는 고구려가 고막해 및 거란과 교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물길이 북위 화룡으로 가는 통로에 거란과 고막해가 있는데 그 지역으로 통과할 경우 거란과 고막해에 들킬 것이고 고구려에 보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산간 통로를 이용한 것이다(余昊奎, 2018, 「5세기 후반 高句麗·勿吉의 충돌과 북방 接境空間의 변화」, 『中央史論』 47, 中央大學校 中央史學研究所 174~175쪽.).

74) 『위서』 권103 열전91 연연 “延興五年, 予成求通婚媾, 有司以予成數犯邊塞, 請絕其使, 發兵討之. (중략) 予成每懷譎詐, 終顯祖世, 更不求婚.”

바쳤다.<sup>75)</sup>

㉓-3. 2년(478) 2월에 (여성은) 또 비발 등을 보내어 조공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결혼을 요청하였다. 고조[효문제]는 불려서 받아들인데 뜻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였다. 여성이 비록 매년 조공을 끊지 않았지만, 화친하는 정성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혼사 또한 중지했다.<sup>76)</sup>

㉓-4. (순제) 승명 2년(478)에 태조가 보정을 맡아 효기장군 왕흥범을 보내어 예예[유연]에 사신으로 가서, 기일을 정해 위로[북위]를 함께 정벌 하고자 했다.<sup>77)</sup>

㉓-5. [예예로(유연)는] 항상 남쪽으로 삭로[북위]를 쳐서 (북위와 유연은) 세세토록 원수지간이었다. 고로 조정[송나라]에서 매년 그들[유연]을 기미했다.<sup>78)</sup>

유연은 464년 여성(予成) 가한이 즉위한 후 영강(永康)이라는 연호를 칭하며 북위를 공격했지만 패배했다.<sup>79)</sup> 470년 다시 북위를 치지만 유연이 패할 뿐 아니라 후퇴하는 과정에서 병력 5만을 잃고 1만이 북위로 항복하여 병력 6만 이상을 손실하게 되며<sup>80)</sup>, 4년 뒤 동서 교역로의 중심지인 둔황(敦煌)을 공격하지만,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sup>81)</sup>

유연은 여성 가한 때, 이전과 다르게 초기에 북위를 수세에 몰면서도 다소 열세에 놓이는데 북위를 정벌하기 위해 공격을 잠시 미루고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 사료 ㉓-1과 2는 혼인을 요청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동태를 파악하며 평화를 가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사료 ㉓-3도 마찬가지로 유연이 북위에 혼인 요청은 그만두지만, 조공을 매년 바치면서 동태를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료 ㉓-4는 송나라와 연결하여 북위를 공격하려는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을 보여준다. 사료 ㉓-5는 송나라가 유연을 기미(羈縻)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송나라도 북위를 몰아내고 중원을 통일하기 위해서 유연의 군사력이 필요했기에 478년 먼저 접근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sup>82)</sup>

앞서 유연은 북연과 적극 교섭했지만, 북연이 436년 북위에 멸망한 이후<sup>83)</sup> 북위가 요서 지

75) 『위서』 권103 열전91 연연 “太和元年四月，遣莫何去汾比拔等來獻良馬·貂裘。”

76) 『위서』 권103 열전91 연연 “二年二月，又遣比拔等朝貢，尋復請婚焉。高祖志存招納，許之。予成雖歲貢不絕，而款約不著，婚事亦停。”

77) 『남제서』 권59 열전 제40 예예로 “昇明二年，太祖輔政，遣驍騎將軍王洪範使芮芮，剋期共伐魏虜。”

78) 『송서』 권95 열전 제55 삭로 “常南擊索虜，世爲仇讎，故朝廷每羈縻之。”

79) 『위서』 권103 열전91 연연 “和平五年(464)，吐賀眞死，子予成立，號受羅部眞可汗，魏言惠也。自稱永康元年，率部侵塞，北鎮遊軍大破其衆。”

80) 『위서』 권103 열전91 연연 “皇興四年(470)，予成犯塞，車駕北討。(중략)乃選精兵五千人挑戰，多設奇兵以惑之，虜衆奔潰。逐北三十餘里，斬首五萬級，降者萬餘人，戎馬器械不可稱計。旬有九日，往返六千餘里。”

81) 『자치통감』 권133 송기15 창오왕 원휘 2년(474) “癸巳，柔然寇魏敦煌，尉多侯擊破之。”

82) 유연 역시 송나라 다음에 이어지는 남제의 이런 점을 이용하여 여성 가한 자신을 ‘나[吾]’, 남제 황제 소도성을 ‘족하(足下)’ 라고 표현하며 대등함을 과시했다(『남제서』 권59 열전40 예예로 “二年，三年，芮芮主頻遣使貢獻貂皮雜物。與上書欲伐魏虜，與上書欲伐魏虜，謂上足下，自稱吾。”)。

83) 유연은 402~410년 사륜(社崙) 가한 때 대흥안령 산맥까지 영향을 미쳤고 414~429년 대단(大檀) 가한 때 지두우와 고막해 거란에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436년 북위의 북연 정벌로 인해 그곳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李在成, 1996, 『庫莫奚部·契丹部の 교역과 契丹 『八部聯盟』』,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168쪽.)。

방을 차지하여 고막해와 거란에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유연은 이들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해야 했다.<sup>84)</sup> 고구려와 유연은 북위 견제라는 공동 목표가 있었기에 접하고 친선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양국이 언제 교섭을 시작하여 동맹을 맺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다음 사료는 고구려와 유연이 어느 시기에 처음 교섭했는지 단서를 제공한다.

- ㉞-1. (원가) 27년(450) (중략) “그[송나라 문제(文帝)]가 지난날 북쪽으로 예예[유연]와 통모하고, 서쪽으로 혁련(발발)·(저거)몽손과 연결하며, 동쪽으로 풍흥·고(구)려와 연합하였는데, 무릇 이들 여러 나라는 내[북위]가 모두 멸하였다. 이로 보건대, 그가 어찌 독립할 수 있겠는가?”<sup>85)</sup>
- ㉞-2. (대명) 7년(463)에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 “사지절 산기상시 독평·영이주제군사 정동 대장군 고구려왕 낙랑공 (고)련은 대대로 충의로 (짐을) 섬겨 바다 밖 번병이 됐소. 조정에 충성을 다하여 포악 잔인하고 험한 무리를 없애는데 뜻을 두었고, 사표 [유연]와 통역하여 짐의 덕화를 능히 떨쳤소. 마땅히 벼슬을 더하여 절의를 드러내려 하오. 이에 거기대장군과 개부의동삼사로 삼고, 지절·상시·도독·왕·공의 칭호는 그대로 인정하오.”<sup>86)</sup>
- ㉞-3 연흥 2년(472) (중략) 또 고(구)려의 불의와 잘못은 하나뿐이 아닙니다. 겉으로 외효처럼 번병의 겸손한 말을 지껄이면서도, 속으로 흉악하고 저돌한 행위를 품고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유씨[송나라]와 통혼하고, 북쪽으로 연연[유연]과 맹약하기도 하여 서로 순치를 이루면서 왕략을 짓밟으려 합니다.<sup>87)</sup>

사료 ㉞-1은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송나라가 자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북연과 고구려, 서쪽으로 혁련발발(赫連勃勃)이 세운 대하(大夏)와 저거몽손(沮渠蒙遜)이 세운 북량(北凉), 북쪽으로 유연과 환상(環狀) 포위망을 구축했음<sup>88)</sup>을 북위도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이 사료를 송나라 중심의 대북위 환상 포위망에서 고구려가 송나라·유연과 군사 동맹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sup>89)</sup> 하지만 이를 사실 그대로 보기보단 고구려가 북위-송나라 상

84) 李在成, 1996, 「庫莫奚部·契丹部の 교역과 契丹 『八部聯盟』」,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168쪽; 2002, 「4~5世紀 高句麗와 契丹」, 『高句麗研究』 14, 高句麗研究會 38쪽; 余昊奎, 2018, 「5세기 후반 高句麗·勿吉의 충돌과 북방 接境空間의 변화」, 『中央史論』 47, 中央大學校 中央史學研究所 195쪽.

85) 『송서』 권95 열전 제55 삭로 “(元嘉)二十七年, (중략) ‘彼往日北通芮芮, 西結赫連, 蒙遜, 吐谷渾, 東連馮弘, 高麗. 凡此數國, 我皆滅之. 以此而觀, 彼豈能獨立.’”

86) 『송서』 권97 열전 제57 고구려국 “(大明)七年, 詔, ‘使持節·散騎常侍·督平營二州諸軍事·征東大將軍·高句驪王·樂浪公·世忠義, 作藩海外. 誠係本朝, 志剪殘險, 通譯沙表, 克宣王猷. 宜加褒進, 以旌純節. 可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 持節·常侍·都督·王·公如故.’”

87) 『위서』 권100 열전 제88 백제국 “延興二年, (중략) 且高麗不義, 逆詐非一, 外慕隗囂藩卑之辭, 內懷兇禍豕突之行. 或南通劉氏, 或北約蠕蠕, 共相唇齒, 謀陵王略.”

88) 노태돈, 1999,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304~306쪽.

89) 朴漢濟, 1987, 「北魏의 對外政策과 胡漢體制」, 『歷史學報』 116, 歷史學會 33~34쪽; 金鐘完, 1995, 「中外間의 使行」, 『中國南北朝史研究-朝貢·交聘官契를 중심으로-』, 一潮閣 80~86쪽; 孔錫龜,

쟁 속에서 중립 전략을 내세웠다고 보거나<sup>90)</sup>, 대북위 환상 포위망이 구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sup>91)</sup> 즉, 송나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 사료를 통해 송나라가 고구려, 유연과 각각 관계를 맺은 상태는 맞다고 볼 수 있다.

사료 ㉔-2에 나오는 사표(沙表)는 사막 바깥에 있는 나라인 유연<sup>92)</sup>을 가리킨다. 송나라 세조가 자국과 유연을 통역하게 해 준 고구려 장수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고구려가 송나라와 유연 사이에서 중개해줬음<sup>93)</sup>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463년 이전 가까운 시기에 고구려와 유원이 접촉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㉔-3은 백제 개로왕이 북위에 고구려가 유연과 맹약했음을 알리면서 청병하는 기사로 백제도 고구려와 유연이 동맹 관계를 맺었음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472년 이전

- 1998, 「5~6세기 高句麗의 對外關係」,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280쪽; 노태돈, 1999,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304~309쪽.
- 90) 해당 기사가 송나라를 중심으로 주변국을 포섭한 ‘대북위 포위전략’으로 북위를 위협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러한 대북위 포위전략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북위가 송나라를 치기 전에 북연과 대하, 북량을 먼저 정벌하고 유연을 공략한 뒤 송나라를 치고자 했는데 이때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았음은 고구려가 북위에 적대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북위가 고구려를 적대 세력으로 인식했지만, 사방에 적대국으로 둘러싸인 상황이어서 국제정세를 완전히 주도할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북위의 한계를 고구려가 풍흉 사건(438), 대송 군마 800필 조공(439) 등으로 북위에 적대시 하지 않을 것이며, 한편으로 송나라에 군사 제휴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송나라와 북위의 대결에 빠져들지 않는 중립 전략으로 이용하고자 했다고 보는 것이다(이성제, 2005, 「長壽王代 對宋外交와 그 意義」, 『고구려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97~104쪽.).
- 91) 김진한, 2020, 「長壽王代 對宋外交와 그 意義」,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71~73쪽; 여호규, 2022, 「5세기 초·중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구려의 외교정책」, 『역사와 현실』 124, 한국역사연구회 144~146쪽.
- 92) 최근에 459년 고구려가 숙신(肅愼) 사신을 데리고 송나라에 조공한 기사에서 통역했다는 사료[『송서』 권6 본기6 효무제 대명 3년 11월에 “己巳, 高麗國遣使獻方物. 肅愼國重譯獻楛矢石磬. 西域獻舞馬.”]에 주목해서 사료 ㉔-2에 나온 사표를 ‘외진 곳’, ‘변방’, ‘세상 끝 먼 나라’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유연이 아닌 숙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백다해, 2024, 「5세기 高句麗와 柔然의 교섭과 蒙古草原路」, 『역사문화연구』 9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2~13쪽.). 즉, 고구려 사신이 숙신 사신을 송나라에 통역해준 459년 내용을 사료 ㉔-2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았다. 사표를 ‘변방’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료 ㉔-8에서 유연 북쪽에 사막을 건너 한해[바이칼호]가 있다고 표현했고 유연 자국을 스스로 사막으로 표현하기도 했다(『남제서』 권59 열전 제40 예예로 “雖吳漢殊域, 義同唇齒, 方欲剋中原, 龔行天罰.”). 또한 『송서』 권96 열전 제56 선비토욕혼에 “其國西有黃沙, 南北一百二十里, 東西七十里, 不生草木, 沙州因此爲號.”처럼 ‘모래 사(沙)’는 ‘사막 막(漠)’처럼 사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할 듯하다. 만약 사막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면 숙신을 표현할 때 굳이 사표라고 사용했을지 의문이며, 사표 앞에 나오는 “포악 잔인하고 험한 무리를 없애는데 뜻을 두었다[志剪殘險].”라는 문장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북위를 의미하는데 그다음에 북위를 견제할 만큼 강한 존재가 언급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93) 앞서 본 것처럼 기존에 이 사료를 고구려가 송나라와 유연과 함께 북위를 견제하고 포위하는 주요 근거로 보았으나, 당시 고구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보면 고구려가 일방으로 외교를 전개했으므로 송나라와 유연의 의사를 중개해 주는 게 ‘대북위 전략’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이에 고구려는 송나라와 유연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수준이었을 뿐인데, 후에 고구려가 대북위 관계를 재개하자 송나라는 이에 맞서 고구려의 중개를 높이 칭송하며 양국의 우호를 강조했다고 보기도 한다(이성제, 2005, 「長壽王代 對宋外交와 그 意義」, 『고구려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98~99쪽 각주 42). 한편 이러한 고구려의 송나라-유연 중개는 440~450년대에 고구려와 유연이 같이 송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기록이 없으므로 그 당시로 보긴 어렵다고 본다. 463년 6월 고구려와 유연이 송나라에 동시에 사신을 파견한 기록을 근거로 사료 ㉔-2는 이 당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본다(여호규, 2022, 「5세기 초·중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구려의 외교정책」, 『역사와 현실』 124, 한국역사연구회 146~147쪽.).

에 고구려와 유연이 동맹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463년 이전에 고구려와 유연이 접촉했음은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436년 북위가 북연을 멸망시켰을 때 유연이 북위를 공격했고<sup>94)</sup>, 고구려는 풍흉을 망명시키기 위해 화룡을 둘러싸고 북위와 대치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북연을 통해서 고구려는 유연과 430년대 말<sup>95)</sup>에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고구려는 물길과 북위의 연결을 차단하고, 유연은 북위에 빼앗긴 고막해와 거란 지배권을 탈환하고 강화하기 위해 송나라와 함께 북위를 공격하려는, 서로 다르지만 북위 견제라는 공동 목표를 가졌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곳이 유연의 동남쪽, 고구려의 서북쪽에 있는 지두우였다. 고구려가 주도하여 유연이 동의하고 지두우 분할 계획을 실시하게 된다.

## 2.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결과

선행연구에서 지두우 분할 계획을 부정<sup>96)</sup>하기도 했지만, 미수로 끝났다고 보는 견해<sup>97)</sup>, 시도했지만 실패 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견해<sup>98)</sup>, 시도하여 성공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sup>99)</sup>

94) 『위서』 권103 열전 제91 연연 “至太延二年(436), 乃絶和犯塞.”

95) 노태돈, 1999,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307쪽 ; 박정기, 2006, 「5~6세기 高句麗와 北魏 관계의 추이- 文昭皇后 高氏의 등장과 관련하여 -」, 『지역과 역사』 19, 부경역사연구소 99쪽 ; 백다해, 2024, 「5세기 高句麗와 柔然의 교섭과 ‘蒙古草原路」, 『역사문화연구』 91,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1쪽.

96) 津田左右吉, 1964, 「勿吉考」, 『津田左右吉全集(滿洲歴史地理研究2)』 12, 岩波書店.

97) 千寛宇, 1979, 「廣開土王陵碑再論」,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一潮閣 ; 朴元吉, 2002, 「高句麗와 柔然·突厥의 關係」, 『高句麗研究』 14, 高句麗研究會 ; 姜仙, 2003, 「高句麗와 北方民族의 關係 연구 : 鮮卑·契丹·柔然·突厥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제,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과 對北魏關係의 定立」, 『고구려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 宋基豪, 2008, 「5세기 후반 高句麗의 북방 경계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 박원길, 2019, 「돌궐 비문에 등장하는 타타브(Tatabi)의 실체(實體)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 지두우(地豆于)·습(靺)·백습(白靺)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몽골학』 59, 한국몽골학회 ; 김진한, 2020,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98) 李龍範, 1959, 「高句麗의 遼西進出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4, 韓國史學會 ; 盧泰敦, 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東方學會 ; 李在成, 1993, 「契丹 ‘古八部’聯盟의 形成과 解體」, 『東國史學』 27, 東國歷史文化研究所 ; 李在成, 1996, 「庫莫奚部·契丹部の 교역과 契丹 『八部聯盟』」,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 노태돈, 1999,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이인철, 2000, 「고구려의 북진경영」,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 李在成, 2002, 「4~5世紀 高句麗와 契丹」, 『高句麗研究』 14, 高句麗研究會 ; 이재성, 2011, 「高句麗 · 契丹 關係史 - 4세기 말기에서 6세기 후기까지 -」, 『한국전통문화연구』 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 김락기, 2013, 「5세기 중반~6세기 중반 물길의 흥망과 고구려 강역의 변화」, 『고구려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靺鞨』, 景仁文化社 ; 노태돈, 2015, 「고구려의 대외관계와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 『東洋學』 58,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 余昊奎, 2018, 「5세기 후반 高句麗 · 勿吉의 충돌과 북방 接境空間의 변화」, 『中央史論』 47, 中央大學校 中央史學研究所 ; 백다해, 2024, 「5세기 高句麗와 柔然의 교섭과 ‘蒙古草原路」, 『역사문화연구』 91,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99) 朴京哲, 1989, 「高句麗 軍事戰略考察을 위한 一試論 - 平壤遷都 以後 高句麗軍事戰略의 志向點을 中心으로 -」, 『史學研究』 40, 韓國史學會 ; 손영중, 1997, 『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徐吉洙, 1999, 「내몽골 大興安嶺 주변 歷史遺蹟 踏查記 - 1997년 8월 16일~8월 24일 -」, 『高句麗研究』 7, 高句麗研究會 ; 朴京哲, 2003, 「高句麗 ‘民族’問題 認識의 現況과 課題」, 『韓國古代史研究』 31, 韓國古代史學會 ; 朴京哲, 2003, 「高句麗 異種族支配의 實相」, 『韓國史學報』 15, 高麗史學會 ; 朴京哲, 2005, 「高句麗의 東蒙古經略」, 『白山學報』 71, 白山學會 ; 尹秉模, 2011, 「長壽王代 前後

등 사실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다. 고구려와 유연이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분할 계획을 실시했는데 해당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㉔-1. 태화 3년(479)에 고구려가 몰래 연연[유연]과 모의하여 지두우를 취해서 나누고자 하였다. 거란이 침공을 두려워하여 막불하 물우가 부락의 수레 3천 승과 무리 1만여 명을 거느리고 가축을 몰아서 (북위에) 내부하기를 구하며 백랑수 동쪽에 머물렀다. 이 해부터 항상 조공했다.<sup>100)</sup>
- ㉔-2. 후위[북위] 때에 고(구)려의 침략을 받았는데, 부락 1만여 명이 내부하기를 구하며, 백비하[백랑수]에 머물렀다.<sup>101)</sup>
- ㉔-3. 기수 8부는 고(구)려와 연연[유연]의 침략을 받았을 때 겨우 1만 명으로 원위[북위]에 귀부했다.<sup>102)</sup>
- ㉔-4. 원위[북위] 말에 막불하 물우가 고(구)려와 연연[유연]의 침략과 꺾박을 두려워하여 수레 3천 승과 무리 1만 명을 거느리고 내부하였다. 곧 기수 가한의 옛 영토를 떠나 백랑수 동쪽에 거주하였다.<sup>103)</sup>

사료 ㉔-1만 보면 고구려와 유연이 지두우를 분할하고자 했다고 언급했을 뿐 직접 실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후 거란의 일부 부족인 막불하(莫弗賀) 물우(勿于)가 무리를 이끌고 백랑수(白狼水) 즉, 오늘날 대릉하 서쪽 상류 방면으로 피신했음을 보여준다.<sup>104)</sup> 이 역시 거란이 침공받기 전에 행동한 조치처럼 보인다. 이 사료만 보고, 지두우 분할 계획을 실행했는지 알기 어렵다. 그런데 사료 ㉔-2를 보면 고구려가 거란을 공격했고 그 결과 거란이 백랑수로 피신한 것으로 기술했다. 이것만 보면 지두우 분할 계획에서 고구려만 실행한 것처럼 보인다.

사료 ㉔-3과 4에 서술한 기수(奇首)는 거란의 선조인 기수 가한을 가리키는데,<sup>105)</sup> 이 사료를 보면 고구려와 유연이 같이 공격을 했고 그에 따라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종합해보면 거란 일부 부족인 막불하 물우가 대릉하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정작 분할 대상인 지두우가 아니라 거란의 일부인 막불하 물우가 피신했다. 그런데 사료 ㉔-1에서 수레 3천과 무리 1만 명, 가축을 몰고 피란을 떠났다는 점<sup>106)</sup>이 주목된다. 이는 대규모 집단이 이동했

高句麗의 遼西進出과 西方境界」, 『高句麗의 遼西進出 研究』, 景仁文化社.

100) 『위서』 권100 열전 제88 거란국 “太和三年, 高句麗竊與蠕蠕謀, 欲取地豆于以分之. 契丹懼其侵軼, 其莫弗賀勿于率其部落車三千乘·衆萬餘口, 驅徙雜畜, 求入內附, 止於白狼水東. 自此歲常朝貢.”

101) 『수서』 권84 열전 제49 거란 “當後魏時, 爲高麗所侵, 部落萬餘口求內附, 止于白狼河.”

102) 『요사』 권32 지 제2 영위지 중 “奇首八部爲高麗·蠕蠕所侵, 僅以萬口附于元魏.”

103) 『요사』 권32 지 제2 영위지 중 “元魏末, 莫弗賀勿于畏高麗·蠕蠕侵逼, 率車三千乘, 衆萬口內附. 乃去奇首可汗故壤, 居白狼水東.”

104) 조양 인근으로 보기도 한다(尹秉模, 2011, 「長壽王代 前後 高句麗의 遼西進出과 西方境界」, 『高句麗의 遼西進出 研究』, 景仁文化社 117~118쪽.).

105) 『요사』 권32 지 제2 영위지(營衛志) 중 “契丹之先, 奇首可汗, 生八子. 其後族屬漸盛, 分爲八部, 居松幕之間. 今永州木葉山有契丹始祖廟, 奇首可汗, 可敦併八子像在焉. 黃河之西, 土河之北, 奇首可汗故壤也.”

음을 암시하는데, 단순 침공 소식이 아닌 무언가 무력 충돌을 당했기에 피란을 떠난 상황으로 보인다. 결국 고구려와 유연이 지두우를 먼저 공격한 것인지 거란을 먼저 공격한 것인지가 관건인데 설블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479년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다.

- ㉠-1. 건원 원년(479) 8월에 예예[유연] 군주가 기병 30만을 동원하고 남쪽으로 위로 [북위]를 침공하여 평성에서 700리 떨어진 곳까지 이르렀다. 위로는 막아서 지켜낼 뿐 감히 싸우지 못했다. 예예 군주는 연연산 기슭에서 제멋대로 함부로 사냥하다가 돌아갔다. 황상[소도성=고제]께서 비로소 즉위하셨기 때문에 군대를 보낼 여유가 없었다.<sup>107)</sup>
- ㉠-2. [태화 3년(479)] 9월 경신일(21일)에 고(구)려·토욕혼·지두우·거란·고막해·구자 여러 나라가 각각 사신을 보내 조헌하였다.<sup>108)</sup>
- ㉠-3. [11월 계축일(15일)] 황상[소도성]이 송나라를 보필할 때, 효기장군 왕홍범을 파견하여 유연에 사신으로 보내서 함께 (북)위를 공격하기로 약속했다. (왕)홍범은 축에서 토욕혼으로 나아가서 서역을 거쳐서 마침내 도착했다. 이때에 이르러 유연의 기병 10여 만은 (북)위를 공격했는데, 변새까지 왔다가 돌아갔다.<sup>109)</sup>
- ㉠-4. 건원 원년(479), (중략) 11월 (중략) 거란 막하불 물간(=막불하 물우)이 부락 1만여 명을 인솔하여 (북)위에 귀부하고 백량수 동쪽에 거주하였다.<sup>110)</sup>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신라와 백제는 왕이 새로 즉위하였고, 이런 정보가 고구려에 알려졌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고구려가 남진정책을 하기에 알맞은 상황이었을 것인데, 한편으로 북방 외교에 주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남제는 송나라가 멸망하고 비로소 건국했기에 북위의 침입을 대비해야 했다. 즉, 북위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남제를 몰아낼 수 있겠지만 유연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는 잠시나마 남방 전선에서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유연은 화친을 가장하여 북위가 남제를 공격하도록 유도하고 남제와 함께 북위를 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본 사료 ㉠와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지두우 분할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479년 어느 시기에 지두우 분할 계획을 실시했는지 보도록 하겠다. 선행 연구에서 시기를 거

106) 유라시아 초원에 거주하던 유목민은 대체로 성인 한 사람당 말 한 마리는 있어야 했으며,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다른 동물도 필요했다(하자노프, 金浩東 역, 1990, 『遊牧社會의 構造』, 지식산업사 63~64쪽.). 이러한 것으로 보아 가축 규모도 말 1만 마리 이상은 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107) 『남제서』 권59 열전40 예예로 “建元元年八月, 芮芮主發三十萬騎南侵, 去平城七百里. 魏虜拒守不敢戰. 芮芮主於燕然山下縱獵而歸. 上初踐阼, 不遑出師.”

108) 『위서』 권7 제기7상 고조 태화 3년 “九月庚申, 高麗·吐谷渾·地豆于·契丹·庫莫奚·龜茲諸國各遣使朝獻.”

109) 『자치통감』 권135 남제기1 고제 건원 1년 “上之輔宋也, 遣驍騎將軍王洪範使柔然, 約與共攻魏. 洪範自蜀出吐谷渾, 曆西域, 乃得達. 至是, 柔然十餘萬騎寇魏, 至塞上而還.”

110) 『자치통감』 권135 남제기1 고제 건원 1년 “建元元年, (중략) 十一月 (중략) 契丹莫賀弗勿干帥部落萬餘口入附于魏, 居白狼水東.”

을 12월로 추정된 바 있지만<sup>111)</sup> 사료 ㉔-4를 보면 막불하 물우가 11월에 백량수로 피란왔으므로 11월 또는 그 이전으로 보아야 옳다. 고구려는 3월에 사신을 파견<sup>112)</sup>하여 북위 정세를 파악했을 것이며, 이후 장수왕은 지두우 분할 계획을 구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 ㉔-1을 보면 고구려가 몰래 유연과 모의했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그리고 사료 ㉔-2에서 고구려, 사료 ㉔-3과 ㉔-4에서 고구려와 유연이라고 표기한 점 역시 주목할만한데 이 역시 고구려가 먼저 유연에 제의했기에 고구려를 가장 앞에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3월 이후 고구려가 유연에 먼저 지두우 분할 계획을 제안했고 유연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료 ㉔-1은 지두우 분할 계획과 직접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연 입장에서 보면 남제와 같이 북위를 협공할 계획이었고 북위의 시선을 돌려서 동쪽에서 고구려와 지두우를 분할 계획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유연은 북위 공격을 주목적으로, 지두우 공격은 소규모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구려와 유연이 8월에 지두우로 군사활동을 시작했을 것이다.

사료 ㉔-2를 보면 9월에 고구려뿐 아니라, 지두우, 거란, 고막해도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다. 고구려는 8월에 유연과 지두우 분할 계획을 실시하면서 북위가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북위 정세를 살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지두우는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와 유연이 침략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 거란도 지두우 남쪽에 있었으므로 지두우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유연에 피해를 입어서 북위에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구려는 484년까지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한편, 11월에 남제가 북위에 약탈당했을 뿐 아니라 반란이 일어나 민심이 흉흉해졌다.<sup>113)</sup> 남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했으므로 사료 ㉔-3에서 ㉔-1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역시 유연의 주목적은 북위를 공격하는 것이지만 지두우 분할 계획도 그 일환으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사료 ㉔-4에서 보는 것처럼 거란 일부 부족인 막불하 물우가 늦어도 10월 말에 피란을 떠났을 것으로 보이며, 11월에 대릉하로 피란한 것으로 보인다.<sup>114)</sup> 즉, 지두우

111) 朴元吉, 2002, 「高句麗와 柔然·突厥의 關係」, 『高句麗研究』 14, 高句麗研究會 12쪽; 尹秉模, 2011, 「長壽王代 前後 高句麗의 遼西進出과 西方境界」, 『高句麗의 遼西進出 研究』, 景仁文化社 114쪽; 박원길, 2019, 「돌궐비문에 등장하는 타타브(Tatabi)의 실체(實體)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 지두우(地豆于)·습(靺)·백습(白靺)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몽골학』 59, 한국몽골학회 34쪽.

112)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67년 “六十七年, 春三月, 遣使入魏朝貢.”

113) 『자치통감』 권135 남제기1 고제 건원 1년 “癸丑, 魏遣假梁郡王嘉督二將出淮陰, 隴西公琛督三將出廣陵, 河東公薛虎子督三將出壽陽, 奉丹楊王劉昶入寇. (중략) 義陽民謝天蓋自稱司州刺史, 欲以州附魏, 魏樂陵鎮將韋珍引兵渡淮應接. 豫章王嶷遣中兵參軍蕭惠朗將二千人, 助司州刺史蕭景先討天蓋, 韋珍略七千餘戶而去. (중략) 南兗州刺史王敬則聞魏將濟淮, 委鎮還建康, 士民驚散, 既而魏竟不至.”

114) 11월 며칠에 도착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사료 ㉔-4는 11월 15일 이후 기사이므로 대략 11월 중후반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목민의 이동 사례로 원나라 때 쿠빌라이 칸이 대도에서 상도로 이동하는 4가지 경로가 있었는데 거리는 대략 750~800리이다. 이를 당척에 따라 km로 환산하면 400.95~427.68km 정도로 규모는 매꾼 1만 명과 매 5천 마리를 데려가며 20~25일 정도 걸렸다(金浩東, 2002, 「몽골帝國 君主들의 兩都巡幸과 遊牧의 習俗」, 『中央아시아研究』 7, 中央아시아學會 12~16쪽.). 이때 하루 이동 거리는 대략 16~20km 또는 17~21km가 나온다. 또한 북위 헌문제(獻文帝) 4년(470)에 유연 여성이 쳐들어오자 이를 막아내면서 북위가 정예군 5천으로 유연을 추격하고 포로 1만명을 노획하는데 이때 6,000리를 19일 동안 왕복했다(『위서』 권103 열전91 연연 “諸將會車駕於女水之濱, 顯祖親誓眾, 詔諸將曰, ‘用兵在奇不在眾也, 卿等為朕力戰, 方略已在朕心.’ 乃選精兵五千

분할 계획은 고구려가 주도하여 3월에 북위에 사신을 파견할 즈음하여 유연에 제의한 것이며 8월<sup>115)</sup>에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돌아와서 지두우 분할 계획 과정에서 거란과 지두우 둘 중 어느 곳을 먼저 공격했으며, 고구려와 유연이 각각 어떻게 지두우를 분할 점령했는지 보도록 하겠다. 우선 고구려가 어느 곳에서 군사를 출병하여 공격할 수 있었을지 상정해 보겠다. 고구려에서 지두우로 나아갈 수 있고 그곳과 가까우면서 고구려 최서북단에 고구려성이 있는 지역으로 태자하(太子河)와 혼하(渾河) 권역에 있는 요양(遼陽)·심양·무순(撫順) 일대, 범하(汎河) 권역에 있는 철령(鐵嶺)·개원(開原) 일대, 북류 송화강 권역에 있는 길림이 출발지로 유력하다.<sup>116)</sup> 하지만 길림은 물길과 상쟁하는 곳이라 출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태자하·혼하 권역, 범하 권역에 있는 성이 출발지로 유력하다. 그럼 두 지역에서 출발할 때 교통로는 어땠을까? 당시 만주 지역과 대흥안령산맥 일대의 교통로를 보면 참고가 된다. 아쉽게도 당대 교통로를 알 순 없지만, 원나라 시기 만주 지역 교통로가 있어서 참고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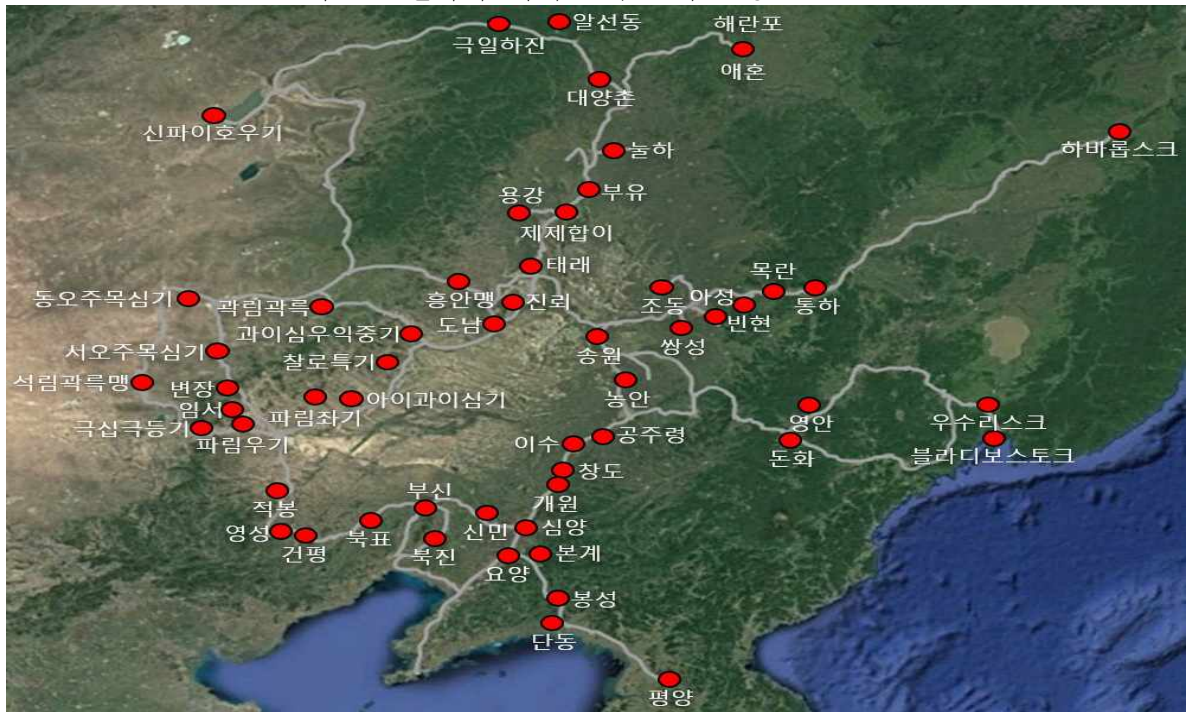
---

人挑戰，多設奇兵以惑之。虜眾奔潰，逐北三十餘里，斬首五萬級，降者萬餘人，戎馬器械不可稱計。旬有九日，往返六千餘里。”。 편도는 그 절반으로 1244.16km 또는 1282.5km로 하루 이동 거리가 대략 130km 또는 135km가 나온다. 이는 말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거란의 피난로를 나만기(奈曼旗) 일대에서 노합하(老哈河)를 따라 대릉하에 있는 객라심좌익(喀喇沁左翼) 일대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거리는 대략 320km가 나온다. 수레 3천 승, 무리 1만 명, 가축을 몰고 가는 것으로 대규모 인원이 이동했으므로 하루 이동 거리를 16~21km로 예상했을 때 대략 15~20일 내외로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115) 최근 연구에서 사료 ㉔-1에 근거하여 이때 지두우 분할 계획을 논의하고 결행한 것은 11월 이후로 보기도 한다(백다해, 2024, 「5세기 高句麗와 柔然的 교섭과 ‘蒙古草原路’」, 『역사문화연구』 9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1쪽.).

116) 주요 고구려성으로 요양에 요동성, 심양에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과 개모성(蓋牟城)으로 추정하는 탑산산성(塔山山城), 무순에 신성(新城)으로 비정하는 고이산성(高爾山城), 철령에 최진보산성(催陣堡山城)·청룡산산성(靑龍山山城), 개원에 용담사산성(龍潭寺山城)·고성자산성(古城子山城)·마가채산성(馬家寨山城)·용만산성(龍灣山城), 길림에 용담산성 등이 있다. 최신 자료는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중은·이경미·정동민, 2020a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 요동반도-태자하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2020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I: 혼하-요하 중상류』 동북아역사재단; 2020c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X: 심양 석대자산성』 동북아역사재단; 2020d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X: 송화강-목단강-두만강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지도2> 원나라 시기 만주 5대 교통로<sup>117)</sup>



①만주 동북로: 하바롭스크~농안(農安) <sup>118)</sup>	하바롭스크(Khabarovsk) → 통하(通河) → 목란(木蘭) → 빈현(賓縣) → 아성(阿城) → 쌍성(雙城) → 농안
②만주 서북로: 애혼(瑗渾)~농안 <sup>119)</sup>	애혼 → 눈강 → 눌하(訥河) → 부유 → 제제합이(齊齊哈爾) → 용강(龍江) → 태래(泰來) → 진뢰(鎮賚) → 도남 → 송원 → 조동(肇東) → 농안
③만주 동남로: 블라디보스토크~농안	블라디보스토크 → 우수리스크 → 영안(寧安) → 둔화(敦化) → 농안
④만주 중심로: 농안~영성(寧城)	농안 → 공주령(公主嶺) → 이수(梨樹) → 창도(昌圖) → 개원 → 심양 → 부신(阜新) → 북표(北票) → 건평(建平) → 영성
⑤만주 남로: 부신~단동(丹東)	부신 → 북진(北鎮) → 신민(新民) → 심양 → 요양 → 본계(本溪) → 봉성(鳳城) → 단동

117) 지도와 표는 윤은숙, 2022, 「元代 滿洲지역의 주요 교통로와 중심 거점 -만주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8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37~39쪽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118) 대흥안령 산맥과 소흥안령 산맥 사이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원나라 때 송화강과 흑룡강의 수계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발달했는데, 1263년에 하바롭스크를 점령하여 1285년 이곳을 정동원수부(征東元帥府)로 개칭한 바 있다. 또한, 병력과 징세를 위해 관원을 파견하는 통로로 군사(軍事) 및 행정과 관련 있는 통로였다(윤은숙, 2022, 「元代 滿洲지역의 주요 교통로와 중심 거점 -만주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8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42~45쪽).

119) 대흥안령 산맥과 눈강 사이에 있는 송눈 평원을 관통하며, 원나라가 나얀(乃顔)의 반란을 진압하고 1293년 조동을 조주(肇州)로 명명했다. 또한 이곳에 1295년 조주둔전만호부(肇州屯田萬戶府)를 설치하여 식량 생산 및 만주 지역에 식량 공급 창고로 활용했다. 이 통로는 몽골로 통하는 물산 중간 집결지로 기능했다(윤은숙, 2022, 「元代 滿洲지역의 주요 교통로와 중심 거점 -만주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8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45~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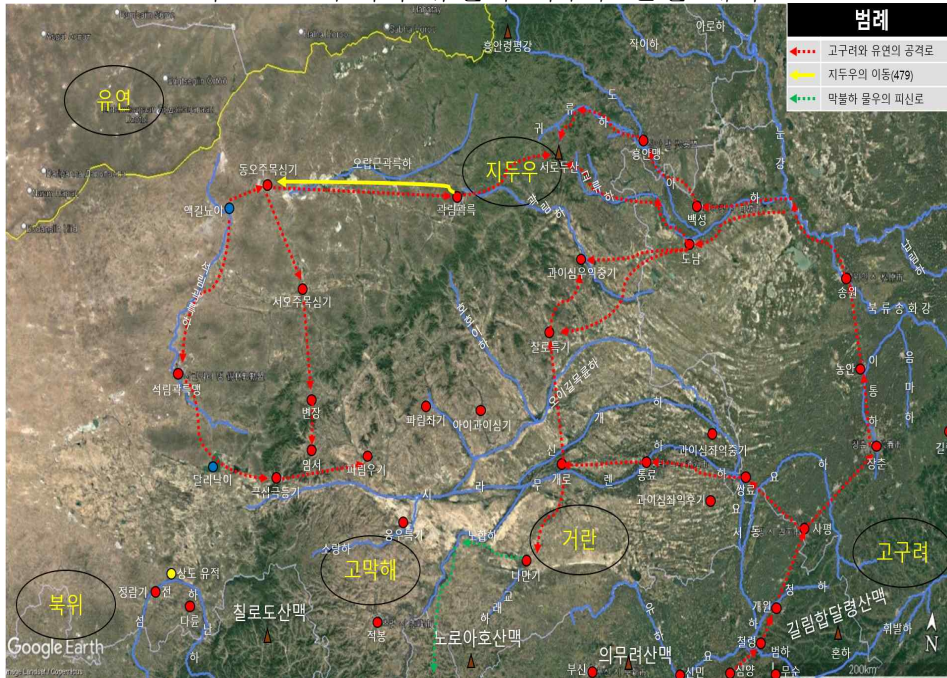
<표1>대흥안령 산맥을 관통하는 교통로<sup>125)</sup>

①동오주목심기~영성	
①-1120)	동오주목심기 → 석림곽락맹 → 극십극등기 → 적봉 → 영성
①-2	동오주목심기 → 서오주목심기 → 변장(邊牆) → 임서(林西) → 파림우기 → 적봉 → 영성
①-3	동오주목심기 → 오랍근곽락하 → 곽림곽락 → 파이심우익중기 → 찰로특기 → 아이파이심기(阿爾科爾沁旗) → 파림좌기 → 파림우기 → 적봉 → 영성
②동오주목심기~도남	
②-1121)	동오주목심기 → 오랍근곽락하 → 도아하 → 흥안맹 → 도남
②-2122)	동오주목심기 → 오랍근곽락하 → 곽림곽락 → 곽림하 → 과우심우익중기 → 도남
③동오주목심기~부유 <sup>123)</sup>	
동오주목심기 → 오랍근곽락하 → 곽림곽락 → 파이심우익중기 → 흥안맹 → 도남 → 진퇴 → 태래 → 용강 → 제제합이 → 부유	
④신파이호우기~부유 <sup>124)</sup>	
신파이호우기(新巴爾虎右旗) → 극일하진 → 알선동 → 대양촌 → 눈강 → 부유	

이러한 교통로를 참고하여 고구려가 지두우로 나아가는 통로는 심양이나 사평에서 출발해서 지두우로 나아가는 길로 가정해볼 수 있겠다. 지도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20) 388년 북위 도무제(道武帝)가 시라무렌하에 이르러 고막해를 공격했던 통로다(『위서』 권100 열전 제88 고막해국 “登國三年, 太祖親自出討, 至弱洛水南, 大破之, 獲其四部落, 馬牛羊豕十餘萬.”).
- 121) 1195년 금나라가 호륜호와 건이호 일대에 있는 몽골을 정벌할 때 완안종호(完顏宗浩)가 이용했고, 1213년 몽골이 금나라가 차지한 눈강, 송화강 일대를 점령했을 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만주국에 선전포고하여 진격했을 때 이용했다(박원길, 2019, 「돌궐비문에 등장하는 타타브(Tatabi)의 실체(實體)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 지두우(地豆于)·습(靺)·백습(白靺)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몽골학』 59, 한국몽골학회 35~43쪽).
- 122) 금나라와 원나라 때 사용했던 동서교통의 주요 간선이었으며, 1287년 원나라 시기에 나얀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진압군 장군 토토카(土土哈)가 이 길을 이용하여 진압했으며, 명나라 영락제(永樂帝)가 몽골을 3차 원정(1422), 5차 원정(1424)할 때 이용했다(박원길, 2019, 「돌궐비문에 등장하는 타타브(Tatabi)의 실체(實體)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 지두우(地豆于)·습(靺)·백습(白靺)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몽골학』 59, 한국몽골학회 35~43쪽).
- 123) 실위가 북위와 교섭했을 때 이용했던 통로에 해당한다. 『위서』에서 화룡~실위로 가는 길을 묘사한 철수[곽림하] → 개수[귀류하] → 독료산[태평령] → 굴리[작이하] → 인수[아로하]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 앞서 『위서』에서 지두우의 위치를 실위 서쪽으로 표기한 이유도 북위~실위 사이에 지두우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 124) 대흥안령 산맥 동북쪽에서 서쪽으로 통하는 곳으로, 오라후가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을 때 이용하는 통로였다. 『위서』에서 오라후의 위치를 지두우의 북쪽에 있다고 서술한 것도 북위와 오라후가 교통할 때 지두우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 125) 표는 朴京哲, 2005, 「高句麗의 東蒙古經略」, 『白山學報』 71, 白山學會 137~149쪽, 박원길, 2019, 「돌궐비문에 등장하는 타타브(Tatabi)의 실체(實體)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 지두우(地豆于)·습(靺)·백습(白靺)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몽골학』 59, 한국몽골학회 35~47쪽, 여호규, 2022, 「만주 지역의 자연환경과 교통로」, 『中央史論』 55, 中央大學校 中央史學研究所 198~207쪽, 윤은숙, 2022, 「元代 滿洲지역의 주요 교통로와 중심 거점 -만주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82,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37~39쪽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지도3>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계획도



진격로㉠	심양 → 개원 → 사평 → 쌍료 → 통료 → 개로 → 찰로특기 → 파이심우익중기
진격로㉡	사평 → 장춘 → 농안 → 송원 → 백성 → 흥안맹 → 귀류하
진격로㉢	사평 → 장춘 → 농안 → 송원 → 도남 → 교류하

앞서 지두우의 중심지를 대흥안령 서쪽 광림곽과 동쪽 파이심우익중기로 비정한 바 있다. 대흥안령 산맥에 있는 서로두산(西老頭山)을 기준으로 서쪽의 광림곽은 유연이, 동남쪽의 파이심우익중기는 고구려가 나누어 가지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할 점령했을 때 대흥안령 산맥이라는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양자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이득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고 실행했을 것이다.

<지도3>에서 보듯이 고구려는 찰로특기와 도남에 군대를 집결시켜서 파이심우익중기 또는 교류하, 귀류하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진격로㉠은 거란을 통과하지 않지만, 거란 북쪽 시라무렌하를 지나가야만 한다. 앞서 논증한 대로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계획은 8월에 시작했고 거란이 479년 9월에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다. 11월에 막불하 물우가 대릉하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가 지두우를 먼저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사료 ㉠-2처럼 거란도 피해를 입어서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26)</sup>

고구려는 파이심우익중기와 찰로특기를 점령함<sup>127)</sup>으로써 물길이 북위와 연결하는 교통로를

126) 고구려는 이미 거란과 378년 소수림왕 때 고구려를 약탈하면서 처음 접했고, 광개토왕 때인 391년 거란을 공격하여 백성 1만 명을 귀환시킨 적이, 395년 패려를 공격하여 수많은 가축을 획득한 바 있다. 고구려는 지두우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거란의 약탈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필요가 있었고 거란에서 식량과 군마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공격했을 것으로 보인다.

127) 고구려가 어떻게 지두우 지역을 지배했는지 자세히 알 순 없다. 고구려의 지배 방식을 보면 군사

차단할 뿐 아니라 오락후, 실위 등이 북위와 교섭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지두우는 양이 많고 명마가 나오며, 오탁이 없다는 기록<sup>128)</sup>이 주목된다. 지두우에서 나오는 명마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곳에 곡물을 수출하여 이득을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sup>129)</sup> 고구려는 이미 450년대 읍루산 담비 가죽을 송나라에 중계무역한 바 있다.<sup>130)</sup> 이와 마찬가지로 지두우 뿐 아니라 유연에 곡물을 수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몽골초원에서 사는 유목민은 초원을 돌아다니며 가죽을 주식으로 생활했지만, 외부에서 조달하는 곡물 역시 생활하는데 중요한 식량이었다.<sup>131)</sup> 마찬가지로 유연도 유목생활을 하는 집단이었으므로 곡물이 필요했을 것이다.<sup>132)</sup> 유연은 광림광목을 정복하여 고막해와 거란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명마를 획득하여 전투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유연은 토욕혼을 통해서 송나라에 이어 남제와 교류했다.<sup>133)</sup> 원래 한나라 때부터 있었던 서역로인 하서로(河西路)를 통해 교류가 가능했지만, 북위가 이곳을 장악하여 간섭했기 때문에 불가능해졌다. 이에 오늘날 청해성(青海省) 일대에 있던 토욕혼을 통해서 교류하는 하남로(河南路)를 택하게 됐다.<sup>134)</sup> 유연

요충지에 거점식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리던 거점 지배에서 고국원왕과 소수림왕 이후 점(占) 대신 면(面)에 기초한 지배 방식으로 전환된 권역 지배 방식으로 바뀌었다(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69~288쪽.). 시기상 권역 지배 방식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두우 지역에 성터는 발견되지 않아서 그곳에 성을 쌓아 지배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다만 지두우로 나아갈 수 있는 지역인 개원 지역에 있는 성을 통해 관할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주고구려비(忠州高句麗碑)』와 『일본서기』를 보면 고구려는 신라 영토에 지휘관과 군대를 주둔한 적이 있다. 이처럼 지두우에 군대를 주둔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128) 『위서』 권100 열전 제88 지두우국 “多牛羊, 出名馬, 皮爲衣服, 無五穀, 惟食肉酪.”
- 129) 고구려에서 재배했던 곡물로 콩[豆], 기장[黍], 피[稷], 맥[麥], 삼[麻], 벼[禾·米], 조[粟] 등이 있다. 콩은 대체로 만주와 한반도가 원산지요 요령성 심양 신락(新樂) 유적에서 화분(花粉)이 출토된 바 있다. 기장과 피는 건조한 기후를 잘 견디며 생육 기간이 짧고 수확량이 높은 곡물이다. 맥은 보리 외에도 귀리나 밀 등을 의미하는데 보리는 대맥(大麥), 밀은 소맥(小麥)으로 구분하며 평양 대성산성(大城山城)에서 출토된 바 있다. 삼은 옷을 만드는 작물이지만 씨앗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벼, 즉, 쌀은 문헌자료와 고분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백제와 신라에 비해 활발히 재배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역시 기장처럼 건조한 조건에서 잘 자라며 수확량이 높은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朴唯美, 2014, 「高句麗 飲食文化史 研究」,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4~59쪽. 쌀은 대체로 귀한 편이었으므로 콩, 기장, 피, 맥 등을 수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옥저의 해산물을 중계무역했을 것으로 보인다. 옥저는 일찍이 고구려에 예속당해서 해산물, 소금 등을 고구려에 조세로 납부했다(『삼국지』 권30 위서30 열전 오환선비동이 동옥저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稅, 貂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유목민에게 해산물도 귀한 물품이었으므로 고구려에 공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130) 김창석, 2013, 「국제교역망의 형성과 구조」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40~141쪽. 또한 비단 역시 유목민에게 중계무역했을 것으로 보는데(이정빈, 2014, 「5~6세기 고구려의 농목교역과 요서정책」, 『역사와 현실』 91, 한국역사연구회 156~158쪽.), 이때 고구려는 송나라와 교섭하면서 임읍(林邑)이나 토욕혼 등과 직간접으로 교역했을 가능성도 있다(여호규, 2022, 「5세기 초·중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구려의 외교정책」, 『역사와 현실』 124, 한국역사연구회 152~154쪽 및 각주 155.).
- 131) 朴漢濟, 1987, 「北魏의 對外政策과 胡漢體制」, 『歷史學報』 116, 歷史學會 3~4쪽.
- 132) 북위는 유연 땅이 농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위서』 권35 열전 제23 최호 “蠕蠕, 荒外無用之物, 得其地不可耕而食, 得其民不可臣而使, 輕疾無常, 難得而制, 有何汲汲而苦勞士馬也?). 하지만 522년 유연이 곡물을 재배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된다(『위서』 권103 열전 제91 연연 “三年十二月, 阿那瓌上表乞粟以爲田種, 詔給萬石.”).
- 133) 『남제서』 권59 열전40 예예로 “芮芮常由河南道而抵益州.”
- 134) 하서로는 토욕혼로, 청해로(青海路) 등으로 불리는데 이곳에서 유연과 토욕혼의 상인이 활동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金種完, 2001, 「梁職貢圖의 성립 배경」, 『魏晉隋唐史研究』 8,

이 서남쪽으로 토욕혼을 통해서 남제와 교류한 것처럼 지두우가 있던 대흥안령 산맥 통로를 통해서 동쪽으로 고구려와 직접 연결하여 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고구려에서 곡물을 확보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북위를 견제하기가 수월해졌을 것이다.

양자가 지두우를 공평하게 분할하여 북위를 견제하고 초원로<sup>135)</sup>를 확보하여 이곳을 통해 교섭하고, 군사 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479년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계획 이후 지두우는 어떻게 됐는지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음 사료로 보도록 하겠다.

- ㉔-1. 태화 4년(480)에 (고막해가) 문득 새내로 들어와, 지두우가 (고막해를) 약탈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소연하니, 조서로 그들[지두우]을 엄히 책망하였다.<sup>136)</sup>
- ㉔-2. [태화 6년(482)] 2월 갑신일에 지우두국에서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sup>137)</sup>
- ㉔-3. (북위 효문제) 연흥 2년(472) 8월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태화 6년(482)에 이르기까지 조공 사절이 끊이지 않았다. (태화) 14년(490), (지두우가) 빈번히 와서 변새를 침범하니 고조가 정서대장군 양평왕 이에게 조를 내려 그들[지두우]을 공격하도록 했다. 이후 때마다 경사에 조공했고, (동위 효정제) 무정 말(550)까지 조공 사절이 끊이지 않았다.<sup>138)</sup>
- ㉔-4. 고(구)려왕 운[문자명왕]이 멀리 있는 것을 믿고, 병이 있다고 핑계하여 친히 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봉)제가 정색하며 꾸짖었고, 대의로서 깨우치자 운이 이에 복면하여 조서를 받았다. 이에 앞서 거란이 (북위) 변민 60여 구를 노략하였고, 또한 고(구)려에 공략되어 동쪽으로 돌아갔다. (봉)제가 그 상황을 갖추어 (황제에게) 보고하니, (황제가) 서간을 보내 그것을 징집하자 운이 (거란이) 노략해 간 모든 물자를 갖추어서 돌려보냈다.<sup>139)</sup>

479년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계획이 있었고, 이로 인해 거란 막불하 물우도 피해를 입어서 479년 11월 대릉하로 피란을 떠나 북위로 귀부하게 됐다. 그 결과 거란 8부는 붕괴됐으며<sup>140)</sup> 사료 ㉔-4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자명왕 시기인 492~518년 사이에

中國古中世史學會 57~60쪽.

135) 이와 관련하여 몽고초원로(蒙古草原路)로 명명한 바 있다(백다해, 2024, 「5세기 高句麗와 柔然의 교섭과 '蒙古草原路」, 『역사문화연구』 9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1쪽.).

136) 『위서』 권100 열전 제88 고막해국 “太和四年，輒入塞內，辭以畏地豆于鈔掠，詔書切責之.”

137) 『위서』 권7 제기7상 고조 태화 6년 “二月戊申，地豆于國遣使朝貢.”

138) 『위서』 권100 열전 제88 지두우국 “延興二年八月，遣使朝貢，至于太和六年，貢使不絕。十四年，頻來犯塞，高祖詔征西大將軍·陽平王頤擊走之。自後時朝京師，迄武定末，貢使不絕.”

139) 『위서』 권32 열전 제20 봉제(封軌) “高麗王雲恃其偏遠，稱疾不親受詔。軌正色詰之，喻以大義，雲乃北面受詔。先是，契丹虜掠邊民六十餘口，又爲高麗擁掠東歸。軌具聞其狀，移書徵之，雲悉資給遣還.”

140) 거란 8부가 붕괴됐음은 막불하 물우가 대릉하 상류로 북위에 귀부한 것, 거란을 구성했던 몇몇 소국이 485년 물길이가 북위에 사신을 파견할 때 거란이 아닌 물길이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 사료 ㉔-4에서 문자명왕 시기 거란 일부가 고구려에 복속된 상황에서 북위를 약탈한 것, 490년 4월에 지두우가,

있었던 사실로 거란이 고구려에 부庸(附庸)됐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즉, 사료 ㉔-2에서 거란이 고구려의 침입을 받았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분할 대상이었던 지두우는 고구려와 유연의 공격으로 대흥안령 중단 광림광록~과이심우익중지에서 동오주목심기로 이동하게 됐다. 동오주목심기는 유연에 더 가까운 지역인데 양국의 분할 점령으로 양국에서 먼 곳으로 피란을 가는 게 순리에 맞을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가 분할 계획을 주도했고 유연은 같이 분할 점령은 하되 주공격 방향은 북위였다고 전술했다. 유연의 지두우 공격 방향은 고구려에 비해 약했다고 볼 수 있다.<sup>141)</sup>

사료 ㉔-1을 보면 1년 뒤인 480년에 지두우가 고막해를 약탈하여 고막해가 북위에 도움을 요청했다.<sup>142)</sup> 또한 482년에 지두우가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치고[사료 ㉔-2], 490년에 북위를 노략질하지만 보복당했으며, 550년까지 조공을 매년 바쳤다[사료 ㉔-3]. 한편 520년 유연에서 내분이 있었을 때 사력발시발(俟力發示發)이 지두우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기사가 있다.<sup>143)</sup> 479년 이후 지두우는 동오주목심기로 옮겼고 그곳에서 고막해와 북위를 약탈했으며 유연에서 도망 온 사력발시발도 죽임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연은 481년 9월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치면서 북위 공격을 요청했다.<sup>144)</sup> 남제 역시 유연이 그런 것처럼 483년 8월 왕홍범을 다시 유연에 파견<sup>145)</sup>하여 북위의 침입을 대비해나갔다. 유연은 남제와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487년까지 북위에 계속 사신을 파견하면서 침략하지는 않았다. 이는 479년 8월 30만 대군을 이끌고 북위를 공격했을 때, 11월 10

5월에 고막해가 북위를 침범하는 것을 유연의 사주를 받고 실행했다는 전제 등을 근거로 한다. 즉 거란이 북위, 물길, 고구려, 유연의 영향권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李在成, 1996, 『庫莫奚部·契丹部の 교역과 契丹 『八部聯盟』』,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177~180쪽 및 李在成, 2002, 『4~5世紀 高句麗와 契丹』, 『高句麗研究』 14, 高句麗研究會 36~40쪽.). 하지만 지두우와 고막해가 유연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거란과 직접 관련 있지 않으므로 좀 더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

141) 즉, 북쪽은 대흥안령 산맥으로, 동쪽과 남쪽은 고구려의 공격으로 가장 피란하기 적합한 곳은 서쪽 동오주목심기로 볼 수 있다.

142) 지두우가 고구려와 유연에 공격당했는데 1년 뒤 고막해를 공격했다고 하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시기는 떨어지지만 1216년 금나라의 지배를 받던 거란이 몽골의 공격을 받고 쫓겨나서 고려를 침공하여 강동성(江東城)을 점거한 사례와 1359년 원나라의 공격을 받은 홍건적(紅巾賊)이 원나라에 쫓겨 고려로 군대 4만을 이끌고 침입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격을 받아서 쫓겨나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143) 『위서』 권103 열전91 연연 “正光初, (중략) 立醜奴弟阿那瓌. 立經十日, 其族兄俟力發示發率衆數萬以伐阿那瓌. 阿那瓌戰敗, 將弟乙居伐輕騎南走歸國. (중략) 阿那瓌來奔之後, 其從父兄俟力發婆羅門率數萬人入討示發, 破之. 示發走奔地豆于, 爲其所殺.” 고구려와 유연이 지두우를 분할 점령하여 그곳을 차단지(遮斷地)로 만들었고, 사료 ㉔-1과 ㉔-3에서 지두우가 고막해와 북위를 약탈한 내용을 고구려에 부庸돼서 한 행위로 보며, 유연도 유목 봉건제로 지두우를 통치했다가 해당 기사를 기점으로 지두우가 유연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朴京哲, 2005, 『高句麗의 東蒙古經略』, 『白山學報』 71, 白山學會 137~147쪽.). 하지만 주체가 지두우로 돼 있을 뿐 아니라 고구려가 그들을 부庸했다는 논거가 부족하다. 479년 이후 지두우는 여전히 사료상에 존재하므로 멸망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고구려와 유연이 간섭했을 것으로 보기보단, 지두우 스스로 북위에 조공을 보냈고 북위를 약탈했으며, 유연에서 도망 온 사력발시발을 살해한 것으로 보아야 옳다.

144) 『자치통감』 권135 남제기1 고제 건원 3년 “辛未, 柔然主遣使來聘, 與上書, 謂上爲“足下”, 自稱曰“吾”, 遣上師子皮袴褶, 約共伐魏.”

145) 『자치통감』 권135 남제기1 무제 영명 1년 八月, 庚申, 驍騎將軍王洪範自柔然還, 經塗三萬餘里.

여 만 대군을 이끌고 갔을 때 병력을 소모한 것과 관련있을 것이다. 잠시 시간을 벌면서 기존 전략인 화전양면전술을 보여준다. 그리고 485년 12월 두륜 가한은 태평(太平)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하면서 내부결속을 강화해 나갔다.<sup>146)</sup>

지두우 분할 계획 이후 북위는 통일 달성을 위해 480년 1월과 2월 남제를 공격했고<sup>147)</sup> 9월에 10만 대군을 이끌고 구산(胇山)을 포위했다.<sup>148)</sup> 남제는 왕조교체가 막 이루어져 북위의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막아내고 유연과 연합하여 대응했다. 북위는 통일 달성을 위해 남제를 주공격 대상으로 하되 유연의 움직임새를 파악했다.<sup>149)</sup>

고구려와 북위 관계를 보면 고구려는 479년 9월 대북위 사신 파견을 끝으로 한동안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480년 장수왕이 남제에 책봉을 받자, 북위는 고구려 사신 여노를 바다에서 나포하여 소도성을 비판하면서 고구려의 월경외교를 경고했다.<sup>150)</sup> 물론 크게 보복하진 않고 경고하는 선에서 끝나며 고구려는 484년 다시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관계 회복을 하게 되었고<sup>151)</sup>, 이후 거의 매년 사신을 파견했다. 484년 고구려와 북위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위는 바로 사저(使邸)를 둘 때 고구려 사신을 남제 다음으로 우대했다.<sup>152)</sup> 489년까지 이러한 모습이 보이며 남제 사신들은 이에 반발했다.<sup>153)</sup>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북위는 통일 과업으로 남제와 유연 견제를 가장 우선시하되, 고구려와 유연의 연결을 견제하면서 고구려를 우대하여 적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전략을 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북방외교에서 잠시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고구려와 물길 관계를 보면, 물길은 479년 이후 북위 사신 파견이 끊긴다. 그러다가 485년에 후니지(侯尼支)를 북위에 사신으로 파견했다.<sup>154)</sup> 즉, 고구려의 북위 사신 파견, 물길의 북

146) 한편 487년 이후 서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됐고 북위와 화친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김성희, 2022, 「5~6세기 北魏와 柔然 - 征伐과 和親 記事 속에 投影된 衝突과 懷柔의 交叉」, 『中國史研究』 138, 中國史學會 74~75쪽.).

147) 『자치통감』 권135 남제기1 고제 건원 2년 “辛丑, 上祀南郊. 魏隴西公琛等攻拔馬頭戍, 殺太守劉從.” 및 “二月, 丁卯朔, 嘉與劉昶寇壽陽.”

148) 『자치통감』 권135 남제기1 고제 건원 2년 “閏月, 辛巳, 遣領軍李安民循行清·泗諸戍以備魏. 魏梁郡王嘉帥眾十萬圍胇山, 胇山戍主玄元度嬰城固守, 青·冀二州刺史範陽盧紹之遣子與將兵助之.”

149) 북위 역시 유목 출신 국가로 유목 국가인 유연에 물질공급 차단으로 대응하여 힘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이는 한나라 때 무제 이전 흉노에 세폐를 지급하며 화친을 도모했던 외교전략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은 朴漢濟, 1987, 「北魏의 對外政策과 胡漢體制」, 『歷史學報』 116, 歷史學會 3~8쪽.

150)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68년 “六十八年, 夏四月, 南齊太祖蕭道成, 策王爲驃騎大將軍. 王遣使餘奴等, 朝聘南齊, 魏光州人, 於海中得餘奴等, 送闕. 魏高祖, 詔責王曰, ‘道成親弑其君, 竊號江左. 朕方欲興滅國於舊邦, 繼絕世於劉氏, 而卿越境外交, 遠通篡賊, 豈是藩臣守節之義. 今不以一過掩卿舊款, 卽送還藩. 其感怒思愆, 祇承明憲, 輯寧所部, 動靜以聞.’”

151) 『위서』 권7 제기7상 고조 태화 8년 “冬十月, 高麗國遣使朝貢.”

152) 『남제서』 권58 열전39 고려 “虜置諸國使邸, 齊使第一, 高麗次之. 永明七年, 平南參軍顏幼明·冗從僕射劉思數使虜. 虜元會, 與高麗使相次.”

153) 『남제서』 권58 열전39 고려 “幼明謂僞主客郎裴叔令曰, ‘我等銜命上華, 來造卿國. 所爲抗敵, 在乎一魏. 自餘外夷, 理不得望我鑣塵. 況東夷小貊, 臣屬朝廷, 今日乃敢與我躡踵.’ 思數謂僞南部尚書李思沖曰, ‘我聖朝處魏使, 未嘗與小國列, 卿亦應知.’ 思沖曰, ‘實如此. 但主副不得升殿耳. 此閒坐起甚高, 足以相報.’ 思數曰, ‘李道固昔使, 正以衣冠致隔耳. 魏國必纓冕而至, 豈容見黜.’ 幼明又謂虜主曰, ‘二國相亞, 唯齊與魏. 邊境小狹, 敢躡臣蹤.’”

위 사신 파견은 479년 지두우 분할 계획을 기점으로 고구려와 북위 관계가 악화돼서 중단됐고, 고구려가 물길의 대 북위 사신 파견 통로를 차단했음을 보여준다.<sup>155)</sup> 하지만 484년 고구려와 북위 관계가 회복됐고, 485년 물길이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때 물길은 북위까지 기존 교통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고구려가 계속 지두우를 점령했다고 보긴 어렵다.

고구려의 지두우 분할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수왕 시기를 보면 480년 11월 말갈<sup>156)</sup>이 신라 북변을 공격했고<sup>157)</sup>, 481년 고구려가 말갈을 동원하여 소백산맥을 넘어 호명성(狐鳴城) 등 신라의 성 7개를 함락하고 오늘날 포항인 미질부(彌秩夫)를 공격했다. 이에 신라는 백제와 가야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를 격퇴했다.<sup>158)</sup> 신라의 성 7개를 함락했다는 점, 신라·백제·가야 연합군이 분산하여 고구려를 격퇴했다는 점에서 대규모 병력이 여러 곳에서 전투를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장수왕이 북방 외교에서 남진정책으로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고구려가 지두우 분할 계획을 실패하고 물길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이렇게 남진정책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지두우 분할 계획은 실패한 게 아니라 장수왕이 자의로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장수왕은 잠시 북방 정세를 안정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구려는 지두우 중심지인 과이심 우익중기와 그 일대를 점령했을텐데 이곳을 장기간 지배했을 때, 손해였을 것이다. 지두우는 고구려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고구려는 479년 지두우를 분할 점령했지만 484년 북위와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전보다 북위에 더 우대를 받았기에 이를 의식했을 것이다. 물길도 잠시 동안 위협되지 않았다. 이렇게 북방에서 안정을 누린 다음 남진정책에 주력할 수 있게 됐고 지두우를 직접 점령하기에 손해이므로 철수했을 것으로 보인다.<sup>159)</sup> 그 대

154) 『위서』 권100 열전 제88 물길국 “九年，復遣使侯尼支朝獻。明年復入貢。”

155) 이러한 고구려의 북위-물길 차단은 발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발해의 통제를 받던 흑수말갈이 단독으로 당나라와 교류하여 발해 세력권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양국의 동맹을 맺을 시 발해에 위협이 됐을 것이다. 이러한 당나라-흑수말갈 연결과 무왕 동생인 대문에 처분 문제를 두고 발해가 732년 장문휴를 시켜 등주(登州)를 공격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고구려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장문휴의 등주 공격 병력은 등주를 수비하던 병력과 비슷한 4천 명 이내로 보이며, 바다를 이용한 기습전술을 구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문윤수, 「732~733년 발해(渤海)와 당(唐) 전쟁의 전개 과정과 군사력」, 『동북아역사논총』 80, 동북아역사재단 169~179쪽 참고.

156) 이때 말갈은 고구려에 복속된 예(濊) 집단으로 본다(노태돈, 2003,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말갈의 실체」,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88쪽.).

157)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2년 “十一月，靺鞨侵北邊。”

15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3년 “三月，高句麗與靺鞨入北邊，取狐鳴等七城，又進軍於彌秩夫。我軍與百濟·加耶援兵，分道禦之。賊敗退。追擊破之泥河西，斬首千餘級。”

159) 시기는 떨어지지만 고려의 경우 1107년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 9성을 쌓았지만, 방비의 어려움, 여진의 반환 요구와 요나라의 개입 가능성으로 반환논의를 하게 됐다. 고려가 동북 9성을 쌓은 사실을 요나라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외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이후 동북 9성 신축을 요나라에 통보하는데, 요나라가 동북 9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여서 결국 고려가 1109년 동북 9성을 여진에 반환해줬다. 고려는 여진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자 자국의 시혜(施惠)라는 명분을 부각시킨 것이다(尹京鎮, 2017, 「고려 예종대 동북 9성 환부의 경위와 배경」, 『진단학보』 128, 진단학회 4~17쪽.). 고구려의 경우 고구려와 달리 북위 압박이 컸던 건 아니지만 북위가 남제 사신 다음으로 고구려 사신을 우대해준 것을 의식했어야 했으며, 멀리 있는 지두우를 계속 점령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연과 교류할 수 있는 교통로 확보라는 이점을 얻었을 것이다.

신 지두우 지역을 유연과 통하는 초원길로 활용하고 곡물을 무역하는 통로로 활용했을 것이다.

지두우는 479년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계획으로 동오주목심기로 중심지를 이동하게 됐고 550년 동위에 사신을 파견한 것<sup>160)</sup>을 끝으로 보이지 않다가, 지두우의 뒤를 이어 사료 ㉔-3에서 보다시피 601년 습으로 등장하게 됐다.

고구려는 북위와 관계를 개선하여 북방에서 잠시 안정을 취할 수 있어서 남진정책에 주력할 수 있었고, 지두우 점령 자체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철수하게 됐다. 하지만 물길이 부여를 병탄하게 됐고 그로 인해 다시 물길과 상쟁하게 됐다. 지두우를 계속 분할점령하지 않았지만, 대흥안령 일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연과 교섭하는 초원로를 개척하게 됐고 유목민의 필수 식량인 곡물을 수출하여 이득을 볼 수 있었다.

#### IV. 맺음말

고구려는 유연과 함께 서로의 이득을 위해 지두우 분할 계획을 실행했다. 양국이 분할 점령하고자 했던 지두우의 상대 위치는 동쪽으로 실위·물길·고구려, 서쪽으로 유연, 남쪽으로 고막해·거란, 북쪽으로 오락후와 맞닿아 있었다. 이를 지형으로 설명하면 동쪽으로 작이하·눈강·도아하·교류하를 연하는 도남 일대, 서쪽으로 석림곽특하 또는 오랍근곽특하 지류, 남쪽으로 시라무렌하, 북쪽으로 도아하를 연하는 곳에 있었다. 지두우의 중심지는 대흥안령 산맥 중단에 있는 광림곽특과 과이심우익중기 일대로 찰로특기에도 일부 분포했을 것으로 보이며 한 곳이 아니었다.

고구려는 물길의 발흥으로 그들과 상쟁하게 되었는데 물길이 북위와 연결하여 북방을 위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진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유연은 송나라와 일찍부터 협력하여 북위와 상쟁하는데 여성 가한 때 북위에 공격과 화친을 동반한 화전양면전술로 잃어버린 요서지방 영유권을 탈환하고자 했다. 고구려와 유연은 북연 멸망을 계기로 430년대 말에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북위 견제 목표로 고구려의 주도로 유연이 동참하여 479년 3월 유연과 지두우 분할 계획을 합의하여 8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했다. 그 결과 과이심우익중기 일대는 고구려가, 광림곽특 일대는 유연이 차지하여 고구려는 잠시 동안 물길의 북위 사신로를 차단하였고 북위와 관계가 악화됐으며 그곳에서 양, 명마 등 가축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유연과 통하는 교통로를 확보하여 유연에 곡물을 수출할 수 있었다. 유연은 명마를 얻고 고구려 곡물을 사서 전투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으며, 남제와 연결하는 한편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며 침략하진 않았다. 지두우 분할 계획으로 지두우는 동오주목심기로 피란했고

160) 『위서』 권12 효정기 제12 “春正月甲戌，地豆于·契丹國並遣使朝貢.”

그곳에서 고막해와 북위를 약탈하게 됐다. 북위는 남제와 유연 견제를 우선시 하면서도 고구려에 경고하는 선에서 주의하며 사신을 우대해준다. 고구려는 물길-북위 연결 차단으로 잠시 북방에서 안정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남진정책을 추진하면서 북위의 고구려 사신 우대, 장기간 지두우 지배가 곤란하여 484년 즈음 그곳에서 철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두우를 잠시 동안 유연과 분할 점령하고 끝났지만 유연과 교섭하는 초원로를 유지해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장수왕 시기 지두우 분할 배경:  
지두우의 위치와 세력 범위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회

백다해(동북아역사재단)

장수인 선생님의 본 발표는 『魏書』 契丹傳에서 확인되는 479년 高句麗와 柔然의 地豆于 분할 모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이 실제 이루어졌으며, 이때 지두우의 위치가 분할의 중요한 배경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두우 분할 모의의 실상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분할 대상이었던 지두우의 거점이나 활동 범위, 나아가 고구려와 지두우를 연결하는 교통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았음을 고려하였을 때, 역사적 사건에 공간감을 불어넣어 입체적 이해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고구려와 유연이 분할을 모의한 배경부터 구체적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의 완결성을 갖추었습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견해에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한 점을 질문함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논의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 지두우의 중심지 이동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①실위 서쪽 천 여리에 있다는 『위서』 지두우국 기록, ② ‘오락후국은 지두우 북쪽에 있다’ 는 오락후국의 위치를 근거로 당초 지두우의 중심지는 大興安嶺山脈 산맥 중단, 구체적으로 霍林郭勒~科爾沁右翼中旗 일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479년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지두우는 東烏珠穆沁旗로 중심지를 옮겼다고 보았는데요. 거란이 북위로 옮겨간 정황으로 보아 지두우도 거점을 옮겼을 가능성은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중심지를 대흥안령산맥 중단으로 본 두 가지 근거는 거리, 방위 등 관념적이고 상대적 요소들로, 지두우의 중심지를 비정하는 근거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본문에 제시한 지두우와 靺(白靺)의 관계, 습의 거점에 대한 『舊·新唐書』의 기록을 고려하면, 중심지를 다수의 연구자들이 비정한 烏珠穆沁旗 烏拉根郭勒河 일대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만약 지두우의 중심지가 이동하였다고 본다면, 어떠한 상황을 상정하는 것인지, 또 그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2. ‘군사 동맹’, 용어의 적절성

본 발표문에는 고구려와 유연의 관계(27쪽), 그리고 북위와 물길의 관계(14쪽)를 ‘군사 동맹(military alliance)’으로 간주하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세력 간의 관계를 ‘군사 동맹’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고구려와 유연의 관계는 『위서』 백제전에 기록된 ‘或南通劉氏, 或北約蠕蠕, 共相脣齒, 謀陵王略’을 근거로 합니다. 이는 백제가 북위에 보낸 표문의 일부로, 백제는 고구려가 宋(劉氏), 柔然(蠕蠕)과 긴밀한 관계였음을 언급하며 북위에게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와 유연의 관계는 ‘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約’의 용례를 참조해보건대 이는 양국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盟約을 맺은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바로 군사동맹으로 치환시켜 볼 수 있을지는 숙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북위와 물길의 관계 역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발표문에서 다루는 470년대는 물길의 사신 파견을 계기로 양국 간의 교섭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물길과 북위는 고구려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국의 관계가 ‘군사 동맹’까지 발전하였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군사 동맹’이라는 용어가 고구려와 유연, 그리고 북위와 물길의 관계의 긴밀함을 묘사하는 동시에 대립하는 두 진영의 갈등 및 충돌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용어의 선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3. 고구려와 유연의 對지두우 군사 활동

발표자는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군사작전의 타임라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 3월 - 고구려의 對북위사행, 지두우 분할 계획, 유연과 모의
- 8월 - 고구려와 유연의 對지두우 군사 활동 개시
- 9월 - 고구려와 지두우의 對북위사행, 고구려는 북위의 정세 탐색,  
지두우는 고구려-유연의 침략 소식을 북위 조정에 알림
- 11월 - 지두우에 대한 두 번째 군사 활동

우선 고구려와 유연의 對지두우 군사 활동이 8월과 11월 이전, 두 차례였다고 파악하였습니다. 만약 8월에 지두우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었고, 지두우가 9월에 이를 북위에 고하였다면(이때 거란도 북위 조정에 관련 사실을 고하였다고 봄), 11월 북위의 南征이 감행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고구려와 유연의 군사 연합은 북위의 북방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었

습니다. 또한 이들이 실제 군사작전을 감행한 지두우 일대는 북위의 동북방 거점인 營州(現 朝陽市)의 正北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곳을 고구려-유연이 차지할 경우 북위로서는 동북방 방비를 재고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북위는 11월 남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11월 이전 고구려와 유연의 모의는 있었을 수 있으나 실제 군사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그 이후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4. 기타 제언

- 1쪽, 馮弘의 망명은 436년입니다. 438년은 고구려에 있던 풍홍이 송으로 재망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죽임을 당한 해입니다.
- 2장에서는 지두우의 공간범위와 중심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모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의 도입부에 지두우의 공간 범위를 비정하는 것의 필요성, 혹은 중요성이 서술된다면 해당 작업이 가지는 의미가 살아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왕홍범은 高帝, 즉 蕭道成的 명을 받아 유연에 사신으로 간 인물입니다.<sup>1)</sup> 발표자는 그가 478년과 483년 총 두 차례 유연에 사신으로 간 것으로 서술하였습니다(21쪽; 28쪽). 그러나 그는 승명 2년(478) 유연에 사신으로 갔다가 영명 원년(483)에 귀국하였습니다.<sup>2)</sup> 발표자가 인용한 『자치통감』의 기록에도<sup>3)</sup> ‘驍騎將軍 왕홍범이 유연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지나온 길이 3만여 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술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1) 『남제서』와 『남사』, 『자치통감』에서는 그의 이름을 왕홍범으로 전하나 『양서』에는 왕홍계로 기록되어 있다.

2) 『南齊書』 卷59 列傳40 芮芮虜, "... 昇明二年, 太祖輔政, 遣驍騎將軍王洪範使芮芮, 剋期共伐魏虜. 建元元年八月, 芮芮主發三十萬騎南侵, 去平城七百里, 魏虜拒守不敢戰, 芮芮主於燕然山下縱獵而歸. 上初踐阨, 不遑出師. ... 永明元年, 王洪範還京師, 經途三萬餘里. 洪範, 齊郡臨淄人, 為太祖所親信."

3) 『자치통감』 권135 남제기1 무제 영명 원년(483), "八月, 庚申, 驍騎將軍王洪範自柔然還, 經塗三萬餘里."